

내용을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어서
최종 원고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인물』

2014. 9.

『울산의 인물』 1편 - 울산 출생 인물

강기형(姜祺馨, 1876~1940)

독립운동가. 본관은 진주.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언양시장에서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강문필(姜文必, 1872~1953)

독립운동가. 본관은 진주.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언양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 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答) 90도(度)를 선고받았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강우운(姜友雲, 1879~1966)

불교인. 본관은 진주.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출생. 본명은 재민(在玟). 당호는 우운당(友雲堂). 아호는 향산(香山).

만황(萬璜)의 둘째 아들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세가 기울자 1895년 석남사에서 승려가 되었다. 이후 은혜사, 표충사 등지에서 10여 년간 수도하였다. 1911년 석남사 주지로 취임하고 다음해 심인(心印)스님과 함께 석남사를 중수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석남사 주지를 역임하고 1921년 통도사 감사(監事)로 취임한 후 1928년 3월 환속(還俗)하였다. 4월 상남면과 하북면이 상북면으로 통합되어 산전리에 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석남사 사찰림을 벌목하여 직접 설계와 감리를 겸하였다.

1931년 5월 면협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1936년 9월 향산회관을 신축하여 거쳐하면서 야간학교를 설립, 교사 2명을 두고 문맹자(文盲者) 40여 명을 개명시켰다. 일제의 불교 탄압으로 면내 각 사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심적암·연등암·내원암·백운암·동인암 등 5개 암자를 석남사로 통합하고 부대시설 일부를 증축하여 쇠락한 사세(寺勢)를 회생시켰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강인수(姜麟秀, 1936~1999)

사회활동가. 본관은 진주.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출생.

1965년 경북대학교 정치학과와 1968년 수의학과를 각각 졸업하고 삼남면 교동리에서 경남가축병원을 운영하였다. 1970년 김정봉·정원태·배상섭·이성근·최희정 등과 언양재건중학교(야간)를 설립하여 가난한 청소년들을 교육하였다. 1980년 상북학원 이사, 1985년 한국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 부회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울산지부 중앙위원을 역임하는 등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1987년 언양신용협동조합장, 1990년 경남수의사회장, 1991년 『신앙전래이백년사-언양천주교회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1995년 언양권지역발전협의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8년 6월 제4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저서로 『오늘의 농촌-왜 못사는가?』(1987)가 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강정택(姜鎭澤, 1907~납북)

농림경제학자. 본관은 진주. 남구 달동 출생.

아버지는 대한제국 울산 병영 부위(대대장급)였던 강영수, 어머니는 이유송이다. 12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를 졸업한 후 외삼촌인 이종하의 도움으로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도쿄제일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경제학과에 진학하였다. 방학 때는 울산으로 와서 야학을 열어 지역사회 계몽 운동에 나섰다. 1933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연구원 자격으로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 소속되어 조선의 농촌경제를 연구하였다.

1936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학생들이 달리마을(울산읍 달동)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농민의 경제상태와 위생상태를 연결시켜 파악하는 연구를 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때 민속학자들도 합류하여 달리마을의 생활용구와 민속품, 촌락민속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동아농업연구소의 촉탁으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의 농경작업 관행

및 노동공정의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1945년 12월 미군정청에 의해 경성대학의 법문학부 경제학과 농업정책 담당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학과 전문대학의 1대1 통합에 반대하며 반년만에 사직하고 조선사회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농업문제연구위원회를 맡아 북한식의 토지개혁을 주장하였다. 이후 제2대 농림부 차관(1948년 9월~1949년 3월)으로 임명되어 농지개혁안을 입법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자 사임한 후 농사시험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국경제연구소를 세워 농업정책을 연구하였다. 6·25전쟁 때 서울 원서동의 동서집에 숨어지냈다. 1950년 7월 2일 책을 가지러 제기동 자택에 들렀다가 인민군 2명에게 연행되어 납북되었다.

【참고자료】

『문화일보』 (2008.10.14), 『농수축산신문』 (2010.3.4)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강정택 지음, 이문웅 엮음, 2008

『울산과 달리』, 울산박물관, 2014

강철(姜徹, 1895~?)

언론인. 본관은 진주. 울주군 언양 출생.

1920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울산지역 사회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5년 4월 26일 김문성과 함께 친밀과 협동을 공고히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단행한다는 강령을 발표하면서 '성우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5월 9일 병영 오일회관에서 열린 울산군청년연맹 창립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6년 울산기자단 창립 때 김기오·박병호와 함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울산기자단은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민중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시대일보 지국장으로 울산기자단을 이끌었다. 1927년 울산지역 유지와 청년단체들의 청년운동 통일을 위해 울산청년동맹 창립에 참여하였다. 해방 후 동구 출신 좌익인사들과 자주 만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익에 앞장섰다. 6·25전쟁 전후 좌익으로 몰려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자료】

『울주문화』 13집, 울주문화원, 2013

경성당 휴옹(慶聖堂 休翁, 1488~1568)

조선 전기 승려. 울주군 온양읍 발리 출생. 속명은 장일선(張一禪). 호는 휴옹(休翁), 선화자(禪和子), 경성당(慶聖堂), 경성(敬聖), 광성(廣聖).

아버지는 윤훈(胤韓)이며, 어머니는 ○○박씨이다. 어머니가 명주(明珠)를 삼키는 꿈을 꾸고 낳았다. 일찍이 양친을 여의고 삼년상을 치르면서 세상의 무상함을 보고 담박하고 욕심이 없는 것에 뜻을 두었다. 13세가 되자 단석산에 들어가 3년간 해산법사(海山法師)에게 의지하다가 1503년(연산군 9) 16세에 불교에 귀의하였다. 1511년 24세 때 묘향산

문수암에서 고행·정진하였다. 얼마후 지리산에 들어가 지엄(智嚴)에게 지도를 받아 활구(活句)를 깊이 연구하였다. 그 뒤 금강산 시왕동[十王洞]에서 좌선하다가 오도(悟道)하였다. 이로부터 항상 경절문(經截門)의 연구를 사용하였다. 그 뒤 서산에서 9년 동안 은거하다가 1544년에 묘향산 보현사 관음전에 머물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이때 의웅(義雄) 등 문인들이 당(堂)을 세우고 경성(敬聖)이라 하였다.

1568년 2월 30일 제자들에게 “모든 인자(仁者)들은 정념(正念)을 가지고 애착을 품지 말며, 또한 속(俗)을 따라서 쓸데없이 일을 떠벌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자신의 시체를 새와 짐승에게 먹이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긴 다음 단정히 앉아 입적하였다. 나이 80세, 법랍(法臘) 65세였다. 제자로는 의웅(義雄)·의변(義卞)·선등(禪燈)·일정(一精)·성준(性峻) 등이 있다.

목판으로 발간된 그의 『경성당문집』은 웅촌면 고연리 운흥사에서 발견되었는데, 현재 통도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동사열전(東師列傳)』 『청허당집(淸虛堂集)』

『조선불교통사』, 이능화, 1918

『울산문화연구』 창간호, 「경성당 휴옹 행록의 역주」, 김송태, 2008

『온양읍지』,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고곤(高崑,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제주. 북구 가대동 출생.

부장(部將) 세평(世平)의 아들이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통례원(通禮院) 주부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원(員)의 일원(員)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고기룡(高基龍, 1878~ 1947)

독립운동가. 본관은 제주.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출생.

1919년 4월 8일 남창리 장날 독립만세 시위를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현장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6월 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편, 2001
『온산읍지』, 온산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고기업(高基業, 1901~1972)

기업인. 본관은 제주. 호는 난정(蘭庭).

대구교남학교를 졸업하였다. 울산읍장, 울산읍의회 의장, 대한주조연합회 중앙회장, 한국국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울산양조회 사장, 울산상공회의소 초대회장, 울산문화방송주식회사 사장,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광도상사 사장, 울산시정자문위원장, 경상남도정치자문위원, 울산문화원 이사장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1928년 차용규, 박준화 등과 설립한 울산양조회사 이윤의 상당 부분을 유치원이나 노동야학 등에 지원하였다. 1964년 1월 6일, 지역 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정부로부터 울산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상의회관 건립을 위해 중구 성남동 자신의 땅을 당시 시가의 반으로 상의에 제공하였다. 1973년 제4대 집행부가 출범할 때까지 3대에 걸쳐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울산상회가 종합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데 초석을 다졌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32.11.6)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울산상의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고복수(高福壽, 1912~1972)

가수. 본관은 제주.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울산 일신보통학교 4학년 때인 1922년 경남 동래군 동래면 수안동으로 이사를 갔다. 동래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제2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축음기와 같이 살다시피 할 만큼 노래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다. 1933년 콜럼비아레코드가 주최한 콩쿠르 부산대회에 출전하여 1등으로 입상하여 경상남도 대표가 되었다. 1934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최종 결선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오케사의 이철과 전속가수로 계약을 맺고, 1934년 금능인(金陵人) 작사·손목인(孫牧人) 작곡의 「타향」(후일 「타향살이」로 개칭)과 「사막의 한」을 불러 인기가수가 되었다. 1939년까지 오케레코드사의 전속가수로 활약하면서 「 짝사랑」 「휘파람」 「이월애곡(梨園哀曲)」 「풍년송(豊年頌)」 등을 불러 인기

가 절정에 달하였다.

1940년부터 빅타레코드의 반도악극좌로 옮겼다. 1941년 빅타레코드 전속가수이자 「알뜰한 당신」의 인기가수 황금심과 만나 1941년에 결혼하였다. 1942년 이후 「풍년송」을 부부가 열창하였고,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도 활동하였다. 광복 후 전옥(全玉)이 주관하던 백조악극단의 주요 단원으로 활약하였다. 6·25전쟁 때는 북한군에게 체포되었다가 탈출하기도 하였다. 1957년 8월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가수생활 25년을 결산하는 은퇴공연을 가졌고, 1959년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자리) 5층에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학원인 동화예술학원을 개설해 이미자·안정애 등의 인기가수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은퇴 이후,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여 생활이 어려웠다. 1959년 극영화 「타향살이」를 제작했지만 흥행에 실패하여 서적 외판원 등으로 전전하였다.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다 1972년 62세에 세상을 떠났다. 맏아들이 트로트 가수 고영준, 둘째 아들이 트로트 가수 고영민, 셋째 아들이 작곡가 고병준이다. 둘째 며느리 손현희도 대학가요제 출신의 가수이다.

고복수의 가요인생을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울산고복수가요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1991년 10월 17일 울산 중구 동헌 앞에 고복수노래비가 세워졌다.

【참고자료】

『한국가요반세기』, 세광출판사편집부, 1975

『가요60년사』, 황문평, 1983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한국 가요사』 1, 박찬호, 2009

고연관(高彦寬,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제주. 북구 가대동 출생.

임란 때 일가인 고처겸과 함께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으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의 사절(死節) 10원(員) 중 일원이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고원준(高源駿, 1943~2013)

기업인, 정치인. 본관은 제주. 중구 북정동 출생.

기업인 기업(基業)의 손자이고, 조흥은행장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지낸 태진(台鎭)의

아들이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제5공화국 시절 제1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한국 J·C부회장, 민정당 과학기술분과위원장, 대한씨름협회 회장, (주)한주 대표이사 사장,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2002한·일월드컵 문화시민운동울산협의회 회장, 울산인터넷데이터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제12대~14대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기업의 전자 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울산신항만 조기 건설 추진, 국립대학 설립,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1980년대 초반 울산에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에 발맞추어 성남동에 오우션호텔을 건립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신분여하를 떠나 기부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말년에 공금 횡령으로 구속되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병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어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던 중, 생을 마감하였다. 평소 유언에 따라 콩팥 등 장기를 기증하였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1980.11.14), 『울산매일』 (2013.3.5)

『울산상의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고처겸(高處謙, 155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제주. 북구 가대동 출생. 자는 문겸(文謙). 호는 이성현(二省軒).

예빈시참봉 극중(克中)의 아들이다. 1592년 임란이 일어나자 4월 23일 동지 박진남, 김응방, 심환, 박응정, 이한남 등과 기박산성에서 결진·편대하였다. 경상좌병영 탈환전에 좌위장(左衛將)으로 추대되어 공을 세웠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9월 8일 경주성 탈환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1593년 2월 관문성을 지키던 경주 의병장 황희안으로부터 왜병이 침공한다는 연락을 받고 울산 의병장 김흡·김범 등과 의병을 이끌고 관문성으로 달려갔다. 경주 의병장 이의잠·최봉천 등과 합세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다.

1598년 도산성전투에 참전하여 마귀(麻貴) 휘하에서 공을 세웠다. 이때의 공으로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원으로 배향되었으며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북구 중산동 이화마을에 묘소와 후손들이 지은 이사정(二思亭)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고태진(高台鎭, 1921~2003)

기업인. 본관은 제주. 북구 가대동 출생.

기업인 기업(基業)의 아들이다. 부산상업고등학교, 일본 주오대학교, 연세대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상업은행에서 행원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상업은행 상무이사, 제일은행 전무이사, 제21대 조흥은행장, 전국마을금고 이사장, 대한체육회 이사 및 KOC 위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아세아축구연맹회장, 한국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체육진흥재단 이사, AFC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70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인 청룡팀의 단장을 맡아 ‘킹즈컵’에 연이어 우승을 이끌어 “한때 잃었던 한국축구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말을 들었다. 1973년 대한축구협회 제 26대 회장을 맡았다.

금융업계에 몸담고 있을 때는 업무추진 능력이 남달라, 1969년 5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엄하면서도 원만하고 스피드하게 일을 처리하며 대인관계도 명확한 선(線)이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였다. 조흥은행장 재임시절 손해를 보더라도 부실요인은 과감히 제거하고, 금융정상화에 발맞추어 인사체질도 쇠신한 열정적인 금융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아버지가 “은행장이 되면 돈 쓸 일이 많을 테니 한 달에 1백만 원씩 주겠다. 대신 은행돈은 네 목숨과 같이 알고 한 푼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조언해 금융업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1969년 재경울산향우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을 맡아 후학들을 지원하였다. 국민훈장 동백장,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1969.5.1), 『동아일보』 (1972.4.8),
- 『경향신문』 (1970.11.27, 1972.4.29), 『한국경제』 (2003.2.2)
-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곽해진(郭海鎭, 1888~1939)

사회활동가.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출생.

언양의 유지이자 선각자로 언양지역의 3·1운동을 사전에 주도하였다. 천도교 울산교구 제3대 교구장, 제2대 삼남면장(1933.12~1934.10) 등을 역임하였다. 김효동과 중남사립 보통학교(현 중남초)를 설립하고, 1926년 작천정 환매입 등 작천정 일원 벚꽃길을 개설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호적부 등본정리에 공이 많고, 조선일보 언양지국장을 지냈다.

【참고자료】

- 『부산일보』 (1939.6.3)
-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편, 2001
- 『울주삼남지』, 삼남지발간추진위원회, 1998
-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역사와 경계』 87,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 정계향, 2013

구하당 천보(九河堂 天輔, 1872~1965)

근·현대 승려. 본관은 경주.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출생. 속성은 김씨. 계명(戒名)은 천보(天輔). 법호는 구하(九河), 자호는 축산(鷲山).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1884년 13세 때 출가하여 양산 천성산 내원사에서 행자생활을 하였다. 경월도일(慶月道一)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890년 19세에 예천 용문사에서 경학과 참선을 공부하였다. 1896년 구족계를 수지(受持)하였고, 성해당 남거(聖海堂 南居)스님의 전법제자가 되어 ‘구하’라는 법호를 받았다. 1908년 명신학교(현 하북초)와 입정상업학교(현 부산해동고), 통도중학교(현 보광중)를 설립하여 교감·교장을 역임하였다. 불교중앙학림(현 동국대) 학장을 맡아 후학 양성과 마산 대자유치원, 진주 연화사유치원, 울산 동국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어린이 교육에도 힘썼다.

1919년 임시정부 국무총리인 안창호가 보낸 밀사에게 5천원, 경성 화신공보 사장 초월동조(初月東照)에게 2천원, 지암 종욱(鍾郁)에게 군자금으로 3천원, 독립운동가 정인섭에게 1천원 등 1만3천원의 독립자금을 지원하였다.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 대표자 12인 선언서에 성월 등과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 밖에 백산상회 안희제와 범어사 김상호를 통해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하였다. 1920년 3월 의춘상회(의춘신탁)를 설립해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1920년 4월 동아불교회를 설립해 항일불교운동을 시도하였다.

1911년 11월부터 1925년 8월까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고, 1917년 1월부터 3년간 삼십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을 지냈다. 마산 포교당 정법사(1912), 언양 화장사(1927), 울산 포교당 해남사(1936), 양산 포교당 반야사(1940) 등 10개소 이상의 포교당을 설치하여 부처님의 전법을 전하였다. 역경사업을 위해 통도사·해인사·범어사 세 곳의 힘을 모아 해동역경원(海東譯經院)을 설립하였다. 유교와 한시, 서예에 조예가 깊어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한시와 유묵(遺墨)을 남겼다. 자재(自在)한 운필(運筆)을 특징으로 하는 글씨로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 경주 불국사, 남해 용문사 등 여러 곳에 편액을 남겼다.

1949년에는 중앙불교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1965년 10월 3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94세. 법랍 82세였다. 전 종정 월하(月下)스님 등 30여 명의 출제자가 있다.

1988년 문손(門孫)들이 구하스님의 시문과 금강산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 『축산문집(鷲山文集)』과 『금강산관상기(金剛山觀相記)』를 출간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제일일보』 (2013.5.15)

『울산의 옛이야기』 II, 이수봉, 2013

『울산학연구』 6호, 「울산 사찰 문헌자료 조사연구」, 최선일, 2011

통도사(<http://www.tongdosa.or.kr>)

권기술(權琪述, 1938~2011)

정치인. 본관은 안동. 울주군 언양읍 평리 출생. 호는 중산(中山).

제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국회 예결위와 건설교통위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KTX울산역 유치와 울산신항만 건설, 울산국립대(현 UNIST) 유치, 울산~상북간 일반국도 24호선 확장공사,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신설, 울산~밀양간 국도 24호선 개설, 언양~경주간 국도 확장, 울산 남구 삼산지구 침수대책 등 울산의 SOC(사회간접자본) 기반 시설 확충 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으며, 낙후된 농촌 근대화를 위해 농민의 편에서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97년 땅 일부를 평리경로당 부지로 기증하였다. 경로당 마당에 2012년 7월 고향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국가와 지역발전에 헌신한 공덕을 기리는 송덕비를 세웠다.

【참고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박채은) 조사 자료

권석운(權奭運, 1900~1943)

독립운동가. 본관은 안동. 중구 병영1동(남외동) 출생. 호는 심천(心泉).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편, 2001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김경(金愨, 1683~1747)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범서읍 사연리 곡연마을 거주. 자는 자의(子義). 호는 관서정(觀逝亭).

우은(于隱) 김자간(金自幹)의 후손이다. 부인인 학성이씨와 결혼하면서 현재의 사연리 토골마을 관서정에 정착하였다.

『학성지』 형승(形勝) 조(條) 곡연(曲淵) 편에 ‘곡연은 울산부의 서쪽 30리에 있는데, 푸른 벼랑과 맑은 못으로 경계가 그윽하고 깊다. 관서정이 있는데, 선비 김경(金愨)의 거처이고...(후략)’라고 기록되어 있다. 울산도호부사 권상일의 『청대일기(淸臺日記)』에

‘1737년 3월 26일 관서정의 주인인 김경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김경은 1700년대 중반에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곡연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비였음을 알 수 있다. 관서정을 짓고 주로 곡연과 대곡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울산의 학문을 전승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칭대일기』

『울산부읍지』, 1902

『언양읍지』, 언양읍지발행추진위원회, 2001

김경수(金卿洙, 1892~1968)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족보 이름은 정기(正沂). 자는 현가(賢可). 호는 농암(叢巖).

명현(鳴軒) 지(志)의 7세손이다.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선고받았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김교경(金敎慶, 1871~1933)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출생.

1913년 최해규 초대 교구장의 뒤를 이어 제2대 천도교 울산교구장이 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면서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천도교계 비밀신문)를 필사하여 울산교구로 보냈다. 『국민회보』에서 고종의 독살사건과 그 원인에 대해 서술하고 국내의 이천 만 동포가 모두 독립을 위해 쫓겨날 것을 주장하였다. 3월에 상경한 이규장 등에게 「독립선언서」를 전해주고 만세운동을 도모할 것을 지시하여 언양지역 3·1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천도교인들의 위촉된 교단을 재정비하기 위해 1920년 울주군 상북면 거리에 사설강습소인 양정학원 건립에도 참여하였다. 양정학원은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향반을 비롯하여 청년회 단체,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그 자리에 「양정학원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병영초등학교 일백년사』, 2011

『역사와 경계』 87,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 정계향, 2013

김교홍(金敎洪, 1906~1987)

사림(士林).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출생. 자는 경직(景直). 호는 석정(石亭).

중추원의관 찬희(璨熙)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언양읍 남부리에 거주하였다. 선비로서의 품행이 단정하였다. 언양향교의 직원(直員) 및 언양유도회(彦陽儒道會) 회장, 양정학원(養正學院) 학우회장, 경주 숭혜전(崇惠殿)과 죽현릉(竹現陵) 참봉, 성균관 부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언양향교 중수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지』, 울산울주지간행소, 1971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교회(金喬喜, 1771~1834)

천주교인. 본관은 경주.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출생. 교명은 프란치스코.

고려 말 형조판서 상촌(桑村) 자수(自粹)의 후손이다. 오한우와 언양지역의 첫 천주교 신자로 정약전·정약중·정약용 형제와 권일신·황사영 등 한국 천주교 창설자들로부터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고 영남 일원에 신앙의 불씨를 붙였다.

아들 상은(商垠)·손자 영제(永濟)·손녀 아가다 등 일족이 모두 독실한 천주교인이다. 직동리에서 많은 노비를 거느린 이족(吏族)이었으나, 상북면 등억리로 피신하여 첫 순교자 오한우의 가족 및 경주이씨 등과 간월신자촌을 형성하였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을해교난(1815) 때 영남지역 신자들이 대거 피신을 와서 간월공소(澗月公所)를 이루었고, 여러 교인들과 함께 이천리(배넛골) 죽림굴의 대재공소를 이루었으나, 1834년 관에 체포되어 사형되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규현(金揆鉉, 1923~1996)

사진작가.

1967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부에 입회(데뷔)하여 제4~6대 지부장, 1980~1981년

1월까지 한국예총 울산지부장을 지냈다. 1979년 4월 울산 명다방과 1988년 10월 울산 제일다방에서 개인사진전을 개최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사진촬영 대회와 합동사진전에 참여하여 두각을 드러내었다. 1984년 6월 1일 제18회 전국사진촬영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4월 10일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로상, 1980년 6월 1일 울산시민의 장(문화예술장 부문), 1984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예총발전 공로상), 1990년 10월 20일 경남예술인상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김규흡(金圭翕, 1812~1860)

천주교인. 본관은 청도.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순정공소(尊亭公所)의 첫 신자로 언양을 중심으로 천주교 전파에 힘을 쏟았다. 평소 한약을 지으면서 생계를 이었는데, 경신박해(1860) 때 대구 약령시에 약재를 구하러 갔다가 관헌에게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되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금복(金今福, 155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북구 호계동 거주.

임란 당시 태화강전투, 성황당전투, 마등오전투 등의 기록이 전한다. 특히 태화강과 성황당전투에 대한 기록은 『선조실록』 권9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유재란 때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군은 서생포와 울산으로 물러나 있었다. 11월 초 기요마사의 군과 접전하여 아군은 큰 전과를 올렸다. 이 무렵 적들은 울산, 양산 등지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으므로, 경상좌병사 성윤문은 훈련원판관인 이경연 등을 장수로 삼아 경주부윤 박의장, 울산군수 김태허, 언양현감 김흔 등에게 전령하여 거둬 다잡하였다. 특히, 성황당전투에서 매복을 통하여 적의 선봉과 그 휘하의 군사를 크게 무찔러 목 벤 것이 24급(級)이었다. 태화강과 개운포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을 상대로 김막실·박순동·오수량·지수 등과 힘껏 싸웠다.

호적에 ‘관이 주부(主簿), 후손이 서문내리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 녹권239쪽에 ‘시노[寺奴] 김금복’으로 등재되어 있다. 선무원종3등공신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선무원종공신녹권』

김기(金琦, 1564~166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출생. 자는 군현(君賢). 호는 병산(兵山), 이우재(二憂齋).

증호조참판 춘원(春元)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언양에서 경주로 진격하는 왜병을 열박산 일원에서 격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기수(金基守, 1931~1997)

기업인.

울산상공회의소 제7대~8대 회장(1982~1987)을 역임하였다. 1982년 남구 신정동에 현재의 울산상의 회관을 건립하고, 1985년 (사)울산개발을 설립하였다. 효문중소기업단지 조성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추진하였다. 울산항 방파제축조공사, 국도 및 산업도로 확·포장, 울산비행장 재취항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기업경영 현안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주)태화관광호텔 대표이사, 현대모드니백화점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김기오(金琪午, 1900~1955)

언론인.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출생. 호는 우석(愚石).

1900년 11월 8일 언양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 언론인으로, 청년운동가로, 민족주의자로, 출판인으로 나라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1926년 울산기자단을 창립하였다. 당시 울산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울산청년연맹과 울산군청년연맹의 통일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20년대 말 신간회가 만들어지면서 합쳐졌다. 언양을 중심으로 청년활동, 순회강연을 통한 주민 계몽운동에 나섰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때 우리나라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1926년 감시망을 피해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양산인쇄소를 설립한 후 일제에 저항하는 인쇄물을 찍다가 다시 일제경찰의 탄압을 받아 서울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결국 1년 뒤 체포되어 동대문 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 두 다리를 못쓰게 되었다. 1931년 출판사 고헌당(苦學堂)을 설립하고, 1936년 문화당(文化堂)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문화당이 우리나라 교육출판문화의 바탕이 된

대한교과서의 전신이다.

1948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를 창립해 『뽕나무 가꾸기』 『누에치기』 등의 중등교과서 6종과 『우리나라의 발달』 『초등 그림책』 등 초등교과서 11종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또한 ‘우석장학회’를 설립하여 교육 인재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육영사업을 시작하였다. 언양에 중·고등학교 교실 여러 채를 세웠고, 대한인쇄고등기술학원을 창립하여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수십 명의 고아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어주기도 하였다. 이후 6·25전쟁 중에는 부산으로 회사를 이전하여 전시교재 4종 12책을 생산·납본하는 등 교육사업을 계속하였다.

또한 교육 전문지 『아동교육』 과 『조선교육』, 어린이 계몽지 『소년』의 잡지를 제작 지원하여 발간하였다. 1954년 현대문학사를 설립하여 월간문학지 『현대문학』을 발간하였다. 지령 700호를 넘어선 이 잡지는 우리나라 최장수 문학잡지로 대한민국의 현대문학사이다.

【참고자료】

- 『한국인쇄대감』, 한국인쇄대감편찬위원회, 1969
- 『대한출판문화협회가십오년사』, 대한출판문화협회, 1972
- 『대한교과서사 1948~199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 『울주문화』 13집, 울주문화원, 2013

김낙수(金洛綬, 1880~1919)

독립운동가. 본관은 김녕.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출생. 다른 이름은 낙수(洛洙).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작업으로 체포되었다.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6월 2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68년에 대통령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편, 2001
-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녹수(金錄水,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김해.

선무원종공신1등 윤복(允福)의 사촌동생이다. 임란 때 윤복을 따라 창의하여 경주성 탈환전에서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만도 15원(員)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보

(章甫)였으나 뒤에 통정대부에 올랐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대위(金大渭, 1484~1554)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김해. 북구 연암동 출생. 호는 반와(盤窩).

절효공(節孝公) 김극일(金克一)의 증손으로 성종 때 판관(判官)을 역임하였다. 연암동에 살았는데, 집 앞에 작은 바위가 있고, 그 아래 옥정(玉井)이라는 연못이 있었다. 1532년(중종 27) 이 곳에 한 포기(蓮)이 겨우내 두 송이의 흰 꽃을 피워 올리자 구경꾼이 줄을 이었다. 이로 인하여 집 앞 바위를 백련암(白蓮岩)이라고 하고 이후 여기에 군자정(君子亭)을 건립하였다. 1548년 종조제(從祖弟)인 삼족당(三足堂) 김대유가 기문(記文)을 찬술하였다.

이 곳의 백련암은 고려말 정포가 읊은 울주팔경 중의 하나인 ‘백련암’과 이름이 동일하고 위치도 비슷하여 같은 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울산광역시사』 2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산수를 품에 안은 누정』,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센터, 2011

김덕남(金德男, 1919~1945)

독립운동가. 다른 이름은 김성천(金成川).

1934년 11월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시 시모쿄쿠구의 철공소에서 직공으로 근무하였다. 이때 일본인으로부터 민족 차별을 겪으면서 항일민족의식을 키웠다. 1940년 6월 같은 처지에 있던 동료 김두만, 제약회사 직공인 유귀복 등과 뜻을 함께 하고, 백두산을 근거지로 삼아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독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약화된 틈을 노려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해 9월 11일 재차 회합을 갖고 김두만을 국내로 보내어 독립운동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서두르게 하고, 귀국 후의 연락방법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일제경찰에 발각되어 거사를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1942년 9월 26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8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독립운동사재조명위원회, 2008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덕지(金德摯, ?~?)

울산김씨 시조.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이다. 『증보문헌비고』와 『조선씨족통보』에 의하면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에 봉해져서 울산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신라 말~고려 초 울산고을의 여러 곳을 식읍(食邑)으로 받아 울산을 본관으로 삼았다. 935년(경순왕 9) 10월에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신라를 양위하려 하자 형인 일(鎰, 마의태자)과 함께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정확한 행적은 알 수 없다. 그 후 누대가 실전(失傳)되었다가, 그의 14세손 환(環)이 고려 충숙왕 때 삼중대광(三重大匡) 정1품으로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지고, 문숙(文肅)이란 시호를 받았다.

【참고자료】

『증보문헌비고』 『신라김씨 선원록』

『한국인의 성보』, 한국인의 성보 편찬위원회, 1986

김도현(金度賢, 1973~2006)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대 블랙이글스 소속 군인. 북구 강동동 신현마을 출생.

울산옥성초등학교와 울산제일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울산학성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을 맡았다. 1992년 3월 2일 공군사관학교 제44기로 입교하여 4년 후 공군소위로 임관하였다. 1997년 6월 2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전투조종사로 시작하여 2005년 2월 14일 최정예 전투조종사로서 8전투비행사 제239특수비행대 블랙이글스 멤버가 되었다. 55회의 에어쇼에 참가하는 등 총 950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하며 조국영공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임무수행 중 순국하였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잡고 있던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고인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살신성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06년 5월 7일 정부는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하였고 공군 소령으로 특진하였다. 모교인 학성고등학교에 흉상이 세워져 있고, 김도현공군소령추모사업회에서 해마다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합참의장상, 작전사령관상, 작전사령관 공로표창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김동조(金東祚, 1918~2004)

정치인. 본관은 언양. 호는 해오(海吾).

1943년 일본의 규슈[九州]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시절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일본 후생성(厚生省)과 내무성(內務省)에서 근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과 한국 사이를 오가며 일본에 징용된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일본인들에게 밀고하였다. 나중에 일본은 그를 승진시켜 한국인들에게 식량과 다른 지급품들을 배급하는 전시 책임을 맡겼다.

광복 후 이승만 정부에서 외무부 정무국장을 거쳐 외무부차관, 초대 주일대사 및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수석대표로 한·일 수교를 주도하였다. 1973년 외무부장관,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김대중 납치사건, 10월 유신 등 정치적 격동기에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1등 수교훈장,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저서로 『회상 30년 한일회담』, 『한일의 화해』 등을 남겼다.

【참고자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201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김득례(金得禮, 1562~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북구 양정동 출생. 자는 의칙(義則). 호는 양와(楊窩).

증조 천익이 울산군 하부면 양정으로 입향하였으며, 사복시정 상국(相國)의 아들이다. 1584년(선조 17)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에 이르렀다. 임란 때 향인 박언복, 인립 부자와 함께 창의하고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다. 경주와 울산의 여러 전역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1593년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여 태화강 사수를 결의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조·명연합군이 도산성을 공격할 때 경주 관문성 부근 당진에서 아우 득의, 아들 준민과 함께 적을 맞아 싸우다가 6월 6일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어모장군 훈련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1862년(철종 13) 가선대부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고 다음해 다시 병조판서로 가증(加贈)되었다. 1906년 경주 사림의 공의(公議)로 경주 외동읍 활성리 활성사에 제향되고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묘소는 북구 양정동 북은산에 있으며, 유집으로 『양와실기』가 전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양와공실기』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막실(金莫實, 156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선조실록』 권94, 1597년(선조 30) 11월의 기록에 분전(奮戰)한 내용이 있다. 당시 서생포와 울산으로 물러나 분탕(焚蕩)을 일삼던 왜병들을 무찌르기 위해 경상좌병사 성윤문은 훈련원판관인 이경연 등을 장수로 삼아 경주부윤 박의장, 울산군수 김태허, 언양현감 김흔 등에게 전령하여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태화강과 동천이 만나는 성황당 일원에서 매복을 통해 적을 무찔렀고, 태화강과 개운포에서 진격해 오는 적과도 교전을 벌였다. 참획하였던 적의 머리가 매우 많았으나 7급(級)만을 올렸다고 한다. 이때 김막실은 박순동 · 오수량 · 지수 · 김금복 등과 분전하였으나 총상과 수적인 열세로 일시 후퇴하였다.

선조 30년 11월의 기록에는 ‘김막실(金莫失)’로, 공신녹권에는 ‘수문장 김막실(金莫實)’로 되어 있다. 충의사의 심의 서류에 ‘김막실(金莫失)의 본은 김해이고, 울산 남면 온양리(溫陽里)에 거주한다. 명종 갑자년(1564)에 태어났고, 관은 부장(部將)이라는 호적이 있다. 현종대의 호적대장에 김막실(金莫實)의 후손이 사청리(射廳里)에 거주한다.’로 기록되어 있다. 선무원종3등공신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김만중(金萬重, 1918~1996)

기업인. 본관은 경주. 언양읍 어음리 출생. 호는 서우(瑞宇).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60년 4월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삼도물산을 창립하여 국내 최초로 의류 수출의 길을 열었다. 당시 천우사와 국내 봉제품 보세가공수출에 주력하여 1963년 80만 달러, 1965년 270만 달러, 1973년 3,500만 달러로 고도성장을 거듭하였다. 1974년 9월 지퍼공장을 건립하였고, 1979년 11월 의류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수출 1억불을 수상하였다.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수출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5차례나 받았으며, 1968년 동탑산업훈장, 1976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77년 제14회 수출의 날에는 수출업체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79년부터 삼도종합개발 및 삼도종합건설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80년 삼도물산 창립 20주년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경쟁력 약화와 해외집적투자 실패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해 1995년 12월 법정관리가 개시되었다. 2000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M&A로 그해 12월 (주)에스비파이낸스코리아에 인계되었다. 이로 인해 2002년 2월 회사정리에 대한 절차가 종결되었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1979.1.22, 1980.4.17, 1995.12.13), 『한겨레신문』 (1996.7.6)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김문성(金文星, ?~?)

언론인.

1925년 5월 동아일보 울산지국의 총무기자로 있다가 8월 조선일보의 지국장이 되었다. 울산성우회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7년 울산수리조합 반대성명을 작성할 때 상무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28년 울산유아단 기성위원회에서 서무위원을 맡았으며, 1929년 울산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노동문제와 천도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25.5.1, 1925.5.25, 1927.12.16., 1928.11.3, 1929.11.24)

『조선일보』 (1925.8.9)

김반수(金礪守, 1570~162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어릴적 이름은 반수(礪壽).

1590년 식년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창의하여 무훈을 세워 1599년(선조 32) 훈련 원부정에 제수되고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수문장으로 1616년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올랐다. 울주군 삼남면 작괘천의 마애비에 음각되었고, 동향공신들의 추모제당인 삼남면 교동리 원모사(遠慕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묘소는 삼남면 방기리 매봉산에 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방한(金邦翰, 1635~1698)

조선 중기 유학자. 본관은 경주. 부산 기장군 산막동 출생. 자는 공점(公漸). 호는 오정(鰲亭).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追贈)된 윤룡(潤龍)이고, 아버지는 경유(慶裕)이다. 1678년(숙종 4) 무오(戊午)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 3등 62위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과에 응하지 않고 향리에 은거하여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육경과 제자백가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특히 『주역(周易)』에 밝았다. 『주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7년간 원적산(圓寂山) 적수암(滴水庵)에 들어가 연구하여 『주역집해(周易集解)』를 완성하였다. 당시에는 이 책을 간행하지 못하다가 1918년 후손 김시준이 간행하였다. 1678년(숙종 4) 이정례 등과 구강서원을 세우는데 힘을 쏟았으며, 몽암(蒙庵) 이채와도 증유(從遊)하였다. 문집으로 『오정선생일고(鰲亭先生逸稿)』(1911)가 전한다.

【참고자료】

『오정선생일고』 『이휴정선생문집』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사준(金士俊, ?~1597)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김해. 북구 연암동 출생. 호는 백련거사(白蓮居士).

성균진사 반와(盤窩) 대위(大渭)의 증손이고 통정대부 상호군 전(荃)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차남 상근(尙根)과 사촌형제 응택(應澤)·응량(應良)과 함께 창의하였다. 정유재란 때 울산 도산성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순절하였다. 뒤에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울산 창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상수(金祥洙, 1921~1994)

중구 북정동 53번지 출생. 호는 신부(信夫).

1939년 일본 오사카 명정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1944년 독립군 군자금 조달과 태극기 혈서사건으로 부산형무소 독방에 투옥되었다. 1945년 모진 고문으로 사경을 헤매다 해방되면서 석방되었다. 1946년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1949년 조선해탄공업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1977년 시멘트 사업인 성신양회를 운영하였다. 1997년 경제인연합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1976년 고향 울산에 주식회사 한국탱크터미널, 1978년 진성레미콘, 1985년 코리아 스파이서 등의 회사를 설립 운영하여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1986년 울산 중구 북산동에 성신학원을 설립하여 성신고등학교를 지어 울산 교육에 공헌하였다.

【참고자료】

『경상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외경제』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1994.8.22)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하라」 (신부 김상수 회장 일대기) 팜플릿

성신고등학교 내 신부기념관

김상우(金相宇, 1888~1962)

유학자. 본관은 고령.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출생. 다른 이름은 상천(相天). 자는 경일(景一). 호는 응재(凝齋). 시호(詩號)는 단산(丹山).

임란 창의의사 송호(松湖) 김연(金演)의 10대손이며, 아버지 행호(行浩)와 어머니 학성이씨의 4남 1녀 중 넷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7세에 숙부 검려(儉廬) 양호(養浩)로부터 학문에 입문하여 27세에 사서삼경을 독파하였다. 심재(深齋) 조공섭의 문하로 남도의 석학으로 문명이 높았다. 퇴계학과, 남명학과와 교류하면서 성리학, 주자학을 두루 섭렵하고, 후학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한의학을 펼쳐 한방으로 주민들을 보살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전국 백일장에 참가하여 장원을 하였던 일화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백일장 입상 작품을 100선(選) 하여 100권의 책을 만들었다. 여기에 글이 실려 전국의 각종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다. 웅촌면 검단리에 단산정사(丹山精舍)가 있었는데 소실되어 없어지고, 현재 후손들에 의해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경주, 울산지역에 상량문, 기문, 묘갈명, 행장 등이 많이 남아 있다. 집으로 『응재유고(凝齋遺稿)』 5권(1979)이 전하고, 『고양세헌(高陽世獻)』 (1922)을 편집하였다.

【참고자료】

『응재유고』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김상은(金商垠, 1804~?)

천주교인. 본관은 경주.

언양지방 첫 천주교 신자 교회(喬喜)의 아들이다. 순교자 영제와 아가다의 아버지로 정해박해(1827) 이후 박해를 피하여 여러 곳으로 유랑하다가 상북면 등억리 간월골에 정착하였다. 간월공소와 대재공소(죽림굴) 등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석보(金錫保, 1928~1998)

향토사학자. 본관은 김해. 북구 어물동 금천 출생. 호는 금곡(琴谷).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신흥대학교(현 경희대) 법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부산 동양나염공업사 설립 대표, 서울 삼조산업(주), 강릉 성풍탄광(주) 상무이사 등 회사 중역을 역임하였다. 1963년 한국연예인협회 창작분과 작사회에 입회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1967년 대표작 「방랑삼천리」를 작사하여 널리 애창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이 된 후 1987년 한국연예인협회 울산지부 고문으로 추대되기까지 각종 문화활동과 함께 30여 편의 노랫말을 작사하였다.

1966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향토사연구에 몰두하여 1976년 『울산울주향토사』 집필위원, 1979년 7월 울산울주향토문화연구회를 창립하고 『울산유사』를 발간하였다. 1981년

회지 『향토』 를 창간하고 문화유적을 답사·발굴하여 보존과 홍보 교육에 힘썼다. 1983년 이유수와 울주군 향토지 『내 고장의 정기』 를 집필하고, 1984년 경상남도사 편찬위원,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울산의 전통·역사·지리·민속 등을 발굴 정리하여 대내외에 알리는데 앞장섰다.

1982년 제7회 울산시민의 장과 1983년 제22회 경상남도문화상(지역문화개발부문)을 수상하였다. 2000년 10월 후학들에 의해 동구 주전동 신리마을 바닷가 도로변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79.6.19), 『경향신문』 (1983.6.25)

「금곡 김석보선생 추모비문」

『향토』 창간호, 울산울주향토문화연구회, 1981

『울산시사』 , 울산시, 1987

김석한(金錫漢, 1890~1948)

정치인. 본관은 안동.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출생. 자는 극로(極老).

궁내부주사 태진(泰鎭)의 아들이다. 경성측량신숙(京城測量新塾)을 제3회로 졸업하고, 언양군농업축산양과강습(彦陽郡農業畜産兩科講習)을 수료하였다. 1922년 여러 향사(鄉士)들과 3·1만세운동으로 폐쇄된 거리의 천도교 울산교구실을 증축하여 양정학원을 개교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상북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다. 상남면 최후의 면장으로 재임 중 1928년 4월 하북면과 합쳐 상북면이 되었을 때 상북면 초대(1928~1936) 및 제4대 면장(1945~1946)을 역임하였다. 1934년 12월 언양면에서 농산물 새끼가마니 판매, 산업용 기계·기구 구매, 창고 작업장 이용을 목적으로 언양산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장이 되었다. 학교평의회 평의원, 상북면협의회원을 지내었다. 해방 이후에는 상북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으로서 상북지역 우익 세력의 구심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을구에 입후보하였다가 선거 직전에 세상을 떠났다.

【참고자료】

『직원록』 , 조선총독부, 1928~1935

『조선은행회사조합요강』 , 1935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 「죽거나 사퇴한 후보자들」 , 1948.5.4.

『상북면지』 ,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학연구』 제4호, 「농지개혁 전 울주군 상북면의 토지소유와 소유권 변동」 , 하유식, 2009

김선(金鑾, ?~?)

언양김씨 시조.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闕智)의 28세손인 김부(金傅, 신라 제56대 경순왕)와 낙랑공주 왕씨(태조 왕건의 딸)의 일곱 번째 아들이다. 김부의 8세손 취려(就礪)가 고려 고종 때 거란군의 침입을 막아내고, 한순(韓琣), 다지(多知) 등의 반란을 평정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워 수태부(守太傅)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판이부사(判吏部事)에 이르러 언양군(彦陽君)에 봉해졌다. 후대에 와서 그를 소원(溯源)시켜 시조로 삼았다.

【참고자료】

『한국성씨보감』, 은광사 편집부, 2000

김선일(金善日, 1880~1910)

독립운동가. 중구 병영1동(남외동) 출생.

정용기(鄭鏞基)의 의진(義陣)에 가담하여 경남 울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4~190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러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처의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이 같은 시기에 평소 반일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중 정용기의 의진에 가담하였다.

을사조약 다음해인 1906년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복상할 것을 결심한 정용기 의병장은 경북 영천으로 내려가 통유문과 격려문을 각계각층에 보내어 함께 의병에 참가하기를 권고하고 총궐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인원을 배치하여 의거 진행계획에 따른 연락활동을 맡게 하였다. 특히 그는 정용기의 의진에 종군하면서 일제 핵심인물 제거와 핵심시설 방화 등 적극적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10년 1월 18일 대구공소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그러나 3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성진(金聲振, 1883~1952)

정치인. 본관은 경주. 울주군 출생.

우계당(友溪堂) 순(洵)의 후손이다.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를 졸업하고 1932년 일본 오사카 나니와중학[浪速中學] 속성과를 수료하였다. 1922년 울산소작인상조회 이사를 지내고, 1923년에 설립된 울산성지보존회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경상남도도평의회 의원으로 있었으며, 울산국유지소작조합 회장을 지냈다. 1929년 조선박람회 경상남도협찬회 간부로도 활동하였다. 도평의회에서 각 군 농업보습학교 설치 장려, 항만수축, 수산학교 설립 등을 주장하고, 청년회관 수리 및 이전, 유치원 설치, 노동야학 상설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기성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35, 1939년 울산읍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930년대에는 울산의생(醫生)협회장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황성신문』 (1905.7.29),

『동아일보』 (1923.7.20, 1923.10.18., 1927.3.3, 1927.4.4, 1927.11.19., 1928.1.6, 1931.8.1, 1932.4.3, 1935.6.2, 1939.5.24),

『조선일보』 (1923.11.6)

『일제강점기 울산성지보존회와 학성공원』, 고현우, 2012

『역사와 경계』 81, 「근현대 울산지역 장시변동과 지역질서의 재편」, 허영란, 2012

김성탁(金成鐸, 1922~2007)

정치인. 본관은 김해. 중구 병영 출생. 호는 풍곡(豊谷).

일본 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신흥대학교(현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풍곡탄광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광산을 운영하였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울산군을(제24선거구)지역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시 자유당 경남도당위원장이었다던 이용범이 선거지원을 하였다. 국회의원 출마 배경은 당시 제3대 국회의원이었던 정해영이 풍곡탄광주식회사를 차지하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당선 이후 자유당 중앙위원 겸 정책위원을 맡았다. 4·19가 일어난 후에 부정선거로 공민권제한을 받았다. 이후 민주공화당에 편입하여 제6~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61.1.31, 2007.4.30)

『전국주요기업체명감』, 대한상공회의소조사부, 1956

『전국기업체총람』, 대한상공회의소조사부, 1958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약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김호연·박제균·양상현, 2007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현, 2013

대한민국헌정회(<http://www.rokps.or.kr>)

김송근(金松根, 1901~1957)

독립운동가. 본관은 김해. 중구 병영2동(동동) 출생. 호는 소석(素石).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4월 22일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答) 90도(度)를 선고받았다. 2002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수리(金秀理,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선무원종공신2등인 순경(順卿)의 아우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동해안으로 침입하는 적을 공암·하서·석읍·우산 등지의 요로(要路)에 복병하였다가 기습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주부(主簿)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수선(金壽善, 1911~1972)

정치인. 본관은 광주(廣州).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출생.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조선교육연구회 총무, 문화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이후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1948년 5월 10일 제헌선거에 출마하여 출신지인 언양을 기반으로 울산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후에는 무소속 교섭단체인 신정회(新政會)에 합류하였다. 초기에는 민족자결, 도의국가, 균등사회, 국방강화를 언급하고, 화폐개혁 및 대통령책임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이후, 대통령책임제로 인한 민폐가 크다고 판단하고 헌법을 내각책임제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외에 지방자치법 수정 법안을 내놓으며,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갑구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무소속 의원으로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을 비판하였고, 호헌동지회의 선전간사로 활동하였다. 1955년 자유당 입당 이후에도 내각책임제 개헌을 계속 주장하다 1957년 제명을 당하였다. 제4대·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963년 민정

당에 입당하여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1963.1.14, 1963.2.25, 1972.7.25)
- 『대한민국인사록』, 내외홍보사, 1949
-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약력』, 한국정경사, 1967
-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현, 2013
- 대한민국헌정회(<http://www.rokps.or.kr>)

김순경(金順卿, ?~1593)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자는 운로(雲路). 호는 송오(松塢).

훈련원정 양선(楊善)의 아들로 명종 때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아들 응남(應南)과 같이 개운포로 나가 진을 치고 고치겸, 윤홍명, 김흡 등과 합세하여 화공(火攻)과 투석전(投石戰)을 펼치는 등 분전하여 많은 적을 물리쳤다. 울산읍성으로 진을 옮겨 9개월이나 성을 고수하고 태화강과 동천에서 싸워 크게 이겼다.

1593년(선조 26) 8월 이점수와 같이 부산으로 적을 추격하다가 유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때 아들에게 “살아서 적의 포로가 되는 것보다 죽어서 적을 치는 귀신이 되겠노라”는 말을 남기고 절명하였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 첨정에 제수되었다.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부자(父子)를 제향하는 충효단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순곤(金順坤, 1912~1966)

독립운동가. 본관은 김해. 북구 출생. 다른 이름은 장경문(張敬文), 임노수(林路樹), 양엽(楊葉), 장문화(張文華).

울산공립실업보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중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과 연계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일제경찰의 수배를 받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가담하였다. 1934년 김원봉이 세운 난징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교하여 전술, 폭탄 제조, 사격 등 군사학 전반을 습득하였다. 1935년 7월 민족혁명당에 당원으로 입당하는 한편, 남경으로 이동하여 김원봉으로부터 항일투쟁의 활동방법과 수단 등을 교육받은 후 중국 상해로 파견되었다.

1936년 8월 14일 군관학교 동기생 김병화·김학무·김과 등과 중국 상해의 일본총영

사관을 폭파하기로 결의하고 프랑스 조계 환룡로(環龍路) 태흥방(泰興坊)에서 폭탄 2개를 완성하였다. 3개짜를 제조하다가 폭발하여 중상을 입고 프랑스 공부국(工部局)에 체포되어 8월 21일 상해의 일본총영사관 경찰부로 인계되었다. 1937년 1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및 폭발물취체규칙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 1941년 2월 4일 출옥하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아가다(金아가다, 1836~1860)

천주교인. 본관은 경주.

천주교 신자 교회(喬喜)의 손녀이자 영제(永濟)의 여동생이다. 경신박해(1860)로 아버지 상은, 오빠 영제가 체포된 후 많은 고생 끝에 죽림굴(대재공소)에 숨어 살게 되었다. 당시 죽림굴에는 간월공소를 순회하며 전교하고 있던 최양업 신부가 박해를 피해 기거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최양업 신부를 돕다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최양업 신부의 서한집에 당시의 참담한 정황과 함께 김아가다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김언원(金彦元,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녕.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출생.

임란 때 아우 인원(仁元)과 함께 창의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출신(出身)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 판관으로 제수되었다. 울주군 삼남면 작괘천의 마애비에 석각되었고 동향공신들의 추모제당인 삼남면 교동리 원모사(遠慕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여경(金麗慶, 1569~1635)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출생. 자는 선경(善卿).

사복시정 응량(應良)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창의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1599년(선조 32) 10월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뒤에 예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대안리 옥여재(玉如齋)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영제(金永濟, 1827~1876)

천주교인. 본관은 경주.

김영제는 오한우와 함께 이른 시기에 천주교를 수용했던 교회(喬喜)의 손자이고 상은(尙垠)의 아들이다. 1860년 경신박해로 한 차례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 1866년 병인박해 때 다시 대재공소(죽림굴)에서 다른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중죄인으로 서울까지 압송되었으나, 국가에 경사가 있어 석방되었다. 이후 상북면 덕현리 안살티에 정착하여 살티공소를 설립하고 회장을 맡았다. 1876년 1월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살티공소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동생 아가다와 함께 묘소가 조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김용한(金龍翰, 1738~1806)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언양읍 송대리 거주. 자는 운익(雲翼). 호는 염수헌(念睡軒).

김당(金戇)과 풍천임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789년(정조 13) 식년시 진사 3등 62위로 합격하였다. 1791년 응제(應製)로 뽑혀 정조로부터 술·종이·떡·붓 등을 하사받았다. 당시 언양현과 울산도호부의 여러 문인들과 교우하였으며, 특히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다. 1912년 증손 김순집(金順集)이 편집·간행한 『염수헌문집(念睡軒文集)』은 학문과 정신 세계, 당시 시대상과 지역사 연구에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문집에는 자신의 생을 회고한 「자경(自警)」, 당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자신의 삶을 노래한 「고시발분우증이개령(古詩發憤又贈李開寧)」, 정조가 경연에서 중국 북위(北魏)의 시관 최호가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글인 「강목강의(綱目講義)」, 1784년(정조 8) 『문신강의(文臣講義)』를 교정하고 정조에게 종이·쌀·떡·붓 등을 하사받은 일을 기록한

「감은록(感恩錄)」, 영남지방 교임(校任) 이의표와 재물을 마련하여 선비를 양성하고 선비들이 지켜야 할 규약을 기록한 「현중양사조약(縣中養士條約)」, 환곡·호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방역전(防役錢)을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향사당게판문(鄉射堂揭板文)」 등이 실려 있다.

【참고자료】

『송정3기유식년 사마방목(崇禎三己酉式年司馬榜目)』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운봉(金雲峰, 1893~1950)

독립운동가. 울주군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 언양시장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시위 후 체포되어 부산지청 검사분국에서 태(笞) 90도(度)를 선고받았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원규(金元奎, 1924~1995)

정치인. 본관은 김해.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출생. 호는 도원(道園).

유년시절 반구대서당에서 모암(慕巖) 이용창에게 한문을 배웠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공무원 생활과 사회활동을 하였다. 어업회사 대표, 울산 흥농주식회사 대표, 언양잠사주식회사 대표직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정계에 입문하여 1973년 2월 27일 제 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회 상공분과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울산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학교법인 상북학원 이사장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대한불교천태종 전국 신도회 회장을 맡아 밝은 사회 구현운동에도 앞장섰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김원룡(金元龍, 1899~1967)

독립운동가. 본관은 김녕.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출생.

유학자 효동(孝東)의 아들이다. 1919년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중남사립보통학교(현 중남초) 초대 교원, 중남면장(1925~1932), 초대 삼남면장(1933)을 역임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기자로도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1923.8.8, 1923.12.18, 1925.6.17)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32~1934)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편, 2001

『울주삼남지』, 삼남지발간추진위원회, 1998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원집(金元集, 1863~1953)

교육자. 본관은 경주.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출생. 호는 동산(東山).

일제강점기인 1915년을 전후하여 개화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재를 회사하여 구량리 460번지에 보신학원(普新學院)을 설립하였다. 구량·차리·천전·반곡·다개·평리·서하·인보·전읍 등 인근 마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신학문을 가르쳐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개교 10년 되던 해에 공민(公民)학교가 설립되면서 보신학원은 폐교되었다. 두서면의 2대·5대 면장을 지냈다.

1904년 경주에서 미국선교사 맹의와(盟義窩) 목사의 노상설교를 듣고, 감화·감동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1905년까지 두동면 천전리 장천마을에서 천전교회 초대 영수인 김석곤의 딸들을 전도하였으며, 이웃을 전도하다가 교회설립을 결심하게 되었다. 동지들을 규합하여 맹의와 목사의 참석 하에 1906년 1월 29일에 천전리 541번지에서 예배를 올리고 천전교회를 설립하였다. 저서로 『동산유고(東山遺稿)』가 있다.

【참고자료】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울산의 교회 이야기』 회보 제4호, 2014

김응남(金應南, 1570~?)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김해. 자는 천상(天祥).

선무원종공신2등 순경(順卿)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창의하여 싸웠다. 1593년(선조 26) 8월 의병장 이겸수와 힘을 합해 부산 방면으로 추격하던 중 아버지가 유탄을 맞고 순절하자 격분하여 죽음으로써 보국(報國)할 것을 맹세하며 싸웠다. 임란

후 통훈대부 군자감정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응량(金應良, 1554~160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출생. 다른 이름은 응량(應亮). 자는 연명(連明).

울산 입향조 참봉 변(璠)의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들 여경, 마을 장정들과 창의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제수되었다. 뒤에 공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응룡(金應龍,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녕. 울주군 언양읍 출생.

울주군 삼남면 작괘천의 마애비에 그 이름이 남아 있다. 『선무원종공신녹권』에 선무원종공신2등으로 벼슬은 사복(司僕)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향공신들의 추모제당인 삼남면 교동리 원모사(遠慕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응룡(金應龍, 1901~1919)

독립운동가. 본관은 김해.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창암(蒼岩).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일본 군경이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감행할 때 선두에서 다른 3명의 동지와 함께 순국하였다. 1982년에 대통령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김응방(金應方, 155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북구 연암동 출생. 다른 이름은 응방(應邦). 자는 충언(忠彦). 호는 송은(松隱).

용양위부사과 한석(漢碩)의 아들이다. 임란 때 울산읍성과 경상좌병영성이 함락되자 우국지사 심환 · 고치겸 · 박진남 · 이한남 · 박봉수 · 박응정 · 장희춘 등과 결전을 맹약할 때 우제군(右提軍)에 임명되었다. 5월 5일 경주 의병장 견천지 · 류정 · 류백춘의 의병 500여 명과 합세하여 경상좌병영성을 탈환하는데 공을 세웠다.

1594년 1월 양천교전투에서 울산, 경주, 영천 등 여러 고을 의병장들과 합세하여 왜병 수백 급을 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 그의 아버지 한석이 순절하였다. 4월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 훈련원판관이 되었다. 정병(正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응복(金應福,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임란 때 울산군의 관원으로 참전하였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10원(員)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겸사복(兼司僕)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응상(金應祥, ?~1583)

조선 중기 무신. 본관은 언양. 중구 태화동 말응정(현 명정) 출생. 자는 서백(瑞伯).

현감 덕윤(德潤)의 아들이다. 1578년(선조 11)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임무를 띠고 명나라에 간 주청사(奏請使) 황림(黃琳)의 종사관이 되어 연경에 다녀왔다. 그 뒤 왕으로부터 비변사에 인재 천거령이 내렸을 때, 곽홀(郭屹)에 의해 뽑힌 바 있다. 병마절도사에 올라 함경도지방을 노략질하던 여진족을 막다가 순절하였다. 좌부승지에 추증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수정실록』 『직산읍지』
『학성지』, 1749

김응진(金應珍,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당산마을 출생.
참봉 연보(鍊甫)의 아들이다. 임란 때 많은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의현(金義鉉, 1898~1921)

독립운동가.

서울 오성학교 출신으로 3·1운동 후 고향인 울산에서 광복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일제경찰에게 발각되어 만주로 피신하였다. 1919년 9월 만주에서 조직된 대한독립단 본
부 유격대원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9월 중국경찰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복역한 후 이기
춘 · 김서순 · 김원호 · 김이태 등 동지 22명과 함께 일제경찰에게 인도되어 피살, 순국
하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2권, 국가보훈처, 1996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인수(金仁洙, 1930~1991)

서양화가. 본관은 김녕. 중구 학산동 출생.

해방 후 경주예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울산농림고(현 울산공고) 미술강사로 재직
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동란 직후 미술분야의 천재동 · 박기태 · 이수원 ·
오영재, 문학분야의 김태근 · 이상숙 · 박상지 · 정해상 · 박태을 · 박숙경 · 김교한 등과
시화전, 시낭송회, 향토시화릴레이전 등을 2년여 동안 개최하였다. 1955년 김태근이 경
영하는 백양문화사의 『백양』 지에 컷을 그리는 등 울산 화단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
다. 그후 안동사범학교 전임강사로 전직하면서 울산을 떠났다.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안동사범학교, 안동교육대학 교수, 1979년부터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미술학과장을 역임하였다. 개인전 4회, 미술협회전, 수채화협회전, 교수작품전, 해외전, 각 초대기획전, 그룹전 등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1988년 4월 초순 박기태, 이수원, 이달우 등과 함께 KBS 울산방송국 사옥준공 기념 '향토작가초대전'에 출품하였다. 한국수채화협회 창립회원, 신미술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경상북도 도전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과 한국미협 안동지부장, 한국미협 경북도지회장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김임식(金任植, 1923~2010)

정치인.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거남마을 출생.

1943년 도쿄전기전문학교와 1952년 건국대학교 정치과를 졸업하였다. 1962년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1973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953년 부산 개성중학교 교감, 1961년 밀양 무안중학교와 초동중학교 교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1966년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동의중학교를 시작으로 동의공업고등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동의대학 부설 동의의료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교육입국과 의료봉사체제를 통해서 교육·사회발전에 평생을 기여하였다.

정치에 입문하여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8·9·10대 국회의원으로 공화당 부총무, 재무분과위원장을 수행하는 등 의정활동 18년간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울산공업도시건설사업과 경제발전에 남다른 애향심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일본동해대학과 일본 국사관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문화대상 교육봉사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녹조훈장과 건국공로훈장을 서훈받았다. 저서로 『숲이 우거지면 새가 날아든다』가 있다.

【참고자료】

『우천문고』, 이병직, 2012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한국인물사』, 대한민국인물사편찬위원회, 1988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동의대학교(<http://www.deu.ac.kr>)

김장룡(金章龍, 1926~?)

독립운동가.

1944년 3월 부산 제2공립상업학교를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로부터 일본 해군 제51항공장에서 항공기 제작·수리를 위해 중견간부 공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응시하였다. 1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경남 진해에서 하숙하며 항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이때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항공창 내 한국인 공원들에게 일제 패망을 역설하고 민족의식과 정신무장을 독려하였으며, 태업(怠業)을 선동하였다. 1944년 7월 일본군에게 붙잡혀 진해경비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광복과 함께 출옥하였다. 2007년에 건국포장이 수여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장수(金長壽, 1887~1952)

독립운동가. 본관은 김해. 중구 병영2동(동동) 출생. 호는 유암(裕岩).

1919년 4월 4~5일 양일간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재수(金在洙, 1900~1949)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동동) 출생. 호는 일야(一野).

1919년 4월 4~5일 양일간 울산군 하상면 병영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재호(金在湖, 1920~1975)

사회활동가. 본관은 청도.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상남도 보건과장직을 역임하였다. 울산시내 중심가인 옥교동에서 ‘대동의원’을 운영하였다. 신의가 두터운 명의(名醫)로 영국신사로 통하였다. 어렵고 가난한 환자에게 무료 진료를 통해 선행을 베풀었다. 연세대 동문회장, 울산로타리클럽 초대회장으로 봉사하고 국제 민간외교에 기여하였다. 민주당 울산지구당 위원장직을 맡아 울산의 정치, 사회 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김정련(金貞連,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주부 경(慶)의 아들이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울산부호적대장』에 ‘선무원종공신으로 벼슬은 훈련원정이며 후손은 온양 고산방 공수리에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부호적대장』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정원(金正元, 1880~1952)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유학자 명헌(鳴軒) 지(志)의 후손이다.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5권 , 국사편찬위원회, 1992

『상북면지』 ,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좌성(金佐性, ?~?)

사회활동가.

오덕상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울산을 대표하는 부자였다. 울산농고를 건립할 때 거금을 희사하였다. 동아일보 1932년 11월 6일 기사에 ‘울산청년회관 건립에 4천원, 1938년 4월 8일 기사에 울산공설운동장 건설에 2천원을 희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국회를 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김홍조를 도와 울산민의회를 구성하고 핵심부서인 회계부의 책임을 맡아 운동의 자금 모집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이후 김홍조와 함께 독립운동에 자금을 기부하였고 구포은행, 백산상회 운영, 조선해조회사 운영, 경남일보 창립에도 참여하였다. 김홍조가 별세한 뒤에 그가 맡았던 경남도 평의원을 계승하였다. 울산금융조합장, 조선소작인상조회 울산지회부회장, 울산성지보존회 부회장, 울산민우회 평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경상일보』 『조선일보』

『울산유사』 , 김석보, 1978

『울주문화』 제10집, 「1920년대 울산청년운동과 후원자 김좌성」 , 이양훈, 2010

김중원(金仲元, 1539~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북구 천곡동 출생. 자는 원숙(元叔). 호는 우천(愚泉).

훈련원판관 윤위(允渭)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장정 100여 명과 함께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병을 방어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1597년 9월 천사장(天使將) 이눌 등이 의병 800여 명과 대구 팔공산성에 포진하고 있을 때 여러 고을의 장수들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적을 무찌르다 9월 22일에 순절하였다. 후일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오위부장(五衛部將)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지웅(金知雄, 1940~2001)

교육자. 본관은 경주.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출생.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2년 2월 동의대 대학원에서 「형법상의 점유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남교육청 교육사,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하였고, 함양군 교육장과 울산교육장을 역임하였다. 1999년 4월 21일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근무하다 2001년 4월 집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나흘만에 숨졌다. 1984년 9월 첫시집 『허수아비』, 1987년 9월 두 번째 시집인 『토기(土器)의 환상(幻想)』을 발간하였다. 1990년 3월 『시와 비평』(봄호)에 시 「지리산」 「가을편지」로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황조근정훈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김지환(金知煥, 1917~1992)

사회활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자는 순백(淳伯). 호는 만성(晩醒).

유학자 독성당(獨醒堂) 선립(善立)의 종손이다. 1952년 향사(鄉士) 이갑중 · 이종천 · 정인수 · 박성목 · 정성찬 · 이종설 · 강종식 등과 함께 상북학원을 설립하였다. 초대 상북면의회 의원, 제14대 상북면장, 제16대 언양면장, 울산군 교육구교육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향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경주 숭혜전(崇惠殿) 참봉을 역임하면서 향풍의 교화에도 힘썼다. 삼일운동유공비(1975, 상북중학교), 양정학원유허비(1985, 거리), 선무원종공신추모비(1986, 작천정) 등의 건립에 업적을 남겼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향리에 많은 기문(記文)과 유묵(遺墨)을 남겼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찬희(金璨熙, 1880~1950)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출생. 자는 현익(賢益). 호는 청간(淸澗).

중추원의관과 언양향교 직원(直員)을 지냈다. 자신이 소유한 부를 활용해서 향내 극빈자의 호세(戶稅)를 여러 차례 대납하였다. 홀빈소(恤貧所)를 설치하여 가난한 향민을 도와주는 등 자선사업을 많이 하여 지역민들의 신망이 높았다. 1930년 6월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고향 마을 입구에 시은송덕비(施恩頌德碑)를 세웠다.

【참고자료】

- 『울산학연구』 4호, 「농지개혁 전 울주군 상북면의 토지소유와 소유권 변동」, 하유식, 2009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 편찬위원회, 1978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천해(金天海, 1898~월북)

노동운동가. 동구 방어동 출생. 본명은 학의(鶴儀).

불문에 입문하여 1916년 서울의 중앙학림에서 수학하였다. 1921년 동경에서 토목노동을 하며 일본대학 전문부 사회과에 입학하였다. 공부를 중퇴하고 1922년 여름 동경조선노동동맹회 결성에 참가하여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1월 동경에서 창립된 사상단체 일월회 회원이 되었다. 7월 요코하마시에서 카나가와현 조선합동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상무집행위원이 되었고, 1927년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6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 1928년 5월 중앙집행위원장 겸 쟁의부장이 되었다. 같은 달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일본총국 나부야채이카에 배속되었다. 감옥에서도 3·1운동 기념투쟁, 메이데이 투쟁 등 옥내 투쟁을 전개하였다. 1935년 12월 재일조선인노동자들의 계몽과 일본 인민전선을 실현하기 위해 동경에서 발간된 『조선신문』의 창립을 원조하였고, 지국 설립에도 노력하였다.

1937년 일본인민전선 탄압과 관련하여 검거, 투옥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2년 9월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경예방구금소에 구금되었다. 1945년 10월 출옥하여 비전향 일본공산주의자 6인과 일본공산당 확대강화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이 되었다. 1949년 9월 일본공산당에서 추방되어 1950년 원산으로 갔다. 이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교육부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앙선거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 『조선연감 1947~1948』
『북한인물록』, 국회도서관, 1979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강만길·성대경, 1996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재일조선인사연구(在日朝鮮人史研究)』 18, 「金天海について」,樋口雄一, 1988.10.
『신천지』 1~6, 「일본공산당의 조선사람 지도자 김천해」, 이청원, 1947
『우송조동결선생정년기념논총』 II, 「1920년대 재일조선인운동과 김천해」, 김인덕, 1997

김취려(金就礪, 1172~1234)

고려 후기 무신. 본관은 언양.

할아버지 언련(彦連, 일휘는 彦良)은 신호위중랑장(神虎衛中郎將)이고, 아버지 부(富)는 조정대부 금오위대장군 예부상서(朝靖大夫 金吾衛大將軍 禮部尙書)를 지냈다. 어머니 대부인(大夫人) 주(朱)씨는 검교장군행낭장(檢校將軍行郎將) 세명(世明)의 딸이다.

1172년(명종 2)에 출생하여 무관이 된 후 수차례 거란군을 물리친 공으로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1232년에 수재(首宰), 1233년에 시중(侍中)이 된 후 1234년(고종 21)에 생을 마쳤다. 시호는 위열(威烈)이며 고려 고종묘(高宗廟)와 숭의전(崇義殿)에 배향되었다.

거란이 몽고의 공격을 받아 1216년(고종 3)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북방지역으로 밀려오자 대장군으로 후군병마사가 되어 조양진(朝陽鎭)에서 물리쳤다. 연주에서는 장군 기존정(奇存靖)과 함께 앞장서 적군의 포위를 돌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만아들이 순절하였다. 다음해 거란군 5천여 명이 다시 고려를 침입하자 상장군으로 전군병마사에 임명되어, 거란군을 명주(현 강원도 강릉) 방면으로 패주시켰다.

1218년 병마사가 되어 서북면 원수 조충(趙沖)과 함께 거란적을 강동성으로 쫓아낸 뒤, 거란을 토멸하겠다는 명분으로 몽고군·동진국과 힘을 합쳐 강동성을 함락시켰다. 1221년 추밀원사 병부상서 판삼사사를 거쳐, 참지정사 판호부사가 되었다. 1228년 수태위 중서시랑평장사 판병부사가 되었으며, 그 뒤 시중에 제수되었다.

사람됨이 정직·검약하였으며, 군사통제에 엄격하고 공정하였다. 많은 공을 세웠으나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 사졸들은 물론 못사람들이 존경하였다. 정승이 되어서는 안색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이 감히 속이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충성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언양읍 송대리 화장산에 묘소와 재실 송릉재(松陵齋)와 태실(胎室) 유허비가 있다.

【참고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영남인물지』, 권경락, 2004

『고려명장 문하시중 위열공 김취려 사료집』, 언양김씨대종회, 2011

김치일(金致一, 1867~1911)

독립운동가.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출생.

1908년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기준 의병부대에 소속되어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하였다. 김기준은 언양읍 남부리 출신으로 의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활동하고 있었다. 1908년 6월 30일 김기준을 비롯한 의병 13명은 울산군 농소면 오정동에서 임달이(林達伊)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고 있던 중, 울산경찰분서에서 파견된 4명의 변장순사대의 기습 공격을 받고 김기준과 김치일이 체포되었다. 심문 결과 김기준의 지휘 아래 있던 의병들은 울산군 관내에서 11건의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속된 의병은 그를 비롯하여 김춘길·염덕로·허익건·박춘영·홍치언·박선일·송돌기·박선익·이모 등이었다. 그는 1911년 7월 29일 대구공소원에서 사형선고를 받

고, 그 해 9월 12일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였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태호(金泰鎬, 1935~2002)

정치인. 본관은 고령. 북구 천곡동 출생.

농서초등학교, 울산제일중학교, 울산농업고등학교(현 울산공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인천시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제2수석비서관, 경기도지사, 제12·13·15대 국회의원, 내무부장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국회정각회 회장, 1993년에는 불교방송 사장, 2000년에는 한나라당 불자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공약사업을 잘 이행했는데, 공해지역 주민이주사업, 하수 및 대기오염 공해대책 방안사업, 시가지 철도이설사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내무행정 관료로서의 경험과 지방자치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지방자치 기본 법률과 자치법규를 입법하여 지방자치의 골격을 갖추는 데 기여하였다. 근로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을 건립하여 복지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공직생활의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1973년 대통령 표창, 1981년 홍조근정훈장, 199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농서초등학교 역사관

김택천(金澤天, 1895~1987)

정치인. 본관은 김녕. 중구 반구동 출생. 호는 동전(東田).

대한제국 비서감승(秘書監丞)을 지낸 홍조(弘祚)의 아들이다.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에는 일제시기 진주 일신고등보통학교 평의원, 울산성지보존회 평의원, 울산소작인회 시찰원, 동아일보 울산지국장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울산성우회(蔚山城友會)와 병영오일회(兵營五一會)와 같은 사상단체들의 군연맹간부로도 활동하였다. 공직에도 종사하여 1937년 하상면장을 지냈다. 해방 이후에는 울산경찰서의 제2대 서장을 지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울산울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에서는 주로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귀속재산 처리나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법률 등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1956년 3월 오위영, 최영근 등과 함께 민주당 울산군당을 창설하여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에도 민주당 울산군 울구당 위원장을 지내며 한동안 공천을 독점하였다. 4·19 이후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구과의

공천을 받았지만,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더 이상 당선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시대일보』 (1925.12.13)

『대한민국건국십년지』, 건국기념사업회, 1956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약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일제강점기 울산성지보존회와 학성공원』, 고현우, 201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현, 2013

대한민국헌정회(<http://www.rokps.or.kr>)

김한석(金漢碩, 1526~159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자는 국량(國良).

선무원종공신3등인 응방(應方)의 아버지이다. 2006년 10월에 울산 충의사에 제향된 의사로 관은 용양위부사과이다. 추봉 대상자 심의 서류는 ‘『선무원종공신녹권』 (82쪽), 『울산읍지』 (1934), 『흥려승람』 (1937), 『호적대장』 등이며, 임란 때 순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호적대장에, 정덕(正德) 병술 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 기록된 것으로 가정(嘉靖) 5년 병술(1526)생이 합당하다. 뒤에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2006년 충의사 봉안 심의서류」

김한준(金漢俊, 1884~1956)

독립운동가. 울주군 상북면 거리 출생.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였다. 6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5권, 국사편찬위원회, 1992

김해두(金解斗, 1920~1974)

관료. 중구 성남동 출생.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를 졸업하고 울산공립농업학교(현 울산공고)를 졸업(1회)하였다. 홍익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52년 고등고시 행정과 제3회에 합격하였다. 울산 제1호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생으로 이후 행정관리로 진출하였다. 1957년부터 1960년까지 경상남도 양산·창녕군수,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인천시장을 지냈다. 1969년부터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지사를 차례로 지냈다. 1974년 7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에 임명되고, 9월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되었다.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중에 과로로 쓰러져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

【참고자료】

『지방행정』 23권 252호, 「최인기/ 고 김해두 실장 서거에 붙여-장관님 내일 꼭 출근 하겠습니까」, 최인기, 1974

김헌경(金憲經, 1939~2012)

시인. 본관은 경주.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출생. 호는 백산(百山).

울산농업고등학교(현 울산공고)를 졸업하였다. 1966년 울산문인협회 창립 멤버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0년 최종두, 이준웅, 장승재, 박종해 등과 ‘처용촌’동인을 결성하였고, 계간 『문예운동』을 통해 문단에 나왔다. 울산문인협회 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1979년 울산울주향토문화연구회 창립, 1999년 울산시인협회 창립에 참여하였다. 이후 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문인협회, 울산문인협회, 울산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울산예총회장상과 울산시장상을 수상하였다. 시집 『초가같은 인정』(2007)이 있다.

【참고자료】

『울산문학사』, 울산문인협회, 2004

『초가같은 인정』, 김헌경, 2007

김홍조(金弘祚, 1868~1922)

사회활동가. 본관은 김녕. 중구 반구동 출생. 자는 경옥(景玉). 호는 추전(秋田).

대한제국의 비서감승(秘書監丞)을 역임하였다. 울산지역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일제시기에 조성된 학성공원의 부지의 상당부분도 김홍조의 토지였다. 건축물 자재 판매로도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개항 이후에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 출신들과 교류하였고,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시영의 만주신흥무관학교 설립을 후원하였고, 박상진의 대한광복회에도 군자금을 전달하였다. 백산 안회제 등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14년 부산에 세운 백산상회에 관계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건너가 의정원 의원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도 이

바지하였다.

교육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 1909년 이규현이 설립한 사립개운학교(현 남목초)의 초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일신학교(현 병영초)와 울산여고를 설립하고, 진주 일신여고(현 진주여고) 탄생에도 큰 몫을 하였다. 개항기에 인재양성을 위해 울산 출신 학생들을 일본 등지에 유학을 보냈다. 금융산업에도 뜻을 두어 1912년 구포은행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1918년 주일은행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구포은행을 경남은행으로 재개편하고, 주일은행을 흡수하는 일에 기여하였다.

1909년 10월 15일 김영진, 김기태와 함께 경남일보 발간을 주도하였다. 초대 사장 겸 발행인이 되어 언론발전에 기여하였으나 5년만에 문을 닫았다. 민족계열 동아일보 창간 당시 자본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주에 50원하는 주식 100주를 인수하고, 발기인 700명 가운데 한사람으로 창간에 기여하였다. 시정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평의원에 촉탁되었다. 1915년에 울산군 강동면 어물리의 임야 2백 정보(町步)에 상수리 묘목을 연차적으로 심어 조림하고 울산군 농산물품평회에서 금패상을 받았다. 1928년 학성공원에 그의 공덕비를 세웠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21.7.30, 1922.9.16, 1929.4.15)

『매일경제』 (1982.11.22)

『조선총독부관보』 (1910.10.20, 1914.9.19, 1918.4.17)

『통정대부행비서감원비서승(通政大夫行秘書監院秘書丞):추전 김홍조의 약사(略史)』 , 김홍조

『울산향토사연구논총』 , 이유수, 1996

『울산광역시사』 5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대한제국시기신문연구』 , 「진주의 경남일보-유일의 지방지-」 , 최기영, 1991

『지역과 역사』 제9호,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 차철욱, 2001

김활천(金活天, 1898~?)

사회활동가. 남구 야음동 출생.

서울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를 졸업하였다. 울산에 신간회가 조직될 때 준비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1928년 3월 창립대회 때 간사로 선임되었다. 울산에 산재해 있던 청년단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 노력하였다. 울산노조를 만들어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다. 갑종 농업학교 승격 기성회 간사로 울산농고의 갑종농업학교 승격에도 참여하였다. 1934년 읍의원이 되었다.

【참고자료】

『경상일보』

『울산유사』 , 김석보, 1978

김효동(金孝東, 1869~1944)

유학자. 본관은 김녕.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출생. 호는 화강(華岡).

중남면장(1920년대 초~1925.8.2.)과 금융조합장을 역임하였다. 같은 고향 사람 곽해진과 함께 중남사립보통학교(현 중남초) 설립에 참여하였다. 언양향교 재정 적립에 공헌하고, 중남수리조합을 일본인 다카하시[高橋]와 함께 창설하였다. 한학에 조예가 깊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동양 3국의 시회에서 「어옹(漁翁)」이란 시제로 장원에 당선되었다. 문집으로 『화강유고집』이 있다.

【참고자료】

『울주삼남지』, 삼남지방간추진위원회, 1998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흡(金洽, 1540~1609)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남원. 자는 덕호(德浩). 호는 죽계(竹溪).

성주목사 응당(應鎗)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성으로 가서 성을 지키는데 일조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현령(縣令)에 제수되었다. 호적대장에 '선무원종공신 선략장군 훈련원부정으로 후손들은 응촌에 산다.'고 기록되어 있다. 족보에는 '선무공신수문장선략장군행훈련원부정'이라고 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부호적대장』 『남원김씨 족보』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흡(金洽, 1550~?)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녕. 울주군 언양읍 출생. 자는 덕호(德浩). 호는 죽계(竹溪).

침정 적석(積碩)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4월 18일 울산 강동의 공암마을로 달려가 이눌 · 이계수 · 이응춘 · 김득복 등 의병장들과 유포, 우산, 수렴포 등을 거점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침입하는 적을 무찔렀다. 6월 9일에는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동해안으로 진을 옮겨 울산과 인근의 석읍, 나아, 달현 전투에서 의병군이 이기는 데 공을 세웠다. 9월 태화강전투에서 적을 격파하고, 다음해 2월 모화전투에서도 적을 물리쳤다.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여하였다. 1595년 4월 형산강 전투에 참전하였고 1596년(선조 29) 3월과 9월 두 차례의 팔공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7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여 여러 고을 의사들과 성을 지키는데 공을 세웠다.

1599년(선조 32) 무과에 급제하여 언양현감에 제수되어 많은 치적을 남겼으며 1605년에는 현령으로 승진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정(副正)으로 제수되었다. 「창

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족보에는 남원인 김흡과 자·호가 같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김녕김씨 족보』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나응수(羅應壽, 1560~?)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대구. 울주군 온양읍 거주.

임란 때 창의하여 여러 전역에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군이 서생포와 울산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갓은 분탕(焚蕩)을 일삼았다. 이에 경상좌 병사 휘하의 군(軍)이 여러 곳에서 접전하였다. 특히 성황당전투에서 훈련원정 박응탁을 장수로 정하여 적군 13급(級)을 베고, 잡혀 있던 경주 여인 1인을 구출하였다. 이 싸움에서 나응수는 박응탁 · 박이손 · 박기남 · 김봉수 · 박춘복 등과 선봉에 서서 돌격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을묘)조

류득춘(柳得春,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문화.

처사 호(湖)의 아들이며 선무원종공신3등 정(汀)의 조카이다. 일찍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숙부 정과 사촌형 백춘(伯春)의 의군진(義軍陣)을 따라 태화강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벼슬이 수문장에 이르렀다. 양산 칠현사(七賢祠)에 제향되고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류문수(柳文守, 1566~1619)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문화. 울주군 상북면 출생. 일명 문수(文秀).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삼남면 작괘천의 마애비에 음각되었다. 후손들은 상북면 거리(巨里)에 대를 이어 살고 있

다. 동향공신들의 추모제당인 삼남면 교동리 원모사(遠慕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류백춘(柳伯春, 1562~1600)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문화. 중구 반구동 출생. 자는 영형(領亨). 호는 제호(霽湖).

통덕량 지(池)의 아들이다.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판관에 올랐으나 곧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란 때 숙부 정, 사촌형 영춘과 함께 창의하여 주로 숙부의 휘하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1592년 4월 장희춘·이응춘·윤홍명·서인충 등과 울산의 백련암, 개운포, 무룡산 등지에서 적을 물리치고, 6월 9일에는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이어 박인국·황희안·김득복 등과 함께 달현, 월성, 금오산 등지에서 적을 방어하고, 9월에는 선도산, 주사산, 작령 등지에서 적을 무찔렀다.

1593년 2월 숙부의 명으로 사촌형 영춘과 함께 문경 당교전투에 참전하고,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1594년 10월 박인국·황희안·이태립 등과 영천 창암에서 적을 맞아 싸웠고, 경주 영지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1596년 3월 팔공산전투에 참가하고, 9월에는 다시 팔공산에서 여러 의사들과 함께 회맹을 맺었다.

정유재란 때는 울산 도산에서 관군과 함께 공격하여 많은 적을 무찔렀다. 경주부윤 윤인함의 천거로 경주판관으로 제수되고, 뒤에 오위도총부부총관으로 증직되었다. 양산 산막동 칠현사(七賢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사의사실기』(1911)와 『칠현사지』(1939)가 발간되었다.

【참고자료】

『칠현사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류승렬(柳承烈, 1917~1996)

사회활동가. 본관은 문화. 호는 청강(靑江).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읍의원을 통해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울산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동울산 라이온즈클럽 회장, 울산시 행정자문위원, 울산문화원 부원장, 울산상공회의소 상무위원을 역임하였다. 행정·산업·교육·문화 등 울산 사회 전반에 참여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류영춘(柳榮春, ?~1594)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문화. 호는 나암(蘿巖).

선무원종공신3등 송호 정(汀)의 아들이다.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으나 임란 때 아버지가 창의하자 선봉에서 아버지를 호위하며 군량을 운송하는 임무를 다하였다. 동해안의 공암, 나아, 달현, 무룡산 등지에서 적을 물리쳤다. 6월 문천회맹에 참가한 뒤, 7월에는 윤홍명, 이의잠, 이승금 등과 함께 안강 형산강전투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다음해 2월 부친의 명으로 사촌동생 백춘과 함께 문경 당교전투에 참전하였고,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1594년(선조 27) 1월 양천교에서 적을 물리치고, 가을에 아버지의 의병진이 있는 영천 창암으로 군량을 운송하던 중 적을 맞아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1835년(헌종 1) 양산 칠현사(七賢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류윤하(柳允河,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문화.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장(部將)으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문성초(文星超, 1887~1919)

독립운동가. 본관은 남평.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청록(靑鹿).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선두에서 주도하였다. 일제경찰의 무차별적인 사격으로 3명의 동지와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민복룡(閔伏龍,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여흥.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화창마을 출생.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경량(朴慶良,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울산(흥려).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통정대부로 만도(晩到) 15원(員) 중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경열(朴慶說,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흥려).
어모장군 원신(元信)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경은(朴慶殷, 1566~1641)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울산(흥려). 자는 선익(善翼).
옥포수군만호 증형조참의 원우(元祐)의 둘째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이후 임란이 일어나자 전용충의 오촌 조카 전영과 함께 창의하여 동래성 방어에 역전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월성만호, 병마우후, 도총부경력 등을 지냈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원(員) 중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뒷날, 아들 이명(병사공)의 영귀(榮貴)로 승정대부 판돈령부사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증직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계숙(朴繼叔, 1569~1646)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울산(홍려). 경남 양산 용당동(당시 울산군) 출생. 자는 비운(丕胤). 호는 반오헌(伴鰲軒).

무안현감 홍권(弘權)의 아들이다. 선무원종공신1등 기장현감 홍춘(弘春)의 양자로 들어가 대를 이었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일가의 형제·친척들과 함께 창의하였다. 1592년 9월 아버지 박홍춘이 서면장(西面將)으로 추대되어 10월 기장 의병장 김일덕·김일개 형제와 함께 기장읍성을 기습하여 적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594년 난중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다. 함경도병사 김응서 휘하의 병마우후를 지냈으며, 자헌대부 훈련원정에 올랐다. 1638년(인조 16) 지중추부사에 가자(加資)되었다.

1605년 함경도로 파견되어 약 1년간 군관으로 근무하면서 적은 그의 일기와 1644년 함경도 회령과 경성에서 부방(赴防)하며 적은 아들 박취문의 일기를 묶은 『부북일기(赴北日記)』가 전해지고 있다. 2006년 1월 26일에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고, 2010년 10월 울산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계종(朴繼宗,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홍려). 울주군 웅촌면 대북리 출생.

무안현감 홍권(弘權)의 아들이다. 임란 때 숙부 홍춘, 홍남과 함께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관수(朴寬洙, 1897~1980)

교육자. 본관은 밀양. 북구 어물동(금천) 출생. 호는 금계(琴溪).

어릴 때 가난하여 지역유지 김홍조의 도움으로 학업을 시작하였다. 울산초등학교를 졸

업하고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19년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철학과를 수료하였다. 1924년 대구고등보통학교 학감, 1926년 경상북도사범학교 교유 등을 거쳐 1938년 11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시학관에 임명되었다. 1940년 경기공립고등여학교 교장을 맡았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녹기연맹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43년 국민총력 경성부연맹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병 지원을 독려했다. 1944년 4월 춘천공립중학교 교장을 맡았다.

해방 후 가족과 함께 울산으로 돌아와 일제하에서 일한 것에 대한 후회와 속죄의 의미로 미군정의 회유도 물리치고 울산만 해변에 염전을 만들어 염업을 시작하였다. 이 일을 하면서 울산중학교의 교장직과 부산대학교의 강사직을 겸하였다. 1951년 55세 때 울산농고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다음해 경북대학교 교수직을 겸하였다. 1956년 7월 65세 때 MRA(Moral Re-Armament : 도덕재무장운동)세계대회에 참여하였다. 이때 여러 서양국가들을 순회하면서 국가의 진실한 역군은 대학보다 중등학교 학생 지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1957년 7월 61세에 대전고 교장으로 취임하여 1961년 옥천여고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교육자로 활동하였다.

1965년 단군정신선양회 회장, 신라오릉보존회(新羅五陵保存會) 총재, 1966년 한국아세아반공연맹 이사장, 서울특별시자문위원회 위원, 1967년 한국아세아반공연맹 고문, 1970년 공산권문제연구소 이사장, 1971년 현정회(顯正會) 이사, 1972년 대한노인회 회장 등을 맡았다. 저서로 『인간혁명론』 『북한의 농민』 『북한의 가정과 부녀자』 『현대한국반공투쟁사』 등이 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인물연감』 『대한민국인사록』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팔순기념 금계 박관수선생 논설집』, 1974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박구(朴球, ?~1289)

고려 후기 무신. 울산(당시 울주에 속한 부곡) 출생.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고려 원종 때 뇌물로 상장군이 되었다. 충렬왕이 즉위하여 1274년 원나라에서 귀국할 때 왕과 공주를 호종하였고, 1278년(충렬왕 4) 우승지가 되었다. 다음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김방경과 함께 동정군사를 사열하고,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이해 소용대장군·좌우부도통이 되었다. 다음해 호두금패와 인신(印信)을 받아 만호(萬戶)가 되었으며, 원수 김방경을 따라 일본 정벌에 참전하였다. 1282년 동지밀직사사로 합포(合浦, 현 경남 마산)에서 진수하였다. 다음해 지밀직사사가 되어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온 뒤 찬성사(贊成事)가 되었다.

【참고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박규진(朴燦鎭, 1855~1928)

유학자. 본관은 밀양. 북구 송정동 출생. 자는 원여(元汝). 호는 창고(蒼皐).

성균생원 괴천 박창우의 후손이다. 품행이 단정하고 기량이 뛰어났다. 족숙(族叔)인 소암(小庵) 박시무의 문하와 척암(拓庵) 김도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진보에서 3종숙 목은 박시주와 함께 방산 허훈에게 출입하며 왕산 허위 등과 교유하고, 학문을 즐기면서 은거하였다. 문집인 『창고집(蒼皐集)』이 전한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송정유사』, 밀양박씨밀직부원군과 부산화수회, 1999

박규환(朴圭桓, 1897~1947)

독립운동가. 본관은 밀양.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설광(雪光).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시위 후 체포되어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0월 3일 출옥하였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박근철(朴根澈, 1920~?)

독립운동가. 본관은 밀양. 남구 여천동 출생.

1938년 4월 일본 장기(長崎)현립농업학교에서 수학하며 일제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동지 심재인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1941년 삼중(三重)고등농림학교에 진학해서도 동지들과 자주독립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2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고향 후배들에게 징병 또는 학도병을 기피하고 때를 기다리자고 권유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1942년 2월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예천경찰서로 압송되어 장기간에 걸친 취조와 고문을 받았다. 1943년 5월 7일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3월 사면되어 가출옥하였다. 1977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6권, 국가보훈처, 1988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박기태(朴基台, 1927~2013)

서양화가. 울주군 청량면 출생.

어릴적부터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었다. 재능을 살리기 위해 사설 경주예술학교에 수학하여 서양화 수업에 몰두하였다. 졸업 후 안동중학교, 영주여자중학교, 대구여자중학교 등 주로 경북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하며 작품 활동에 전념하였다. 특히 수채화분야에 열을 올려 국전특선 2회, 입선 5회 등을 수상하였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수채화협회장을 맡아 우리나라 수채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한독협회 회원, 한·중예술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교분을 쌓았고, 한국미술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로 인물중심의 주제에서 풍경, 정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2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참고자료】

『한국 서양화대관』, 이경성 외, 1992

박남표(朴南杓, 1808~1875)

농민항쟁가. 본관은 고령.

선무원종공신 박진남(朴震男)의 후손으로 아버지 지연(之淵)과 어머니 청안이씨 사이에 큰아들로 태어났다. 1867년(정묘식) 울산부호적대장에 ‘농동면 덕동리(현 북구 송정동) 제1통의 통수(統首)이며 제1호의 호주이고 환부(鰥夫)’로 기록되어 있다. 1875년 을해항쟁 때 주모자로 몰려 참수 당한 세 명 중 한 명이다.

을해항쟁은 1875년에 발생한 울산농민항쟁(민란)으로 아전 김양서가 공금 유용으로 끼친 손해를 울산도호부사 정기대가 주민들의 토지에 추가로 결전을 부가하여 해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수령과 아전의 부정부패에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항쟁하였다. 이를 주동한 인물이 박남표로 울산지역 곳곳에서 선창하면서 항쟁 분위기를 만들었다. 울산도호부사를 고을 밖으로 추방할 때도 동헌으로 앞서 들어가 농민들을 인도하였다. 조정에서는 안동부사 홍철주를 울산부 안핵사로 파견하여 난을 수습하였다. 난의 주동자였던 박남표·김연암·이충감 등을 효수하고, 다수의 민란 참여자를 처벌하였다.

【참고자료】

『정묘식(1867년) 울산부 호적대장』
『고문서연구』 제35호, 「울산안핵록을 통해서 본 1875년 울산농민항쟁」, 양상현, 2009

박능정(朴能精, ?~1597)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울산(흥려). 호는 송암(松巖).

동래 수성장(守城將)으로 순절한 안세(安世)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들 봉과 함께 창의하여 하양 의병장 신해·김거·황경립·허대운·허응길 등과 북진하는 적을 차단, 저지하여 하양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1694년(선조 27) 4월 별시무과에 급제하고 전공을 인정받아 정략장군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정유재란 때 서생포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순절하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동훈(朴東勳, 1933~2003)

방송인. 본관은 밀양.

생원 피천(槐泉) 박창우의 후손이다.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1968년 울산문화방송 개국준비요원으로 참여하면서 편성, 제작업무를 지휘하는 편성과장직을 맡았다. 특히 교양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져 시민교양 함양에 기여하였다. 당시 미개척분야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 생활상담 밀착프로그램을 방송에 도입하여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울산의 도약기인 1980년대에 편성국장, 보도국장의 요직을 맡아 방송제작을 지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퇴직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황해도 출신인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재울 이북5도민의 행정과 복지를 맡아 헌신하였다. 울산시민의 장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시사』, 울산시, 1987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들』, 중앙일보사, 1995

박문(朴文, 1572~1595)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밀양. 남구 여천동 출생. 다른 이름은 문(紊). 자는 천리(天理). 호는 야와(野窩).

선무원종공신3등 훈련원판관 손(孫)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창의하여 경상좌병영성 탈환전에서 공을 세웠다. 6월 9일 경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7월의 회야강 전투, 9월의 개운포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다. 다음해 1월 태화강 전투와 4월의 대왕암전투에서도 역전하였다. 1594년 1월 언양에서 경주로 침입하는 적을 길목인 양천교에서 여러 의사들과 합세하여 물리쳤다. 1595년 2월 백련암에 진을 치고 있다가 태화강을 따라 침공하는 적을 맞아 싸우다가 아버지와 함께 순절하였다. 이러한 전공이 조정에 알려져 찰방(察訪)에 제수되고 통정대부로 추증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

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병호(朴秉鎬, 1888~1937)

언론인. 중구 북정동 출생. 호는 일경(一耕).

울산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울산군청에서 서기로 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 최초로 대서소(代書所)를 차렸으며, 울산청년회관 건립에 참여하였다. 동아일보 울산지국 기자로 농촌순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유지들과 함께 직접 농가를 돌면서 어려운 농민들의 실상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조선이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년운동도 열심히 하였다. 1920년 울산청년회를 발족하여 회장이 되었고, 울산 청년들을 대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전조선청년회 모임에도 참석하였다. 울산청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중장년층 중심으로 민우회를 조직하고 총무로 활동하였다. 1921년 8월과 1922년 11월 울산 각 면을 돌면서 민중계몽 강연을 하였다.

일제시기 울산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울산사학회를 창립하고, 1926년 동아일보 지국장장으로 시대일보 강철 지국장, 조선일보 김기오 지국장과 함께 울산기자단을 창립하였다. 일제강점기 말 울산의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인으로도 활동하였다.

1926년 일제의 침략 흥계를 폭로·고발하는 한국 최초의 탐정소설 『혈가사(血袞紗)』를 발표하였다. 이 소설은 발간 즉시 일제경찰에 압수되었다. 현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혈가사』는 불교청년회에서 간행한 잡지 『취산보림』의 제4호(1920.7)부터 연재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문화와 변화된 분위기를 작품 내에 담고 있고 또한 신소설에서 추리소설로 넘어가는 변화를 흡수한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품명은 피에 젖은 가사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에 붙여진 것이며, 미모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이수일과 심순애류의 로맨스와 연쇄살인이 이야기의 큰 기둥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울주문화』 13집, 울주문화원, 2013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김승, 2003

『울산사학』 11집, 「일제하 울산지방의 중등교육」, 지호원, 2004

『한국민족문화연구』 제29집, 「근대 추리소설의 기원 연구」, 오혜진, 2009

박봉서(朴鳳瑞,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중구 반구동 출생.

증병조참판 덕희(德熙)의 아들이며 의병대장 봉수(鳳壽)의 아우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봉수(朴鳳壽, 155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중구 반구동 출생. 자는 문경(文慶).

증병조참판 덕희(德熙)의 아들이다.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부호군 겸 우림위장(羽林衛將)을 거쳐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와 봉화현감을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희안, 전응충, 이경연, 서인충, 고처겸 등과 창의하였다. 4월 23일 기박산성에서 이한남, 이봉춘 등이 이끄는 의병 1,000여 명과 회동하여 결진을 하였다. 대장으로 추대되어 5월 병영성을 탈환하고, 6월 9일에는 경주의 문천회맹에도 참가하였다.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경주성복성전에 참전하는 등 임란이 끝날 때까지 여러 전투에서 싸워 많은 전공을 세웠다. 1599년(선조 32) 12월 27일 조정에서 선유어사(宣諭御史) 윤휘(尹暉)를 보내 경주객관에서 위로연을 베풀 때 여러 의사들과 함께 울산 의병의 수장(首將)으로 초대되었다.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정이 제수되었다. 뒤에 김해부사, 함경도북병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포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대장공실기』와 교지가 전해지고 있다. 묘소는 울산시 북구 달천동에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유기사」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상지(朴常志, 1923~1988)

소설가. 본관은 고령.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출생. 본명은 재희(在喜). 상지는 그의 필명(筆名).

선무원종공신 박진남의 후손이며 박성렬(초대·2대 울산교육구 교육감)의 외아들이다. 1943년 동래보고(현 동래고)를 졸업하고 1944년 일본대학 전문부 문과를 중퇴하였다. 울산제일중학교 등에서 13년간 중고교 교원생활을 하였다.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 교육잡지 『교육자료』의 편집을 담당(6년)하였고, 신태양사 편집국장을 역임하였다. 학창시절부터 문학을 지망, 창작에 힘써 왔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6·25전쟁 이후로, 당시 고향 울산

에서 '백양(白楊)동인'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문예』에 단편 「가족」으로 김동리의 추천을 받고, 『문화세계』에 단편 「무제화(無題話)」가 현상공모로 당선되어 데뷔하였다. 이후 단편 「황지」가 『현대문학』에 재천되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거주하다가 만년에 고향인 범서읍 척과로 낙향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이즈음 문협 울산지부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많은 후필들과 교류하였다. 유일한 창작집으로 만년에 『창궁』(1988)을 발간하였다. 문학 외에 중년에 명리학의 대가 도암(陶庵) 박재완을 사사(師事), 운명학·역학 등에 심취하여 운명철학서 『명(名)』을 발간하였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역리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사후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의 『울산문학』 제14집에 「소설가 고 박상지의 삶과 문학」이라는 특집 형식의 글이 실렸다.

【참고자료】

『세계문예대사전』(상), 문덕수의 편진, 1975

『울산문학』 14집, 울산문인협회, 1989

『한국문예사전』(증보판), 한국문예사전 편집부, 1991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박상진(朴尙鎭, 1884~1921)

독립운동가. 본관은 밀양. 북구 송정동 출생. 경주 외동읍 녹동리 거주. 자는 기백(璣伯). 호는 고헌(固軒).

생원 피천(槐泉) 박창우(朴昌宇)의 후손이다. 승지 시규(時奎)의 아들로, 큰아버지인 교리 시룡(時龍)에게 입양되었다. 고향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897년 진보에서 의병장 출신으로 서울 평리원판사를 지내게 되는 허위(許薦)와 처음 사제관계를 맺고, 19세 되던 1902년부터는 상경하여 수학하였다. 1906년 양정의숙 전문부에서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1907년에는 창의한 스승 허위에게 군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신돌석과 의형제를 맺고 군자금을 지원하였다. 1908년 허위가 순국하자 당시 나타날 수 없었던 가족을 대신하여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루었다. 홍성에서 상경한 김좌진을 만나 서로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었다.

1910년에 판사시험에 합격하여 평양법원에 발령되었으나 사퇴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2년에는 대구에서 김덕기, 오혁태와 함께 곡물상회인 상덕태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기지 및 연락기관, 자금조달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1913년 1월 안일암(현 대구의 안일사)에서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에 가입하였다. 1915년 7월 풍기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의 인사와 합작해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하였다. 이진룡이 부사령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의형제를 맺었던 김좌진을 임명하였다. 대한광복회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황해도·평안도와 만주 각지에 조직을 둔 1910년대 국내 최대의 독립군 단체로 성장하였다. 대한광복회는 이념에 있어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공화주의를, 방략에 있어서는 무장혁명노선을 표방하였다. 대한광복회는 곳곳에 곡물상을 설립해 연락 거점으로 삼

고 비밀·폭동·암살·명령을 4대 기본강령으로 세워 일제 타도를 추진하였다. 한편 이에 필요한 자금은 친일부호들과 금광, 세금수송 우편마차 등을 대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1915년 12월 경주 광명리 노상에서 세금을 수송 중이던 우편마차에서 8,700원을 탈취하였다. 1916년 9월 초 대구에서 서우순 등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동지들이 체포된 대구권총사건이 일어났고, 그는 만주에서 서울로 들어오다가 잡혀 6월간의 징역형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출옥 후 군자금 수합에 더욱 힘을 쏟아 당시 식민적 지주체제에 안주하여 군자금 출연을 거절한 반민족적 친일부호를 처단하는 의협투쟁을 전개하였다. 1916년에 벌교 부호 서도현, 1917년에 칠곡 부호 장승원을, 1918년에 충남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를 처단하였다.

이 때 대한광복회 조직이 드러나 많은 사람이 투옥되었다. 박상진은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귀가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다가 1921년 38세를 일기로 대구형무소의 교수대에서 순국하였다.

1960년 학성공원에 추모비가 세워졌고,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 『박의사상진순국사(朴義士尙鎭殉國史)』, 박상진의사추모회, 1980
- 『박상진자료집』, 김희곤, 2000
- 『영남인물지』, 권경락, 2004
-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 『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 박중훈, 2008
- 『한국사연구』 42, 「대한광복회연구」, 조동걸, 1983
- 「광복회연구」, 이성우,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박성렬(朴誠烈, 1894~1976)

교육자. 본관은 고령.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출생.

선무원종공신 박진남의 후손이다. 일신학교 교원,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 교원으로 활동하다 울산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그후 삼동초·길천초·두동초·북산초·울산제일초등학교 등에서 교장을 역임하면서 울산 초등교육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초대·2대 울산교육구 교육감을 역임하였다.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1949년에 삼동초등학교 교정에 사도비(師道碑)를 건립하였다.

【참고자료】

- 『울산매일신문』 (2007.5.14)
-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 『울산교육사』, 울산광역시교육청, 2001
- 삼동관 개관식 자료

박손(朴孫, 1555~1595)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남구 여천동 출생. 자는 만세(萬歲). 호는 청죽(聽竹).

성균 생원 자온(自濫)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들 문(文)과 함께 창의하여 집에 비축해 둔 양곡을 군량미로 쓰고자 동대산 함월산성으로 운반한 다음 이경연, 류정, 견천지, 장희춘, 박봉수 등 의장(義將)들과 합진하였다. 5월 7일 밤에 기습공격으로 함락된 경상좌병영성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웠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다시 울산으로 와서 7월 11일의 회야강전투에서 적을 무찔렀다. 9월 개운포전투에도 참전하였다.

다음해 1월 태화강으로 침입해 오는 적을 격파하여 대승을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4월에는 대왕암전투에 참전하고,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1594년 1월 양천교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고, 다음해 1월 달현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다. 2월 백련암에 진을 치고 염포로 들어오는 큰 무리의 왜병을 맞아 싸우다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뒤에 가선대부 형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수복(朴守福,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월성. 울주군 언양읍 출생. 자는 경인(景仁).

선화(善華)의 장남이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으로 제수되었다. 언양읍 대곡리 한실마을의 백순재(百順齋)에 제향되고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순동(朴順同, 1564~?)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울산(흥려).

1597년(선조 30) 11월 2일 태화강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있다.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군이 서생포와 울산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자 경상좌병사 성운문이 여러 장수들과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성황당 일원에서 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태화강과 그 남쪽의 개운포로부터 진격해 오는 적들을 맞아 김막실 · 오수량 · 지수 · 김금복 등과 분전하였다. 참획한 적의 머리가 매우 많았으나 그는 충상을 당하였다. 호적대장에 관이 주부(主簿)로 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박시규(朴時奎, 1861~1928)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밀양. 북구 송정동 출생. 자는 성장(聖章). 호는 간운(澗雲).

진사 용복(容復)과 여강이씨의 둘째 아들로 용복의 아우 헌복(憲復)에게 양자로 들어왔다. 상진(尙鎭) · 현진(玼鎭) · 호진(琥鎭)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상진을 큰집인 시룡(時龍)에게 양자로 보냈다.

1885년(고종 22) 4월 20일에 시행된 식년시(式年試)에 을과(乙科) 4인으로 급제하였다. 『국조방목』에 거주지가 경주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울산이다. 경주로 이사한 것은 1887년으로 전해지고 있다. 1907년 9월 18일 내각법제국기록과에서 정리한 『대한제국관헌이력서(大韓帝國官憲履歷書)』에도 ‘경상남도 울산군 농동면 송정리 칠통 육호’ 거주로 되어 있다.

이후 관직 행로를 보면, 1891년 7월 10일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으로 있을 때 명성황후 환후평복경(患後平復慶)으로 가주서폐육(假注書陞六)되었고, 1892년 3월에는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가 다음 달에 면직되었다. 1901년 9월 20일 홍문관 시독(弘文館 侍讀)에 임명된 후 10월 13일 의원면직되었다. 1907년 8월 24일에 장례원(掌禮院) 장례(掌禮)에 임명되었으며, 9월 9일 어전에서 벌어진 시회에서 임금으로부터 치하의 말씀과 함께 폐정삼품(陞正三品)으로 가자(加資)되었다. 이후 종2품 규장각 부제학을 지냈다.

양자로 보낸 장남 상진이 광복회사건으로 1918년 2월 1일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1921년 8월 11일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즐기차게 구명운동을 벌여 신문지상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아들이 사망한 후 각기병을 얻어 말년을 고통스럽게 보내다 1928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종상(終喪) 때인 1923년에 남긴 제문 「제망자상진문(祭亡子尙鎭文)」은 명문으로 박상진의 사후 장례 과정과 그의 사형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을 알려주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참고자료】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신한민보』 『황성신문』

『국조방목』 『대한제국관보』 『대한제국관헌이력서』 『순종실록』 『청선고(淸選考)』

『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 박중훈, 2008

박시룡(朴時龍, 1851~1930)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밀양. 어릴적 이름은 시익(時翼). 자는 심가(深可). 호는 운담(雲潭).

송정동 밀양박씨의 입향조 괴천(槐泉) 박창우의 7대손으로, 진사 용복(容復)과 여강이

씨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국조방목』에 1862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11년 회갑을 축하하는 노상직의 편지와 손님을 청하는 아들 상진의 편지 등을 볼 때 1851년 생으로 판단된다.

1890년(고종 27) 별시(別試)에 을과 3인으로 급제하였으며, 5년 전 먼저 급제한 동생 시규(時奎)와 함께 형제가 급제하는 흔치않은 기록을 남겼다. 1901년 11월 21일 홍문관 시독 서관임관육등(弘文館侍讀 敍判任官六等)에 임명되었다. 다음해인 1902년에는 임금께서 어린 말 1필을 하사하였다. 1906년 1월 22일 봉상사전사서관임관육등(奉常司典事 敍判任官六等)에 임명되었으나 2월 23일 의원면직하였다. 비교적 나이가 들어 급제하였기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관직에 나가지 않아 관련 기록은 많지 않다.

1921년 장남 상진이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고, 그 여파로 가산마저 잃어 생활이 어려워졌다. 1927년 12월에 「밀성대군단비명(密城大君壇碑銘)」을 지었다. 1928년 서악서원 원장, 1930년 옥산서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병세로 오랜 기간 임직하지 못하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참고자료】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황성신문』
『각사등록』 (근대편) 『국조방목』 『대한제국관보』 『청선고(淸選考)』
『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 박중훈, 2008

박어둔(朴於屯, 1661~?)

본관은 경주.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목도마을 거주.

어부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병영에 예속된 염간(鹽干)으로 소금 굽는 신역(身役)을 부담하였다. 안용복과 함께 박어둔이 울릉도로 어로활동을 갔다가 일본 어부들로부터 피랍된 사건을 전하는 한일 양국의 사료를 보면, 1693년, 1696년 안용복과 박어둔의 울릉도·독도행은 박어둔을 위시한 울산지역의 어업인들을 인적자원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산의 박어둔과 부산의 안용복은 1693년 40여 명의 어부와 울릉도에 갔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강제 연행되었으나 일본 바쿠후[幕府]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문서를 받아내 영토수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울산부호적대장』 숙종 13년(1687)
『울릉도·독도 수호 박어둔 재조명』, 울산광역시, 2010

박연택(朴鍊宅, 1858~1919)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밀양. 남구 남화동 출생. 자는 순백(順伯).

아버지 용규(龍圭)와 어머니 연일정씨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임진왜란 때 창의

하여 공을 세워 선무원종일등공신의 녹훈을 받은 절충장군 춘석(春石)의 9세손이고 수(壽)가선대부 경환(慶煥)의 손자이다. 평소 성품이 소박하고 인자하였다. 1883년(고종 20) 행상을 목적으로 백미 50석을 배에 싣고 강원도 울진(현 경북 울진)으로 갔다. 때마침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이 많음을 보고 싣고 간 백미 전량을 무상으로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였다. 이에 그 고장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고 송덕비를 세웠다.

이 같은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1887년 정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의 벼슬이 제수되었다. 부인에게도 같은 날 숙부인(淑夫人)의 교지가 내려졌다.

【참고자료】

『교지』 『밀양박씨 족보』

『울산읍지』, 1934·1937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박영록(朴榮錄,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흥려). 중구 유곡동 출생.

안일호장 세량(世良)의 아들이다. 임란 때 사촌형 응춘과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면향(免鄕)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록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영인(朴永仁, 1911~?)

무용가. 본관은 밀양. 중구 학산동 출생.

부산중학교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마쓰에(松廣)고등학교와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였다. 일본에 귀화하여 ‘쿠니 마사미(邦正美)’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유럽 현대무용 선구자였던 루돌프 본 라반(1879~1958)과 마리 비그만(1886~1973)의 수제자로 전후 무용교육의 기틀을 닦았다. 이후 무용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사상까지도 육체운동을 통하여 표현한다는 독일식 신흥무용을 연구하였다. 1937년 독일국립무용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헝가리 등지에서 24회 공연을 가졌다. 베를린의 독일 국립오페라극장 함부르크·쉴레에서 발레리나로 출연하였고, 독일에 머무는 동안 『무용예술의 연구』를 남겼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무용가 루이자 그린버그는 ‘거장 쿠니 마사미는 움직임의 예술과 교육무용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세계의 무용교육가들은 그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961년 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신무용 극장(New Dance Theater) 책임자로 초빙되었으며, 뉴욕 뉴스쿨대학 무용과 주임을 맡았다. 196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립 플러튼대학 무용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플러튼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퇴임하였다. 그 후 교육무용 일본연구소장(일본), 쿠니 댄스 파운데이션(미국) 이사장 겸 예술지도자로 일본, 미국, 독일을 오가며 무용교육자, 이론가, 안무가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우리무용 100년』, 김경애, 2001

「박영인의 예술과 인생」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ntmal?Redirect=Log&logNo=20024107195>)

박영준(朴盈遵, 155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홍려). 북구 상안동 출생. 일명 사종(嗣宗).

참봉 보(輔)의 큰아들이다. 임란 때 아우 사남과 매부 전용충을 따라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통훈대부 어모장군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부호적대장』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영철(朴永哲, 1926~2007)

의료인. 본관은 밀양. 중구 학산동 출생. 호는 동강(東岡)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를 다니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경북고등학교의 전신인 공립 경성제2고등보통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걸었다. 1970년 울산 옥교동 160번지에 울산연합병원을 개원하였다. 전문진료과목을 배치한 울산 최초의 준종합병원이었다. 1976년 울산고려병원으로 개명하고, 전국 10번째로 보건사회부에 등록하였다.

1981년 6월 13일 중구 태화동(세칭 반탕골 입구)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을 설립하여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동강병원은 공업도시와는 달리 극도로 낙후된 울산지역의 제반 의료여건을 해결하고, 진료·교육·연구 중심의 병원으로 의료인재 양성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울산광역시 제12대 의사회장, 대한병원협회 경남지부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87년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참고자료】

『동강병원 15년사』, 울산동강병원, 1996

『동강 박영철의 살아온 이야기 - 철아 철아 우리 철아』, 동강병원, 2011

박영출(朴榮出, 1919~2007)

사회활동가. 본관은 밀양. 중구 우정동 출생. 호는 진석(眞石).

1960년 12월 울산읍 의회에 진출하여 연이어 3회 당선하였으며, 읍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1964년 울산문화원 설립을 주도하였다. 한글학자 최현배와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협조를 얻어 문화원 도서관에 1만 6천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게 되었다. 초대 울산문화원장으로서 울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재』 『울산문화재총람』 『내고장 전통』 『울산의 전설과 민요』 『처용연구논총』 『울산지명사』 등을 발간하였다.

1967년 울산공업축제부터 진두지휘하여 쇠부리놀이를 발굴 시연하였으며, 마두희와 물당기놀이, 재넘자놀이, 농악놀이 등을 개발하여 울산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였다. 제6대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만한 운영자금의 회전과 일반 상공업자들의 금융 이용 및 대기업의 어음할인 등의 편익을 위해 단자회사를 설립하고 종합대학 설립을 건의·추진하였다.

초대~10대(1964~1998) 울산문화원장으로서 34년간 지역의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같은 공적으로 제1회 울산시민의 장과 대한민국문화포장 및 대한민국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후임 울산문화원장 서진길, 김철 랑제문화재단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 남구문화원 뜰에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참고자료】

『울산남구문화』 5집, 「추모특집 고 박영출 전 울산문화원장」, 2007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박용복(朴容復, 1824~1895)

유학자. 본관은 밀양. 북구 송정동 출생. 자는 여옥(汝玉). 호는 송은(松隱).

아버지는 밀양박씨 송정문중의 입향조 괴천(槐泉) 박창우(朴昌宇)의 5대손 사유(思裕)이고, 어머니는 여강이씨다. 정헌(定軒) 이종상의 문인이다. 47세 때인 1870년(고종 7) 경오식년시에 식년진사 3등 88위로 합격하였고, 일천(逸薦)으로 북부도사를 지냈다. 형제로는 헌복(憲復)·인복(寅復)·영복(寧復)·관복(寬復)이 있고, 아들은 문과에 급제한 시룡(時龍)과 시규(時奎) 형제이다. 광복회사건으로 순국한 상진(尙鎭)이 손자이다.

【참고자료】

『송정기원후4경오식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庚午式司馬榜目)』

『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 박중훈, 2008

박용진(朴壙鎭, 1902~1988)

유학자. 본관은 밀양. 북구 송정동 출생. 자는 송부(崇夫). 호는 창릉(蒼菱).

조선시대 대사헌 박해(朴咳)의 17대손으로 송덕전 참봉 시준(時駿)의 아들이다. 창고 박규진과 묵은 박시주에게 한학을 배웠다. 대구고보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공부하려 하였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한학을 배우다가 노주 김영의의 문하에서 천문, 지리, 수학, 물리, 내경, 의례 등 신구학문을 연수하였다. 학문과 덕행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아 58세에 의성 덕양서원장, 73세에 안동 도산서원장, 76세 하양 금호서원장, 79세에 달성 도동서원장, 안동 병산서원장, 80세에 안동 임천서원장, 81세에 안동 서산서원장을 역임하였다. 향내에서는 울산향교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영남 유림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저서로는 울산울주지 편찬위원장으로 『울산울주지』를 현대식으로 편찬하였고, 울산향교 중수기, 언양향교 중수기, 반구서원 중건기 등을 썼으며, 『울산울주지』의 서문, 송덕전 예빈관 상량문 등 기문과 상량문 다수를 지었다, 『창고문집』 『묵은문집』을 편찬하였으며, 자신의 문집인 『창릉집』을 남겼다.

경주, 영천, 안동, 성주 등 영남 유림에서 영수로 추대하였으며, 영남에서 이름이 높아 『영남인물지』에 등재되었다. 사후에 영남유림 300인이 발의하여 선생으로 추대되어, ‘창릉 박선생’이라 호칭하게 되었다. 2005년 5월 창릉문학상이 제정되어 해마다 수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영남인물지』, 권경락, 2004

박원주(朴元柱, 1915~1992)

본관은 밀양.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옛골 출생.

우찬성 문경공 낙촌 충원(忠元)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시응(時應)이고 어머니는 파평윤씨이다. 언양농업학교와 만주 신경공학원을 졸업하였다. 제10대 언양면장(1949.6 ~ 1952.3), 초대·2대 경남도의원(1952~1960), 1957년 8월 경남도의회 부의장(피선), 민주공화당 울산시·울주군지구당 위원장(1971), 울주군정자문위원장(1983.5) 등을 역임하였다.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재임시 극심한 가뭄 피해로 흉년이 들어 기근을 면치 못하던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평리에 오룡저수지를 축조할 때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동분서주 노력하여 척박한 직동평야를 수리 안전담으로 전환시켰다. 1973년 7월 몽리민들은 그의 공적을 기려 오룡저수지 제당에 오룡저수지축조공적비를 세웠다.

울주군정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장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특히 울주군민헌장과 군목(郡木), 군화(郡花)를 지정토록 하여 울주군민의 자긍심과 향토 사랑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박채은) 조사 자료

박원호(朴元鎬, 1917~2004)

본관은 밀양.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옛골 출생. 호는 석정(石汀).

아버지는 시응(時應)이며 어머니는 파평윤씨이고, 박원주의 동생이다. 울산농업학교와 일본 동경 중앙대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49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되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전주지방검사장(1968), 법무부 검찰국장(1969), 부산지방검사장(1973) 등을 역임하였다. 국제검찰 및 교정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시에는 고향 주민들의 법률적 문제 등에 많은 조언과 함께 도움을 제공하였다.

만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권익과 정의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로타리 3660지구 부산로타리클럽 제30대 회장으로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힘썼다. 홍조소성훈장(1962), 황조근정훈장(1970)을 받았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박채은) 조사 자료

박윤웅(朴允雄, ?~?)

고려 개국공신, 울산(흥려)박씨 시조. 시호는 장무(莊武).

신라 경명왕의 막내아들인 국상공(國相公) 박교순(朴交舜)의 7세손이다. 901년(효공왕 5) 지금의 중구 학성동 일원(당시 하곡현 신두산)을 거점으로 삼고, 신학성장군(神鶴城將軍)이 되어 울산 고을을 통치하는 호족장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번창하였다.

918년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930년(경순왕 4) 9월 최환(崔奐)을 사신으로 삼아 하곡현을 고려에 넘길 뜻을 전하였다. 이에 태조는 하곡(河曲)·동진(東津)·우풍(虞風) 등 울산 지역의 3현(縣)을 하나로 묶어 부(府)로 격상하고 ‘고려를 흥하게 했다’는 뜻을 담아 흥려부(興麗府)라 하였다. 이와 더불어 태조는 박윤웅을 흥려백(興麗伯)으로 봉작하고, 울산 지역의 여러 곳을 사채지(賜采地)로 하사하였다.

당시 사채지 중 하나였던 유포(柳浦)의 미역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조선 영조 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울산에 와보니 여전히 울산박씨 문중에서 이곳의 미역을 공물로 받고 있어 이를 나라에 환납토록 하였다. 그런데 그 뒤 이 미역바위가 3년을 연달아 크게 흉작이 들어 다시 박씨 문중에 되돌려 주게 되었다.’

【참고자료】

『고려사』 『동국문헌비고』
『영남인물지』, 권경락, 2004

박응정(朴應禎, 1539~1630)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울산(흥려). 북구 신천동 출생. 자는 국서(國瑞). 호는 병계(屏溪).

봉열대부 전략장군 여림(汝霖)의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4월 23일 기박산성에서 울산 의사와 경주 의사들이 편대, 결진할 때 좌익장을 맡아 5월 7일 밤 경상좌병영성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벼슬은 훈련원봉사에 이르렀고 뒤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증직되었다. 『병계실기』가 전한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응춘(朴應春, ?~1635)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흥려).

가선대부 호조참판 득량(得良)의 맏아들이다. 임란 때 사촌동생 영록과 함께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部將)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이명(朴而昭, 1615~1676)

조선 후기 무신. 본관은 울산(흥려). 경남 양산 용당동(당시 울산도호부 서면) 출생. 자는 용회(用晦). 호는 청계거사(淸溪居士).

승정대부 판돈녕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의 증직을 받은 아버지 경은(慶殷)과 정부인 남원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644년(인조 22)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선전관(宣傳官), 비변랑(備邊郎)을 거쳐 거창·보성군수와 장단·강계·회령부사, 길주목사를 지냈다. 전라·충청의 수사로 전라·충청·경상 3도의 병사를 겸임하였다.

그 후, 훈련원도정을 거쳐 어영중군(御營中軍)과 금군별장(禁軍別將)을 역임하였다. 효종대에 8장사로 뽑혀 여러 번 중진(重鎭)을 맡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진되는 등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경기도 과천의 청계산 아래에서 청계거사(淸溪居士)라 자호를 붙이고 살다가 1676년(숙종 2) 11월 4일에 별세하였다. 부음 소식을 듣고 임금이 크게 슬퍼하여 예조좌랑 오도일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참고자료】

『부북일기』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학수당삼세실기』, 흥려박씨말응정추원제, 1996

『한국사연구』 제96집, 한국사연구회, 1997

박인복(朴麟福, 1541~?)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흥려).

안일호장 장겸(長謙)의 넷째 아들이다. 임란 때 향리(鄉吏)로 있으면서, 형 인정·인지·인각과 아우 인안 등 5형제가 합심하여 망조당 서인충과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1592년 7월 29일 경상우감사 김성일의 장계(狀啓)에도 그 공이 기록되었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국역 망조당유사』, 망조당유사편찬위원회, 2011

박제민(朴齊珉, 1919~1943)

독립운동가.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인 1941년 2월 ‘항일결사연구회’에 가입하여 농업부를 맡아 활동하였다. 이 연구회는 그해 1월에 임평·이태길·장세파 등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이 민족의식 양양과 독립을 위한 실력배양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매월 10일 연구발표와 하급생 지도 및 동지 포섭 등의 방침을 정하고 1941년 2월부터 3월까지 6회의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였다. 졸업 후 각기 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되면 우수한 아동들에게 수재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지의 활동상황과 성과를 매월 1회 사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것을 취합하여 다시 전회원에게 배부하기로 하였다. 우송방법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공문으로 가장하였다. 1941년 3월 졸업 후 경북 경주 소재 하서공립국민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양양시키며 연구회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7월 대구사범학교 운동회의 간행물인 『반딧불』이 일제경찰의 손에 들어가면서 대구사범학교 비밀결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미결수로 2년여 동안 혹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10월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63년에 대통령표창,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정세현, 1975

『독립운동사』 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6권, 국가보훈처, 1988

『대한민국 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울주삼남지』, 삼남지발간추진위원회, 1998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박종우(朴鍾禹, 1925~1976)

시인. 본관은 무안.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출생. 호는 고무신(古無新).

아버지 재하(載河)와 어머니 경주최씨 사이의 5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무신 시인’으로 유명하다. 고향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1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2년여 동안 낮에는 막일을 하고 밤에는 니혼대학 문과에서 수학하였다. 1937년 일본이 일으킨 중일 전쟁(지나사변)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징병을 당해 만주로 끌려갔다. 중국 분지, 화북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다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양산 통도사에서 최현배를 만나 수학하며 한글공부를 하였다. 이후 교원양성소를 거쳐 부산과 안동, 경주 등지에서 국어교사 생활을 하였다. 문학 활동은 경주 문화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1946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흰구름 동인’을 결성하여 동인지 『흰구름』을 발간하였다. 1954년 경주고교 교장이던 청마 유치환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인 홍영기, 김영식, 김윤식 등과 시 동인지 『청맥』을 발간하였다. 동아대학 강사와 『자유공론』 및 『젊은 세대』 편집국장, 재향군인회 공보실장, 초대 청마문학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7년 『사상계』에 시 「나」로 신인상을 받았다. 시집은 등단 이전에 박병규와 합동으로 낸 『조국의 노래』(1950)와 개인 시집인 『습지』(1961), 『양지』(1967), 『한 알의 씨앗을 위하여』(1971), 『다시 가을에』(1975) 등이 있다. 사후 10년에 『고무신 박종우 시선』(1986)이 발간되었다.

【참고자료】

『울산문학』 20집, 「고무신 박종우의 인간과 문학」, 울산문인협회, 1993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박종하(朴鍾河, 1860~1940)

유학자. 본관은 고령. 자는 현가(鉉可). 호는 창은(蒼隱).

선무원종공신 박진남(朴震男)의 후손이다. 소암(小庵) 박시무와 일암(一庵) 윤인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고루한 구학을 반대하고 신학문을 주창하면서 학숙(學塾)을 세우고 많은 학도를 모아 교육시켜 배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다수의 유고(遺稿)가 전한다. 진주 축석루에 그의 시판(詩板)이 있다.

아들 박장집(朴長集, 1898~1979)은 해방 이후 울산중학교 설립에 참여하였다. 교사로 근무하다가 울산농림학교로 옮겨 한문교사로 재직하였다. 성균관으로부터 한문 실력자로 인정받아 울산향교를 맡아 관리하였다. 구강서원, 울산문화원 설립에 공헌하고 울산의 각종 문헌 발굴·출판 등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울주 삼남면장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박진연(朴震演, 1914~1999)

경제인. 호는 일천(一泉).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재단법인 울산육영회 이사장, 울산읍장, 울산시 행정자문위원장, 울산로타리클럽 회장, 울산팔각회장, 신화백화점 사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울산광역시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울산상공회의소 4~5대 회장(1973~1978)을 역임하면서 회관 증축, 사무국 기능 강화, 상의 자립기반 구축, 울주군과 양산군을 상의 관할구역 편입 등에 기여하였다. 울산항내 외항선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항선원안내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상담실을 설치·운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울산상공회의소, 2013

박추(朴諫, ?~?)

고려 후기 문신. 본관은 울산(흥려). 호는 사은(沙隱).

장무공 박윤웅(朴允雄)의 후손이다.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한 후 한주지사(韓州知事)를 거쳐 충청 감사를 역임하였다. 당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군자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하여 72명의 선비들이 관복과 관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지조를 지키다가 조정에서 지른 산불에 타죽은 것을 계기로, 그도 관을 벗어 성의 남쪽에 걸고 관직을 물러났다. 울주 사랑동(砂良洞, 현재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에 내려가 움막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의 용강사(龍岡祠)에 배향되었으나, 용강사가 폐해지면서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학산서원에 옮겨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박취문(朴就文, 1617~1690)

조선 후기 무신. 본관은 울산(흥려). 경남 양산 용당동(당시 울산도호부 서면) 출생. 자는 여장(汝章). 호는 만회당(晩悔堂).

흥려(울산)박씨의 1세인 흥려백(興麗伯) 장무공(莊武公) 박윤웅(朴允雄)의 후예이다.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인 아버지 반오현(伴鰲軒) 계숙(繼叔)과 정부인(貞夫人) 경주김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28세인 1644년(인조 22) 무과에 급제하여 할아버지 홍춘(弘春)과 아버지 계숙의 대를 이었다. 무신(武臣)의 가문 출신답게 백발백중의 명궁사(名弓士)여서 무과에 급제하자마

자 곧장 병사를 수행하는 군관으로 선발되었다. 그 후 경상좌도 병영과 수영의 우후(虞侯)를 거쳐 훈련원첨정, 부정, 초질금군장(初秩禁軍將) 등의 무관생활을 하였다. 인동, 갑산, 김해, 부령 등 여섯 고을의 수령과 진주, 경주 등 다섯 고을의 영장(領將)을 역임하다가 나이들어 퇴임하였다.

『만회실기(晩悔實記)』와 아버지의 부방(赴防) 일기와 그의 부방 일기를 모은 『부북일기(赴北日記)』를 남겼다. 『부북일기』는 부자가 회령지역에서 1년씩 부방생활을 할 때 남긴 무관일기로 울산에서 회령까지의 노정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있다. 당시 무인, 양반, 기생 등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006년 1월 26일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고 2010년 울산박물관에 기증되었다. 2011년 울산광역시는 그가 지었다가 훼손된 만회정을 태화강 내오산에 복원하였다.

【참고자료】

『학수당삼세실기(鶴睡堂三世實記)』 『현종실록』

박형관(朴炯權, 1927~2001)

독립운동가. 남구 달동 출생.

1944년 11월 중순경 고향에서 박춘근·박순복과 함께 비밀결사 독립운동청년회를 조직하고 기관지(機關誌)를 제작·열람하면서 항일활동을 모색하였다. 1945년 1월 가택수색 과정에서 비밀서류가 발각되어 일제경찰에 붙잡혔다. 그해 6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2년, 장기 5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8·15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1977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박홍남(朴弘楠, 1559~1638)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울산(흥려). 자는 경형(景亨). 호는 설망헌(雪望軒).

무안군수 지영(之榮)의 맏아들이다. 임란 때 사촌형 홍춘·사촌동생 홍신 등과 함께 창의하여 여러 곳에서 전공을 세웠다. 벼슬은 훈련원봉사에 이르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홍춘(朴弘春, 1537~1601)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흥려). 경남 양산 용당동(당시 울산군) 출생. 자는 경인(景仁). 호는 학수당(鶴睡堂).

장무공 박윤옹의 후손으로, 이산군수 지변(之忭)의 둘째 아들이다. 1564년(명종 19)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훈련원주부와 감포만호를 거쳐 언양현감을 역임하였다. 임란 때 아들 계속과 조카 계중, 사촌동생 홍남과 함께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1592년 9월 순찰사 한준겸과 경상좌병사 박진으로 하여금 동래와 기장의 적을 막아낼 때 서면장(西面將, 언양지역)을 맡아 많은 전공을 올렸다.

기장의 치적안에 '체찰사(體察使)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그의 공과 충절을 보고하여 울산군을 울산도호부로 승격시키고 통훈대부로 기장현감에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울산의 곳곳을 사패지로 받았다.

1996년 아들 계속과 손자 취문에 관한 글과 함께 『학수당삼세실기』가 간행되었다. 울산박물관에 기증된 유품 환도(環刀)가 2013년 8월 16일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학수당삼세실기』

방재구(方在矩, 1900~1925)

독립운동가. 본관은 온양.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당시 경성보통학교 2학년으로 오전 9시경 남대문역 광장으로 나갔다. 사전 약속에 따라 모여든 시위군중은 대부분 학생들이었다. 유점선 · 김승만 · 한홍이 등 같은 학교 학생들과 독립기와 적포(赤布)를 흔들면서 시가행진에 돌입하였다. 시위행렬이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일본 군경이 저지하였다. 1만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이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계속하자 일제는 군경을 증강시켜 무력으로 진압하고 시위 참가자를 무차별 체포하였다.

경성일보사 앞까지 진출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심문을 받았다.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한일합방 후 조선은 일본 정부의 정치 하에 있었으나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조선이 단독으로 정치를 집행한다는 뜻이다.”라고 답하여 일제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였다. 미결수로 옥고를 치르다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미결구류 90일 통산)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귀향하였으나 5년 후 26세에 사망하였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배기철(裴基澈, 1913~월북)

관료.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출생.

천석군 배부자로 알려진 인찬의 장남이다.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하고 보광중학교 교사, 두서면 우체국장, 양산보광중학교 교사, 농림부 농림과장, 농림부 농정국장을 지냈다. 조봉암 농림부장관 아래서 농지개혁의 실무자로 농촌개혁에 앞장서는 등 선각자의 길을 걸었다. 대지주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빈곤한 소작농의 편에 섰다. 소작농이 농토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입안한 후 1949년 6월에 제헌국회의 동의를 얻어 분배농지 상환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자신이 먼저 고향에 있는 자신의 농지를 법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봉건사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소유관계를 세웠다.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월북한 다음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유사』, 김석보, 1978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배두침(裴斗瞻, ?~?)

본관은 김해. 자는 망지(望之).

울산 입향조 배세륜(裴世倫)의 7세손으로 배욱(裴旭)과 과평윤씨의 큰아들이다. 평소 학행과 덕망이 높았다. 1659년(효종 10) 2월 9일 향교의 춘기석전(春期釋奠) 후 향리의 사우(士友)들과 구강서원(鷗江書院) 창건을 발의하였다. 창건 발의에 참여한 사림(士林)은 이기(李夔, 학생인) · 이정羲(李廷羲, 학생인) · 김중남(金重南, 고령인) · 이익(李益, 학생인) · 배두원(裴斗元, 분성인) · 안세경(安世卿, 광주인) · 이동영(李東英, 학생인) · 김중태(金重泰, 고령인) · 이제한(李梯漢, 청안인) · 전홍철(全弘哲, 경산인) 등 10명이다.

【참고자료】

『구강서원고왕록』

배봉수(裴鳳秀, 1928~?)

독립운동가. 남구 여천동 출생.

부산동래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 1일 부산진 소재 신정호의 집에 차병곤·박정오 등 12명의 동지들과 모였다. 1943년부터 독서회 활동을 통해 뜻을 같이해 온 동지들이었다. 비밀결사 순국단(殉國團)을 조직하고, 그는 선전책에 임명되었다. 독립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만주로 집단 망명계획을 세웠으나 실행 직전인 1944년 8월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단원 모두가 체포되었다. 1945년 8월 석방되기까지 미결수로 부산형무소에서 1년 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3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배철수(裵哲秀, 1905~1988)

사회활동가. 호는 산단(山丹).

성서학교를 졸업한 후 전국단위인 재건국민운동 경상남도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식 변화를 위해 활동하였다. 항상 백의민족의 상징인 흰두루마기 한복을 차려 입고 일생동안 민족정신 함양과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교화운동을 하였다. 청중을 휘어잡는 웅변가, 종교사상가로 널리 알려졌다. ‘울산의 함석헌(咸錫憲)’이라 불리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백근손(白斤孫, 1561~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수원.

임란 때 창의하여 수문장으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37세로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후에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삼남면 작괘천의 마애비에 음각되었다. 동향공신들의 추모제당인 삼남면 교동리 원모사(遠慕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백두선(白斗先, 1899~1966)

경제인. 본관은 수원. 울산군 대현면 부곡리 출생.

아버지 일관(日寬)과 어머니 경주최씨 연이의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7세의 나이에 방어진에 진출하여 가마니 새끼 장사를 하고, 목선으로 정어리잡이를 시작하였다. 30세에 저인망기선사업을 하면서 방어진에서 처음으로 목선제작조선소 3개를 통합하여 함백조선주식회사(건국 후 울산군내 주식회사 제1호)를 설립하여 방어진 지역사회 경제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줄 정도로 덕망도 갖추었다. 당시 저인망어선과 정어리잡이 근착선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방 후에는 나가선(상어잡이) 저인망선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인 어업을 경영하였다. 전 가족 4남 1녀가 모두 수산업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포경업의 신기원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방어진향토사연구』, 한석근, 1998

백봉근(白鳳根, 1897~1936)

독립운동가. 본관은 수원. 중구 병영1동(남외동) 출생. 호는 서봉(瑞峰).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4월 22일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答) 90도(度)를 선고받았다. 2002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백상건(白尙鍵, 1907~1970)

경제인. 본관은 수원. 울산군 대현면 부곡리 출생.

아버지 일관(日寬)과 어머니 경주최씨 연이의 4남 1녀 중 3남으로 출생하였다. 두선 등 형들과 함께 방어진으로 진출하여 저인망을 시작하였다. 해방 후 1946년 방어진수산주식회사 전무로 취임하였다. 둘째 형 천건(千鍵)과 함께 1948년 11월에 동양포경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사세를 확장하여 형제포경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전성기에는 근착선만 17척을 보유할 정도로 방어진 경제를 이끌었다.

당시 방어진에서는 포경과 일반 어업에서 이들 형제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울산 어업계의 선두 주자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척박한 방어진 어민들의 일자리 제공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방어진 포경 역사의 효시로 방어진항을 어업전진기지화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1952년~1956년까지 경남도의회 초대 울산군 제1선거구 도의원에 당선되었다.

【참고자료】

『방어진향토사연구』, 한석근, 1998

『세계 포경사 연구』, 한석근, 2005

경남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ncl.or.kr>)

서달급(徐達級, 1746~1820)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달성. 자는 희성(希聲). 호는 송월당(松月堂).

선무원종공신 망조당 서인충의 후손이다. 학식이 뛰어나 향림(鄉林)의 향도(嚮導) 역할을 하였다. 1791년(정조 15) 선조인 망조당 서인충의 추모지소인 다산사(茶山祠)의 창건을 주도하였다. 망조당 선조의 임란 때의 탁월한 공적과 벼슬의 추증에 대한 상언(上言)을 이조(吏曹)에 올려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추증(追贈)하는 정조 임금의 전교(傳敎)를 받아내었다. 향중(鄉中)의 훌륭한 유학자로서 그를 숭앙(崇仰)하는 향인(鄉人)과 후학들이 많았다.

【참고자료】

『정조실록』 『울산읍지』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국역)망조당유사』, 망조당유사편찬위원회, 2011

서덕출(徐德出, 1906~1940)

동요작가. 본관은 달성. 중구 중앙동(교동) 출생. 본명은 정출(正出). 호적 이름은 덕출(德茁). 어릴적 이름은 덕출. 예명은 신월(晨月).

여섯 살이 되던 1912년에 큰아버지집에서 분가하여 학산동으로 이사하였다. 학산동 집의 마루에서 놀다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정성을 다해 치료하였지만, 등이 굽은 채 불구의 몸이 되었다.

1912년 복산동 512번지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학교에 갈 수 없어 어머니에게 한글을 배우고 아버지는 부산, 서울 등지에까지 가서 문예지 등 여러 책을 구해 주었다. 15세 되던 무렵부터 직접 동요 창작을 시도하였다. 19세가 되던 1925년 봄, 아동잡지 『어린이』 5월호독자란에 「봄편지」가 입선되었다. 1927년 윤극영이 곡을 붙여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불려지면서 유명해졌다. 이런 인연으로 서울의 윤석중, 언양의 신고송과 정인섭, 대구의 윤복진이 울산의 복산동 자택에서 「슬픈 밤」을 공동으로 창작하기도 하였다. 1934년 전필남과 결혼하였다. 생업을 갖기 위해 약제사 공부를 하여 북정동 32번지로 분가하여 신약방 애생당(愛生堂)을 운영하였다. 1938년 척추의 신경통이 극심해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부분을 병상에서 지냈다.

「봄편지」 「눈꽃송이」 「슬픈밤」 「꼬부랑 두더」 「눈오는 날의 생각」 「맹서」 「봉선화」 「칠석밤」 등 총 69편의 창작시를 남겼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요 71편과 시 9편, 동화 1편, 생활문 15편 등 모두 96편이다. 1952년 유고 동요집 『봄편지』가 발간되었다.

1968년 10월 3일 새싹회가 신문학 60년 기념사업으로 중구 학성공원에 ‘봄편지 노래비’를 세웠다. 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봄 학성공원에서 울산중구문화원 주최로 ‘서덕출 봄편지 노래비 백일장’이 열리고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울산작가회에서 ‘서덕출문학제’를 개최하였다. 2013년 울산동요사랑회에서 이 사업을 이어 받아 이름

도 '서덕출동요제'로 바꾸었다.

【참고자료】

『오영수·서덕출 문학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연구』, 울산학연구센터, 2008

서몽룡(徐夢龍,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달성.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벼슬은 수문장이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서몽호(徐夢虎, 1539~1615)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달성. 북구 호계동 출생. 자는 병보(炳甫).

면(勉)의 아들이다. 임란 때 이웃 장정을 모아 창의하였다. 5월 이경연·장희춘·이한남·박봉수·고처겸·박진남·박응정·심환·김응방, 견천지, 이봉춘, 진응충, 진영방 등 경주와 울산의 의병장들이 기박산성에 모여 편대, 결진(結陣)할 때 참여하였다. 5월 7일 밤 병영성 탈환전에 참전하여 크게공을 세웠다. 6월 9일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경주·울산간의 여러 전역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며 수문장을 제수받았다. 그 후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서무출(徐武出, 1898~1953)

독립운동가. 본관은 대구.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죽정(竹亭).

1919년 4월 4일과 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8월 25일 출옥하였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서상연(徐相演, 1941~2003)

시인. 본관은 달성.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출생. 호는 운정(暈亭).

선무원종공신 망조당 서인충의 후손이다. 1979년 『계절의 여적』으로 등단하였다. 부산일보 울산지사장을 지내고, 제10대·11대·14대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장(1981~1984, 1989~1990)을 역임하였다. 소설가 김동리 · 오영수 · 박상지 등과 친밀하게 지냈다. 1990년 울산시민의 장(문화예술장)을 수상하였다. 1991년 지방종합지 월간 『울산저널』을 창간하고 대표직을 맡았다. 말년에는 경상일보 논설실장을 역임하였다. 시집으로 『계절(季節)의 여적(餘滴)』(1979), 『떠나는 봄』(1988), 『까치소리』(1992)가 있다.

【참고자료】

『까치소리』, 서상연, 1992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서인충(徐仁忠, 1554~1610)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달성. 동구 남목동 출생. 자는 방보(邦輔). 호는 망조당(望潮堂). 고려 판도판서 진(晉)의 후손이며, 달성군 영(穎)의 8세손이다. 행공조참의 증통정대부희(熙)의 아들이다.

1591년(선조 24) 무과에 급제하였다. 다음해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아직 관직이 부여되지 않은 신분임에도 흠어진 군민 3천여 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그를 권지훈련원봉사(權知訓練院奉事)에 제수하였다. 그 후 많은 전공을 세우자 경상우도감사 김성일 · 도원수 권율 · 경상좌도병마절도사 박진 · 어사 한준겸이 그의 전공에 대한 장계(狀啓)를 올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에게 용양위부장을 제수하였다. 주사장(舟師將)으로 울산가군수 김태허를 도와 많은 전공을 세웠다. 6월 문천회맹과 1593년 2월의 태화강전투, 4월의 이견대전투, 10월의 구강회맹 등에 참여하였다. 1593년 부산대대포침사에 제수되었고, 1594년과 1598년 부산진수군첨절제사에 제수되었다. 이때 그는 건공(建功)장군에서 어모(禦侮)장군으로 승서(陞敘)되었다. 1596년 3월 제1차 팔공산회맹, 1597년 7월 창녕의 화왕산회맹에도 참여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여 조·명연합군이 왜병과 싸울 때 명나라 군사의 군량미 보급 수송에 만전을 기하였다. 조정의 논공에 따라 멸악사(현 울산 남목)의 옛터를 상으로 하사받았다.

1605년(선조 38) 조정에서 임란공신들을 시상할 때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1610년 6월 10일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울산 동쪽 남목동 남옥산 기슭에 장

사지냈다. 남옥산은 조정에서 하사받은 멸악사의 옛터이다. 1784년(정조 8) 3월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도정으로 특증(特贈)되었다. 1791년 5대손인 달급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다산사(茶山祠)에 제향되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 훼철되자 1926년 남목에 옥강정사(玉岡精舍)를 지어 제사를 잇고 있다.

1907년 후손들에 의해 『망조당유사』가 간행되었으며, 이 책에는 윤지태 울산도호부사가 찬한 묘갈명 등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왕조실록』 『울산읍지』

「망조당 서인충장군 사적비문」

『(국역)망조당유사』, 망조당유사편찬위원회, 2011

「꽤하면 불에 타 죽기를 맹세한 서인충」, 이은영

서장성(徐章聲, 1880~1952)

유학자. 본관은 달성. 중구 태화동(명정) 출생. 자는 국윤(國允). 호는 화정(和亭).

선무원종공신 망조당 서인충의 후손이다. 경사를 애독하는 등 많은 학식을 쌓았다. 오산(鰲山)에 ‘관어정(觀魚亭)’이란 정사(精舍)를 세우고, 학문에 낙을 붙이며 은거자적하였다. 현재 관어정은 남아있지 않다. 지역의 유풍진작과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오산의 서쪽 바위면에 직접 지은 시(詩) 한 수(首)가 새겨져 있다. 묘소도 그 위에 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태화강, 삶과 문화』, 울산학연구센터, 2012

서장표(徐章表, 1846~1936)

본관은 달성. 자는 두여(斗汝). 호는 주수(疇叟).

선무원종공신 망조당 서인충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극덕(克德)이며, 아버지는 연병(淵秉)이다. 1902년(광무 6)에 제릉참봉(齊陵參奉)으로 증통정대부(贈通政大夫)를 칙지(勅旨)받았다. 1924년 5월 22일 울산 구(舊)삼호교 개통식 때 향중(鄉中) 연장자 중에서 덕망과 신망이 높은 사람을 가려 맨 앞에 세워 다리를 건너도록 하였는데, 그가 선택되었다. 후학 양성에 기여하면서 지역내 유풍진작에도 한 몫을 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읍지』, 1934

『흥려승람』, 1937

서정일(徐精一, 1673~1754)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달성. 중구 다운동 다전마을 출생. 자는 중숙(中叔). 호는 퇴연재(退淵齋).

선무원종공신 망조당 서인충의 증손이다. 평소 학행(學行)이 뛰어나고 덕망(德望)이 높아서 따르는 후학들이 많았다. 자비(自費)로 서당을 지어 많은 문하생(門下生)들을 양성하였고, 후학들이 울산 향내의 유풍(儒風) 진작(振作)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서 구한말까지 울산지역내 유림들 가운데 것처럼 직접 자비(自費)로 서당을 세우고 후학 양성에 기여한 향내의 사인(士人)들은 이문구(李文壽) · 박만위(朴萬胃) · 김이일(金爾鎰) · 박구년(朴龜年) · 윤덕은(尹德殷) · 박민덕(朴敏德) · 박천계(朴天啓) · 서유항(徐有恒) · 서채신(徐采臣) · 서양신(徐亮臣) · 박사은(朴思殷) · 박사렴(朴思濂) · 윤인석(尹仁錫) · 박희수(朴喜洙) · 김장일(金章鎰) · 김기엽(金基燁) · 박종하(朴鍾河) · 이우락(李宇洛) · 이승헌(李升憲) · 고석표(高碩標) · 고제응(高濟應) · 박창한(朴昌漢) · 박시유(朴時裕) 등이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서진문(徐鎭文, 1901~1928)

독립운동가. 본관은 달성. 동구 일산동 출생.

병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동면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였다. 외사촌 성세빈이 설립한 일산사립보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동경대지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심사위원과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재일조선노동총동맹 제4회 대회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총괄하는 지휘부인 신중앙위원으로 선임되어 노동운동과 여성교육에 앞장섰다. 1928년 일본 천황의 암살을 위해 활동하던 중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혹독한 고문을 받아 일생을 마감하였는데 일본조선노동조합장으로 장사를 지냈다. ‘제2의 윤봉길’이라고 불리었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경상일보』

『일제~1960년대 울산의 교육』, 김호연·이지은, 2007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부산·울산·경남지역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홍순권 외, 2011

『지역과 역사』 20, 「1920~37년대 울산 동면지역의 사회운동」, 이현호, 2007

서진환(徐鎭煥, 1927~2008)

관료. 본관은 달성. 중구 다운동 다전마을 출생.

선무원종공신 망조당 서인충의 후손이다.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교통부 항공국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비유학생에 선발되어 2년간(1956년 10월~1958년 7월) 미국연방항공청 'FAA 아카데미'에서 항공관련업무 전반과 통신과정을 배우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항공업무를 시작하였다. 교통부의 시설과장, 항공국 항무담당관, 항공보완시설 보수소장(부기감), 시설국장(기감) 등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하였다.

우리나라 항공업무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항공업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2년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발전과 항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울산비행장' 신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준공될 때까지 기여하였다. 녹조훈장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서태식(徐泰植, 1889~1973)

독립운동가. 본관은 달성.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만세운동 때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장터를 누비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3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5권, 국사편찬위원회, 1992

설두하(薛料廈, 1899~1980)

교육자. 중구 출생. 호는 무집(無執).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교사 및 농소초등학교, 울산·방어진·대현중학교 등에서 교장으로 32년간 교육계에서 활동하였다. 민주공화당 울산지구당 사무국장 및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문공분과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울산공업도시 기반조성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울산의 3·1만세운동과 관련하여 독립정신과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의 참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여 숙원사업이었던 병영3·1사당을 건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학성초등학교 교가와 1962년 '울산시민의 노래'를 작사하였다. '울산시민의 노래'는 울산시청이 중구 옥교동에 있었던 초창기 시절의 아침 조회시간에 공무원들이 불렀다. 대

표적인 저서로 『논어풀이』가 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성세룡(成世龍, 1903~1958)

사회운동가. 본관은 창녕. 동구 일산동 출생.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를 졸업하였다. 1926년부터 태화보통학교와 농소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일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면직되었다. 이후 신간회가 창립될 당시 신간회 울산지회 창립에 앞장섰다. 신간회 울산지회 집행위원으로 형 세빈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울산에서 조직되었던 울산청년연맹에도 가입해 조사부장으로 있으면서 문자보급과 농촌계몽,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12월부터 동아일보 기자생활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지역 소식을 많이 기고하였다.

형 세빈의 뒤를 이어 사립보성학교를 인수하여 해마다 학교를 재인가 받는 단과형식의 보성학원으로 바꾸면서까지 일제에 굴하지 않았다.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총 56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참고자료】

『경상일보』 『조선일보』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울산교육사』, 울산광역시교육청, 2001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2007

『일제~1960년대 울산의 교육』, 김호연·이지은,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야기 동구 100년』, 울산광역시 동구, 2011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송재용 외, 2011

성세빈(成世斌, 1893~1938)

사회운동가. 본관은 창녕. 동구 일산동 출생.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고, 사랑방교실을 개설하여 문맹퇴치와 농촌계몽운동에 전념하였다. 이후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개인재산을 털어서 항일교육을 실시하는 사립보성학교를 설립하였다. 1922년 5월에 울산군 동면 일산리(현 동구 일산동)에 4년제 설립 인가를 얻어 개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지역 젊은이들의 문맹 퇴치에 힘썼다. 일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생수가 늘어나 1925년에는 6년제 수업으로 연

장하여 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보성학교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요람 구실을 하자 1929년 3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동생 성세룡이 인수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

1925년 동아일보 동면 분국장을 맡으며 사회운동을 시작하였고, 10월에 결성된 울산군 청년연맹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6년 울산군내 사상단체인 자오회(子午會)의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8년 신간회 울산지회가 설립되자 부회장직을 맡아 신간회 울산지회 동면분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섰다. 이같은 전국 규모의 항일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중앙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울산지회를 중심으로 문자보급운동, 미신 타파, 농촌계몽운동, 금주·금연운동을 추진하였다. 1931년 신간회가 일본의 압력으로 해체된 후 주로 경제분야 활동을 하면서 방어진소비조합 전무이사, 방어진양조회사 감사와 전무이사를 지냈다. 어장과 정유소 등을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울산교육사』, 울산광역시교육청, 2001

『일제~1960년대 울산의 교육』, 김호연·이지은, 2007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야기 동구 100년』, 울산광역시 동구, 2011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송재용 외, 2011

『지역과 역사』 20, 「1920~37년대 울산 동면 지역의 사회운동」, 이현호, 2007

성진탁(成震鐸, 1781~1839)

천주교인. 본관은 창녕.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정절공(貞節公) 고려 직제학 성사제(成思齊)의 증손인 군수 자부(自富)의 11세손이다. 계인(啓仁)의 아들로 큰아버지 수인(守仁)에게 입양되었다. 순교자 처인(處仁)의 7촌 조카이다. 할머니가 몰래 개가를 하여 가문을 밝혀야하는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학문에 나가지 않고 상업, 특히 무역에 종사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 상거래 차북경을 드나들면서 천주교 조선 교구가 중국 교구로부터 분리·독립하는데 공을 세웠다.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해박해(1839) 때 관헌에게 체포되어 아들 철규(喆奎)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의 죽음으로 성처인, 성진탁, 성철규로 이어지는 창녕성씨 진파(璉派)의 천주교 수용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언양 지역의 천주교 신앙은 다른 가문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성처인(成處仁, 1758~1801)

천주교인. 본관은 창녕.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아버지는 동우(東佑)이다. 언양의 향반이었던 창녕성씨 가문의 진파(璉派)에서 천주교를 가장 먼저 수용한 인물이다. 그가 천주교를 수용한 데는 윤지충과 황사영 등 남인과의 교류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론 가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만 천주교를 수용하게 된 것은 초기 천주교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학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1801년(순조 1) 7월에 충청도에 있는 처가에 갔다가 신유박해 때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고 이후 병사하였다.

【참고자료】

『언양성당이백년사 - 언양천주교회사』, 언양천주교회, 1991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성충갑(成忠甲, 1895~1957)

사회활동가. 본관은 창녕.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출생. 족보 이름은 낙중(洛中). 자는 달중(達中). 호는 운헌(芸軒).

관영(灌永)의 큰아들이다. 집안의 재산이 넉넉하여 향내 거부로 알려졌다. 여러 향사(鄕士)들과 3·1만세운동 이후 폐쇄 당한 상북면 거리의 천도교 울산교구실을 증축하여 1922년 양정학원을 개교하였다. 이 곳을 중심으로 지방 청소년들에게 민족교육을 고취시켰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성해당 남거(聖海堂 南居, 1854~1927)

근·현대 승려.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출생.

17세에 기장의 장안사로 출가하였다. 취룡태일(鷲龍泰逸)스님을 은사로, 해령(海嶺)스님을 계사(戒師)로 사미계를 받았다. 10년 뒤인 1880년부터 은사를 따라 통도사에 주석(住錫)하였다. 1892년 조선조 이후 끊어진 계맥(戒脈)을 이은 당대의 율사인 만하승림(萬下勝林)스님에게 대소승계(大小乘戒)를 수지, 눌암(訥庵)스님 문하에서 대교(大教)를 마쳤다. 이후 화두를 들고 참선 정진하였다.

1892년 39세에 통도사 승통(僧統)에 취임해 사격(寺格)을 일신하였고, 51세(1904년)에 통도사 총섭(總攝)이 되었다. 1906년 황화각(皇華閣)에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해 원장소임을 보면서 1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하였다. 황화각과 동곡루(同穀樓)를 중수하였으며, 1911년 부처님 진신사리탑 보수를 총지휘하였다. 1914년 보광선원(普光禪院) 원장이 되

어 남자들을 지도하였다. 통도사 부도전에 비가 봉안돼 있다. 문하에 구하 천보(九河 天輔), 재하 법성(齋河 法晟), 경봉 정석(鏡峰 靖錫), 경하 달윤(鏡河 達允)이 있다.

【참고자료】

『울산제일일보』, 「울산불국토가 배출한 근현대 승려 한국 불교에 큰 획」, 2013.5.15.
통도사(<http://www.tongdosa.or.kr>)

손병주(孫炳株, 1921~1943)

독립운동가. 중구 출생.

1939년 6월 일본 동경의 연수학관 학생으로 재학 중 장기의 간조농학교 선배인 이상만·박근철·심재인 등과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3인조 지하조직’을 결성하였다. 독립운동 지침과 지하조직 강령을 작성하고 조직원을 33명으로 정하였다.

1940년 4월 신입생 입학 자축회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선 학생은 조선인의 문화향상과 동포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 (중략) 조선의 독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조선인이 모름지기 조선인 정신을 견지하여 양양함과 동시에 조선 독립을 목표로 서서히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신입생들의 찬동을 얻어 그 목적과 실행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정책과 한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 창씨개명을 통한 민족혼 말살정책 등 일제정책을 규탄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 함양과 유사시에 대비한 무술 연마와 지하운동 전개, 일본의 전쟁 수행에 불리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인심 교란과 전의를 상실시킬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후 한국으로 송환되어 경북 예천·영주·안동경찰서와 대구형무소에서 2년여 동안 수감되었다. 잔인한 고문을 받다가 1943년 5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옥한 뒤 4개월 만인 8월 21일에 고향인 울산 중구에서 사망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손수복(孫秀福, 1877~1961)

독립운동가. 울주군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 읍내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

(度)를 선고받았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매일신보』 (1919.4.6)

『범죄인명부』, 경찰청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손진상(孫晋庠, 1913~?)

연극인.

근대적 의미의 울산연극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해방이 되자 신극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김태근·박태일 등과 극우회를 만들었다. 1947년 울산건국청년단원들이 결성한 '울산극우회'의 활동이 그 효시이다. 창단작품으로 「혁명가의 후예」(김태근 작, 연출)를 무대에 올렸다. 창작극(4막극)으로는 울산 최초의 작품으로 한 선비집안을 통해 조선조 말기에서 한일합방, 일제치하, 조국 해방에 이르기까지 민족 수난사를 짚어본 것이다. 그 후 1950년 6·25전쟁 전까지 울산연극은 학생극이 명맥을 이어갔다. 1964년 5월 BBS에 관여하던 김규현, 손탁 등이 불우청소년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연극 공연을 기획하였다. 「하늘에 별은 없어도」(김태근 작, 연출)라는 작품이다. 불우청소년들의 생활을 실감나게 다룬 작품으로 그와 이일성, 박재돈, 조무길, 김종언, 김인순과 BBS 학생 등 20여 명이 출연하였다. 장생포와 방어진을 돌며 공연을 했는데, 대성공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연극계와 교류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울산광역시사』 5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손진인(孫晋仁, 1869~1935)

독립운동가. 본관은 월성.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출생.

김창숙(金昌淑)의 사장(查丈)으로 1926년 김창숙이 독립군기지 건설과 군사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운동을 할 때 이를 지원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북경 등지에서 활동하던 김창숙은 1926년 1월 중국으로부터 밀입국하여 군자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김창숙 등은 내몽고 지방의 미간지와 황무지 20만 정지를 매입하여 이상촌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만주 지역의 한인들을 집결시켜 개간사업을 일으키고, 그 수익금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군대를 양성하는 둔병식 제도를 실시, 10년 동안의 실력양성을 통하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때 김창숙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자 그는 아들 손후익(孫厚翼)과 함께 김창숙을 보호하면서 정성껏 간호하는 한편 경주 지방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한 군자금 모집의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7년 2월 이 일이 발각되면서 그는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1995년에 건국포

장이 추서되었다. 울산보훈지청의 2003년 12월 우리 고장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2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울산보훈지청 http://www.mpva.go.kr/intro/intro_ulsan)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손학익(孫鶴翼, 1908~1983)

독립운동가. 본관은 월성.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출생. 다른 이름은 성석(成釋).

1927년 가을 류명술과 함께 방어진에서 생선장수를 가장하여 신주극의 지령을 받아 항일격문을 살포하려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당하였다. 1928년에는 대구에서 대협(大協)이라는 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중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3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30년에는 박재기·변기학과 함께 만주 길림성으로 건너가 그곳의 독립운동 상황을 살핀 후 흥사단(興士團) 계열의 반제동맹(反帝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6개월간 구금 당하였다.

1932년 서울로 돌아와 김중만 등 3명의 동지와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남 양산 일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던 중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당하였다. 이후 여운형과 김창숙의 지시를 받고 건국동맹의 지하조직 결성에 힘쓰는 한편 항일학생운동에도 관여하다가 체포되었다. 1945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1977년에 대통령포창,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7권, 국가보훈처, 1990

『범서읍지』,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송도(宋滔, ?~?)

생원. 본관은 연안. 북구 효문동·연암동 출생.

조선의 효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앓을 볼 수 없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였는데,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자 문득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병중의 어머니가 생선회를 먹고 싶어 하였으나 사 드릴 돈이 없어 직접 물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잡으려다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니 봉어가 뛰어나왔고, 제사음식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워 할 때 산 꿩이 집안으로 날아들어 이를 유용하게 제수에 쓰게 되었다. 부모의

상중에는 초막에서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면서도 불가(佛家)의 화장 예식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조정의 신하가 명(明)에 사신으로 갔는데, 명의 조정이 조선의 인물 될 만한 사람을 묻자 이에 대답하기를, “송도와 박효랑(朴孝娘)으로서 바로 하늘이 감복한 효자다”라고 하였다. 명의 신종(神宗)이 패문(牌文)을 내리며 이르기를, “우리는 왕상(王祥)같은 효자가 있으며, 조선은 송도 같은 효자가 있으니 이에 홍문(紅門)을 내린다”고 하였다. 이어 신종은 직접 글을 지어 효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지극한 효성으로 1428년(세종 10) 효자로 정려되고 표창을 받았는데, 『조선왕조실록』 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관련 기록이 전한다.

효문동(孝門洞)도 그의 효도에서 유래된 것이다. 연안송씨 족보에는 정려비가 본래 효문동에 있었으나, 1737년(영조 13)에 울산동헌 서쪽 연지(蓮池) 인근으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2006년에는 이를 다시 동헌 안으로 옮겼고, 현재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여지승람』

『학성지』, 1749

『울산지명사』, 이유수, 1986

『2013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2013

송병홍(宋柄虹, 1921~?)

독립운동가. 본관은 연안.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출생.

성균생원 송도의 후손이다. 고향에서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와 울산농업실수학교(蔚山農業實修學校)를 졸업하였다. 1938년 4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신문배달을 하면서 연수학관 영사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영사기사로 활동하였다. 손병계 등과 중일전쟁에서 장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면 일본도 결국 패전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봉기하여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구상하였다. 동지들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다가 1942년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3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송석하(宋錫夏, 1904~1948)

민속학자. 본관은 은진.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출생. 호는 석남(石南).

1912년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에 입학하였다가 중구 반구동으로 이사하여 1916년에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를 졸업하였다. 1920년 부산공립상업학교(현 부산상업고)를 졸업하고, 1922년 일본 동경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32년 손진태·정인섭 등과 함께 조선민속학회를 창립하고 종로의 자택에 사무실을 두었다. 사재를 기울여 민속학의 동인연구지 『조선민속』을 발행하였다.

1934년 이병도·김두헌·손진태·이병기·조윤제 등과 함께 진단학회 창설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하였다. 1945년 조선산악회를 창설하여 민족정신을 고양하였다.

광복 후에는 한미문화협력에 참여하는 한편, 미군정청의 문정관으로 와 있던 인류학자 크네즈(Knez, E.I.)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수집한 많은 민속자료를 토대로 1946년 국립민족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서울대학에 인류학과를 설치하고 강의를 담당(1946, 1947년)하였다. 국립민족박물관의 영문 명칭을 ‘인류학박물관(Museum of Anthropology)’으로 썼고, 1946년에 발족했던 조선인류학회의 사무실을 민족박물관 내에 마련하는 등 민속학을 인류학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병약하여 더 이상 뜻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조선민속학회장·진단학회장·조선산악회장·한미문화협회장·서울대학교 강사·민족박물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말큰사전』 편찬시 전문어로 분류된 1,286개의 민속어를 주해하였다. 가면을 포함한 많은 민속품을 수집하였으며, 만년에는 서적 수집에도 힘을 기울였다. 친사본(親寫本)으로 추정되는 『매월당시고(梅月堂詩藁)』 등 귀한 책이 많았다. 소장품 중 『삼국유사』 권1은 최남선이 1943년에 펴낸 『삼국유사』의 대본이었다. 사망 후 장서들은 간송미술관에 수합되었다. 전형필과 함께 재산을 뜻 있게 쓰면서 특히 민속학에 크게 공헌하였다.

유고집으로 『한국민속고』가 있다. 1975년 한국민속박물관은 그가 남긴 민속사진들을 담은 도록을 출판하였다. 1996년 정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한국민속고』, 송석하, 1960

『민속사진특별전도록 석남민속유고(石南民俗遺稿)』, 한국민속박물관,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석남 송석하 주해 민속어모음』,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2011

『한국학보』 86집~90집, 「굴절과 파행의 한국인류학백년」, 김경수, 1997~1998

송찬규(宋璨奎, 1838~1910)

유학자. 본관은 연안.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천소마을 출생. 자는 문영(文永). 호는 천사(泉史), 모은(慕隱).

생원 효자 송도(宋滔)의 후손으로 경의(經義)에 밝고, 시문(詩文)에 뛰어났다. 포은(圃

隱) 정몽주를 기려 언양 반구대에 「포은대실록비」(1890), 「포은정선생영모비」(1909), 「포은선생영모사」를 지었다. 당시 언양지역의 대표 유림으로, 유고(遺稿)가 전한다. 삼남면 작괘천변 작천정 앞 바위 면에 그가 지은 「모은대기」가 새겨져 있고, 바로 옆에 아들 송종옥이 지은 「모은대추술(慕隱臺追述)」이란 시가 새겨져 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신고송(申鼓頌, 1907~월북)

예술인. 본관은 고령.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본명은 말찬(末贊). 초기 필명은 신고송(申孤松).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 졸업 후 금융조합 급사(給仕)로 일하면서 동요 「진달래」와 아동극 「피바른 토끼」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울산의 서덕출, 대구의 윤복진 등과 ‘등대사’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경북공립사범학교(대구사범) 2년제 특과를 졸업하고 대구덕산보통학교, 경북 청도 유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카프(KAPF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 가담하여 활동하다 사상불온으로 면직되었다.

이후 ‘가두극장’ 동인을 거쳐 1931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좌경연극단체인 동지사(同志社)와 일본프롤레타리아연맹 산하 ‘조선협의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1932년 봄 서울로 돌아와 이상춘·송영·권환·강호 등과 프로연극단체인 ‘신건설(新建設)’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있었던 조선협의회 기관지 『우리동무』에 관련된 사건으로 이찬·강호·김태진과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35년 9월 출옥하여 광복 때까지 이철의 ‘OK그랜드쇼’단과 그 후신인 ‘조선악극단’에서 친일퇴폐극단의 조연자로 종사하였다.

1943년 12월 친일 성향의 제2회 국민연극경연대회에 「아름다운 고향」(4막6장)을 연출하여 수상하였다. 1944년 안영일·이서향·박춘명과 「성난 아시아」를 공동 연출하였다. 1부는 영·미의 동맹침략과 비인도적 죄악의 역사를 규탄하는 내용이고, 2부는 일본이 영·미에 전쟁을 선포한 이래 반도 조선인이 일본 천황의 자식으로서 전장에 나아가 충성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그해 11월에는 전쟁물자 공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비행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일어극을 쓰고 연출하였다.

광복 후에는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1945.9.17) 중앙집행위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1945.9.30) 연극부문 중앙집행위원이 되었으나 1945년 12월 6일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합되자, 1946년 봄 북조선문학예술동맹 결성에 참여하기 위해 박세영·송영·이동규 등과 월북하였다. 1956년 6월 예술대표단 단장으로 소련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는 민족예술극장 총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A.A)단결위원회 부위원장,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 월맹인민투쟁지지 부위원장 등 대외 활동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작품은 동요, 동극, 평론, 희곡 등 다양하며, 광복 전에는 아동문학가로 광복 후에는 연

극인으로 활동하였다. 처음부터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동적, 선동적인 요소로 일관된 전형적인 프로문학이었다.

2008년 그의 작품들과 일기, 편지, 강연문 등을 엮어 『신고송 문학전집』이 발간되었다.

【참고자료】

『죽은 동지에게 보내는 조사』, 신고송, 1945

『선구자들 : 신고송 희곡집』, 신고송, 195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신고송문학전집』, 김봉희, 2008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신광윤(辛光胤, 1549~161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영산. 울주군 삼동면 출생. 자는 언승(彦承). 호는 의용헌(義勇軒).

진사 취(鷲)의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들 전(荃)을 데리고 유광서 등과 의병을 일으켜 삼남면 취서산 사자평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으로 훈련원판관에 제수되고 이어 통정대부가 되었다. 임란 후 부장(部將)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삼남면 작괘천의 추모비에 새겨져 있으며, 동향공신들과 함께 삼남면 교동리 원모사(遠慕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신광재(辛光在, 1885~1921)

독립운동가.

서울에서 경신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에서 의용군에 소속되어 의용대장으로 활동하였다. 채찬·이병철·장창헌·백설령 등과 함께 평안도 대안지역인 관전·집안·통화·임강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1년 5월 중순에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있는 홍범도에게 부대를 파견하였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21년 8월 병으로 서거하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신근수(辛根秀, 1907~1974)

언론인.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출생. 호는 죽사(竹史).

일제하 언양청년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작천정 경내 청사대를 축조하여 언양을 중심으로 청년 항일정신을 양양시켰다. 해방 후에는 국제신문 언양주재 기자 및 지국장으로서 활동하였다. 언양청년회장(1935년 3월)이었을 때 ‘청사대(靑史臺)’라는 글씨를 남겼다.

【참고자료】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신전(辛堊, 157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영산. 울주군 삼동면 출생. 자는 형로(馨老). 호는 춘곡(春谷).

판관 광윤(光胤)의 큰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와 유광서 등을 따라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이때 이삼한이 ‘군가의용경인심간(君家義勇驚人心肝)’이라 하여 그 부자를 칭송하면서 ‘그들의 전공은 가히 가상할만 하다’고 하였다. 경주 문천회맹과 울산 구강회맹에 참여하였다. 사도진첩사(蛇渡鎭僉使)가 되고, 바로 통정대부 명천도호부사에 올랐다. 지방관으로 재임 시 선정을 베풀어 첩비(鐵碑)가 세워졌다. 전쟁이 끝난 뒤 첨정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삼남면 작괘천 추모비에 아버지와 함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동향공신들과 함께 삼남면 교동리 원모사(遠慕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신학업(申學業, 1901~1975)

독립운동가. 본관은 고령.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다른 이름은 신주극(申周極), 신주식(申周植).

1917년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를 졸업하였다. 1918년 일본으로 가 1919년 3월 일본 게이오대학 상과 야학부에 재학하던 중, 3·1운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였다. 10월 중국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동경정칙영어대학에 입학하였으나 다음해 1923년 7월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 후 1925년까지 경성 원남동 214번지 김철수 집에서 점원 일을 하였다.

언양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언양면에서 농민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928년 9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간회 울산지회 창립임원과 간사로 활동하다 1928년 대표의원을 역임하고, 언양청년동맹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1931년 7월 경에는 양산군 상서면에서 최해봉 등과 함께 권대형을 만나 적색농민조합 경남동부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신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3년 5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왜정시대인물사료」, 경성 복심법원 검사국, 1927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김승, 2003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심우빈(沈愚斌, 1915~1996)

사회활동가. 본관은 청송. 남구 선암동 출생. 호는 이경(利耕).

대현초등학교 1회 졸업자이며, 울산농림고등학교 전신인 울산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하였다. 다연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문장력이 뛰어났고 시조창과 서예를 즐겨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현면 매암동에서 과수원을 경영하였고, 1960년 제2대 배 협동조합장을 역임하였다. 1961년부터 1975년까지 1대~5대 울산 울주 초대농업협동조합장을 역임고, 1962년~1966년, 1974년 서울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로 1979년~1983년 울산향교 전교, 1980년 영남유도회 회장, 1982년 서울 성균관 이사를 역임하였다. 1986년에 울산로타리클럽 총재 지역대표로 활동하였으며, 1998년 울산로타리클럽 제8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1964.2.26), 『매일경제』 (1972.3.1)

『향토』 창간호, 「울산향교에 관하여」, 심우빈, 1981

울산향교(<http://www.ushg.co.kr>)

심원권(沈遠權, 1850~1933)

농업인. 본관은 청송. 남구 부곡동 출생.

조선말~일제시기 농촌생활일기인 『심원권일기』를 남겼다. 1870년부터 1933년 12월 10일까지 쓰여진 일기로 지방 유생이 농부가 되는 과정, 농사 방법, 물가 동향, 지방 유생의 가족관계, 의식세계 등 생활상이 담겨 있다.

일기 외에 그에 대한 기록은 없다. 과거 공부를 하는 유생이라는 면에서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거공부는 잠깐이었고 주된 생업이 농사였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평민과 다를 바 없었다. 평생을 자신의 집 주변 반경 4km 이내 지역인 고사, 신기(현 선암동), 명동(현 선암동), 선암, 야음, 구정(현 장생포), 유곶(현 고사동), 두왕, 나부곡(현 부곡동) 등에서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참고자료】

『심원권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

심자란(沈紫鸞, 1725~1742)

조선 후기 관기. 본관은 청송.

울산 향리 대연(大淵)과 울산도호부에 소속된 기녀였던 초경(楚京) 사이에서 태어나, 18세의 어린 나이로 수절하였다. 딸이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했던 당시 법에 의해 그녀 역시 공노비 신분의 기녀가 되었다. 당시 울산도호부사 권상일은 미모와 총기가 출중한 그녀가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알고, 10세 때 관청의 악기(樂妓)로 복역하게 하였다. 병영의 지방관이었던 윤면이 그녀의 총명함과 기예를 흠모하여 15세 때 첩으로 삼았다. 이후 윤면이 경기도 이천으로 전근을 가게 되자 그녀를 기적(妓籍)에서 빼어 함께 상경하였다.

윤면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울산 신임부사 정광운이 부임해 돌아오도록 명령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신임부사가 그녀의 부모를 감옥에 가두자 비로소 울산으로 돌아왔다. 1744년(영조 20) 5월 5일 울산 신임부사에게 인사하자 그녀의 부모를 석방하였다. 이후 신임부사의 수청을 거절하다 ‘나 죽게 되면 천리 밖에 있는 윤공 묘에 부장(附葬)하고 나의 수식의물(首飾衣物)을 팔아 나의 장비(葬費)로 쓰고 남은 의패(衣佩)는 윤공가(尹公家)에 보내주오’란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란과 ‘자란전’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춘향전’ 등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춘향전’의 수많은 근원설화 중 하나로서 ‘자란전’을 인정하고 있다. 이수봉 교수는 “춘향전의 근원설화는 많지만 ‘자란전’처럼 실제 사실인 것이 없고 이미 학계에서 정설처럼 된 만화본(晩華本)(1754)보다 자란 실화가 약 10년이나 앞서 있었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근원설화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란전’이 수록된 박민효의 『상체헌집』이 나온 것은 1924년이지만 그 동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경상일보』, 「울산출신 열녀 자란, 춘향전 실제 모델」 2007.8.31.

『울산광역시사』 2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주연구』 제2호, 「자란전 소고」, 이수봉, 2005

심환(沈渙, 1545~1612)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청송. 남구 여천동 출생. 자는 합여(合汝). 호는 일암(逸庵), 천재(泉齋).

장사랑 참봉 원공(元恭)의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4월 21일 박응정, 고처겸, 박진

남, 이한남, 김응방 등과 각각 20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제월당 이경연에게로 모여드니 그 수가 300여 명에 달하였다. 4월 23일 설단제천(設壇祭天)하며 박봉수를 대장으로 하는 편대를 결진할 때 기획관 역할을 맡아 5월 7일 밤 병영성 탈환전에서 기습 공격하여 큰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뒤에 울산 고을의 교수(敎授)로 제수되어 향풍의 교화와 계도에 힘썼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안성수(安星洙, 1913~?)

언론인. 북구 효문동 출생. 호는 동암(東巖).

동아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였다. 1947년 미군정청 인사처 보임과장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였다. 1953년 경상남도 산업국장을 거쳐, 부산문화방송주식회사 사장, 여수문화방송 대표이사 회장,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 사장, 부산축구협회 회장, 경남야구협회 회장, 경남농구협회 회장, 향토문화사업협회 이사장, 국제로타리클럽 376지구 초대총재 등을 역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업적을 남겼다.

【참고자료】

『대한연감 4288년판』

『대한민국건국십년지』, 대한민국건국십년지간행회, 1956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안장원(安長遠, 1924~1971)

독립운동가. 본관은 광주(廣州).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출생.

온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동래고보(현 동래중)에 진학하였다. 5학년이 되는 해에 노다이사건(부산항일학생운동)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1941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 여의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 동아대학교 경제과를 졸업하였다. 장귀애와 결혼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부산시사』,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학생 항일의거의 재조명』, 부산학생항일의거기념논집 편찬위원회, 1992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온산읍지』, 온산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안효식(安孝式, 1898~1948)

정치인. 본관은 광주(廣州).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출생.

경성의전(京城醫專)을 졸업하였다. 울산에서 의원을 개업하여 울산병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33년 울산 언양지역에 의원이 없자 언양읍 유지 박현진 등과 당국에 진정하여 언양공의를 겸하게 되었다.

1932년 11월 20일 울산사회단체회의에서 울산지역 청년유지가 창립한 울산체육협회 부회장을, 다음해는 울산체육회장을 역임하였다. 1935년 경상남도 도의원 김상희의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도의원이 된 후에는 도항제한의 불합리와 조선인의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울산공립농업학교의 학급 증설을 위해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학급증설기성회를 조직해 기금을 기탁하고, 경상남도 내무부장을 방문하여 학급 증설에 따른 경비의 보조를 부탁하였다. 정무총감이 울산을 시찰할 때, 울산공립농업학교 문제와 울산비행장 철거문제를 진정하였다. 그러나 울산공립농업학교 신축공사는 토지의 매수 비용 미지불과 일부 지주의 승낙이 확실하지 않아 준공 속도가 더디어서 1938년 3월 예정의 낙성식마저 불투명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학무당국에 공탁한 공탁금을 반환받고 지주들로부터 신속히 승낙을 받아내 학교 창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이후 울산야학인 울산학술강습소에 은잔을 기증하고, 1년제인 울산공립농업학교의 3년제 승격을 건의하였다. 제2국민의 교육을 위해 간이학교를 소학교의 분교로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청년운동활동을 하였으며, 신간회 울산위원장을 지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26.9.4, 1933.5.11, 1933.11.2, 1932.11.25, 1934.1.14, 1935.6.29, 1937.7.25, 1935.12.30, 1936.1.24, 1936.4.30, 1936.8.19, 1938.1.23, 1938.1.26, 1938.3.2, 1939.1.21, 1938.3.2)

『민족정기의 심판』, 화신출판사, 1949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양석룡(楊錫龍, 1892~1942)

독립운동가. 본관은 청주. 북구 연암동 출생. 호는 봉곡(鳳谷).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무수히 구타를 당하였다.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3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엄대섭(嚴大燮, 1921~2009)

사회활동가. 본관은 영월.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출생. 호는 간송(澗松).

5남매 중 장남으로, 8세 때 생활고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청소년기부터 가족을 부양하였다. 일본에서 책에서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로 헌 옷 장사를 시작하였다. 고베시의 야간 복신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을 개인 자격으로 전개한 마을문고(꼬마 도서관) 운동가로, 1951년 울산읍에서 3천원으로 ‘울산사립 무료도서관’을 열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후 군내 전 농어민을 대상으로 50여 개의 순회문고를 마련하여 봉사하였다. 1961년 사재 20만원을 기증하여 마을문고진흥회를 조직하였다. 문교부(현 교육부)의 후원을 얻어 마을문고 보급운동을 범국민적 독서운동으로 확산시켰다.

1983년에는 대한도서관연구회를 창립하여 공공도서관 개혁운동을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국내 최초의 자동차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의 책읽기를 유도하였다.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한국도서관협회 초대 사무국장, 대한도서관연구회장을 역임하였다. 1974년 외솔상(실천부문)을 수상하고, 1981년 8월 마을문고운동으로 의식개혁 등을 통한 농어촌 개발의 한 모형을 제시한 공으로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하였다. 2004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새마을문고운영실무』, 새마을문고중앙회, 1998

『이런 사람 있었네 - 도서관운동가 엄대섭 평전』, 이용남, 2013

엄준(嚴俊, 1885~1919)

독립운동가. 본관은 영월.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동천(東川).

울산 병영의 3·1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다른 3명의 동지와 함께 총을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1982년에 대통령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 『독립운동사』 3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오덕상(吳憲相, 1893~1968)

사회활동가. 중구 우정동 출생. 호는 일동(一東).

태화국민학교(현 울산초), 보성중학교, 일본 동양대학을 졸업하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으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30년 울산유치원을 개원하여 원장직을 역임하였다. 1946년 1월 울산에서 여성중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과 힘을 모아 재단법인 울산육영회를 설립하였다.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울산여자초급중학교(현 학성여중)를 개교하였다. 울산청년회와 울산민우회에 직접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 때마다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

지역 언론인으로 1932년 1월 울산에서 개최된 기자 발대식에 조선신문 지국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차용규와 함께 1937년 울산에서 처음으로 울산극장을 세워 대중문화 선도에도 앞장섰다. 1950년 2대 총선에서 울산 갑구에 출마하였으나 선거 사흘을 앞두고 포기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1930.4.16, 1939.1.21)
- 『울산교육사』, 울산광역시교육청, 2001

오연지(吳延祉, ?~?)

울산오씨 시조. 시호는 문충(文忠).

500년(신라 지증왕 1) 중국으로부터 귀화하여 함양에 정착한 오씨의 시조 오침(吳瞻)의 후예이다. 1216년(고려 고종 3) 오침의 24세손 현보(賢輔), 현좌(賢佐), 현필(賢弼)이 거란군을 격퇴한 공으로 각각 해주군(海州君), 동복군(同福君), 보성군(寶城君)에 봉해졌다. 이 중 해주군에 봉해진 오현보(해주오씨의 시조)의 8세 차손이다. 고려 충렬왕 때 진사 문과로 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郎 平章事)에 이르렀다. 동남변경을 침범하는 왜구(倭寇)를 토벌한 공으로 울산의 옛이름인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지면서 해주에서 분관하여 본관을 울산으로 하였다.

울산오씨는 희귀 성씨인데, 2000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울산오씨는 남한에 총 764가구에 2,49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한국성씨보감』, 은광사 편집부, 2000
- 『고창오씨 문충의 인물들과 정신세계』, 조규익 외, 2009

오영수(吳永壽, 1909~1979)

소설가. 본관은 해주.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13번지 출생. 호는 월주(月洲), 난계(蘭溪).

9세까지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언양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에 졸업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면사무소 서기, 우체국 사무원, 실내장식사, 간판일 등에 종사하였다.

1932년 일본 오사카 나니와중학 속성과를 수료한 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동시를 발표하였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39년 동경 국민예술원을 졸업하였다. 그 해 7세 연하인 김정선과 결혼하였다. 1943년 귀국하여 교사인 아내가 동래 일광보통학교로 전근함에 따라 어촌인 동래 기장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이후 그의 대표적 작품인 「갯마을」의 배경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1943년 범부 김정설을 통해 그의 아우인 소설가 김동리를 만나면서 문학에 뜻을 두게 된다.

광복 후 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49년 단편소설 「남이와 옛장수」(「고무신」으로 개제)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입선하여 이 작품을 『신천지』에 발표하고, 다음해 단편 「머루」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종군기자로 참전하였으며, 이때의 체험들을 「동부전선」 「종군기」 「전우」 「한탄강」 「두 피난민」 등의 작품에서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그 뒤 부산중학교에 전임하였다가 1955년 조연현, 임상도, 김구용, 박재삼 등과 함께 문예지 『현대문학』의 창간에 관여하여 초대 편집장을 맡았다.

그는 1976년 『황혼』을 출간한 후 고향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1977년 3월에 결국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로 낙향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창작에 전념하여 1978년 『잃어버린 도원』을 펴내었다. 1979년 각 지방의 특질을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차원에서 고찰한 「특질고」가 필화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간염이 악화되어 이 해 웅촌면 곡천리 침죽재에서 별세하였다. 그의 묘지는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화장산 기슭에 있다. 사후 1992년 10월에 오영수 문학비가 울산문화원(현 남구문화원)에 세워졌으며, 1996년 11월에는 모교인 언양초등학교에 문학비가 세워졌다. 그리고 1998년 5월 30일 한국문인협회에서 세운 오영수 문학 표지석이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 앞 화단에 놓여있으며, 「갯마을」의 배경인 기장군 일광면에 ‘오영수의 『갯마을』의 현장’이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오영수 관련 문학기념사업은 울산매일신문사 주최로 S-Oil(주)의 협찬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오영수 문학상, 오영수 전국 백일장, 학술 세미나 등의 기념사업이 2006년부터 오영수 문학제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1월 21일 언양읍 현양길 280-12에 오영수문학관이 개관되었다.

그는 1954년 첫 창작집 『머루』의 출간 이래 『갯마을』(1956)·『명암』(1958)·『메아리』(1960)·『수련』(1965)·『황혼』(1976)·『잃어버린 도원(桃園)』(1978)까지 7권의 창작집을 남겨 놓았으며, 1968년에는 전권 5권의 『오영수전집』을, 1974년에는 『오영수대표작선집』 전 7권을 출간하였다.

1955년 한국문학가협회상을, 1959년에는 아세아자유문학상을, 1977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오영수 문학연구』, 이재인, 2000

『오영수·서덕출 문학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연구』, 울산학연구센터, 2008

『한국현대소설사연구』, 「오영수의 작품세계」, 장사선, 1984

『현대문학』 425호, 「난계 오영수선생 유고 특집-오영수론」, 윤명구, 1990

『울산문학』 19집, 「오영수 문학의 재조명」, 울산문인협회, 1992

오웅결(吳雄傑, 1561~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고창. 북구 천곡동 출생. 본명은 웅결(雄杰). 자는 범결(範杰). 호는 서암(瑞巖).

선무원종공신3등인 탁(卓)의 맏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버지와 동생 응동 삼부자가 동대산 부동골(경주 외동읍 개곡리 소재)에 포진한 의진에 가담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군자감 주부(主簿)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오원근(吳洵根, 1912~1965)

의료인. 본관은 해주. 언양 출생. 호는 범석(凡石).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 동래고보를 거쳐 1944년 경성약학전문학교(현 서울약대)를 졸업하였다. 울산농고 화학 교사로 지내다가 1950년 전후에 울산약국을 개업하였다. 정식 약사자격증을 가진 울산 최초의 약사로 지역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울산시 약사회 초대~3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오위영(吳緯泳, 1902~1978)

정치인. 본관은 해주.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출생.

부산상업학교와 일본 신고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해방 전에는 지역 금융조합 이사로 활동하고, 해방 후에는 신탁회사를 인수하여 신탁은행으로 전환한 후 은행장으로 취임하였다.

정계에도 관심이 많아 1947년부터 이승만을 보필하던 8·8구락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

다. 울산 갑구에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무소속구락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원내자유당 창당에 관여하면서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자유당의 방해공작으로 포기하였다.

1955년부터는 민주당 창당에 합류하여 민주당 중앙위원과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56년 김택천, 최영근 등과 함께 민주당 울산군당을 결성하고 고문단을 역임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활동지를 부산으로 옮겨 출마하였다.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동구 을구에서 당선되었다.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참의원(경상남도)으로 당선되었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1958.5.3)

『직원록』, 조선총독부, 1928~1935

『대한민국인사록』, 내외홍보사, 1949

『대한민국건국십년지』, 건국기념사업회, 1956

『대한민국인물연감』, 청운출판사, 1967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약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인물은행사』, 「오위영 편」, 김병제, 198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현, 2013

대한민국헌정회(<http://www.rokps.or.kr>)

오유환(吳侑煥, 1917~1947)

독립운동가. 본관은 해주.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출생.

1941년 6월 일본 동경의 정지두공원에서 민족의식이 투철한 김규엽을 만나 농촌계몽 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김규엽은 그에게 “현재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호성(呼聲)에 지나지 않고 내선인 평등의 대우는 도저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해 민족적으로 단결하여 조선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농민대중을 계몽하고 그것을 민족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급무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1941년 12월 16일 하숙집에서 김규엽이 “일본은 5년간이나 중국과 전쟁하여 상당히 피폐되어 있고, 지금 또 세계의 최대 강국인 미·영과 개전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패전할 것이다. 이번 가을이 곧 우리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절호의 기회이다. 나는 근일 조선으로 돌아가 경성방면에 취직하여 지방의 동지와 암호 전보로 비밀리 연락을 하고 독립운동을 실행할 각오이다. 군도 크게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크게 공감하여 “일본이 아무리 무력이 강하다고 해도 세계의 최대강국인 미·영을 상대로 싸운다면 경제적으로 파탄을 초래하여 결국 패전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제휴하여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김규엽과 그 실행 방법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일제경찰에 검거되어 1943년 4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육

군형법위반, 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오탁(吳卓, ?~159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고창. 북구 천곡동 출생. 어릴적 이름은 탁이(卓伊). 호는 벽재(碧齋).

심정의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들 응걸, 응동과 함께 황희안·견천지·이눌 등의 의진에 합세하여 의병으로 전공을 세웠다. 임란 후 면향(免鄉)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좌영장(左領將) 예빈시주부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오한우(吳漢佑, 1760~1801)

천주교인. 본관은 해주. 울주군 언양 출생. 세례명은 베드로.

육촌 매제인 김교희와 함께 천주교를 받아들여 1790년경에 입교하였다고 전해진다. 서울을 왕래하며 같은 오씨 문중의 오몽상과 권일신, 정약용과 교분을 쌓고 『천주실의』와 교리 서적 몇 권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신앙공부를 하여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언양지역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 활동하다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 충청도와 경상도 경계지점에서 백지사(白紙死 : 문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물을 뿌려 질식사키는 형)로 죽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손자 치문과 증손자 상선도 천주교를 받아들여 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묘가 있다.

【참고자료】

『언양성당이백년사 - 언양천주교회사』, 언양천주교회, 1991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오해룡(吳海龍, 1938~2009)

정치인. 본관은 나주. 중구 북정동 출생.

제1대~2대 울산시의회 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전반기), 울산광역시승격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02 한·일월드컵 울산유치추진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지역 체육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울산중소기업협의회장, 울산상공회의소 상임위원,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동신공업사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울산 발전에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울산광역시의회 (<http://www.council.ulsan.kr/Korean>)

유광서(兪光瑞, 1568~1615)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기계. 족보 이름은 대신(大信). 자는 언상(彦祥).

정로위(定虜衛) 여주(汝舟)의 아들이다. 임란 때 언양지역의 의사 신광윤 등 4~5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사자평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올렸다. 다음해 10월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1594년(선조 27) 무과중시에 급제하고, 후에 훈련원봉사에 제수되었고 사재감정(司宰監正)에 이르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울주원사정재』(삼남면 편), 울주문화원, 2012

유철순(兪哲淳, 1885~1968)

독립운동가. 본관은 기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출생. 호는 양영(涼嬰).

임란 창의의사 광서의 11대손이다. 1919년 언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규장이 만세시위를 협의하기 위해 모은 7인 회의에 최해규·곽해진·이규천과 함께 참석하여 언양 독립만세운동의 거사를 결의하였다. 거사에 앞서 주요 인사에 대한 예비 검속에 걸려 최해규·최해선·곽해진과 함께 검거되었다. 구인에서 풀려난 후 언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는데, 황선운과 함께 몸을 피해 검거당하지 않았다.

1924년 작괘천 일대 임야 및 작천정 유원지를 오병선이 김홍조에게 매각하여 사유화되어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1926년 이를 곽해진, 이규천, 최지형 등과 함께 김홍조로부터 환매(換買)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1944년 작천정 정각 중수에 헌신하였고, 삼남면 농민조합장을 역임하였다. 낙동강하류 주민이 홍수로 집과 재물을 상실하자 구제금품을 기부(1933)하는 등 여러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언양 작천정에 그의 시판(詩板)이 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33.7.25)
- 『울주삼남지』, 삼남지발간추진위원회, 1998
-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윤가묵(尹家默, 1806~1890)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파평. 북구 화봉동 출생. 자는 가선(可先). 호는 남풍(南豊). 임란 의병장 윤희명(尹弘鳴)의 5세손이며 생원 병이(秉頤)의 아들이다. 과거시험에 뜻을 두지 않고 평생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 즉, 독서와 성리학의 성명도설(性命圖說) 연구에 힘썼다. 1855년(철종 6)에는 사도세자를 추존할 것을 건의하는 ‘치의리소(治義理疏)’를 지어 학생인 간우 이인중과 함께 한양으로 상경하였다.

유고로 1920년에 간행된 2권 1책의 『남풍집(南豊集)』이 전한다. 내용 중에서 당시 세속의 풍습이 옛 사람들과 다름을 안타까워하며 『소학』의 중요성과 함께 독서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도학(道學)’의 요체를 강조한 「권유일향사림문(勸諭一鄉士林文)」이 주목된다. 이 외에 「강좌시계(江左時契)」의 서문, 상량문 「화수재(花樹齋)」와 잡저(雜著)인 「와와설(臥窩說)」, 「반곡유거설(盤谷幽居說)」 등이 있다.

【참고자료】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윤대봉(尹大鵬, 1548~?)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파평.

영의정 필상(弼商)의 7세손이며 참봉 사보(思輔)의 아들이다. 학문에 힘써 진사가 되었다. 뒤에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사광마을로 이사하였다. 임란 때 의사 최준립과 함께 가슬현(운문령)을 지키면서 전공을 세웠다. 1593년 10월 구강회맹에 참여하였고, 통정대부 훈련원봉사를 역임하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윤동수(尹東壽, 1916~2012)

관료. 본관은 파평. 울주군 삼남면 출생.

일본동양대 전문부를 졸업하였다. 경상남도 기획관리실장과 마산시장을 역임하였고

1970년 당시 경상남도 울산시장에 임명되었다. 고향 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국 애족정신의 배양과 자주정신 함양, 창의적인 집무와 기반행정 강화, 사회적 복지사업의 추진, 공업단지 건설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협조, 문화공업도시로서의 건설목표 달성, 생산 증산과 근로의식의 증진’의 6개 항목의 시정 방침을 정하고 왕성한 시정활동을 하였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울산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윤봉수(尹鳳水, 1889~1971)

독립운동가. 본관은 파평. 울주군 언양읍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선고받았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윤수암(尹壽巖, 1906~1995)

노동운동가. 본관은 파평.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출생.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에서 노동을 하다가 오사카로 가서 노동단체 등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대판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이 되었고, 1928년 4월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 겸 동동맹의 대판지부 상임위원, 정치부장에 선임되었다.

일본지역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청년운동에도 관여하였다. 1928년 7월 하순 오사카의 동광학원에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조선』을 확장할 것, 청년동맹 대판지부에 공장반(工場班)을 확립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제경찰의 대대적인 검거로 붙잡혀 1930년 10월 6일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1933년 3월 23일 동경공소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4년 4월 29일 출옥하였다. 2006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윤진옥(尹璿玉, 1926~1950)

독립운동가. 본관은 파평. 남구 신정동 출생.

1944년 부산제2상업학교에 재학 중 울산비행장 확장공사와 도로 건설공사에 동원되었다. 근로작업 중 태업을 주도하고, 학우들에게 일본군에 지원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등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유치된 지 약 4개월 만인 1945년 6월 2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부산검사국에 송치되었다. 미결상태로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이 되면서 출옥하였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윤학이(尹學伊, 1886~1945)

독립운동가. 본관은 파평.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청류(淸流).

1919년 4월 울산 병영에서 이틀에 걸쳐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0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윤홍명(尹弘鳴, 1565~?)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파평. 북구 연암동 출생. 자는 응시(應時). 호는 화암(花巖).

팽량(彭良)의 아들로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형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동지들과 함께 창의하여 4월 18일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김대명, 김흡 등 의사들과 함께 의병 300여 명을 거느리고 대룡암으로 이동하였다. 미리 와 있던 이눌 등과 합진한 뒤, 바람을 이용하여 적선 10여 척을 격침하고 왜병을 크게 무찔렀다. 이어 4월 23일 개운포에서 상륙하는 적을 격파하고, 5월 28일 월성으로 진을 옮겨 격전

끝에 적을 물리쳤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6월 20일 선도산전투와 7월 18일 형산강전투에 이어 금오산과 문천전투에도 참전하여 적을 무찔렀다.

1593년 2월 모화전투와 문경의 당교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쳐 공을 세웠다.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1596년 2월 무룡산 달현 전투에서 적을 맞아 크게 격파하고, 3월과 9월에 있었던 1, 2차 팔공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정유재란 때, 7월 21일 방어사 곽재우가 지휘하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여 성을 지켜내는데 공을 세우고, 팔공산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전쟁이 끝난 뒤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겸 진주판관을 거쳐 노성(현 부여군 노성면), 진해, 고성, 곤양군수를 역임하였다. 유고 『화암실기』(1937)가 간행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울산읍지』 『화암실기』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윤희준(尹希俊, 1907~1981)

건축가.

1962년 공업센터기공식 이후 1급 설계사 자격으로 지역의 행정·건설분야 발전에 기여하였다. ‘윤희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울산시 도시발전계획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민주당 도당 원내 총무로서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활약하면서 울산은 물론 경남 정치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일명 울산의 신사(紳士)로 알려진 인물이다.

【참고자료】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윤희평(尹希平,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파평. 자는 임중(任重). 호는 후석(後石).

군수 부연(阜連)의 손자로 선조 때 무과에 올랐다. 임란 때 창의하여 구촌 조카 홍명과 함께 합세하여 적을 무찌르는 등 공을 세웠다. 뒤에 훈련원첩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겸수(李謙受, 1555~1598)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학성. 경남 양산 용당동(당시 울산군) 출생. 자는 자허(子虛). 호는 잠와(潛窩), 죽재(竹齋).

직장(直長) 우춘(遇春)의 큰아들이며 봉사(奉事) 겸익(謙益)의 형이다.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명과 왜 사이의 화의를 위한 강화회담이 진행될 때 적정을 탐지하거나, 회담 대표자 사명당(유정)을 안내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적들이 왕조실록에 13회나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공으로 기장현감으로 제수 받고, 이내 정주판관으로 제수되었다. 부임 중 병이 들어 1598년(선조 31) 4월 세상을 떠났다. 훗날 유림의 공의로 남곡사(남강서원으로 승격)에 제향되었다. 문중에서 유품인 장검을 소장하고 있다가 2013년 양산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겸익(李謙益, 1575~1645)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학성. 자는 자부(子裒). 호는 매헌(梅軒).

직장(直長) 우춘(遇春)의 다섯째 아들로 겸수(謙受)의 동생이다. 임란 때 형 겸수를 따라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관직은 군자감참봉을 거쳐 봉사(奉事)에 이르렀다. 1680년(숙종 6) 가선대부 한성부 우윤(右尹)으로 추증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경양(李景洋, 1563~?)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학성. 북구 출생. 자는 여숙(汝叔).

동지중추부사 봉(鳳)의 둘째 아들이며 경용(景溶)의 동생이다. 임란 때 형 경용과 사촌 동생 경연과 함께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1594년(선조 27) 형과 함께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효력부위(效力副尉)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경연(李景淵, 1565~1643)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북구 강동동 출생. 자는 여징(汝澄). 호는 제월당(霽月堂).
임란 때 우국지사 이한남·심환·박봉수·박응정·장희춘·고처겸·박진남·김응방 등과 4월 21일 기박산성에서 결진하고, 5월 17일 운량호군책(運糧護軍責)을 맡아 경상좌병영성 탈환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다. 1593년 7월에는 문경의 당교전투를 비롯한 울산 태화강전투와 공암전투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1596년 3월 팔공산회맹과 정유재란 때인 1597년 7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였다. 1598년 10월 훈련원주부에 제수되고, 12월 경성진판관(鏡城鎭判官)을 역임하였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의 일원으로 배향되고,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1636년(인조 14)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승진되었다. 유고 『제월당실기』(1909)가 전한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제월당실기』

이경용(李景溶, 1554~1654)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학성. 북구 출생. 자는 여원(汝源).
동지중추부사 봉(鳳)의 큰아들이며 경양(景洋)의 형이다. 임란 때 아우 경양, 사촌동생 경연과 함께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1594년(선조 27) 별시무과에 올라 어모장군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101세로 천수를 누렸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광희(李光熹, 1688~1746)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자는 사회(士晦). 호는 태화당(太和堂).
할아버지는 생원 이휴정(二休亭) 동영(東英)이다. 어머니 품에서 벗어날 무렵에 생각이 어른스러워 아이들과 놀 때에도 싸운 적이 없었고, 취사선택에 있어서도 바름을 잃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친하고 친하지 않음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었다. 집안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후일에 집안을 보호할 이는 바로 이 아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큰아버지에게 글을 배울 때에 풀리지 않으면 밤을 새며 연구하였다. 계림사화(1725) 때 함경도 명천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저서로 『태화당북정기(太和堂北征記)』(1783)와 『태화당일고(太和堂逸稿)』(1965)가 있다. 묘소는 청량면 개곡리에 있다.

【참고자료】

『태화당문집』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이규경(李圭庚, 1902~1933)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선무원종공신 첨지중추부사 이섬(李暹)의 후손이다. 상남면장을 지낸 조영(祚榮)의 아들이며, 규인(圭寅)의 아우이다. 1919년 3·1만세운동 언양의거에 참여한 수형자 중 최연소자(18세)로 이무중·이규인·이성영·최해선·강경찬 등과 거사를 결의하고 추진하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10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되었다.

1925년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전조선기자대회'에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일보 기자로 참가하였다. 울산청년단체인 '자오회'를 조직하는 데도 역할을 하였다. 자오회는 일제강점기 울산의 청년 사상단체로 노동자와 청년, 여성의 지적교양을 도모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1928년 신간회 울산지회 창립 간사와 교육출판부장을 역임하였고, 1929년 언양지방 노동야학연합회 창립 임시의장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정사 3·1운동』, 이춘걸, 1998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삼동면지』, 삼동면지편찬위원회, 2002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주문화』 13집, 울주문화원, 2013

「울산지역의 3·1운동」, 장미정, 1999

『부대사학』 제28, 29합집,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김승, 2005

『역사와 경계』 87,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 정계향, 2013

이규린(李奎麟, 1856~1937)

독립운동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김창숙 등이 작성한 독립청원서에 유림(儒林)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세칭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이라고 불리는 이 거사는 김복한을 중심으로 한 호서유림과 곽종석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 137명이 참여한 유림의 항일운동이었다. 파리장서의 요지는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고종황제의 시해와 한국 주권의 찬탈과정을 폭로하면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유림은 김창숙을 파리로 파견하고자 상해로 보냈다. 그러나 직접 가지 못하고 파리장서를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에게 송달하고 국내의 각 향교에도 우송하였다. 이 일은 경상북도 상주의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1919년 4월 12일 서명자의 한 사람이었던 송회근이 체포되면서 발각되었다. 이규린도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일제는 이들 유림이 한국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으므로 민족적 감정이 더욱 번질 것을 우려하여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

출옥 후에도 그는 항일의식을 굳게 지키며 독립운동에의 방도를 모색하였다. 1926년 1월 경북 대구에서 김창숙의 밀명으로 경북지역의 담당자로 파견된 정수기와 함께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송영호·김화식·이봉로 등과 유림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에 힘을 쏟으며 유림단(儒林團)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던 중 1926년 4월에 발각되어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규명(李圭明, 1888~1969)

사회활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웅촌면 출생. 호는 익령당(益齡堂).

국민회의 회원의 한사람으로 울산 우익의 전체를 대표하였다. 국민회의는 일제강점기부터 울산의 유지 혹은 사회운동에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들로 구성되었으며, 친일이라고 지목받던 사람도 일부 포함되었다. 그는 신간회 설립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업, 상공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 진출을 하였다. 문주산 광구(鑛口) 등 4~5개의 광구를 소유하였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27.11.26, 1937.7.25), 『조선일보』 (1927.11.23)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김호연·박제균·양상현, 2007

이규목(李圭穆, ?~?)

조선 말기 문신. 본관은 경주. 울산 출신.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광무 4) 11월 정사에서 올진 군수로부터 옮겨 본직에 임명하니 12월 20일에 울산군수로 부임하였다. 관둔(官屯)의 모세(牟稅 : 보리세)는 부내(府內)에만 있는데 양세(兩稅)의 고질적인 폐해를 특별히 감면하니 백성이 그 혜택을 입어 송덕비를 세웠다. “아 우리 군수는 금의환향하였네, 특별히 모세를 덜어 주고 농상을 권면(勸勉)하였네. 문풍이 다시 진작되고 깨끗한 달처럼 사사로움이 없었네. 청렴하고 정직하니 백성의 칭송이 빗돌이 되었네”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이규목 애민선정비문」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이규인(李圭寅, 1890~1927)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자는 순여(舜汝). 호는 목와(牧窩).

선무원종공신 첨지중추부사 이섬(李暹)의 후손이다. 상남면장을 지낸 조영(祚榮)의 아들이며 독립의사 규경(圭庚)의 형이다. 1919년 3월 29일 울산군 상남면에서 이무중·최윤봉 등과 같이 국기를 제작하는 등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4월 2일 언양읍내의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체포되지 않으려고 일본헌병 2명과 격투하던 중 헌병을 돕고자 달려온 한국인 순사보 이명동(李命同)으로부터 극심한 구타를 당하였으나 도주하였다. 2008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규장(李圭章, 1892~1940)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거리 출생. 자는 서구(瑞九).

1919년 봄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배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가 체류 중이던 상북 교구장 김교경이 언양으로 서신을 보내어 거사 준비를 서두르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언양 천도교인들이 소집되어 대책을 논의한 뒤 이규장을 서울로 급파하였다. 김교경을 만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세한 지시와 함께 거사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지참하고 언양으로 돌아왔다. 교구의 중진회의에서 거사 총참획에는 그와 이무중 두 사람이 선임되었다. 조직책 또한 그가 맡고 태극기 제작과 선언문 등사책은 이무중이 분담하였다. 거사일을 4월 2일 언양장날 장꾼들이 많이 모이는 오전 11시로 결정하고, 거사의 총지휘단은 이규장, 이규인, 최해선이 맡았다. 거사 후에도 고장의 청년들은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지들의 결속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4시회(四時會)'를 조직하고,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선일보 지국을 운영하였다.

그는 재봉기를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2년 상남면에서 천도교 회관을 이용하여 양정학원(養正學院)을 설립하고 교사로서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1925년 상남·하북노동야학회연합회 집행위원, 울산사학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삼동면지』, 삼동면지편찬위원회, 2002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울산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부대사학』 제28·29합집,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김승, 2005

『역사와 경계』 87,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 정계향, 2013

이규천(李圭千, 1876~1962)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자는 국원(國元). 호는 야경(野耕).

선무원종공신 첨지중추부사 이섬(李暹)의 후예이다. 천도교인으로 3·1만세운동 언양의 거 때 주동인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다행히 잡히지 않고 피신하여 형고를 면하였다. 1922년 폐쇄된 천도교 울산교구실(상남면 거리)에 향사(鄕士) 이규로·김찬희·성충갑·김석한·김형한·김교경 등과 양정학원을 개교하였다. 지방 청년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구국정신을 고취시켰다. 1924년 언양의 유력자인 오병선이 언양 작천정을 울산의 김홍조에게 매각하여 김씨 개인 소유로 별장화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물의를 빚자 최지형·곽해진·유철순 등과 함께 소유자를 설득, 1926년에 다시 사들여 이를 공용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연원록(淵源錄)』

『울산유사』, 김석보, 1979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삼동면지』, 삼동면지편찬위원회, 2002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지역의 3·1운동」, 장미정, 1999

『역사와 경계』 87, 「일제시기 지역엘리트의 동향과 지역정치」, 정계향, 2013

이근복(李根復, 1886~1964)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운강(雲江).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6월 16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근수(李根守, 1897~1964)

사회활동가. 본관은 경주. 족보 이름은 중수(鍾洙). 자는 상옥(尙玉). 호는 도산(島山). 증가선대부 참판 규현(圭玆)과 증정부인 평산신씨의 둘째아들이다. 1921년 당시 온산·

서생면의 연합단체(회원 100여 명)의 체육부장을 시작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관여하면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사립서생학교 음악회 때(1922) 3원을 기부하였다. 서생공립보통학교 설립(1923) 기성회 간부와 시대일보와 동아일보 울산지국 서생분국장(1925~1926)을 지냈다. 그리고 1926년에는 수천 원의 자금으로 어선 6~7척을 매입 및 어유(魚油), 농산물 비료제조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서생항에 회조부(回漕埠, 선창)를 설치하였다.

한편, 서생양조 대표(1930), 울산곡자(누룩)조합 평의원(1932), 서생어업조합장(1932), 동아일보 울산지국 고문(1935)을 지내면서 부친의 사망 때 유언에 따라 빈궁민세금(1,500원)을 대납했으며(1935), 부친의 소상(小祥) 때는 걸인 3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38년에는 토지 3,000평과 현금 15,000원을 기부하여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지금의 성동초등학교의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기리기 위해 성동초등학교 담장 밖 북편에 송덕비가 세워져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울산군농회 특별의원(1939), 서생면협의의원(1939), 울산군학교 평의원(1939) 등을 지냈으며, 서생 신암주재소 신축(1940)에도 일천 원을 기부하였다.

한편, 중일전쟁 당시 일제에 거금 3,000원을 회사하여 일본군수품 조달지원의 일종인 애국기(愛國機)로서 경남호라는 비행기 3대를 만들어 울산비행장(지금의 달동과 삼산동 일대)에서 헌납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등 친일관련 행적도 확인된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37.7.25)

울산역사교사모임 (우신고 최윤경) 조사 자료

이근오(李覲吾, 1760~1834)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학성.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어릴적 이름은 중오(中吾). 자는 성응(聖應). 호는 죽오(竹塢).

아버지는 의창(宜昌)이며, 어머니는 고성(固城)이씨이다. 활산(活山) 남용만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이정규와 교유를 맺고 학문을 연마하였다. 1789년(정조 13) 진사가 되었고, 다음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울산 출신으로는 드물게 과거시험 대과에 합격하였다.

1791년에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으며, 봉상시 참봉(奉常寺 參奉), 성균관·교서관 박사, 성균관 전적을 역임하였다. 1802년(순조 2) 후릉영(厚陵令)에 제수되었다. 이어 병조좌랑을 거쳐 1819년 사헌부 지평에 이르렀다. 관직에서 물러나 양사재(養士齋)를 짓고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경학과 사학에 전념하였다. 양희지의 묘비를 썼는데, 당시 나이 71세로 추정된다. 저서로는 『죽오유집(竹塢遺集)』 5권(1890)이 있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죽오유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울산 남구문화』 2집, 『양희지 비문의 서체에 관한 고찰』, 유용하, 2004

이기원(李錡源, 1937~1989)

시인. 본관은 여강.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출생.

1949년 두북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주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재학시절 울산 상북면 지내리 출신 박종우를 스승으로 만나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받았다. 1960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부산 국제신보사 문화조사부 기자로 입사하였다. 2년 후인 1962년 병을 얻어 사직하고 고향 봉계리로 돌아왔다.

1963년 『현대문학』 11월호에 「아침」 (1회)이, 1964년 『현대문학』 8월호에 「산에 고해하다」 (2회)가, 1965년 『현대문학』 7월호에 「역사(役事)」 (3회 추천 완료)가 김현승 시인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등단하였다. 해방 후 울산에서 공식적으로 등단한 최초의 시인으로 이후 『현대문학』 11월호(통권 143호)에 「멸망의 강」 을 발표하였다. 1970년 젊은 나이에 근육무력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리고 정신불안정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문학』 9월호(통권 189호)에 「건축」 을 발표했다. 1975년 『신한국문학전집』 에 한국 대표시인으로 「겨울 철쭉」 외 2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1987년 『울산문학』 12집에 특집으로 그의 추천 작품과 「화원」 과 「접상」 등의 시가 수록되었다. 1988년 『한국시대사전』 에 「모독」 「메밀꽃」 「백일홍」 「병상초」 등 총 10편이 수록되었다. 가족의 도움으로 시작활동을 하며 병마와 싸우다 1989년 7월 17일 작고하였다. 1990년 유고시집으로 『겨울철쭉』 이 발간되었다. 그의 시의 특징은 언어의 자각을 바탕으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향토와 생활에서 느끼는 서정과 인간애를 아울러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울산문학』 12집, 울산문인협회, 1987

『겨울철쭉』, 이기원, 1990

『울주문화』 11, 울주문화원, 2011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이길(李吉, 1541~1601)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학성. 울주군 청량면 덕정리 출생. 자는 근여(謹汝). 호는 부령(府吟).

지돈령부사 종(綜)의 장남이다. 임란 때 일가들과 창의하여 경주·울산 등의 여러 전역에서 공을 세웠다. 통정대부 군자감정으로 제수되고, 뒤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가자(加資)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동개(李同介, 1910~1955)

독립운동가. 중구 출생. 다른 이름은 동계(東桂).

1925년 3월 경남의 언양청년단 간부로 단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상품을 불매하자는 취지의 강연을 하여 체포되었다. 1929년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2년 6월 양산읍내 분규사건에 대하여 이영건(李永健)에게 격려편지를 보낸 일이 발각되어 구류 15일을 살았다.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비밀결사 울산독서회에 참가하였다. 이 곳에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1937년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동영(李東英, 1635~1667)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남구 신정동 출생. 자는 화백(華伯). 호는 이휴정(二休亭).

할아버지는 선무원종공신 한남(翰南)이며, 아버지는 봉직랑(奉直郎) 천기(天機)이다. 타고난 바탕과 성품이 훌륭하고 재예(才藝)가 남들보다 뛰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유훈(遺訓)을 받들고, 글자를 익히는 데 정밀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경사(經史)와 필법(筆法)에도 통달하였다. 1666년(현종 7) 병오 식년시에 생원(生員) 3등 37위로 합격하였다. 동방급제한 괴천(槐泉) 박창우와 막역한 사이였다.

문집으로 『이휴정문집(二休亭文集)』이 있다. 호를 딴 정자 이휴정(二休亭)은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참고자료】

『이휴정문집』 『사마방목』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이동철(李東澈, 1920~2005)

교육자. 본관은 학성.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출생. 호는 월정(月汀).

1936년 온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숙부의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였다. 1950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해운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어 현지 사원을 모집할 때 입사하였다. 1958년 대한해운공사에서 퇴직한 뒤 1964년 학교법인 울산육영회 설립에 참여하여 상무이사를 맡아 학성중학교, 학성고등학교, 학성여자중학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우석고등학교

등 7개 중·고등학교를 운영·관리하였다.

1980년 이후락의 후임으로 울산육영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신군부에 의해 1년 뒤 사임하였다. 1968년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설립에 참여하여 초대 상무이사로 울산공과대학과 울산공업전문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힘쓰다 1978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에게로 운영권이 넘어가 사임하였다.

1968년 울산문화방송 설립에 참여하여 초대 감사를 맡았고 1970년 한국사학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80년 울산시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사학육성 공로장증 등을 받았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교육사』, 울산광역시교육청, 2001

이만령(李萬齡, 1708~1784)

본관은 경주.

참판 녹석(錄錫)의 5세손으로 대대로 울산에서 살았다. 울산 고을의 사찰에 종사하는 노비들의 비용을 염출(捻出)할 길이 막연하였는데, 이같은 사정을 알고 천냥을 출자하였다. 이 기금을 매년 대부(貸付)하고 그 이자를 받아서 시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객사 학성관이 화재를 입었을 때 8백냥을 기부하여 보수하게 하였다. 태화강의 나루터 쪽에 강폭이 좁고 물이 합류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어렵자 무지개모양의 다리(홍교)를 축조하였다. 1860년(철종 11) 홍교가 설치된 강변에 ‘참봉 이만령 영세불망비’를 세우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남구문화』 6집, 「참봉이공만령영세불망비의 비문 역주」, 김송태, 2008

『울산중구지명사』, 중구청·중구문화원, 2014

이무중(李武鍾, 1893~1956)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1919년 4월 2일의 언양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82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독립운동사』 3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5권 , 국사편찬위원회, 1992

이문조(李文祚, 1902~1971)

독립운동가. 본관은 벽진.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화천(華泉).

1910년대 울산의 대표적인 비밀결사단체이며 병영3·1운동을 주도한 비밀병영청년회의 간부였다. 1919년 4월 4~5일 양일간 울산 병영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일본군 수비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주동인물들을 체포할 때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7월 1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뒤 합법적 병영청년회에서 활동을 하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한국독립운동사』 , 애국동지원호회, 1956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1970

『독립운동사』 제3권, 국가보훈처, 1983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5권 , 국사편찬위원회, 1992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 김승, 2003

이미동(李美東, 1911~?)

사회주의운동가.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출생.

동래고보에 재학 당시 항일정신이 투철해 여러 번 투옥되었다. 노동청년회를 통해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해방 후 한 때 울산군의 각종 행사를 주도하여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미군이 공산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활동이 줄었다.

울산농민조합과 울산적색독서회, 인민위원회의 일원이었고, 해방 후 울산 좌익의 수장 역할을 하였다. 울산적색농조사건으로 그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이 부산검사국에 송치되었다. 1935년 9월 27일 취조를 마치고 그와 박상선 등 5명은 기소예심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31.6.15, 1935.9.29, 1936.6.28)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 김호연·박제균·양상현,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민연(李民淵, 1859~?)

독립운동가.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1919년 4월 2일 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구타 당한 후 연행되어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나이가 61세였다.

【참고자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이봉석(李奉石, 1913~1985)

사회활동가.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출생.

1946년 8월 28일 당시 울산비행장 건물에 귀환동포의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울산양육원을 설립하였다. 양육원을 재단법인으로 개편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61년 5·16후 조직된 재건국민운동 울산군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새마을운동, 잘살기운동 보급에 노력하였다. 울산시정 자문위원으로 울산경찰서 자문위원장을 맡아 지역치안과 범죄예방에도 정성을 쏟았다. 재건학교 교장이 되어 울산의 불우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길을 열어주었다. 양육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연탄공장을 운영하고 양계업을 벌이고 직조공장을 운영하였다.

울산YMCA를 창립하여 1974년 4월 13일 초대이사장에 취임하였다. 308평(남구 신정동 158-5)의 사재를 헌납하여 회관을 마련하였고, 선교문화 사업으로 기독교단체 불모지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자매단체인 YWCA 창립(1982.6.)의 견인차 역할도 하였다.

1985년 그의 사망으로 아들 이영표가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로 양육원을 이전하였다.

【참고자료】

『울산노회 25년사』, 2005

『울산제일교회 100년사』, 2006

『울산노회 장로회 30년사』, 2011

이봉수(李鳳壽, 1542~159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자는 순의(舜儀). 호는 오음(梧陰).

충숙공 이에의 후손이며, 증상호군 언신(彦臣)의 둘째 아들이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하고, 다음해 전시(殿試) 병과에 급제하여 발포진우후(鉢浦鎭虞侯)가 되었다. 연기현감을 거쳐 충청병사로 있다가 산계(散階)로 낙향해 있을 때 임란이 일어났다. 오촌 조카 열과 장정을 모아 지금의 양산시 웅상에 있는 우불산에서 진을 치고 회야강으로 들어오는 왜병을 막았다. 1592년 7월 영천성 탈환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8월 경

주성복성전에서 분전하다 순절하였다. 난 후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의흥위 부호군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상준(李相俊, 1936~2000)

관료. 본관은 경주. 북구 진장동 출생.

병영초등학교, 울산제일중학교, 울산농림고등학교(현 울산공고)를 졸업하였다. 1964년 울산시청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이후 방어진출장소장, 울산시 총무과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공보실장으로 재임할 때 울산공업 발전상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 섰다.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재무국장과 남구청장, 중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민에게 봉사행정을 실천하였다. 1993년 3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였다. 금양산업개발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이석송(李石崇, 1574~164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울주군 온양읍 동천리 출생. 다른 이름은 석송(碩崇), 석종(石宗). 자는 국형(國馨).

맹천(孟天)의 아들이다. 고조할아버지 때 경주에서 울산으로 입향하였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성영(李成榮, 1878~1940)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선무원종공신 언량(彦良)의 후손이다. 1919년 이무종·이규인 등과 언양 장날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6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6.28
『독립운동사』 3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이수건(李樹健, 1935~2006)

사학자. 본관은 학성.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출신. 자는 강백(剛伯).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1961)하고 영남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971). 1968년부터 2000년까지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구사학회장과 고문서학회장, 국사편찬위원,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다. 지방사와 영남지역 사림과 연구, 영남지역 고문서 연구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 『영남 사림과의 형성』(1979), 『경북지방 고문서연구』(1981), 『한국중세사회사연구』(1984), 『조선시대 지방행정사』(1989),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1995), 『한국의 성씨와 족보』(2004) 등이 있다. 1982년 『영남 사림과의 형성』으로 경북문화상(학술부문)을, 1984년 『한국중세사회사연구』로 두계학술상을, 1991년 『조선시대 지방행정사』로 치암학술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범서읍지』,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의 성씨와 족보』, 이수건, 2004

이수락(李壽洛, 1899~1981)

독립운동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출생.

1919년 4월 8일 울산 남창시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현장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였다. 5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어 다시 항소하였으나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5.7.
「판결문」, 고등법원, 1919.6.28.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부산·경남 3·1운동사』, 3·1동지회, 1979
『독립운동사』 3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이수인(李守仁, 1542~161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남구 부곡동 출생. 자는 순후(淳厚). 호는 설봉(雪峰).

참봉 명보(明輔)의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두 아들(신백, 희백)과 대소가의 일가 등이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 첨정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신백(李新白, 1569~1641)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학성. 남구 부곡동 출생. 자는 여준(汝俊). 호는 중암(重巖).

선무원종3등공신 수문장(守門將) 수인(守仁)의 큰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동생 희백과 함께 창의하여 전공을 세워 수문장을 지냈다가 뒤에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양오(李養吾, 1737~1811)

조선 후기 유학자, 문장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온양읍 덕신리(신경) 출생. 자는 용호(用浩). 호는 반계(磻溪).

아버지 의채(宜琛)와 어머니 연일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장한응(張漢應)의 딸 옥산장씨이다. 7세에 19사(史)를 읽기 시작하였으며, 스스로 해석할 정도로 영민하였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척들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반복해 읽고 연구하였다. 장성해서도 대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강론을 듣고 질의하며 깨우쳤다.

1786년(정조 10) 모친상을 당한 이후 과거시험에 대한 뜻을 접었다. 경서를 깊이 연구하고 경사(經史)를 탐독하였으며, 장자, 사마천, 반고 등의 진한고문(秦漢古文)과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문장을 전범(典範)으로 삼고 실력을 닦았다. 저서로 『반계집(磻溪集)』(1905)이 있다. 묘소는 경남 양산시 원적산에 있다.

【참고자료】

『반계집』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이여규(李汝圭, 1713~1772)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자는 군집(君執). 호는 무민당(無悶堂),

이휴정 이동영(李東英)의 증손이며, 함경도병마우후 대호군 광연(光然)의 아들이다. 작은아버지인 태화당 광희(光熹)의 영향을 받아 문장과 학문이 뛰어났다. 울산지역 선비로서는 드물게 쓴 영운부(詠雲賦)가 문집에 실려 있다. 울산도호부사를 대신하여 쓴 기우(祈雨) 축문 세 편(사직단 기우문, 문수산 기우문, 백룡담 기우문)은 명문(名文)으로 알려져 있다.

스물네 살 아래의 족숙(族叔)인 이양오와 깊이 교유한 흔적이 문집 곳곳에 남아 있다. 석계팔영(石溪八詠) 등 함께 읊은 시 20여 편이 서로의 문집에 실려 있다. 문집으로는 1906년에 발간된 『무민당문집(無悶堂文集)』 2책이 전한다. 문집에는 도사(都事) 문소(聞韶) 김도화 · 오천(烏川) 정석우 · 이양오 등 3인의 서문과 여강(麗江) 이능열의 후서(後敍)가 실려 있다.

【참고자료】

『무민당문집』 『태화당문집』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이영백(李永白, 1560~?)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일명 영백(英白). 자는 자행(子行).

공조참의 수공(守恭)의 둘째 아들이다. 임란 때 형 춘백과 함께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1594년에 봉정대부 군자감정의 교지를 받았다. 전쟁이 끝난 뒤 수군(水軍)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영조(李永兆, 1906~1975)

기업인. 본관은 경주. 남구 용잠동 출생. 족보 이름은 창우(昌雨). 자는 영조(永兆).

금광왕(金鑛王)으로 정평이 난 자본가 종만(鍾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본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대동포경주식회사(1947)를 설립하였다.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울산 경제발전의 한 축(軸)을 이루었다. 특히 해방 이후 근대 포경(捕鯨)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울산에서 우리가 만든 고래배[포경선]로 우리나라 포수(捕手)가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였다.

1947년에는 남구 용잠동 1번지 일원(일명 대추끝)에 고래해체장인 대동포경해체장을 설립하였다. 그 곳에서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동포경주식회사의 소속 포경선인 '대동호, 어성29호, 용운호, 해비스호, 야고호' 등이 잡아 온 고래의 해체작업을 직영하였다.

해체장은 성황리에 운영되다가 1982년경에 폐쇄되었다.

동양포경(1948)의 백상건, 조선포경(1946)의 김옥창과 함께 대한민국 포경산업 진흥의 대표적인 원로 수산인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경주이씨대동보』, 경주이씨대동보 편찬위원회, 1978

『울산남구지명사』, 울산남구지명사 편찬위원회, 2009

『울산남구문화』 7집, 「해칠방 마을의 열부전」, 박채은, 2009

이예(李藝, 1373~1445)

여말선초 문신. 학성이씨 시조. 본관은 학성. 중구 태화동 말응정(현 명정) 출생. 자는 중유(仲游). 호는 학파(鶴坡). 시호는 충숙(忠肅).

1396년(태조 5) 기관(記官) 박준(朴遵)과 함께 왜에 잡혀간 울산지군사 이은(李殷) 등을 시종하여 돌아오게 하였다. 이때의 공으로 아전의 역을 면제받고 관직에 올랐다. 1400년(정종 2) 어렸을 때 왜병에게 잡혀간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조정에 자청하여 회례사(回禮使) 윤명(尹銘)을 따라 일본의 삼도(三島)에 갔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1401년 이키도[壹岐島]에 사신으로 가서 포로 50명을 송환시키는데 기여한 공으로 좌군부사직(左軍副司直)에 임명되었다. 1410년까지 해마다 통신사가 되어 삼도(三島)에 왕래하면서 포로 500명을 송환하였다.

1416년(태종 16) 유구국(琉球國)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포로 44명을 찾아왔고, 1419년(세종 1) 중군병마부수사(中軍兵馬副帥使)가 되어 삼군도체찰사 이종무를 도와 대마도의 왜병을 소탕하였다. 이후에도 일본을 40여 차례 왕래하면서 포로 송환과 무역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1438년 첨지중추원사에 올랐으며, 1443년 왜병이 변방을 약탈하자 대마도체찰사가 되어 포로 7명과 도적질한 왜인 11명을 찾아온 공으로 중추원동지사로 승진하였다.

조선 태조에서 세종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화전(和戰) 양면으로 충성을 다한 공으로 상호군(上護軍)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을 가수(加授)하였다.

1737년 사림의 공의(公議)에 의하여 사우(祠宇)를 유허(遺墟)에 창건하여 묘호(廟號)를 상충(尙忠)이라 하고 사호(祠號)를 용연사(龍淵祠)라 하였다. 1792년 사우를 웅촌면 석계리로 옮겨 석계사(石溪祠)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원군의 서원 훼철 때 사묘(私廟)로 되었다가 1886년에 다시 향사(鄉祠)로 되었다. 그 후 1901년에 시호가 논의되다가 1910년에 시호를 충숙공(忠肅公)이라고 사액하였다. 업적이 인정되어 외교통상부는 '2010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하였다.

유고로 『학파실기(鶴坡實紀)』(1907)가 있으며 태화동 명정에 유허비각(1872)이 있다.

【참고자료】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학파실기』
『학성지』 , 1749
『울주군지』 ,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이용락(李龍洛, 1897~1972)

독립운동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온산읍 출생.

1919년 4월 8일 온양면 남창리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를 따라 수백명의 장꾼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하였다. 당황한 일본 군경이 공포를 발사하고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겨우 몸을 피한 그는 재빨리 윤두찬이 경영하는 포목상으로 달려가 광목 4자를 얻어 ‘대한독립만세’라고 크게 쓴 기를 만들어 장대에 매단 후, 다시 장터로 나와 그것을 흔들면서 더욱 기세를 떨쳤다. 그러나 오후 11시경에 체포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1943년부터 8년 동안 전국을 답사하며 생존자들의 체험담을 수집하고 『3·1운동실록』을 펴내어 민족운동을 후세에 전승하는데 기여하였다. 1977년에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우락(李宇洛, 1881~1951)

독립운동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출생. 자는 서팔(瑞八). 호는 가산(可山).

성균생원 승혁(升赫)의 증손이다. 시부(詩賦)와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서숙(書塾)을 세우고 많은 문하생을 교육하고 배출하였다. 1919년 세칭 ‘과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에 참가하였고 1926년 1월 제2차 유림단(儒林團)사건인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1926년 1월 5일 경남 동래의 오태환 등으로부터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던 중 경북경찰부 고등과 형사들에 의해 3월 체포되었다. 1927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형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6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현재 문집 『가산집(可山集)』 (1967)이 전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4권, 국가보훈처, 2000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운춘(李運春, 1748~1823)

조선 후기 무신. 본관은 청안. 중구 반구동 출생. 자는 현보(顯甫). 호는 운암(雲巖).

선무원종공신 증병조참판 퇴사재(退思齋) 이응춘(李應春)의 9세손이며 증좌승지 관국(觀國)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대범하고 어른스러웠으며 용모가 걸출하였다. 1748년(영조 24) 무과시험에 응시하여 뛰어난 실력으로 합격하여 즉시 사복시(司僕寺) 내승(內乘)으로 제수되었고, 1785년에 선전관(宣傳官)으로 임명되었다.

조정에 입시(入侍)하여 왕으로부터 뜻을 밝히는 글을 써보라는 명을 받고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이라는 10자를 써 칭찬을 받았다. 용연(龍硯) 1조와 봉필(鳳筆) 3자루, 그밖에 여러 서책을 하사받았다. 1803년(순조 3) 밤중에 인정전(仁政殿)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염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진화하여 왕으로부터 ‘진실로 충성스러운 무관’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1833년 아들 동부승지 승연(昇淵)의 귀추영(貴追榮)으로 병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언양읍 대곡리 반구서원 뒤 모은정의 사서각(賜書閣)이 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청안이씨세보』 권2(장기공파), 청안이씨세보편찬위원회, 1987

이원담(李元聃, 1683~1762)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자는 경노(景老). 호는 송옹(松翁), 묵일와(默逸窩).

어릴 때부터 재주가 영민하여 12~13세 때 이미 옛 성현의 어구를 외워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과거시험에 응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는 응하지 않았다. 형 현담과 함께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다. 안빈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학문을 돈독히 하였다. 나라의 기근이 심하자 진휼미(賑恤米)를 남보다 먼저 내기도 하였다.

구강서원 원장으로 재임 중인 1735년(영조 11) 여름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한 청대 권상일이 부임 인사차 사묘(祠廟)를 배알하러 왔을 때, 서원의 동·서재를 창건하자는 청을 올려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해인 1736년에 완공하였다. 53세 때 청대 권부사가 상사(上舍) 박민효, 형 현담과 함께 그에게 『학성지』 편찬을 위촉하였다. 만년에는 지금의 북구 화봉동 못골안 도적골에 무릉서당(武陵書堂)을 지어 후학들에게 강론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선바위 동쪽 백룡담 벼랑 위에 1796년~1801년까지 5년간 재직한 이정인 울산도호부사가 ‘입암정(立岩亭)’이란 정자를 세웠으나, 1800년대 말에

이르러 훼손이 심하였다. 1940년대에 이원담의 후손들이 일부 정비하여 ‘용암정(龍巖亭)’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후손들에 의해 『송옹선생유문집』(2012)이 편수되었다.

【참고자료】

『송옹선생유문집』, 2012

『울산광역시사』 2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남구문화』 2집, 「울산최초의 읍지 『학성지』 초고본의 주역들」, 박채은, 2004

이위(李韡, ?~?)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자는 중희(仲晦). 호는 지암(知庵).

선무원종공신 첨지중추부사 섬(暹)의 손자로 학풍을 떨치었다. 포은 정몽주·회재 이언적·한강 정구 등 3현을 모신 반고서원(盤阜書院)을 1712년(숙종 38) 창건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때 김영하·김정하 형제와 오촌 조카 김지·정태구·정석구·박문상 등 6명의 사인(士人)들이 뜻을 같이 하였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이유수(李有壽, 1926~2007)

향토사학자. 본관은 경주. 중구 복산동 출생. 호는 현곡(見谷).

익재 이제현의 후손이다. 울산초등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학문을 깨우쳤고 울산시·군에서 37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뒤 서기관으로 정년퇴임하였다. 공직 외에 청년운동도 하였는데, 해방 후 건국청년단에 들어가 울산의 치안유지에 힘을 썼고, 우익운동을 펴면서 나중에 죽청계 울산지부 선전부장을 지냈다. 울산문화원 부원장과 울산향토사연구회장을 역임하면서 향토사연구와 이와 관련된 책자를 집필하는 데 주력하였다.

1986년 『울산지명사』를 출간하여 울산 지역의 방대한 고유 지명 2400여 개를 일일이 해독하여 향토사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 울산 지역의 임란사와 관련된 사료를 대부분 발굴하여 『울산문화』 『향토사보』 등 울산 지역에서 간행되는 여러 종류의 도서에 기고·발표하였다. 또 1996년 이것을 집대성한 『울산향토사연구논총』을 펴냈다. 이 외에도 『내 고장의 전통』(1982), 『울산향토사연구』(1991), 『울산문화재 총람』(1994), 『울산임란사』(1999) 등 울산의 대표적인 향토서를 저술하였다.

1981년 울산 시민의 장(문화예술장)을 수상하였다. 2009년 울산향토사연구회에서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물상을 복산초등학교 교정에 건립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울산 남구문화』 4집, 「고 이유수선생 특집」, 2006

『울산 남구문화』 5집, 특집 「현곡 이유수 선생의 울산 향토사 연구에 대한 고찰」, 2007

이응남(李應男, 156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북구 출생.

정병(正兵) 반송(盤松)의 아들이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장(部將)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의립(李義立, 1621~1694)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경주.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출생. 자는 예겸(禮兼). 호는 구충당(求忠堂).

증침지중추부사 영부(榮富)의 아들이다. 1660년 중앙의 훈련도감에 무쇠 1000근, 철환 73만개, 솔 440좌 등을 바친 공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달천광산이 있는 철산(鐵山)을 사패지로 받아 대대로 경영하였다. 조선 전기에 보이던 철장 운영과 관련된 기록은 요역 동원이 힘들어진 16세기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1657년(효종 8) 이의립이 울산 달천철장을 발견했다는 것에서부터 다시 등장한다.

효종 때 북벌정책이 추진되면서 군사력 강화를 위해 각종 무기를 제작하는 철을 전국적으로 구하면서 달천철장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가 개발한 달천광산의 토철을 이용해 광산 주변에서 쇠를 녹이는 일을 했는데 이를 ‘쇠부리’라고 하였다. 쇠부리 장소는 지금까지 120여 군데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가 개발한 달천광산의 토철을 녹여 철을 생산했으니 나라에 끼친 공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풍요로워지게 되었다. 그는 또 화약을 만드는 재료인 유황광산도 발견해 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으로 1673년(현종 14) 숙천도호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올라 삼대추영(三代追榮)의 영예가 내려졌다. 1910년 『구충당선생문집』 2권이 발간되었고, 2000년 국역본이 나왔다. 묘소는 고향 전읍리 삼정에 있다.

【참고자료】

『구충당선생문집』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이인상(李仁常, 1577~159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북구 달천동 출생. 다른 이름은 인상(仁祥). 자는 춘신(春信). 호는 신암(愼庵).

침지중추부사 곤(鯤)의 증손이며 선략장군 연중(連重)의 아들이다. 임란 때 집안에 비축해 둔 식량을 가져다가 재종조(再從祖) 경연(景淵)을 따라 창의하였다. 동대산과 이견대 등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무찌르고 7월 27일에는 영천성 탈환에 참전해 적을 물리쳤다. 그 후 경주·울산을 왕래하면서 여러 전역에서 공을 세우고, 이때의 전공으로 좌부장(左部將)이 되었다. 1598년(선조 31) 9월 도산전투에 선봉장으로 나가 용맹하게 싸우다 순절하였다. 충의위좌부장(忠義衛左部將)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그 후 통덕랑 호조정랑에 추증되었다. 1957년 그를 제향하는 추원재(追遠齋)가 북정동 울산동헌 뒤에 창건되었으나 현재는 폐허가 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인수(李仁守, 155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남구(옛 울산군 남면 대대여리) 출생.

충숙공 이에의 후손이며 어모장군 세원(世元)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으로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인중(李仁中, 1825~1896)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자는 성원(性元). 호는 간우(艮宇), 기산(企山).

선무원종공신 제월당 이경연(李景淵)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승헌(升憲)이고 어머니는 연일정씨이다. 직양재(直養齋) 안영집과 정헌(定軒) 이종상의 문인이다. 일찍이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자, 그만두고 성리학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학문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집안에 별도의 방 한 칸을 따로 마련하여 『성리대전(性理大全)』과 『도산언행록(陶山言行錄)』을 즐겨 읽었다.

뒤에 수많은 문도들이 모여들었으며, ‘간우선생(艮宇先生)’으로 불리었다. 1855년(철종 6)에는 용릉(隆陵)의 전례(典禮) 문제로 「치의를소(治義理疏)」를 지어 윤가목과 함께 상경하기도 하였다. 저서로 『간우유고(艮宇遺稿)』 4권(1909)이 있다.

【참고자료】

『간우유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이장찬(李璋燦, 1808~1886)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자는 특지(特之). 호는 은재(隱齋).

사헌부 지평 죽오(竹塢) 근오(覲吾)의 손자이다. 학문과 품행을 겸비하여 1852년(철종 3)에 생원으로 합격하였다. 창려(蒼廬) 이정기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고, 정재(定齋) 류치명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여 학문을 높이 평가받았다. 때마침 양학(洋學)이 들어와 삼일당(三一堂)에서 작문을 금지하였으며, 후에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이재락(李在洛, 1886~1960)

독립운동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1919년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에 상경하였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와 울산의 독립운동을 조직화하였다. 1919년 4월 8일 남창리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1925년 8월 김창숙(金昌淑)이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입국하여 내몽고지방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할 자금으로 20만원 모금을 목표로 활동할 때 1차로 1926년 1월경에 2백원을 제공하고, 2차로 8백원 등 합계 1천원을 자진하여 군자금으로 제공하였다. 20만원 군자금 모금계획이 목표에 미달하자 1926년 3월 17일 동래 범어사에서 손후익·정수기 등과 함께 밀의를 거둬들였다. 제2차 계획으로 소액 응모한 부호들에게 거액 응모를 요구키로 결정하고 활동하다가 일제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민립대학 설립 발기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27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언도받았다. 1982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그가 살았던 집(석천리 302번지)은 충숙공 이예의 11대손 근재공(謹齋公) 이의창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조선 고종 때 한 차례 고치고 1934년 안채와 사랑채 등을 대대적으로 중수하였다. 울산 유림들의 독립자금 모금활동의 역사적 현장으로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7.3.31)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1970
『한국독립운동사』 3권, 국사편찬위원회, 1965
『3·1운동실록』, 이용락, 1969
『경남항일독립운동참여자록』, 이대수, 2001
『온산읍지』, 온산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김호연·박제균·양상현,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고등경찰요사』, 경상북도 경찰부, 2010
『2013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2013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재호(李在琥, ?~?)

교육자. 본관은 경주. 중구 출생.

울산 유지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군부 주사(軍部 主事)를 지냈다. 1906년 병영에 사립일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재임하였다. 사립일신학교는 울산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근대교육기관이었다. 그의 장남인 이종화(李鍾和)는 사립일신학교의 4대 교장을, 차남인 이종필(李鍾弼)은 울산 병영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 『황성신문』 (1907.7.9)
『병영초등학교 일백년사』, 2011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의 사회변동과 지역정체성』, 김유신, 2012

이정화(李鼎和, 1811~1870)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청안. 중구 반구동 출생. 자는 문실(文實). 호는 오산재(五汕齋), 지비자(知非子).

정재(定齋) 류치명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을 세상에 떨쳤다. 태화강변에 독서 휴식처인 ‘이수삼산정’을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오산정(五汕亭)’이란 현판과 함께 관련 유물은 후손인 이동석(李東碩, 울주군 청량면 율리 청송마을 거주)이 보관하고 있다. 학성공원 정상 동편에는 그와 관련된 요산대(樂汕臺)라는 시석(詩石)이 있다. 많은 유고가 『오산문집』 4권에 전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국역)오산문집』, 2010

이정효(李廷孝, 1832~1917)

조선 말기 유학자. 본관은 경주. 자는 순거(舜舉). 호는 후송(後松).

선무원종공신 이석숭(李石崇)의 후손으로, 아버지 익선(翼璇)과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838년(헌종 4) 숙부 익만(翼萬)에게 수학하였다. 12~13세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한시를 잘 지어 명성이 자자하였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으로 나라의 정세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세상사와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 후 아버지가 거처했던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 서쪽의 집을 '거경재(居敬齋)'라고 편액하고 그곳에서 사서와 주자서(朱子書)를 탐독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거경재에 주희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써서 걸어 두고 언행을 삼가고, 한원진, 이언적, 이황 등 대학자들의 격훈(格訓)을 곁에 두고 읽으며 마음을 경계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참여하려 하였으나, 나이를 걱정한 주위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후(武侯 :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와 『사기(史記)』의 「장중승전(張中丞傳)」을 외우며 소일(消日)하였다. 1905년 충정공(忠正公) 민영환이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며 뇌문(誄文)을 지어 애도하였다. 1910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창표당(蒼表堂) 중건상량문이 전한다. 저서로 『후송집(後松集)』(1921)이 있다.

【참고자료】

『후송집』

『울산의 산수를 품에 안은 누정』, 이창업, 201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이종근(李宗根, ?~?)

조선 초기 문신. 본관은 학성.

충숙공(忠肅公) 이에(李藝)의 아들이다. 직제학 대봉(大峰) 양희지(楊熙止)가 사위이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벼슬은 문의현령(文義縣令)과 양근군수를 지냈다.

【참고자료】

『울산읍지』

『학성지』, 1749

이종근(李鍾根, 1896~1957)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1동(남외동) 출생. 호는 화암(花庵).

1919년 4월 4일과 5일에 걸쳐 울산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병영일신학교(현 병영초) 교사로 근무하던 중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병영청년회 간부들과 모의

하여 일신학교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가담하였다. 총·칼을 든 일본 군경이 주동자들을 검거하자 시위 군중이 검거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달려들었다. 일본군 수비병이 발포를 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본군에게 달려들어 강력히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그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 「수형인명부(1919.4.22.)」, 부산지방법원울산지청
-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1970
- 『독립운동사』 3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이종길(李宗吉,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임란 때 창의하여 세운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 「창표당안」
-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종룡(李鍾龍, 1899~1986)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1동(남외동) 출생.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제경찰에 의해 여러 동지들과 체포되었다.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3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종만(李鍾萬, 1886~1977)

기업인. 본관은 경주. 남구 용잠동 출생. 호는 월성(月城).

1912년 일본이 토지조사령을 공포한 직후 농림주식회사를 세웠다. 1937년 6월 경상남도 울산군 소재 광산을 비롯하여 평안북도 초산군 등 전국에 면적 7억 6천만 평에 달하는 750광구를 소유하여 '광산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37년 6월 6일 대동광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6월 17일 재단법인 대동농촌사와 대동출판사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대동농촌사 이사장 재직시절 전체 수확물의 7할을 농민이, 나머지 3할을 재단이 소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30년 뒤에 농민이 수확물 전체를 갖는 대신 재단이 소유권만을 갖는 제도였다. 1937년 7월 19일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에 북지황군(北支皇軍)위문품대의 일원으로 1,000원을 기부하였고, 10월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120만 원에 인수하였다.

1938년 1월 잡지 『농업조선』을 창간하였다. 6월 사립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였다. 1939년 4월 조선산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6월 28일 일본군 위문대 대금으로 1,000원을 헌납하였으며, 11월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1940년 7월 잡지 『삼천리』에 「지원병(志願兵)과 혈(血), 한(汗), 사랑(愛)의 인(人)」을 기고하였다. 1941년 9월 임전대책협의회 채권가두유격대 명치정대에 참여하였고 조선임전보국단 경성 지역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0월 조선임전보국단 이사를 역임하였다.

1946년 5월 1일 『독립신보(獨立新報)』를 창간하였으며 1946년 8월 23일 조선산업건설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월북 이후인 195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광업부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및 상무위원을 역임하였다.

한편 자신의 고향 용잠마을 어린이들이 20리 넘는 산길을 걸어 대현초등학교까지 통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잠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기부채납하여 고향 후배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학교는 공해지역의 주민 이주로 1977년에 폐교되었다.

【참고자료】

『울산교육사』, 울산광역시교육청, 2001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이종산(李鍾山, 1896~1949)

사회활동가. 동구 동부동 출생.

박준이(朴俊伊)의 딸 영식(永植)과 결혼하여 일산동에서 살았다. 일제강점기에 일산 해안에 있던 일본인 후리어장을 인수하여 상당한 재력가로 성장하였다. 동면 면협의회원과 방어진읍의원을 역임하였다.

1945년 조국이 광복된 후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으로 배움에 굶주린 후진들을 위해 '나라를 부강의 반석 위에 올려 세우는 원동력은 오로지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데 있다'는 신념과 '방어진에서 해양입국을 위한 전진기지과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유 토지 3만 4천여 평과 거액을 회사해 학교법인 해양학회를 만든 뒤 1947년 방어진수산초급중학교를 개교하였다. 이로써 동구지역의 많은 학생이 중등교육을 받아 지역 인재양성에 이바지하였다. 당시 동구지역에는 방어·화진·남목초등학교가 있었다. 졸업생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진 중학교에서 동문 선·후배 관계로 인연을 맺음으로써 지역 유대도 함께 이어졌다. 그동안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79년 이 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 학교부지 내 묘소 옆에 '재단법인 해양학회 이사장 이종산 송덕비'를 세웠다.

방어진수산초급중학교는 1959년 5월 14일에 방어진중학교로 공립화되었고, 1990년 5월 21일 초기 설립장소에서 현재의 화정동 자리로 옮겼다. 초기의 학교는 현재 울산지역 내 교원과 학생들의 수련장인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울산교육사』, 울산광역시교육청, 2001
- 『울산동구지명과 문화이야기』, 장세동, 2007

이종실(李宗實, ?~?)

조선 초기 무신. 본관은 학성.

충숙공(忠肅公) 이예(李藝)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수군절도사에 이르렀다. 아버지 이예의 대를 이어 통신사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순직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통신사 임명(세조 5년 8월 23일)과 부산에서 출항하여 풍랑을 맞아 침몰(세조 5년 10월 8일)하는 사고경위를 선군(船軍) 한을(韓乙)이 돌아와 세조 임금에게 보고(세조 6년 1월 4일)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임금의 지시 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세조 9년 7월 14일 기록에 일본 국왕이 보낸 국서의 내용이 있는데, '일본 국왕이 교토 천룡선사(天龍禪寺)에 수륙대재회(水陸大齋會)를 베풀어 송처검(宋處儉)과 그의 명복을 빌도록 했다'고 되어 있다. 조정에서 예관(禮官)을 보내어 초혼(招魂)하여 장사를 지냈으며, 경상도좌수사로 제수하였다.

【참고자료】

- 『학성지』, 1749
- 『울산남구문화』 7집, 「통신사 이종실의 조난 사고」, 이준락, 2009

이종욱(李鍾旭, 1896~1966)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송석(松石).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시위대의 규모가 급증하자 주재소의 응원 요청을 받은 울산경찰서장 이하 8명의 경찰과 일본군수

비대 5명이 출동하여 무력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였다. 격노한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옥박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울산경찰서로 압송되었다.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80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종필(李鍾弼, 1898~1968)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동동) 출생. 호는 서산(曙山).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를 탄압하는 일제군경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종하(李鍾河, 1889~1978)

사회활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출생. 호적 이름은 인수(寅秀).

울산병영청년회 간사(1925), 울산수리조합총대회 보충원(1933), 하상면 번영회 평의원(1940)으로 활동하였다. 강정택의 외삼촌으로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1920년대 후반에 과수원으로 개간한 야산이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토지 매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

1962년 울산시 승격 이후 땅값이 많이 올랐을 때 건평 7백 74평의 실내체육관 설립에 필요한 돈 1억 3천1백만 원을 내놓았다. 1977년 9월 실내체육관이 완공되자 중하체육관이라고 이름지었다. 또한 중하체육관과 청솔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부지도 울산시에 기증하였다.

한편 그는 1977년 제2회 울산시민의 장(공익장)을 받았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25.5.4, 1933.5.21, 1979.6.19)

『울산시사』 , 울산시, 1987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 강정택 지음, 이문웅 엮음, 2008

이준민(李俊民, 1736~1799)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출생. 다른 이름은 순민(舜民). 자는 심경(心卿). 호는 학고(鶴臯).

선무원종공신 이인상(李仁常)의 5대손이다. 어릴 때부터 효행과 학문, 문장이 세상에 드러났다. 남창(南窓) 정제의 문인으로 1771년(영조 47)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임금으로부터 홍면포(紅綿袍)를 하사받았다. 다산 정약용과 교유하며 울산의 유품 진작에 애썼으며, 문집으로 『학고유집(鶴臯遺集)』 (1965) 3권 2책이 전한다.

【참고자료】

『학고유집』

『울산울주향토사』 ,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이준웅(李俊雄, 1938~2004)

시인. 본관은 경주. 북구 산하동 출생. 자는 청보(靑保).

1958년에 진해시 충무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12월 첫 시화전을 출발점으로 문협 울산지부의 회원이 되었다. 이후 간사, 사무국장을 거쳐 1975년~1977년에는 6~7대 문협 울산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73년~1978년에는 한국예총 울산지부 사무국장도 역임하였다. 개인 시화전과 합동 시화전을 여러 번 개최하였고, 『울산문학』 1~3집과 『처용촌』 동인지 1~2집, 『잉여촌』 동인지 10집을 책임 출간하였다. 시화 작품집 『세월』 (1976), 『들풀』 (1977)을 출간하였고 1981년에는 처녀시집 『설화』 를 발간하였다. 울산 YMCA 이사를 역임하고 장원인쇄사를 경영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설화』 , 이준웅, 1981

『울산예총20년사』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이진영(李鎭泳, 1919~1993)

한문학자. 본관은 청안.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마을 출생. 자는 덕윤(德潤). 호는 동초(東樵).

선무원종공신 퇴사재(退思齋) 이응춘(李應春)의 후손으로 구린(龜隣) 용필(容秘)의 손자이다. 허채(許採) 선생의 문하에서 한문학을 수학한 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팔만대장경』 국역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20세기 후반 한국 한문학의 거봉으로 안동 출신의 연민(淵民) 이가원 박사와 쌍벽을 이루어 ‘남동초북연민(南東樵北淵民)’이라 병칭되었다. 주요 국역서에 『성호사설』 『해행총재(海行摠載)』 『동국이상국집』 등이 있고, 『중중실록』 『퇴계집』 등을 교열하였다. 사후 제자들이 낸 문집 『급고실유고(汲古室遺稿)』 (1995)가 있다.

【참고자료】

『급고실유고』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이질백(李質白, 1567~1642)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학성.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출생. 자는 자순(子純). 호는 정강(貞康).

군자감 참봉 수신(守信)의 아들이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예빈시부정에 이르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철(李哲, ?~?)

울산이씨 시조. 고려 후기 무신.

경주이씨 1세조 소판공 이거명(李居明)의 15세손이다. 고려 고종 때 몽고에 쫓긴 거란 유민군이 서북계에 침입하자 김취려 장군이 이를 연주(현 영변)에서 격파하였다. 이때 김취려 장군을 도와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삼중대광 문하시중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에 올랐으며, 학성군에 봉해졌다. 이를 계기로 후손들이 본관을 울산으로 하여 대를 잇고 있다. 현재 충남 천안시 북면·직산읍 등지에 집성촌이 있다. 2000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울산이씨는 남한에 총 1,967가구에 6,32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한국성씨보감』, 은광사 편집부, 2000

이춘걸(李春杰, 1931~2010)

교육자.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1동(남외동) 출생. 호는 동원(東原).

독립운동가 종근(鍾根)의 아들이다. 1997년 평산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면서 42년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였다. 울산광복회 회장(1986), 병영3·1유족회 제4대 회장(1998), 울산 삼라회 이사, 독립기념관 자료수집위원(2004), 울산남구문화원 이사(2008)를 역임하였다. 울산시교육장상(3회), 문교부장관상(3회), 경남도교육감상(2회), 대통령상(1회), 국민훈장(동백장), 울산시문화상(교육부문), 경상보훈대상(2009)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는 『두동의 열(1991)』, 『병영의 3·1운동』(1992), 『학교 그리고 나』(1996), 『정사 병영의 3·1운동』(1998), 『내 고향 울산』(2001) 등이 있고, ‘남구구민의 노래’가 입상(2005)하였다. 병영삼일유족회에서 활동하면서 병영 3·1운동 참여자들의 정부포상을 추천하여 건국훈장 애국장(4명), 건국훈장 애족장(8명), 대통령표창(14명) 등을 받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박채은) 조사 자료

이춘백(李春白, 1550~?)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공조참의 수공(守恭)의 큰아들이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部將)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춘우(李春雨, 155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남구 출생.

선무원종공신 회원(希元)의 아들이다. 임란 때 부자가 함께 창의하여 향인 박언복·김득례 등과 혐요지에 진을 치고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1592년 7월 회야강 부근 대천제에서 왜병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첨지중추부사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쾌경(李快慶, 1900~1960)

독립운동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다른 이름은 일락(一洛).

1919년 4월 8일 울산 남창리 시장에서 동지들과 군중을 주도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거사 전날 독립만세운동 주동자들이 이용락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할 때 동참하였으며, 거사 당일 만세운동을 하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5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다. 다시 항소하였으나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쾌덕(李快德, 1900~1975)

독립운동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출생. 다른 이름은 선결(善杰).

이수락, 이희계, 이용락 등 동지들과 남창 장날에 거사하기로 하고 의거를 준비하였다. 거사 하루 전 이용락의 안방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1919년 4월 8일 울산 남창리 시장에서 동지들과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하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5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항소하였다.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한남(李翰南, 1565~1629)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남구 신정동 출생. 자는 여일(汝逸). 호는 난은(難隱).

수군절도사 종실(宗實)의 현손이며 증호조참의 대배(大培)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고, 4월 23일 기박산성에서 울산 의사들의 창의거병에도 참여하였다. 박봉수를 대장으로 한 이 회동에서 경상좌병영 탈환계획의 종사관(從事官)을 맡아 적을 물리치고 병영성을 되찾는데 공을 세웠다. 5월 27일 경주 계연전투에서 이경연, 전응충 등 울산 의사들과 적을 무찌르고,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1594년 1월 봉사(奉事)로 별시무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경주와 울산지역의 여러 전역에서 쌓은 전공으로 용양위부호군에 제수되고, 훈련원 부정(副正)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현담(李玄聃, 1682~1782)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북구 송정동 출생. 자는 상로(常老). 호는 국옹(菊翁). 충숙공 예(藝)의 9대손이며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인 아버지 이식(爾楫)과 어머니 숙부인 월성이씨 사이에 5남 1녀 중 큰아들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품성이 온순하고, 믿음직하였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였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자 밤낮으로 변을 맛보며 병의 증세를 살피다가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아버지의 입에 대어 소생하게 하였다.

1731년(영조 7) 구강서원의 원장을 역임하였다. 1735년 부임한 권상일 부사가 서원을 찾아 알묘(謁廟)한 뒤 서원 중수에 관심과 뜻을 두니 성조도감(成造都監)을 맡았다. 동생 원담은 원장을 맡아 서원제도를 확충하고 서원의 동·서재를 건립, 대문삼간(大門三間)과 신문(神門)을 중수하였다. 시조인 충숙공의 위패를 모시는 용연사(龍淵祠)의 창건 시위판(位版)을 썼다. 용연사는 나중에 이건(移建)하여 석계서원(石溪書院)이라 하였다.

【참고자료】

『울산광역시사』 2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남구문화』 2집, 『울산최초의 읍지 『학성지』 초고본의 주역들』, 박채은, 2004

이현우(李鉉寓, 1894~1959)

독립운동가. 본관은 재령.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금재(錦齋). 1919년 4월 4~5일 울산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때 주재소의 응원요청을 받은 울산경찰서장 이하 8명의 경찰과 일본군 수비대 5명이 출동하여 무력으로 해산시키려 하였다. 격노한 시위군중과 함께 육박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울산경찰서로 압송되었다.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68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한국독립사』 하권, 김승학, 1970

『독립운동사』 3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2-5권, 국사편찬위원회, 1992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이협(李莢, ?~?)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학성. 자는 군실(君實).

충숙공 이에의 8세손이며 대명은사(大明隱士) 득준(得竣)의 둘째 아들이다. 학행(學行)이 뛰어나서 향리(鄉里)의 숭앙(崇仰)을 받았다. 향사(鄉士)들과 함께 구교동(현 중구 반구동)에서 지금의 중구 교동으로 향교를 이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평소 향리에 베푼 선행과 유풍 진작에 기여한 공로로, 문족(門族)들은 그를 동량(棟樑), 향당(鄉黨)에서는 시귀(蓍龜)라 하였다. 만년(晩年)에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참고자료】

「묘갈명」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이호경(李護卿, 1894~1991)

여류시인. 본관은 경주.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어릴적 이름은 봉선(鳳仙). 호는 구소(九簫).

영회(榮會)의 딸이다. 추전 김홍조의 측실이 되었다가 김홍조의 사후 하동의 초계정씨 문중에 개가하였다. 「작천정 기문」을 쓴 오병선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열일곱부터 시창작을 하였는데 글 솜씨가 황진이에 버금간다고 하였다. 그녀가 지은 62수의 한시는 석정(石汀) 최두출(崔斗出)이 국역한 한시집 『봉선화(鳳仙花)』(1980)에 실려 있다.

작천정과 통도사, 문수암 등을 소재로 한 한시가 많아 울산의 옛 풍물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료가 되고 있다. 작천정에 「작천정 현판의 운(酌川亭板韻)」이란 시를 적은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앞 냇가에 그의 시암(詩巖)이 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구소한시집』, 이구소 저, 정양순 역저, 2013

「구소 이호경의 한시 연구」, 김정화, 울산대석사학위논문, 2013

이홍준(李洪俊, 1893~1969)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정죽(靜竹).

그는 1919년 4월 4~5일 양일간 울산군 하상면 병영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일로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후락(李厚洛, 1924~2009)

정치인. 본관은 학성.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출생. 호는 우석(又石).

1942년 울산농업고등학교(현 울산공고)를 졸업하였다. 다음해 일본 규슈의 다치아라이 비행학교[大刀洗飛行學校]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1945년 광복 후 귀국하였다. 12월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다음해 3월 소위로 임관하였고, 현역으로 복무 중 국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하였다. 국학대학교가 후일 고려대학교에 편입되면서 고려대 동문이 되었다. 1951년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 1954년 육군본부 병참감, 1957년 주미대사관 무관, 1959년 국방부 기관장 등을 지낸 뒤 1961년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정권교체에 가담하여 박정희 정권의 책사(策士) 역할을 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을 거쳐 1963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비서실장이 되었고, 1969년 10월 주일대사, 1970년 12월에는 제6대 중앙정보부 부장으로 취임했다. 1972년 5월 밀사로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주석 김일성과 비밀회담을 하여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1973년 박정희의 후계 문제를 거론한 ‘윤희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그해 12월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정계에서 물러났다가 1979년 3월 경상남도 울산·울주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0·26사건 이후 신군부 세력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규제받았고 1985년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렸다.

그는 교육계에도 공헌하였다. 울산이 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산업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64년 학교법인 울산육영회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울산공단에 근무할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영국의 차관을 주선하여 울산공과대학교 병설 울산공업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1970년 3월에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약 6년 10개월간 대학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울산문화방송(주)의 전신인 울산민간방송(주)를 설립하여 지역 방송문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사망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금성충무무공훈장, 청조근정훈장, 1등수교훈장, 2등보국훈장과 미국 동성(銅星)훈장 등을 받았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대학교 30년사』, 울산대학교, 2000

이희계(李希季, 1900~1931)

독립운동가. 본관은 학성.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출생. 다른 이름은 중걸(重杰).

1919년 4월 8일 울산 남창리 시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였다. 5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으나 다시 항소하였다.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이희대(李喜大, ?~?)

기독교인.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1890년대 중반 중구 서동 372번지 자신의 집에 호주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어머니, 숙모, 마을 사람들과 감사예배를 드린 후 집을 교회설립을 위해 헌납하였다. 1895년 1월 울산 최초의 교회인 병영교회를 설립하여 울산지방에도 기독교가 전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울산지역에 기독교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 이문조 등 병영교회 청년들은 일제강점기 병영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병영교회 90년사』

『울산의 교회 이야기』 제1호, 울산교회사연구소, 2011

『울산의 교회 이야기』 제4호, 울산교회사연구소, 2014

이희백(李希白, 157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학성. 자는 여중(汝中).

침정 수인(守仁)의 둘째 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형 신백과 함께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겸사복(兼司僕) 선략장군 충무위좌부장(忠武衛左部將)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장상준(張相俊, 1918~?)

독립운동가. 본관은 인동.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출생.

1935년 2월 이용선(李容先)이 일본 오사카 계지에서 노동학교 출신의 박용덕·허영·김인만·정암우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전위대인 애국청년회를 결성할 때 핵심인물이다. 이후 7월 하순까지 전후 6회에 걸쳐 항일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회합을 갖고, 7월 말 허영·박용덕 등 2명을 동경으로 파견하였다. 9월 중순에는 김인만·정암우 등 2명을 나고야로 각각 파견하였다. 10월 초순 동지들과 함께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93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장오석(張吾石, 1564~159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인동. 족보 이름은 현극(顯克). 자는 화옥(華玉). 호는 송호(松戶).

후(煦)의 큰아들이다. 임란 때 상인(常人)으로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우고 도산성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절충장군으로 제수되었다. 둘째 아들인 춘일(春一)이 울산 동구의 입향조이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장재술(張在述, 1916~1985)

독립운동가. 북구 연암동 출생.

본적은 울산시 남구 용연동 87번지로 되어 있다. 14세 때인 1933년에 숙부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독학으로 일본제국대학 3년을 수료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반전반협력조선인학생협회’란 비밀조직에 가입하였다. 박열, 서상한 등과 자주독립 및 항일투쟁을 하다가 1942년 9월 학도병징집 거부운동으로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하였다. 11월 징용조선인 처우에 대한 실상을 사할린신문에 익명으로 기고하여 1943년 9월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체포되어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사할린에 있는 사상범 집결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11월 맥아더 원수의 지령으로 석방되었다.

1946년 순국열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의 유골 봉환사업에 종사하였다. 1958년부터 1985년까지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966년 1월 사할린 징용 한국인의 참상을 폭로한 저서 『옥문도(獄門島)-화태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발간하

였고, 1973년 일제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日本之朝鮮(일본제국 한국 병합과 침략 사진 화보)』 을 발간하여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1974년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통일일보에 사할린 동포의 방치와 귀환을 담은 「사할린 한국인의 비극」 을 24회에 걸쳐서 연재하였다.

1967년 잠시 귀국하여 사할린 교포 귀환을 위한 탄원서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부의 사할린 동포 귀환 노력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항일, 자주 독립운동의 공로로 1977년 대통령 포장을 받았다. 1985년 6월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세상을 떠났다. 1990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다.

【참고자료】

『장재술 선생의 생애와 애족정신』 , 울산남구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2010

『울산남구문화』 5집, 「항일 자주 독립유공자 장재술 선생」 , 2007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장희춘(蔣希春, 1556~1618)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아산. 경남 양산 명곡동(당시 울산군 서면) 출생. 자는 인경(仁敬). 호는 성재(誠齋).

기자전 참봉 훈(薰)의 아들이다. 일찍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울산 기박산성에서 박봉수 등 여러 의사들과 함께 창의하여 좌병영에 주둔한 적을 물리쳤다. 울산 개운포와 경주의 선도산, 영천의 창암 등지로 달려가 여러 의사와 함께 적을 격파하는 등 초기 경주, 울산지역 방어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6월 9일 문천회맹과 다음해 10월 울산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1594년 3월부터 시작한 세 차례의 서생포 강화회담에 우리 측 방어사 소속 대표로 이겸수, 최복한 등과 참여하였으나 왜병의 무리한 요구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1596년 3월 제1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7월 21일 방어사 괘재우가 지휘하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1598년에 전공으로 훈련원관관(종5품)에 제수되었다. 다음해 장례원사의(掌隸院 司議)에 올랐으며, 1607년 형조정랑(刑曹正郎)을 지냈다. 이때 일본 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그곳의 자연과 문물을 기술한 『해동기』 (2권)를 남겼다. 「창표당안」 에 제장(題掌)으로 만도(晩到) 15원(員)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에 유집 『성재실기』 가 간행되었다. 묘소는 북구 강동동(무룡동 달골)에 있으며 후손들이 살고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성재실기』

『울산의 충의정신』 ,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전개(全玠,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옥산(경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출생.

통덕랑 응인(應仁)의 아들이다. 임란 때 장인 이봉춘(청안인), 당숙 응충과 함께 창의하였다. 초기 울산 방어전투에 참여하고,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뒤에 무과에 급제하고 용양위 부장(部將)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전근(田根,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담양.

선무원종공신2등 수문장 영방(永芳)의 손자이다. 임란 때 할아버지 영방과 형 삼을 따라 창의하였다. 뒤에 무과 별시에 급제하였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전몽정(全夢禎,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옥산(경산).

임란 때의 전공으로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전복명(田福命,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담양.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10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전응충(全應忠, 1545~?)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옥산(경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출생. 자는 원여(元汝). 호는 운계(雲溪).

문평공(文平公) 백영(伯英)의 후손인 대은(大恩)의 아들이다. 임란 때 오촌 조카 전영, 전개와 창의하고, 6월 9일 문천회맹에도 참여하였다. 9월 경상좌병사 박진이 순찰사와 함께 전 밀양도호부사 김태허를 가군수로 내세워 부산, 동래, 양산, 기장 방면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에 대응토록 할 때 그를 남면장(南面將)으로 삼았다.

1593년에 울산의 구강(鷗江 : 현재의 반구동)에서 여러 의병장들과 함께 전투의지를 결의하는 회맹(會盟)을 하였는데, 이를 구강회맹이라고 한다.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회맹에도 참여하였다.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절충장군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향토사연구논총』 이유수, 1996

『울산광역시사』 2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정대업(鄭大業, 1594~1637)

조선 중기 무신(병란 창의의사). 본관은 동래.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능산마을 출생. 자는 사심(士心). 호는 모의(慕義).

생원 윤필(允弼)의 증손이며, 첨정 사효(思翕)의 아들이다. 1621년(광해군 13) 무과에 급제한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 윤천록(尹天祿)과 함께 장사 수십 명을 모집하였다. 이천(利川)의 쌍령(雙嶺)전투에 참전하여 왜병을 사살하고 전공을 세웠으나, 순절하였다. 1766년(영조 42)에 증선무랑 호조좌랑으로 추증하고 1811년 표절사(表節祠)에 제향되었다. 실기인 『모의록』(1852)이 전한다. 묘소는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능산마을 서쪽 구릉 표절사 아래 모의재 옆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자료】

『모의록』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주원사정재』 (상북면편), 울주향토사연구소, 2011

정동우(鄭東宇, 1925~1979)

사진작가. 본관은 영일. 호는 일암(一巖).

1950년부터 울산군청 등 경남 일대의 여러 곳에서 공직생활을 하였다. 예술분야 행정 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던 중 사진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1960년 초에는 부산지방 사진 작가들과 교분을 트고 활동을 해왔다. 1966년 울산지역에서 사진업에 관계하고 있던 유진갑, 임수문, 홍순철 등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부 설립을 위한 첫모임을 가졌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후 1967년 1월 문영철, 이동주 등과 지부창립총회를 가져 3월 25일 지부 인준을 받았다. 이후 초대(1967~1968)와 3대(1971~1972) 사협울산지부장과 한국 사진작가협회(중앙회) 이사를 역임하면서(7대, 1972~1973) 사진예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5대 한국예총 울산지부장 재임시(1978~1979)인 1979년 11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1986년 10월 12일 사협울산지부는 경주 서라벌공원묘지 묘소에 그를 추모하는 추모비를 세웠다.

【참고자료】

『울산문화』 창간호, 울산문화원, 1983

『울산사진연감』 1집, 사협울산지부, 1985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정두표(鄭斗杓, 1935~1967)

반공투사. 본관은 동래.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출생.

1949년 길천초등학교를 졸업(20회)하였다. 육군 헌병으로 만기제대 후 가족들을 데리고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피밭[山田]을 개간하면서 어렵게 생활하였다. 1967년 6월 14일 집에서 약 15리 떨어진 운문산 기슭 삼계리(생금비리)에서 밭을 개간하던 중 무장간첩 4명이 나타나 식량 등 생필품을 요구하자 거짓 호응하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하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16일 군경과의 합동작전에 참가하여 단신으로 약속장소에 나갔다. 그들이 요구한 물품을 건내주는 척하면서 권총으로 두목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매복한 잔당의 집중사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다. 청도군 운문면 삼계리의 운문계곡 도로변과 그의 모교인 길천초등학교 교정에 각각 추모비가 세워졌다. 1967년 8월 보국훈장증과 1993년 6월 국가유공자증이 각각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정상만(鄭祥萬, 1928~2006)

군인. 북구 염포동 중리 출생. 호는 일효(一曉).

남목국민학교, 울산농업학교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육군사관학교(8기)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된 후 부산병참기지사령관 부산위수사령관 육군보안대장을 거쳐 소장 때에 예편되었다. 예편 후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대표를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남목초등학교 100년사』, 남목초등학교총동창회, 2008

정소질산(鄭小叱山, 156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동래.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출생.

보인(保人) 한필(汗弼)의 아들이다. 임란 때 전공을 세워 난 후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정용득(鄭龍得, 1885~1927)

독립운동가. 본관은 동래. 울주군 상북면 등역리 출생.

1919년 언양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선고받았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2011년 7월 고향(등역리 화천마을) 문중재실 앞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주원사정재』(상북면편), 울주향토사연구소, 2011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정인관(鄭仁寬, ?~?)

조선 후기 무신. 본관은 동래. 울주군 상북면 출생.

고려 좌복야 목(穆)의 후손이다. 부사용(副司勇)으로 1624년(인조 2) 평안도병마절도사 겸 부원수 이괄이 영변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다. 진무원종

공신으로 녹봉되었다.

【참고자료】

『진무원종공신록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정인섭(鄭寅燮, 1905~1983)

문학인. 본관은 동래.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출생. 호는 눈솔[雪松]. 필명은 화장산인(花藏山人).

아송(蛾松) 택하(宅夏)의 둘째 아들이다.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를 졸업한 후 대구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일본 도쿄의 이쿠분칸중학 4학년에 편입하였고,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22년 ‘색동회’의 발기인이 되어 동인지 『어린이』에 동시·동극·동화 등을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6년 와세다대학 재학 중 동경 유학생인 김진섭·김운·이하운·손우성 등과 해외문학연구회를 조직하였다. 다음해 1월에 창간된 동인지 『해외문학』에 화장산인이라는 필명으로 「포오론」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전래동화·전설 등을 수록한 『온돌야화(溫突夜話)』를 일본어로 간행하였다. 한국인에 의해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설화집이다.

1929년 4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고 1930년 한글학회에 가입하였다. 1931년 극예술연구회, 1932년 조선민속학회와 조선영문학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33년 한글학회 회원으로 ‘한글맞춤법통일안’ 수립에 참여하고, 1935년에는 조선음성학회를 창립하였다. 다음해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국제언어학자대회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하였다.

1939년 김동인·박영희·임학수와 함께 황군(皇軍)위문 문단사절로 뽑혀 화북지방을 다녀와 쓴 격려문에 전쟁을 독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친일의 성향으로 기울었다. 11월 조선문인협회 간사회에서 ‘일선 용사’ 위문대 만들기 행사를 펼쳤다. 1940년 평양 백선행기념관에서 열린 조선문인협회 주최 문예강연대회에서 ‘비상시국과 국민문학’이라는 연제로 강연하면서 용감하게 싸우는 장병들의 무공, 총후미담(銃後美談) 등을 문학으로 다루자고 하였다. 12월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주최로 ‘총력, 총립, 총진군’이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국민총력의 밤에서 ‘신체제와 국민문화’라는 연제로 강연하였다. ‘황도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황도학회(皇道學會)에 발기인 겸 이사로 참여하였다.

1946년 이후 중앙대, 영국 런던대, 일본 텐리대 교수, 서울대 대우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1954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의 창설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1957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장(1957~1968)을 지냈다. 1963년 한국세익스피어협회 이사로 있으면서 영역 한국시선 『A Pageant of Korean Poetry』를 출간하여 펜클럽 한국본부가 주는 제4회 번역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69년 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장을 역임하고 다음해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펜대회가 설치한 국제펜클럽 아시아문학번역국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표적 저서로는 『대한현대시영역대조집(大韓現代詩英譯對照集)』(1948), 한국의 신화·전설·동화·우화·고전을 소개한 『Folk Tales from Korea』(1952) · 『세계문학산고(世界文學散考)』(1960) · 아동문학 『색동저고리』(1962) · 창작시집 『산 넘고 물 건너』(1968) · 수필집 『버릴 수 없는 꽃다발』(1968) · 『일요탐방기』(1968) · 『비소리 바람소리』(1968) 등이 있다. 그리고 평론집 『Plays from Korea』(1968)· 『An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1970)와 『국어음성학연구』(1973) · 『종합변증법적 세계문화론』(1973)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주간서울』, 「정인섭론」, 김태오, 1950
-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이재철, 1978
- 『현대시학』, 「정인섭론」, 박철석, 198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정임석(鄭任石, 1938~1960)

민주열사. 울산 북구 천곡동 출생.

농소중학교(2회)와 울산농림고등학교(현 울산공고, 18회)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 진학하였다. 2학년 재학중 4·19혁명에 가담하였다. 경무대 앞에서 시위 중 총상을 입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4월 26일 순국하였다. 울산에서는 유일한 4·19혁명 순국자로 장례는 울산군민장으로 치러졌다. 유족의 뜻에 따라 천곡동 산17번지 묘역에 안장하였다.(국립 4·19 민주묘지에는 가묘)

열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4·19혁명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4·19 민주열사 정임석추모회가 결성되어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4·19혁명사』, 50주년 4·19혁명 기념사업회, 2011
- 정임석 추모회
- 4·19혁명(<http://www.419revolution.org>)
- 국립 4·19 민주묘지(<http://419.mpva.go.kr>)

정지모(鄭智謨, 1893~1925)

독립운동가. 본관은 동래. 울주군 언양읍 평리 출생.

1919년 4월 8일 동래군 장안면(현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동래군 기장읍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영향을 받아 그와 신두성 · 김윤희 · 오진환 등이 추진하였다. 이들은 4월 8일 장안면의 장날을 이

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비밀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거사 당일인 4월 8일 오후 1시 30분 경, 그와 동지들이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그 곳에 모인 500여 명의 시위군중이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의 주도하에 시위 군중은 행진을 전개하였으나, 일제경찰이 총칼을 휘두르며 폭압적인 방법으로 저지하자 해산하였다. 일제경찰의 대대적인 검속에 따라 주도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5월 21일 대구복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석방 후 고문의 여독으로 얼마 후 사망하였다.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4권, 국가보훈처, 2000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정진근(鄭鎭根, 1921~1944)

독립운동가. 본관은 동래.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출생.

일제의 중국 침략이 무르익던 1939년경부터 민족독립에 대한 의지를 길러 가면서 민족 의식 고취에 앞장 섰다. 울산군 두서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상만·박근철 등과 중일전쟁의 정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독립 달성에 대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방안으로 우선 주위의 동료·후배들을 대상으로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동지 포섭에 힘을 쏟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인하여 1944년 8월 29일에 순국하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정태원(鄭泰源, 1869~1953)

독립운동가. 본관은 동래.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신리) 출생.

미계(眉溪) 은호(銀鎬)의 둘째 아들이다. 1919년 언양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선

고받았다. 이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었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정택락(鄭宅洛, 1923~2003)

방송인.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출생. 호는 원당(圓堂).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금융조합 상무, 울주군 농업협동조합 상무, 대한
통운주식회사 부사장, 경상남도 행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울산축구협회장, 울산노인학교
운영위원회 이사장, 울산불교신도회장, 울산문화방송주식회사 사장(1970. 1. 27. ~
1981. 2. 25.)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온산읍지』, 온산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정해영(鄭海永, 1915~2005)

정치인. 본관은 연일. 북구 진장동 출생. 호는 해석(海石).

병영초등학교와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43년 이후 부산대양산업 사장,
1949년 이후에는 대동연탄 사장을 지냈다. 19공탄을 개발해 ‘석탄왕’으로 알려졌다.
1954년 이후 제3대 민의원(자유당, 울산을)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1955년 서울 성북동에 동천학사를 지어 경제적 사정으로 서울 유학생생활이 어려운 울산·
부산 출신의 인재들을 기숙케 하였다. 제3대 민의원을 시작으로 제5~10대에 이르기까지
울산과 부산에서 7선 의원을 지냈다. 1966년 이후에는 신한당 정책위원으로 재임하였으
며,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69년 이후 신민당 원내총무, 신민당 정무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제8대 국회 부의장을 역
임하였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으며, 신민당 부총재로 재직하였다.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82년 중국문화대학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이후 원불교 중앙교의회 의장, 통일원 고문, 포은사상 연구원 이사장, 영일정씨포
은공파종약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0년 미국공산주의 희생자 추도재단(The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 올해의 ‘트루먼~레이건 자유기업상’을 수상하였다. 사후 자손들에 의해
2002년부터 정해영 장학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동천학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송덕

비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1월 울산 중구 남외동 정지말공원에 송덕비가 건립되었다.

【참고자료】

- 『경상일보』 (2012.11.14.), 『울산매일』 (2012.11.14)
-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 『해석 정해영 회고록』, 정해영, 2001
-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조순규(趙淳奎, 1908~1994)

시조시인.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출생. 호는 근포(槿圃).

1920년대부터 문학활동을 시작한 울산 최초의 시조시인이다. 1923년에 월반하여 울산 초등학교를 15세 때 졸업하고, 부산 동래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동래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했던 시인 청마 유치환은 조순규의 한 해 선배이고, 소설가 요산 김정한과 시인 김대봉은 동기이다. 1928년 조선일보 일반문예에 「봉래유기」 연시조 7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제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받던 중 그해, 편지 내용을 문제 삼아 치안유지법 명목으로 동래경찰서에서 1년에 걸친 옥살이를 하였다.

1931년 전국을 돌며 채록한 민요 400여 편을 묶어 『무궁화』(육필민요집) 자가본을 엮었다. 그 후 웅촌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문맹 농민을 가르치다가 일제 통치 막바지인 1945년 1월 웅촌면장직을 맡았다. 광복 후에는 첫 민선 웅촌면장(1945.1.1. ~ 1946.12.30.)을 지냈다. 1949년 모교인 동래중학교로 직장을 옮겼다가 다시 울주 웅촌 10대 면장(1945~1946)으로 2년간 재직하였다. 43세 때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문예반을 맡아 학예지 『프로가토리오』 2호를 편집 지도하였다. 1951년 8월 좌파활동을 한 제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울산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후 부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되었다.

1951년 11월에 복직하여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 문예지 『시조연구』 창간호에 「하늘」을 발표하였다. 1955년에 정식 교사로 발령이 났고, 1959년 경남여고로 옮긴 후 시조시인 김상옥, 시인 조순과 같이 근무하였다. 청마 유치환이 교장으로 오면서 문학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작품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1962년 동아일보에 시조 「바다」를 발표하였다. 1973년 부산실업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25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였다. 만년에 불행하게도 세 아들을 먼저 보내고, 한권의 작품집도 발간하지 못한 채 1994년 생을 마감하였다. 사후 『무궁화』(육필민요집), 『계록집』(육필시조집), 『잡초록』(육필산문집) 등의 작품집이 발간되었다.

【참고자료】

- 『동래고등학교 80년사』, 동래고등학교, 1978
- 『웅촌면지』,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 『울산문학사』, 울산문인협회, 2004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무궁화』, 박태일 엮음, 2013
『근대서지』 제4호, 「무궁화 시인 조순규의 삶과 시조」, 박태일, 2011
『울산시조』 18집, 「근포 조순규의 생애와 작품세계」, 문 영, 2013

조임준(曹任俊, ?~?)

사회활동가. 본관은 창녕. 자는 화실(化實).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울산청년회 찬성원(1922), 기성회 위원장(1928), 울산민우회 부회장(1928년 2월), 울산민우회 평의원(1928년 4월), 울산유치원 기성위원회 위원장(1928), 울산민우회 회장(1929), 삼산자동차주식회사 이사(1921~1929), 울산 면협의 원(1927, 1931)을 각각 역임하였다.

울산청년회 찬성원 자격으로 150원을 기부하였고, 울산고등강습회 후신으로 울산청년회가 경영하였던 해영학원을 원조하였다. 당시 울산군 유곡리 선일소년일단(鮮一少年一團)이 노동야학을 창설할 때도 지원하였고, 동아일보 울산지국 주최 시민대운동회 때의 연금 5원을 회사하였다. 울산유치원기성회 위원장으로 1천 원을 기부하였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22.2.13, 1928.2.25, 1928.12.8)
『조선은행회사요록』, 국학자료원 편집부, 1921~1942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김승, 2003

조형진(曹亨珍, 1896~?)

독립운동가. 본관은 창녕. 중구 성남동 출생.

1925년 4월 26일 창립된 울산사회단체 성우회(城友會)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성우회는 그해 7월 방정환을 초빙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갖는 등 청소년들의 애국사상을 고취시켰다.

1925년 11월부터 경남 울산청년연맹 집행위원, 1926년 울산기자단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5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 울산자오회(蔚山子午會)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7년 10월 30일 울산군 방어진에서 열린 울산사회단체간담회에서 울산청년동맹을 조직할 창립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창립 준비를 위해 12월 8일~9일까지 울산면 성남동 김정국의 집에서 울산청년동맹의 강령과 정책 등을 마련하였다. 강령의 내용은 ‘조선청년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개방, 미조직된 조선청년 대중의 공고한 조직을 축성, 조선청년 대중을 계급적 민족적으로 교양훈련을 기함’ 등이었다. 정책의 내용은 ‘조선민족의 전체적 이익을 대표할 전민족적 단일당 수립, 이것의 수립을 위해 신간회를 적극적으로 지지, 청년남녀의 언론집회 및 결사·출판의 자유’ 등이었다. 이것을 울산군 하상면 병영청년회관에서 70부 인쇄하여 1928년 5월 16일 울산청년동맹 창립

총회에서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0년 9월 신간회 울산지회 대표회원을 역임하는 등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2009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조홍제(趙弘濟, 1926~2001)

교육자. 본관은 함안. 북구 창평동 출생.

1941년 농소공립보통학교(현 농소초), 1949년 울산농고(현 울산공고)를 졸업하였다. 울산농고 재학 중 외솔 최현배의 『중등말본』을 읽고, 대학을 국문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1953년 동아대학교 문리학부 문학과를 졸업한 뒤 교직에 몸담아 1992년까지 39년 4개월을 봉직하였다.

교육계에서 활동하면서 문인협회 울산지부 창립회원(1966), 한국문협 울산지부장(1978~1981)과 울산수필동인회 회장(1991~1992), 한글학회 회원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 문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1968년 6월 시 「항아리꽃」 외 1편의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였고, 1969년 『울산문학』 창간호 편집인으로 참여하였다. 1970년 4월 『울산문학』 제2집에 시를 수록하였고 ‘처용촌’ 동인회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나섰다.

1992년 1월 10일 첫시집 『내일은 비가 와도』를 발간하고, 8월 교육생활을 마감하는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문집으로 첫 수필집 『아사늘 엇디 흐릿고』를 발간하였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다. 사후 후학들에 의해 문집 『달맞이꽃은 달없는 밤에도 핀다』(2002)가 간행되었고 제5회 울산광역시문화상(문학부문, 2002)을 수상하였다.

울산지역 방언연구에도 일생을 바쳐 『울산방언』(2000)을 남겼다. 울산 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책에 사용된 용어와 문법의 분류 체계 등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부록으로 울산방언의 낱말을 한데 모아 사전식으로 편찬하였는데 어학을 공부하는 이는 물론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경상일보』(2000.1.17), 『동아일보』(2000.1.28), 『한국일보』(2000.1.27)
『내일은 비가 와도』, 조홍제, 1992
『아사늘 엇디 흐릿고』, 조홍제, 1992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울산방언』, 조홍제, 2000
『달맞이꽃은 달 없는 밤에도 핀다』, 조홍제, 2002
『시사랑울산사랑』 16호, 「조홍제 선생의 문학과 울산 방언」, 문영, 2014

조화자(曹花子, 1929~2005)

사회활동가. 본관은 창녕. 중구 성남동 출생.

1960년대 울산의 대표적인 신여성이다. 부산남성여고를 졸업하고, 양사초등학교와 강남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울산부녀봉사회장, 구국여성봉사회 울산지구회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단장으로서 울산시어머니합창단을 이끌어 문화공보부가 주최하는 제7회 전국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에 경남대표로 참가하여 금상을 받았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주사문(周士文, 1890~1919)

독립운동가. 본관은 상주.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아송(亞松).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주도하고, 병영의 비밀청년회에 가입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서울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희사하였다.

일제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활약하던 그는 3명의 동지와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1982년에 대통령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차덕출(車德出, ?~?)

사회활동가. 본관은 연안. 울주군 두서면 출생.

삼남면 신화리 후평마을에서 면양을 시범사육하여 농촌계몽운동을 선도하였다. 울산청년연맹 위원(1925), 울산청년회 집행위원(1925)과 제8대 두서면장(1943.2.18. ~ 1945.8.15)으로 활동하였다. 해영학원에서 학생의 수준과 희망을 중시하는 교육을 하였으며, 해영학원에 대한 유지의 지원을 바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1925.5.31), 『시대일보』 (1925.5.28)
『울주삼남지』, 삼남지발간추진위원회, 1998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울산사학』 11집, 울산대학교, 2004
『역사와 경계』 81, 「근현대 울산지역 장시 변동과 지역질서의 재편」, 허영란, 2011

차성도(車成道, 1947~1970)

군인. 본관은 연안. 중구 병영1동(남외동) 출생.

병영초등학교, 제일중학교, 울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70년 육군제3사관학교를 졸업(1기)하고 육군 제27사단 78연대 1대대 2중대 2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5월 13일 소대 야간방어전투 사격훈련 중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한 병사가 수류탄 안전핀을 뽑다 파지(把指) 부주의로 안전 손잡이를 놓치면서 당황해 수류탄이 훈련 중인 소대원 쪽으로 떨어졌다. 이것을 발견하고 “모두 옆드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체 없이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쳤다.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복부가 파열돼 그 자리에서 장렬히 순국하였다. 절명의 순간에도 “나 외에 다친 사람은 없느냐?”하며 부하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였다. 그의 살신성인 정신은 군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모교인 병영초등학교와 울산공업고등학교에 그의 흉상이 건립되었다.

【참고자료】

- 『울산중구지명사』, 울산중구청·중구문화원, 2014

차영철(車永澈, 1920~?)

독립운동가. 본관은 연안.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출생.

1943년 12월 북경에서 광복군에 현지입대한 후 동지를 모으고 일본군 열차를 파괴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44년 3월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12월 12일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석방되었다. 1968년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 『울산의 독립운동사』, 울산정책연구소, 2008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차용규(車溶珪, 1898~?)

기업인. 본관은 연안. 중구 출생. 호는 백암(白巖).

개진학교를 졸업하였다. 울산읍장과 울산읍의회 의장, 울산상공회장을 역임하였다. 1936년에 일본 상인에 대항하기 위해 울산 상인들이 모여 울산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청년운동과 사회운동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 울산초등학교 강당 건립시 1천 원을 기부하였고, 울산청년회관 보수와 불우이웃돕기, 울산농업학교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차일환(車一煥, 1937~1987)

미술가. 본관은 연안.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출생.

울산고등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울산중·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였다. 목우회 공모전 입선(제13회, 1976년 4월, 서울국립현대미술관), 국전(國展) 제28회·29회(1979·1980년, 국립현대미술관) 입선, 제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경남도전 특선 2회, 입선 7회, 개인전 4회(1회 1981년 12월, 2회 1984년 11월, 3회 1985년 1월 이탈리아 밀라노, 4회 1987년 5월), 1985년 유럽 8개국 미술계 시찰 및 스케치여행, 서라벌예대 중앙대 동문전(1980년 5월, 진주 동명화랑), 부산 및 대구지역 서라벌예술대 동문전(1981년 11월, 부산 로타리화랑), 일본초류(超流)미술협회전 초대출품(1986년 7월, 일본동경부미술관) 등을 하였다.

국제민간외교협회(P.T.P) 특별기획전, 영남연립예전, 재울 국전작가초대전, 국내미술협회전, 한국미술협회 울산지부전에 여러 차례 출품하였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협 울산지부장(1978~1980), 한국예총울산지부 부지부장(1978~1984, 1987)을 역임하였다. 1991년 7월 27일 4주기를 맞아 미술협회 울산지부는 고인의 고향인 온양읍 고산리 묘소에 화비(畫碑)를 세웠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처용(處容, ?~?)

『삼국유사』 권2, ‘처용랑망해사(處容郎望海寺)’ 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다. 설화적 내용이 가미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헌강왕이 개운포에서 놀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 길을 잃고 말았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까닭을 물으니, 일관(日官)이 “이는 동

해룡의 조화이니 좋은 일을 행해 풀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지으라고 하자 곧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그래서 이곳을 ‘개운포(開雲浦)’라 하였다. 동해의 용이 기뻐하며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덕을 찬양해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경주)로 가서 왕의 정사를 도왔으며, 이름을 처용이라 하였다. 왕이 그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여 머물도록 하고, 급간(級干 : 級澮)의 관등을 주었다. 아내가 아름다워 역신(疫神)이 흠모한 나머지 사람으로 변해 밤에 몰래 그 집에 가서 동침하였다.

이 때 밖에서 돌아온 처용이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에 역신은 본래의 모양을 나타내어 그의 앞에 꿇어앉아 “내가 당신의 아내를 사모해 잘못을 저질렀으나 당신은 노여워하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긴다. 맹세코 이제부터는 당신의 모양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일로 인해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린 부적을 문에 붙여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 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 중 동해용왕의 아들로 묘사된 설화적 부분만 제외하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동해용은 울산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해상세력의 중심 토호로, 처용은 그의 아들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경주에서의 처용이 관리로 생활한 행적 등을 보더라도, 실존인물이었을 개연성은 높다고 하겠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처용이 당시 신라에 내왕하던 아라비아 상인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으며, 경문왕가와 화랑의 친연성(親緣性)을 고려하여 화랑집단으로 비정(比定)하는 견해도 있다.

처용이 지어 부른 노래를 처용가(處容歌)라 하고, 춘 춤을 처용무(處容舞)라 하여 후대까지 전해지고 있다. 처용무는 197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처용관련 이야기가 깃든 처용암(處容巖)은 1997년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1967년 처용문화제가 시작되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고려사』 『삼국유사』

『신라문화』 제26호, 「헌강왕대의 정치사회와 ‘처용랑망해사’조 설화」, 전기용, 2005

『한국고대인명사전』, 장세경, 2007

『한국역대인명사전』, 임종욱 편, 2009

천재동(千在東, 1915~2007)

예술인. 본관은 중국 영양(潁陽). 동구 방어동 출생. 호는 증곡(曾谷).

남목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청년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 동경 가와바다화학교 소묘과를 수료하였고, 조선총독부가 주최하고 극단 현대극장이 주관하는 국민극연구소를 수료하였다. 가와바다화학교 특설 인체과를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이후 방어진 국민학교에서 미술, 연극 등을 지도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교직생활을 시작해 25년간 교육현장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였고 다른 학교들까지 순례하면서 민속 및 길놀이를 지도하였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문학, 음악, 연극 등 여러 분야에서 울산 문화운동의 단초가 된 다양한 활동들이 젊은 예술인들을 축으로 펼쳐지던 때이다. 울산 곳곳을 다니면서 방어진 토박이 최용구, 양조복과 함께 3인전 형식의 전시회를 매년 열었지만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6·25전쟁을 거치면서는 시화, 아동극 활동 등을 통해 울산 예술운동에 기여하였다.

교직생활을 그만둔 후에는 전통민속예술문화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전통민속문화를 발굴·연구·조사·채록·재연·정립하면서 연극은 물론 한국에서 최초로 창작 탈·민요풍속화·토우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저서로는 전래동요화집 『달노래 별노래 새노래』, 희곡집 『쇠뿔골 장승』 『범내골 옛이야기』 『우리 농부』 등이 있다. 1971년 부산·경남 향토문화상을 수상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1985년에 부산시문화상을, 2002년에 제1회 부산예술상(미술부문)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2007

최구지(崔仇知,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울주군 청량면 신리 출생.

충찬위(忠贊衛) 찬세(贊世)의 아들이다. 임란 때의 전공으로 우림위(羽林衛)에 제수되고 선무원종공신3등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최금석(崔金碩, 1897~1979)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1동(남외동) 출생. 호는 남계(南溪).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3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최두출(崔斗出, 1911~1987)

교육자. 본관은 경주. 남구 삼산동 출생. 호는 석정(石汀).

1930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농소초등학교와 울산제일초등학교에서 교두(敎頭: 수석교사)를 역임하고, 강남·대현·울산·양산·양사초등학교 등에서 교장을 역임하였다. 울주군교육장과 울주군체육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강남·울산·대현초등학교 재임 중 교가를 작사하여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다. 1960년 녹조훈장, 1972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1980년 여류시인 이구소의 작품들을 국역한 한시집 『봉선화(鳳仙花)』를 편찬하고, 1987년 문집 『풍진반세기』를 펴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풍진반세기』, 최두출, 1987

최봉식(崔奉植, 1892~?)

정치인. 본관은 경주. 울주군 온양읍 출생. 호는 죽헌(竹軒).

울산농업고등학교(현 울산공고), 군사영어학교, 국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0여년간 한문 수학을 하며 한방의학을 연구하였다. 1922년 온양면장, 1927년 울산군학교평의회 의원, 1929년 서생면장을 역임하였다. 1938년 5월 남창산업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진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6월 울산군농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1948년 온양면장을 역임하고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 때 울산 갑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0년대 초 남창중고등학교 설립의 주역으로 현재 남창고등학교 교정에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38.5.23, 1938.6.5)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대한민국헌정회(<http://www.rokps.or.kr>)

최성곤(崔聖坤, 1922~1951)

축구선수. 본관은 경주. 중구 북정동 출생.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를 졸업하고,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현 보성중)에 진학하여 축구 선수로 활약하였다. 당시 보성고보는 축구 명문학교로 그가 재학 당시에 우승기록이 특히 많았다. 이후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법과를 졸업하였다. 1945년 해방 후 조선전업 소속 축구선수로 활약하였고, 상해, 홍콩, 사이공, 마카오 등 해외원정 경기에 참가하였다. ‘그라운드의 표범’, ‘아시아의 준족(駿足)’이라고 불리었다. 울산에서는 그를 위해 “장백산의 성난 범도 겁나지 않고, 동해바다 뛰는 용도 무섭지 않다. 대동반도의 역장

사, 우리 울산 축구선수, 너 몰랐더냐”라는 응원가까지 만들어 불렀다.

1948년 정부수립 전 태극기를 달고 최초로 참가한 제14회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축구는 올림픽 축구 8강에 진출하였다. 8월 2일 멕시코와의 첫 경기에서 경기 시작 13분 만에 그가 첫 골을 넣어 올림픽축구팀 첫 골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경기에서 5대 3으로 승리하여 8강에 진출하였다. 이후 부산 광복동에서 운동구점을 경영하고, 부산상고 축구팀을 지도하였다. 1950년 1월 대한축구협회 경남지부 이사로 재직하다 전쟁 중인 1951년 12월 31일 고향집에 들렀다가 전답을 판 돈을 가지고 방어진에서 배에 올라 부산으로 가던 중 사망하였다. 29살에 죽은 그의 죽음에 대해 강도를 만났다는 설과 공비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설이 있다.

런던올림픽이 끝난 뒤 천석꾼이었던 그의 아버지 최신출은 문전옥답 몇 마지기과 개인 소유의 저수지를 공설운동장 부지로 기부하였다. 울산의 축구영웅을 기리는 추모대회가 3~4년 동안 그 운동장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중구 복산동 손골 청룡암 입구에 영모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2009년 봄 타지역으로 이전되었다.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을 맞아 7월 26일~8월 26일 한 달간 울산박물관에서 그와 관련된 전시전을 가졌다.

【참고자료】

『경상일보』 (2011.7.20), 『울산매일』 (2012.7.29)

『2012 울산박물관 작은 전시 ‘축구선수 최성곤 - 1948년 런던올림픽’』 전시자료

『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김태근, 2009

최언복(崔彦福, 1533~?)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출생. 자는 사진(四振). 호는 청표당(靑表堂).

참봉 유정(有井)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경주지역의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사복시내승(司僕寺內乘)으로 제수되었다. 인조 때 병조 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최영근(崔泳謹, 1922~2004)

정치인. 본관은 경주.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출생. 호는 우송.

두동초등학교, 보성전문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다. 약관 27세에 정계에 입문하였다. 1956년 민주당 울산군당 부위원장을 거쳐 1958년 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초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역임하였다. 1960년 제5대 민의원, 제6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후

보건사회부 정무차관, 제일생명보험회사 사장, 프로복싱연맹회장, 한국기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정쟁법 등에 묶여 연금생활을 하다가 해금이 되자 평민당부총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13대 국회에 등원하였다. 이외에 신민당 최고위원, 민주화추진협의회 부의장, 평민당 수석부총재, 평민당 당무지도위원회 의장, 평민당 총선선거대책본부장, 국민회의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두동면지』,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온양읍지』,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현, 2013

대한민국헌정회(<http://www.rokps.or.kr>)

최원득(崔元得, 1900~1930)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서동) 출생. 호는 송재(松齋).

외술 최현배의 육촌 동생이다. 1919년 4월 4~5일 경남 울산군 하상면 병영리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최윤봉(崔允奉, 1898~1934)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출생.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일본군 수비대의 총격에 의해 시위군중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였다.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최을택(崔乙澤, 1925~1976)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학성동 출생.

1942년 7월경 창원군 동정리(현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창원신사(昌原神社) 뒤에서 창원보통학교 출신의 급우 박상규·박대근 등 10여 명과 조국 독립을 목적으로 청년독립회를 조직하여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강화되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폭압적으로 자행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전세가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일제가 국민총동원체제 아래 민족말살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더욱 강요하자 그와 동료들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였다. 1943년 4월 '조선독립 만세'라고 쓴 벽보를 창원역과 주요 관문에 붙이다 1944년 12월 진해헌병대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첩 계류되어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8·15 광복을 맞이하여 부산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이후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최익성(崔翼成, 1914~?)

기업인. 본관은 경주.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출생.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대원직물공업사 대표이사, 경북직물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정책 심의위원,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직물산업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1983년 한국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삼남면지』,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최준립(崔峻立,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영양(영천).

임란 때 언양현의 의사 윤대봉과 함께 마을의 장정을 모아 창의하여 가슬현(운문령)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1594년(선조 27) 무과에 올랐다. 부장(部將)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 봉사(奉事)를 지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최한홍(崔翰鴻, 1898~1949)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출생.

선무원종1등공신 최환의 후손이다.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를 졸업하고 언양청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4월 울산군 언양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참고자료】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김승, 2003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최현구(崔鉉玖, 1898~1941)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동동) 출생. 호는 미곡(媚谷).

의술 최현배의 동생이다. 1919년 4월 4~5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시위 후 체포되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최현배(崔鉉培, 1894~1970)

한글학자.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동동) 출생. 호는 의술.

사립 일신학교(1910), 경성고등보통학교(1915), 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문과(1919), 일본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1925)와 동 대학원(1926)을 졸업하였다. 1926년 4월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 교수로 취임하여 1938년 9월 흥업구락부사건으로 파면 당하였다. 1941년 복직하여 도서관 일을 보았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어 1945년 광복까지 4년간 옥고를 치렀다.

1945년 9월부터 1948년 9월까지, 1951년 1월부터 1954년 1월까지 문교부(지금의 교육부) 편수국장으로 재직하였다. 1954년 연희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문과대학 학장과 부총장을 역임하고, 1961년 정년퇴임하였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1955년 연희대학교에서 국어학 연구와 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49년 한글학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20년간 계속하여 한글학회를 이끌었다. 1949년 한글전용촉진회 위원장, 1957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사·부회장·대표이사 등을 맡

아 국어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국어학의 연구, 국어정책의 수립, 그리고 교육학의 연구와 국어운동의 추진에 전념하여 20책에 이르는 관련 저서와 100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어학의 연구는 1910년 봄, 일요일마다 보성중학교에서 열리는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周時經)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싹튼 것이라 한다. 이 분야의 업적은 『우리말본』과 『한글갈』로 집약된다. 『우리말본』은 1929년 『우리말본 첫째매 소리갈』, 이어 1937년 온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주시경 이래의 문법연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20세기 전반기의 문법연구를 집대성한 저술이다. 전반적인 체계는 중학교 교재로 편찬된 『중등 조선말본』(1934)에 이미 나타나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였는데 인용된 자료의 해박함, 설명의 논리정연함, 체계의 정연함에 있어서 당시로는 이것을 능가할 문법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글갈』(1941)은 한글연구의 체계화를 추구한 업적인데, 역사편과 이론편으로 되어 있다. 역사편은 한글제정의 동기와 경위, 한글문헌에 대한 해설, 한글연구의 역사를 다루고, 이론편은 한글창제 이후 없어진 글자를 주로 다루어서 그 음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국어정책의 수립과 국어운동에 대한 집념과 활동도 대단하여 항상 최선봉에서 그 운동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이론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글자의 혁명』(1947)·『한글의 투쟁』(1958)·『한글 가로글씨 독본』(1968)·『고회 기념 논문집』(1968)·『한글만 쓰기의 주장』(1970) 등 단행본으로 한글전용과 풀어쓰기의 이론을 발표하여, 그 운동의 이론적인 지침서가 되었다. 이 밖에 국어정화를 주장하면서 일본어의 찌꺼기를 몰아내는 등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의 이론적인 근거는 『우리말 존중의 근본뜻』(1953)에 나타나 있다. 국어 정책에 대한 그의 주장은 전후 6년에 걸친 문교부 편수국장 재직중에 교과서에서 실행되었다. 이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각종 교과서에서 한글만으로 가로쓰는 체제를 확립한 일은 그의 업적이다.

교육학적인 연구는 대학의 졸업논문으로 비롯되는데, 민족주의적인 국민 계몽사상을 고취한 『조선민족 갱생(更生)의 도(道)』(1930)가 공개된 최초의 업적이다. 이 책에는 일생을 일관한 애국·애족의 사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먼저 우리 민족의 성격상의 결함과 질병을 진단하여 그 역사적인 원인을 구명하고서, 민족이 되살아날 원리를 말하고 이어 그 원리를 실천하고 노력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그의 정신은 광복 이후에 확대, 발전되어 『나라 사랑의 길』(1958)과 『나라 건지는 교육』(1963)으로 간행되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부강한 자유국가와 훌륭한 자주민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국어운동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점도 없지 않으나, 국어문법 체계를 확립한 국어학자로서, 국어와 한글운동의 이론가이며 실천가로서, 민족의 중흥과 민주국가 건설을 외친 교육자로서 남긴 업적과 공로는 크다. 민족의 수난기에 살면서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간 그의 의지는 민족사의 한 귀감이 되었으며, 그 공로로 여러 번의 수상이 있었는데, 1930년 4월 1일 동아일보사 치사상, 1948년 3월 15일 남조선 과도정부 문교부장의 감사장, 1955년 7월 17일 제1회 학술원 공로상, 1957년 10월 9일 문교부장관의 표창,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중, 1967년 5월 16일 제2회 5·16 민족상(학예 부문 본상) 수상, 1970년 3월 27일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의 학문과 유지는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을 기리는 모임인 외솔회가 1970년에 창립되어 기관지 『나라사랑』을 발간하며, 해마다 국학연구와 국어운동에 뛰어난 사람에게 외솔상을 시상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2008년 최현배 선생이 태어난 터에 생가를 복원하였고, 2010년 그 옆에 외솔기념관을 조성하여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참고자료】

- 『외솔 최현배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외솔최현배박사고회기념논문집간행회, 1968
『한글』 146, 「외솔 최현배 박사 해적이」, 1970
『동방학지』 12, 「주시경 선생의 학문」, 허웅, 1971
『나라사랑』 1, 「외솔의 3대 저작 고찰」, 홍이섭·허웅·김석득, 1971
『나라사랑』 14, 「외솔 선생의 학문」, 유창균, 1974
『나라사랑』 14, 「외솔 선생의 국어정책」, 유창균, 1974
『나라사랑』 14, 「외솔 선생과 한글학회」, 1974
『울산문학』 21,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화 생애」, 울산문인협회, 1994

최현표(崔鉉杓, 1902~1941)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중구 병영2동(동동) 출생. 호는 청파(靑坡).

외솔 최현배의 사촌동생이다. 1919년 4월 4~5일 양일간 울산군 하상면 병영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3권, 국가보훈처, 1996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해담당 치익(海曇堂 致益, 1862~1942)

근·현대 승려.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출생. 호는 해담(海曇).

19세이던 1880년 양산 통도사의 춘담스님에게 출가하였다. 소백산 용호 해주스님에게서 경전을 배운 이후 1894년 경북 의성군에 있는 등운산 고운사에서 수월스님으로부터 선을 전수받았다. 수월스님은 근세의 선(禪)지식으로 충남 서산의 천장사에서 태허스님에게 득도하고 경허 선사의 법을 이었다. 1895년 출가 본사인 통도사로 돌아와 강주(講主)가 되어 후학을 지도하였다. 1929년 선교(禪敎) 양종 7교정의 한 사람으로 추대됐다. 통도사 안양암에서 주석(住錫)하다 세수 81세, 법랍 62세로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증곡

집』 1권이 있다. 활자판으로 부산의 대원사에서 1934년에 간행된 것으로 현존한다.

【참고자료】

『울산제일일보』 (2013.5.15)

허용만(許龍萬, 1927~1994)

군인. 본관은 김해. 남구 용잠동 출생.

육군사관학교(8기)를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하였다.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고, 1950년 6·25전쟁에도 참전하였다. 육군대령으로 부산에 있는 인쇄공작창장(1966년)을 지냈으며, 육군 제1군사령부 부관참모도 역임하였다. 그 후 장성(將星)으로 승진하여 육군본부 부관감(副官監)을 지냈다.

현역 시절 중앙정보부 서울 남산분실장을 역임하였다. 육군 준장으로 예편 후에는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서울시지부장, 부산·경남지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다가 퇴임하였다. 국립현충원(서울)의 제1장군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금성총무무공훈장, 무성화랑무공훈장, 금성화랑무공훈장, 4등보국훈장, 3등보국훈장 등을 받았다.

【참고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박채은) 조사 자료

활산당 성수(活山堂 性壽, 1923~2012)

근·현대 승려.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출생.

19세 때 천성산 내원사에서 성암스님을 만나 출가하였다. 구족계를 받은 뒤 전국의 선원을 찾아다니다 성철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에 동참하였다. 30대에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과 만나 입적에 들 때까지 선지식 배출선원을 건립하는 데 전력하여 서울 법수선원, 함양 황대선원, 산청 해동선원을 개원하였다. 법수선원 외 나머지 선원은 모두 일흔을 넘긴 세수에 지어져 스님의 불심과 원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

사(事)와 리(理)에 밝았으며,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등 지역 대찰의 주지 소임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조계사 주지 당시 초파일·석탄절 등 여러 말로 사용되던 부처님 탄신일을 순 우리말인 ‘부처님 오신날’로 통일하는 데 앞장섰다.

전두환 정권 때 발생한 1980년 10·27법난(法難) 때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총무원장으로서 시련을 극복해 갔다. 수행에 철저하고 행정에 통달하였으며, 인재 양성에 매진하면서 스님으로서 70년을 살았다. 2004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수지하고, 2005년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尚)을 역임하였다. 종단 전계대화상으로 지낸 3년동안 일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평소 눈 푸른 선지식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여 ‘사자새끼’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 고찰(古刹)들은 죽은 땅이라 새 땅에서 사자새끼를 키우겠다. 난 아직도 살아있는 사자새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염원을 품었던 그

는 2012년 4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관음암에서 입적하였다. 2013년 그의 제자들이 생전 법어와 자필 원고, 사진첩 등을 모아 『대나무 그늘』 을 간행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제일일보』 (2013.5.15)

황병곤(黃秉坤, ?~?)

정구선수.

전 일본 연식정구대회에서 우승을 한 국가대표선수이다. 심상소학교의 좋은 정구코트는 일본인이 사용하여 연습이 어렵자 매축지 코트에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하였다. 1944년 10월 일본의 패전과 조선독립 희망 등을 이야기하며 화장실에서 천황사진이 실린 신문지로 뒤를 닦아 방어진 경찰주재소로 연행되어 옥살이를 하였다. 1915년생 ‘연령징용’이 시행되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천황을 모독한 그는 감옥살이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참고자료】

『조선중앙일보』 (1936.6.23)

『증곡 천재동 회고록 -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 2007

황정달(黃丁達, 1897~1971)

독립운동가. 본관은 평해. 중구 반구동 출생. 호는 보은(寶隱).

1919년 4월 4~5일 양일간 울산군 하상면 병영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일제의 검속으로 체포되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살인 등의 혐의로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82년에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3권, 국가보훈처, 1987

『울산 병영 3·1독립운동사』 , 울산병영3·1사봉제회, 2007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울산의 인물』 2편 - 타지 출생 인물

견천지(堅川至, 1546~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해주. 경북 경주 외동읍 개곡리 출생. 자는 유원(流遠). 호는 송고(松阜).

훈도 응기(應箕)의 아들이다. 임란 때 종숙 림과 함께 창의하여 4월 23일 울산 의사들이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창의 거병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5월 5일 류백춘과 함께 경주 의병 500여 명을 이끌고 함월산성으로 달려가 울산 의병장 박봉수에게 격문을 전달하고 좌병영 탈환계획에 동참하여 왜병을 몰아내고 병영을 회복하는 데 공을 세웠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다. 다음해(1593) 2월 태화강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격퇴하고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그해 9월 팔공산회맹에 참여하고, 12월 울산 도산에 적이 대거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용맹하게 싸웠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일시 관문성에서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명나라 장수가 그를 일컬어 ‘동해명장’이라 칭송하였으며, 진중의 모두가 훌륭한 간성을 잃었다고 탄식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장(部將)으로 제수되었다. 후손들에 의해 『송고실기』(1921)가 간행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고덕곤(高德崑,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제주. 경북 경주 내남면 비지리 출생.

선무원종공신 석남(碩南)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덕신, 덕령, 언장 형제들과 함께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다음해 족종(族從)인 고언백이 경상좌병사로 부임하자 그의 진영에 집안 5의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형산강, 안강, 영천, 울산 등지의 여러 전역에서 적을 물리쳐 많은 전공을 올렸다. 1594년 9월 좌병사 고언백이 지휘하는 대구 팔공산전투에 아버지와 함께 나가 싸우다가 아버지가 순절하였다. 그는 난중에도 덕신·덕령 형들과 함께 염습반구하여 장례를 치러 충과 효를 다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출신(出身)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 28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곽재우(郭再祐, 1552~1617)

조선 중기 의병장. 본관은 현풍. 경남 의령 출생.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 월(越)이고 어머니는 진주강씨이다. 1585년(선조 18) 별시(別試)의 정시(庭試)에 2등으로 뽑혔으나, 지은 글이 왕의 뜻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발표한 지 수일만에 전방(全榜)을 파해 무효가 되었다. 그 뒤, 과거에 나갈 뜻을 포기하고 강가에 집을 지어 평생 은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3년 만인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관군이 대패하자, 22일에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대신해 싸웠다. 그 공으로 7월에 유곡찰방(幽谷察訪)에 이어 형조정랑에 제수되었다. 10월에는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하고, 조방장(助防將)을 겸하였다. 1593년 12월 성주목사에 임명되어 삼가(三嘉)의 악견산성(岳堅山城)을 쌓았다. 1595년 진주목사로 전근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현풍으로 돌아왔다.

1597년 경상좌도방어사로 나가 현풍에 석문산성(石門山城)을 쌓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 8월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옮겨 성을 수비하였다. 9월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으나 10월에 이르러서야 부임하였고, 1598년 2월에 병을 이유로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이 문제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영암(靈巖)으로 귀양갔다가 1년 만에 풀려났다. 이 일에 대하여 『울산부선생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599년 10월 19일 울산에 부임하여 1600년 2월 초에 전리(田里)로 돌아갔다. 기리기를 정치는 봄 별 같고 맑기는 가을 물 같았다. 향리와 백성이 모두 평안하고 사졸(士卒)이 모두 춤을 추었다.’

그 뒤 현풍 비슬산에 들어가 곡식을 금하고 술빚으로 끼니를 이어가다가, 영산현 남쪽 창암진에 정자를 짓고 망우정(忘憂亭)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두루 관직에 나아갔다가 사임하였다. 1616년 창암강사에서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제수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다음해 세상을 떠났다.

필체가 웅건하고 활달하였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 묘소는 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신당리에 있다. 죽은 뒤에 그의 사우(祠宇)에 ‘예연서원(禮淵書院)’이라는 사액이 내려졌고, 1709년(숙종 35)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가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망우당집』이 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문화체육부가 1995년 12월의 ‘문화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참고자료】

『광해군일기』 『기언(記言)』 『난중잡록(亂中雜錄)』 『남명집(南冥集)』 『선조실록』

『징비록(懲毖錄)』

『곽재우연구』, 이장희, 1983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권상일(權相一, 1679~1759)

조선 후기 문신, 유학자. 본관은 안동. 경북 문경 산북면 근암리 출생. 자는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

아버지는 증이조판서 심(深)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이다. 학문을 일찍 깨우쳐 20세에 옛사람들의 독서하는 법과 수신하는 방법을 모아 『학지록(學知錄)』을 저술하였다. 1710년(숙종 36) 증광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다. 1715년 저작, 전적, 직강 등을 역임하고, 1720년 예조좌랑을 지냈다. 1722년 병조좌랑, 1727년 만경현령이 되었다. 다음해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사전에 탐지해 영문에 보고하고, 난을 토벌해 공을 세웠다. 1733년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을 교열해 간행하였다.

1735년(영조 11) 여름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여 1738년 겨울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상주(현 문경)로 돌아갔다. 부사로 재직할 당시 사재를 털어 구강서원의 동·서재를 지어 서원의 규모를 갖추었다. 울산지역의 유생들과 자주 어울려 강론함으로써 유풍(儒風)을 진작시켰다. 그가 울산에서 남긴 글 중에는 1736년 5월 임인의 「구강서원 동·서재기」를 비롯하여 「치술령」 「반구대에서」 「입암」 「태화강에 배 띄우고」 「태화루」 「은월봉」 「망해대」 「개운포」 등이 있다.

지역 사람인 상사(上舍) 박망구와 사인(士人) 이현담·원담 형제에게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한 고기록들을 수집 채록하여 정리하게 한 뒤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소략한 부분은 보충하게 해서 울산 최초의 읍지 『학성지』 초고본을 만들게 하였다.

1745년 봉상시정, 다음해 사헌부헌납, 사간원 사성, 사헌부 집의,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을 역임하고, 1748년 우부승지로 물러났다. 뒤에 대사간, 판결사(判決事), 홍문관 부제학, 한성좌윤, 지중추부사, 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저서로는 『청대집』 18권, 『초학지남(初學指南)』 『관서근사록집해(觀書近思錄集解)』 『소대비고(昭代備考)』 『가범(家範)』 『역대사초상목(歷代史抄常目)』 과 『일기(日記)』 30여 권이 있다. 시호는 희정(僖靖)이고, 죽림정사와 근암서원에 향사되었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영조실록』 『청대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울산남구문화』 2집, 「울산최초의 읍지 『학성지』 초고본의 주역들」, 박채은, 2004

권순(權恂, 1536~160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안동. 서울 출생. 자는 언침(彦忱). 호는 쌍천당(雙泉堂).

영의정 강정공 철(轍)의 아들이다. 1577년(선조 10) 의금부도사를 거쳐 군자감주부에 올랐다. 임란 때 국왕이 몽진하자 도보로 의주까지 호종하고, 동생인 도원수 권율의 막하에서 행주산성대첩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이때의 전공으로 양주목사에 제수되었고, 이어 평산부사, 봉산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못하였다. 정유재란 때 명나라 심유경의 접반사로 해서(海西)를 세 차례 왕래하였다. 또 명장 이충병, 이영을 따라 두 차례 영남에 갔었다. 울산의 도산성전투에도 참전하였다. 이충병이 순절하여 상여를 의주까

지 호송하고 돌아오자 첨지중추부사, 1600년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승진되었다. 선무원종2등공신에 녹훈되고, 사후에 조정에서 의정부좌찬성 겸 지의금부사, 동지성균관사를 추증하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행장』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광복(金光福, 1565~?)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경주. 자는 경원(慶源). 호는 죽포(竹圃).

경상우병사를 지낸 관중추부사 우계당 순(洵)의 아들이다. 경전과 역사책을 많이 읽었으며 병학에 정통하였다. 선조 때 무과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훈련원판관에 이르렀다. 임란 때 아버지의 명으로 창의하여 아우 광록과 조카 몽화와 함께 군무를 감독하였다. 1592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1593년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경주부윤 윤인함이 정병을 내주어 서생포와 태화강 전투에서 여러 번 싸워 크게 이겼다. 이러한 공으로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숙종 때 병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고종 때 자헌대부로 추증되었다. 고향인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리 학남사에 제향되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후손들은 포항 기계와 울산, 양산 등지에 대대로 살고 있다. 묘소는 기계에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그의 진에서 활동한 희선(希先) · 남이(南伊) · 천억(千億) · 막동(莫同)은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면천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동경통지』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극기(金克己, ?~1209)

고려 중기 문신. 본관은 광주. 호는 노봉(老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한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40대에 이르러 명종의 부름을 받고 평안북도 의주방어판관이 되었다. 직한림원을 거쳐 예부 원외랑일 때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진정국사호산록(眞淨國師湖山錄)』에는 1209년으로 추정되는 기사년에 사망하였다고 하였으며, 문집 서문에 '6품 당하관으로 죽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귀국한 뒤에 다시 전원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짐작된다.

뛰어난 문장가로서 특히 농민반란이 계속 일어나던 시대에 핍박받는 농민들의 모습을 친근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농촌문제를 자신의 일로 고민했던 양심적

인 지식인이었다. 당시 문인들이 그의 시를 평하여 “문장의 표현이 맑고 활달하며 말이 많을수록 내용이 풍부하다.”고 하였다. 이인로(李仁老)는 그의 문집 『김거사집(金居士集)』의 서문에서 “참으로 난새나 봉황 같은 인물이었다.”고 하여 벼슬에 연연하지 않는 고고한 행적을 찬양하였다.

고려 말엽에 간행된 『삼한귀구감』에 의하면 그의 문집은 135권 또는 150권이나 되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동문선』·『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시가 남아 있다. 울산 태화루에 올라 시를 지었는데, ‘태화강’이란 이름을 최초로 기록하였다. ‘전화앵’ 등 울산 관련 시도 남겼다.

【참고자료】

- 『동문선』 『보한집』
-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누정」
- 『한국문학통사2』, 조동일, 1983
- 『차생활문화대전』, 정동효 외 편저, 2012

김난서(金鸞瑞, 1536~1611)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수안. 경북 영덕 출생. 자는 계인(季仁). 호는 경모재(敬慕齋). 봉열대부 호(浩)의 셋째 아들이다. 임란 때 아들 건, 동생 봉서와 함께 창의하였다. 1592년 4월 25일 새벽 의병을 이끌고 경주 성문 밖 알천에 도착하여 이여량·류정·윤희명·김응하·이태립·남의록·최봉천·김광복 등과 적을 무찌르는 등 초기 여러 방어전에서 역전·분투하였다. 1596년 3월과 9월 두 차례의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 9월 다시 팔공산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무찌르고, 12월에는 울산의 도산성전투에도 참전하였다. 이와 같은 전공으로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고 절충장군에 올랐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 『동경지』
-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김득복(金得福, 1567~1633)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경북 경주 양북면 출생. 자는 진옥(振玉). 호는 동호(東虎).

선무원종공신 3등 산수(山壽)의 장남이다. 구강회맹과 팔공산회맹 및 문천회맹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는 부자가 같이 참여하여 공을 세웠는데 아버지가 순절하였다. 서생성전투에 승리한 뒤 명장(明將) 마귀(麻貴)제독으로부터 동호장군(東虎將軍)이란 칭호를 받았다. 절충장군으로 선무원종공신 1등으로 녹훈되고 가의대부 삼남영장

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범(金範, ?~159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녕. 경북 상주 출생. 자는 홍보(洪甫). 호는 석계(石溪).

이조판서 충의공(忠毅公) 백촌(白村) 문기(文起)의 후손이다. 아우 연학(淵鶴)과 같이 울산으로 왔다. 1590년(선조 23) 23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고, 임란 때 연학과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윤흥명의 『화암실기』 1593년(선조 26) 2월 17일조에 그의 전공이 기록되어 있다. 1596년(선조 29) 정월 서생포 공략 때 선봉에서 지휘하다 낙마로 적탄에 맞아 순절하였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다. 묘소는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복수(金福守, 1549~?)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임란 때 창의하여 남면 의병군과 함께 소등과 대천제(현 울주군 청량면) 아래에서 적을 무찔렀다. 영천성과 경주성 복성전(復城戰) 등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웠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部將)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복일(金復一, 1541~1591)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의성. 자는 계순. 호는 남악(南嶽).

아버지는 생원 진(璉)이며, 어머니는 여흥민씨이다. 병마절도사 성일(誠一)의 아우이다.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64년(명종 19) 사마시를 거쳐, 1570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학유(學諭)·전적(典籍)을 역임하였다. 형조·호조·공조의 낭관(郎官)을 지낸 뒤, 전라도어사로 나가 탐관오리들을 숙청하였다. 1587년(선조 20) 울산군수와 창원부사가 되어 폐단이 심한 곳을 엄히 다스렸다. 경주교수가 되어 도의를 크게 일으켰으며, 성균관의 사예(司藝)·사성(司成) 및 풍기군수 등을 지냈다. 1681년 형님인 김

극일 · 김수일 · 김명일 · 김성일과 함께 안동의 사빈서원(泗濱書院)에 제향되었다.

【참고자료】

『학성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봉수(金鳳壽,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

1597년(선조 30) 11월 28일조의 『선조실록』 기록(태화강전투, 성황당, 마등오전투 등)이 있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김분소(金粉素, ?~1615)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녕.

첨사 계룡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4월 23일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결진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도산성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산수(金山壽, 1541~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자는 군경(君卿). 호는 덕계(德溪).

증병조참판 직성(稷成)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아들 득복(得福)을 선봉으로 삼고 문천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인 1597년 12월 하산도산성전투에서 분전하다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수령(金守齡, 156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

임란 때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주부(主簿)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원이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수오(金粹五, 1619~?)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연안. 창평 거주. 자는 자순(子純).

할아버지는 인개(仁漑)이며 아버지는 후(瑠)이다. 1663년(현종 4)에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에 합격하였다. 1680년 6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울산도호부사를 역임하면서 동헌(東軒)을 창건하였다. 1695년 2월 아들 호(灝, 1651~1695)가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여 부친이 지은 동헌을 일학헌(一鶴軒)이라 편액하고, 기문을 지어 현판에 새겼다.

【참고자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경상일보』 (2014.2.6)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수용(金水龍, 1952~2012)

소설가. 경북 의성 출생.

안동농림고를 졸업하고 행상, 잡부, 출판사 사장 등의 직업을 두루 거쳐 소설가가 되었다. 1985년 제5회 소설문학상 모집에 장편 『청맹과니들의 노래』가, 1986년 한국방송 60주년 기념 TV드라마 모집에 3부작 『그 일몰』, 1987년 제20회 문학사상 신인상에 중편 『목신의 땅』이 각각 당선되었다. 이 무렵(1981~1986) 울산문인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88년에는 일간스포츠에 인간의 운명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한 「명(命)」과 「기(氣)」를 연재하여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타고난 입담의 이야기꾼으로서 어려운 주제라도 독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구어체의 필력을 장기로 한 작가였다. 우리 시대의 선량하고 무력한 소시민들을 익살과 비애와 풍자의 어우러짐 속에서 포착해 내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장편 『불매』는 철광산과 풀무업에 종사하는 천민들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일제의 수탈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 소설은 1986년 K B S 방송 60주년 기념 T V 드라마 공모 입선작 『그 일몰』의 원작이다. 『불매』는 지역 연극인들에 의해 악극 『불매-달천

연가』로 각색 제작돼 2014년 제10회 울산쇠부리 축제에서 공연되었다. 배우 최주봉과 지역의 연극인들이 참여하였다.

중편 『목신(木神)의 땅』은 샤머니즘적 운명론을 펼쳐 소설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공단동 주변의 이야기들을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공해 문제’와 풍자적으로 연결시킨 단편 『우봉리 사람들(일명 공단동 128번지)』과 『권리금 없음』 『오 부장의 송곳니』 『풍경』 『장마』 등의 작품이 있다. 장편소설 『졸병전선』으로 수많은 독자를 울리고 웃겼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울산문학사』, 울산문인협회, 2004

김시경(金始慶, 1659~1735)

조선 후기 문신. 충주 거주.

1701년부터 1702년까지 2년간 울산도호부사로 재임하였다. 백성의 고충을 염려하여 군기(軍器)에 사용되는 힘줄과 뿔, 진상하는 생청태(生淸胎), 토룡(土龍) 및 관에 납부하는 청대종, 마종(麻種) 등을 영구히 면제하였다. 또 대제(大祭)에 바치는 진자(榛子)의 수취를 완전히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진군(榛軍) 3명의 신역을 특별히 면제하고 수납하였다. 진상용 절선(節扇)의 청화지(靑花紙)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 하자 이를 관둔(官屯)의 소출로 충당하게 하였다. 별도로 염모(染母)를 정하고 문서를 작성하여 규약을 세웠다. 이후 순흥 동당시(東堂試)의 시관(試官)으로 임명되었다.

【참고자료】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김시빈(金始鎭, 1684~1729)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함창. 경북 영천 출생. 자는 휴백(休伯). 호는 백남(白南).

아버지는 통덕랑 정휘(鼎輝)이며, 어머니는 ○○이씨이다. 1702년(숙종 28)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필선(弼善)을 거쳐 1724년 장령(掌令)이 되었다. 영조의 탕평책을 두둔하다 명천군수로 좌천되었다. 1728년 이인좌의 반란이 영남지방으로 확대되자 채성윤이 영남의 요충을 방비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그를 추천해 울산도호부사가 되었다. 울산에 부임하여 폐습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선정을 베풀다가 재임 중 세상을 떠났다.

【참고자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김씨부인(金氏婦人, ?~?)

신라의 충신 박제상의 부인이다. 그녀는 박제상이 왜국에 잡혀 있는 미사흔(未斯欣)을 구하러 가자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에서 매일 치술령에 올라가 네 자녀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그러나 훗날 박제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내인 아들과 아들을 돌볼 둘째 딸 아영(阿榮)을 제외하고, 첫째 딸 아기(阿奇)와 셋째 딸 아경(阿慶)과 자진(自盡)하였다. 몸은 굳어서 망부석(望夫石)이 되고 혼은 새가 되어 바위구멍으로 숨어들었다. 뒤에 사람들이 새가 숨은 바위를 은을암(隱乙岩)이라 부르고, 부인을 치술신모(鷄述神母)라 불렀다.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치산서원 신모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영해박씨세보』

『경주문화』 제2호, 「박제상의 도왜시 발선처에 관한 연구」, 이상도, 1996

김안국(金安國, 1478~1543)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의성.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
참봉 연(璉)의 아들이며, 조광조, 기준 등과 함께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01년(연산 7) 생진과에 합격하였고 1503년 별시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이어 박사·부수찬·부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507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지평·장령·예조참의·대사간·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517년 3월 21일 우부승지에서 가선대부로 승진하여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경상도에 파견되어 각 고을의 향교에 소학(小學)을 강독하도록 권장하였고, 『농서언해(農書諺解)』 『잠서언해(蠶書諺解)』 『이륜행실도언해(二倫行實圖諺解)』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 『정속언해(正俗諺解)』 등의 언해서와 『벽은방(辟瘟方)』 『창진방(瘡疹方)』 등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향약의 시행에도 힘을 썼다.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1532년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좌참찬, 대제학 찬성 등을 지냈다.

문집으로는 『모재집(慕齋集)』이 있다. 관찰사로 울산에 방문했을 때 「개운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開雲浦望海有感)」 「어풍대(御風臺)」 「좌병영마루에서(醉題左兵營軒壁)」 「태화루유람선(書泰和樓船)」 「울산학도에게 권함(勸示蔚山學徒)」 「언양학도에게 권함(勸示彦陽學者)」 등 울산 관련 시를 여러 편 남겼다. 그 중 지금의 동구 일산동에 소재한 어풍대의 지명을 명명한 「어풍대」라는 시가 이채롭다. 죽은 뒤 인종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으며,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 이천의 설봉서원(雪峰書院),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자료】

『모재집』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경상도선생안(上)』, 한국국학진흥원, 2005

『울산지방의 문학전통과 작품세계』, 성범중, 2009

김어수(金魚水, 1907~1985)

시조시인. 부산 금정구 청룡동 출생. 본명은 소식(素石). 호는 소엽(素葉).

1939년 중앙불교전문대를 졸업하였다. 1941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울산제일중학교 교감, 부산금정중학교장, 울산대현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일중학교 재임시 김태근, 조홍제, 이상숙, 김인섭, 김종한, 최종두, 김현경, 홍석재 등 12명의 동지·후배들과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를 창립(1966)하고 초대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종교잡지 『불교』 (90호)에 시조 「황혼」 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이후 「임기다리는 밤」 「무제」 , 시조 「조사(弔詞)」 「이향(異鄉)의 봄」 등을 계속 발표하였다. 이후 시조 「인생송」 등을 발표하였고, 광복 후 「곡영숙아(哭英叔兒)」 「불국사의 밤」 「옛 고향」 「춘정소묘(春情素描)」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민족문학으로서의 시조가 지니는 한국적 리듬에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자연이나 현실의 실상을 추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불경번역도 하여 1937년 『안락국태자경(安樂國太子經)』 을 번역 간행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김언복(金彦福, 1569~?)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호는 월호(月湖).

임란 때 창의하여 5월 14일 박인국 · 황희안 · 심희대 · 이대립 · 류백춘 등과 합세하여 영천 창암에서 적과 싸워 이겼다. 1594년 왜국과의 강화회담 때 사명대사 유정을 보좌하면서 적정 탐지를 하는 등의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 사절(死節) 10원(員) 중의 일원이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김연(金演, 1547~1640)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고령. 경북 고령 개진면 출생. 자는 형원(洞源). 호는 송호(松湖).

용양위 부장 두문(斗文)의 둘째 아들이다. 임란 때 육촌형인 경상우도 의병대장 송암(松菴) 김면의 휘하에 들어가 곽준 · 문위 · 윤경남 · 박정번 등과 적을 무찔렀다. 7월 지례, 금산, 개령 등지의 적이 전라도로 진입하려고 오척현을 넘을 때 매복, 기습하여 큰 공을 세우고, 정암진과 무계에서도 공을 세워 군사감정에 제수되었다. 임란 후 장인 박원우(朴元佑)의 고향인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로 옮겨 입향조가 되었다.

정유재란 때는 창녕의 화왕산성 방어전과 울산의 도산성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감동부장(監董部將)으로 만도 15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증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증의정신』, 울산의증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연수(金季洙, 1896~1979)

기업인. 본관은 울산. 전북 고창 출생. 어릴적 이름은 관흥(判興). 호는 수당(秀堂).

아버지는 경중(暎中)이며 어머니는 장흥고씨이다. 15세에 혼인한 박하진(朴夏珍)과의 사이에 상준(相駿)·상협(相浹:전 국무총리) 등 6남 7녀를 두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다. 고향의 영신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의 아사부중학교[麻布中學校]와 경도제삼고등학교(京都第三高等學校), 경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1924년 삼수사(三水社)를 설립하여 장성에서 농장경영에 착수한 뒤, 줄포(茁浦)·고창·법성·영광·함평 등지에서 농장을 경영하였다. 1931년 삼수사를 삼양사(三養社)로 개칭하였다. 1935년에는 김성수가 중심이 되어 세운 경성방직의 제2대 사장에 취임하였다. 광복 이후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전농장을 해체한 후 1953년 삼양통상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56년 울산 해안을 매립하여 제당공장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삼양통상주식회사를 다시 주식회사 삼양사로 바꾸었다. 1957년 공장을 확장하여 자연한천가공 및 제빙공장을 준공하였고, 1961년에는 정제염 공장까지 준공하여 울산의 공업단지 조성 전에 울산 산업을 선도하였다.

기업인이지만 김성수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육영사업에도 참여하였다. 1929년 중앙학교(中央學校) 설립자의 한 사람으로 추가되었으며,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의 재건에도 참여하여 지금의 고려대학교와 중앙고등학교로 발전시켰다. 1939년 장학재단 양영회(養英會), 1968년 수당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71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최근에 와서 학병 권유활동 등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친일행적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참고자료】

『삼양오십년』, 주식회사삼양사, 1974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세계회고』 1, 한국일보사, 1981

『친일파 99인』, 반민족문제연구소, 1993

김연학(金淵鶴, ?~1596)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김녕. 경북 상주 출생. 자는 사원(士元).

선무원종공신1등 훈련원첨정 범(範)의 아우로 형제가 같이 울산으로 입향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형 범과 같이 창의하였다. 1596년(선조 29) 1월 서생성 공략전에서 형 범이 순절하자 분노하여 적진으로 돌격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순절하였다. 둘째 아들 영호가 시신을 수습하였다. 관직은 훈련원정이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울주지』, 울산울주지간행소, 1971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우(金愚, 1730~?)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광산. 충청도 연산 거주. 자는 명지(明之).

학생(學生) 상갑(相甲)의 아들이다. 1776년에서 1780년까지 울산도호부사로 재직하였다. 1776년 12월 3일의 정사에서 장원서(掌苑署) 별제(別提)에서 옮겨 같은 달 30일에 부임하였다. 1777년 백성이 낼 한 분기의 역가(役價)인 조(租)와 태(太) 400여 포(包)를 감해 주었다. 1778년 큰 흉년이 들어 수천 명이 굶주리자 봉급을 덜어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매년 하납(下納)하는 세미(稅米)가 4천 석 내외였고 배와 사공의 값을 해호(海戶)가 냈었는데 1775년부터 이를 없앴다. 이자를 농기에 적당한 곳을 정하여 온양과 웅상 두 면에 나누어 주고 절목(節目)을 작성해 두었다. 원금을 놔두고 이자를 취하여 해마다 내려서 해호의 역을 대신하게 하여 백성들의 폐해를 줄였다.

군대 처소가 협소하자 재물을 모아 양무당(養武堂)을 옛 터에 고쳐 세웠다. 속오(束伍), 천총(千摠 : 고급 지휘관)과 과총(把摠 : 사(司)의 지휘관)의 초관기(哨官旗)와 대장(隊長) 등의 각색 기치를 새롭게 갖추어 군용(軍容)을 정비하였다. 재물과 힘을 모아 우주고(宇宙庫) 창사(倉舍) 7칸과 창고 담당 색리(色吏)의 처소 6칸을 창설하였다.

4년간 재직하면서 강활(強猾)한 세력을 맑고 깨끗하게 다스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1780년 6월 16일 함경도 함흥판관으로 임명받았으나 아버지의 나이가 80이 넘었다는 이유로 여러 번 사직서를 올려 체직(遞職)되었다. 7월 24일 연산으로 돌아갔다.

【참고자료】

『송정3계유식년사마방목(崇禎三癸酉式年司馬榜目)』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우정(金宇淨, ?~1597)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수원. 경북 포항 남구 대송면 대각리 출생. 자는 사원(士源). 호는 소은(沼隱).

증 대사성 대기의 아들이다. 임란 때 우결·우호 등 사촌형제들과 창의하여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영천성복성전에 참전하여 사촌 형제가 큰 전공을 세웠다. 1593년 2월 21일 순찰사 한효순이 지휘하는 문경 당교전투에 참전하였다. 1596년(선조 29) 9월 28일 팔공산 2차 회맹에 참여하여 서사토적을 다짐하였다. 1597년 12월 울산의 도산 격전지로 달려가 왜병 10여 급을 참살하였으나 순절하였다. 형제가 순절하여 나라를 지킨 공을 기려 1828년(순조 28)에 도유가 나라에 주청하여 정려가 내려졌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영일읍지』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김윤복(金允福, 1564~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경북 경주 출생. 호는 송호(松湖).

진의부위(進義副尉) 현(鉉)의 현손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경주성 복성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서생포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10원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선무원종1등공신으로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응서(金應瑞, 1564~1624)

조선 중기 무신. 본관은 김해. 평안도 용강 거주. 다른 이름은 경서(景瑞). 자는 성보(聖甫).

평민의 신분으로 1583년(선조16) 20세 때 별시 무과에 급제하였다. 1588년 감찰(監察)이 되었으나 집안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기용되었다. 1593년 1월 명나라 이여송의 원군과 함께 평양성 탈환에 공을 세웠다. 전라도병마절도사로 남원 등지에서 날뛰는 토적을 소탕하였다. 왜병들에게 선조가 포위되었을 때 탈출을 이끌어낸 공으로 '조방장(助防長)'에 임명되었다. 1597년 도원수 권율로부터 명령의 남산성(南山城)을 수비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강등되었다. 1599년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599년 1월 23일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부임하여 5월 15일에 울산도호부를 겸하여 다스렸다. 재차 사직하는 글을 올려 10월 6일에 체임(遞任)되어 돌아갔다. 기리기를 병영과 도호부가 일체이니 잘 다스렸다. 정치는 간명하여 어짊에 부합하니 향리와 백성이 안도하였다. 물러날 것을 애걸하였으니 부모의 무덤을 돌보려 함이었다라고 하였으며, 1604년 윤9월 26일 경상좌도병마절도사 겸 울산도호부사로 다시 부임하였다. 사간원에서 아뢰어 체직(遞職)되었다. 1606년 1월 19일에 고령의 처가로 출발하였다’

1609년(광해군 1) 정주목사를 지내고, 이어 만포진첨절제사(滿浦鎭僉節制使)와 북로방어사(北路防禦使)를 역임하였다. 1615년 길주목사, 1616년 함경북도병마절도사, 2년 뒤에 평안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시호는 양의(襄毅)이다.

【참고자료】

『광해군일기』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연려실기술』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김응택(金應澤, ?~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어릴적 이름은 사택(士澤). 자는 경춘(景春). 호는 송고(松皐).

임란 때 사촌형 사준(士俊)과 함께 창의하여 진남장군(鎭南將軍)이 되었다. 경주 의병장 황희안 · 이응춘 · 이눌 등과 군을 나누어 동해의 양남 석읍, 우산 등지의 요해처(要害處)에 진을 치고 동해로부터 침입해 오는 적을 막는 등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1597) 도산성 전투에서 싸우다 순절하였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부장(部將)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응하(金應河, 1533~159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순천. 경북 경주 외동읍 개곡리 출생. 자는 천일(千一). 호는 인심재(忍心齋).

헌릉참봉 극검(克儉)의 아들이다. 일찍이 학행으로 훈도를 지냈다. 임란 직전인 1592년 봄에 불국사 범영루에서 동지들과 시회(詩會)를 갖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였으며, 신령(新寧) 골불사 동고록에도 참여하였다. 임란이 발발하자 아들 홍엽 · 홍찬 · 홍위와

아내의 친정조카인 이눌과 함께 창의하였다. 6월부터 이눌 · 김득복 · 황희안 · 박춘석 등과 함께 석읍과 나아 등지에서 동해안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크게 무찔렀다.

1593년 2월 대화강전투에 참전하였고, 4월에는 진을 옮겨 양남 공암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1595년 2월 불국사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침공해 오는 적을 방어하였다. 1596년 9월 28일 제2차 팔공산회맹에 처조카 이눌과 경주의병 800여 명을 이끌고 참가하여 적을 물리쳤다. 1597년 9월 화왕산전투에 참전하였으며, 팔공산전투와 12월 울산 도산성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부장(部將)에 제수되었다. 그 후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인심재일기』가 전한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응한(金應漢, 1935~2004)

도예가. 경남 마산 출생. 호는 좌봉(左峯).

경기도 이천에서 활동한 한국도자사의 1세대이다. 우리나라 분청도자기 발생지인 천왕산(현 사자봉) 1,000m 고지에 위치한 ‘요지군’ 연구차 내려온 것이 인연이 되어 울산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70년대 울주군 온양으로 도자 작업장을 옮겼다. 분청, 백자, 청자, 천목, 회령, 진사 등 다양한 예술적 도형의 달인으로 도자기와 생활다기를 제작하면서 울산 도자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차사발(茶碗) 연구에 전념하여 ‘이도 및 천목(天目)’ 차사발을 재현하였다. 2000년 일본 전시를 통해 우리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과 한국 차문화 연구회 고문으로도 활동하였다. 현재 아들과 동생, 사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의 장인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사진으로 보는 울산 100년』, 서진길, 2012

김이관(金以寬, 1562~?)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탑동 출생. 자는 여후(汝厚).

선무원종공신2등 절충장군 증병조참판 호(虎)의 차남으로 홍해군수를 지냈다. 임란 때 아버지를 따라 형 이충과 함께 창의하여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1592년 7~8월에 전천(현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전투에 참여하였다. 1593년 2월 문경의 당교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며,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성으로 달려가 7월 21일 방어사 곽재우가 지휘하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전공으로 가선대부 증추부사에 올랐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동경통지』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김재호(金在浩, 1900~1969)

독립운동가. 경북 경주 출생.

소년시절 불가에 입문하였다. 경남 동래군 북면 범어사 승려로서 1919년 3월 18일 동사(同寺) 승려 김영규(金永奎)가 조선독립을 달성할 목적으로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밤 범어사 부속 지방학림과 명정학교 학생들과 공동으로 동래면 서문 부근에서 동래시장을거쳐 남문에 이르기까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일에도 시위를 계속할 목적으로 오후 6시경 최응권 등 두 학교 학생 수십 명과 함께 동면 시장에 집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다 체포되었다.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후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326번지로 거주를 옮겨 살면서 인성암, 내원암 등 인근 여러 사찰에서 주지스님으로 불자들에게 민족성신을 고취시키며 평생을 독립투사로 살았다. 199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1권, 국가보훈처, 1994

『서생면지』,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김정(金靜, 1925~1994)

방송인. 평안도 출생. 아호는 소림(素林).

6·25전쟁 때 부산에 피난 와서 정착하였다. 동아대학교 법과를 수료하고 밀양의 세종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며 방송극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1959년 ‘루터란 아워 성탄절 특집극’으로 국제복음방송 방송극 공모에 당선됨으로써 방송 진출을 결심하고 방송극 분야 연구에 몰두하였다. 1960년 우리나라 민간상업방송의 효시인 부산문화방송 제2회 6·25기념 방송극 공모에 입선되었다. 그 후 구성작가(스크립터)로 활동하면서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의 대본, CM, 스폰광고 카피 등을 썼다.

1964년 『라디오 CM』을 편찬하여 우리나라 상업방송의 광고정착에 기여하였다. 1968년 울산문화방송의 전신인 울산민간방송 개국요원으로 합류하였다. 방송부장직을 맡아 편성과 제작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방송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1973년 제1회 대한민국방송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편성국장으로 로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1982년 울산수필동인회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1980년대 후반 회장을 역임하였다. 1973년 제1회 대한민국방송상 민방공로부문을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 수필집 『어안경(魚眼鏡)』이 있다.

【참고자료】

- 『어안경』, 김소림, 1981
- 『울산문화』 2집, 울산문화원, 1985
- 『울산MBC 창사 40주년 기념집』, 2008
- 『한국민방 개척사』, 부산MBC사우회, 2011

김정욱(金正旭, 1883~1947)

독립운동가. 본관은 경주. 울주군 상북면 출생.

언양 3·1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선고받았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김종구(金鍾求, 1921~?)

관료.

1971년 8월 11일부터 1974년 11월 12일까지 제6대 울산시장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 제2차 경제개발사업으로 한국비료, 영남화학, 동해전력 공장 건설이 한창인 시기에 울산 시장으로 부임하여 공업입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날로 팽창하는 울산시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사용한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긴축 행정을 실시하였다. 채무상환을 위하여 추운 겨울에도 시장실에 난로를 피우지 않고 근무하였고 이에 시청 직원과 시민들이 동조하였다. 3년여의 임기 중 울산시를 빛더미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그의 행정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해 채무가 많은 강원도 춘천시장으로 발령하였다.

【참고자료】

- 『울산시사』, 울산시, 1987
-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선산. 경남 밀양 출생. 자는 계온(季暵). 호는 점필재(佔畢齋). 아버지는 사예(司藝) 숙자(叔滋)이고, 어머니는 밀양박씨이다. 1459년(세조 5)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462년 승문원 박사로 예문관 봉교를 겸하였다. 다음해 감찰이 된 뒤 경상도 병마평사·이조좌랑·수찬·함양군수 등을 거쳐 1476년 선산부사가 되었다. 1483년 우부승지와 좌부승지·이조참판·예문관 제학·병조참판·홍문관 제학·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울산의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의 병마평사(兵馬評事)로 2년간 근무하였다. 이때 「태화루(太和樓)」 「우식곡(憂息曲)」 「치술령(鵝述嶺)」 「처용암(處容巖)」 「동백섬(冬栢島)」 「답청가(踏靑歌)」 「눈 온 날 호랑이 사냥(雪後射虎)」 「팔월 보름날 절도사를 모시고 선바위에서 놀다(八月十五日陪節度使遊立巖)」 등 울산의 경승지에 대한 시를 남겼다.

고려 말 정몽주·길재의 학통을 이은 아버지로부터 수학하여 후일 사림의 조종(祖宗)이 되었다. 문장과 사학(史學)에 두루 능하였으며, 절의를 중요시하여 조선시대 도학(道學)의 정맥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486년 신종호 등과 함께 『동국여지승람』을 편차(編次)하였다. 자신의 ‘조의제문(弔義帝文)’으로 일어난 무오사화(1498)에 연루되어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하였다. 정몽주·길재 및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도학사상은 제자인 김굉필·정여창·김일손·유호인·남효온·조위·이맹전·이종준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중종반정(1506)으로 신원(伸冤)되었으며, 밀양의 예림서원, 선산의 금오서원, 함양의 백연서원, 김천의 경림서원, 개령의 덕림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점필재집』 『유두류록(遊頭流錄)』 『청구풍아(靑丘風雅)』 『당후일기(堂後日記)』 등이 있으며, 편저로 『일선지(一善誌)』 『이존록(彝尊錄)』 『동국여지승람』 등이 있다. 많은 저술들이 무오사화 때 소실되어 오늘날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시호는 문충(文忠)으로, 한때 문간(文簡)으로 바뀌었다가 숙종 때에 다시 환원되었다.

【참고자료】

『국조인물고』 『성종실록』 『세조실록』 『연려실기술』 『연산군일기』
『점필재집(佔畢齋集)』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教淵源)』 『해동명신전(海東名臣傳)』

김지충(金智忠, ?~1597)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김해. 자는 윤선(允善).

선조 때 진사에 급제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사촌형인 송고(松皐) 응택(應澤)을 따라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조명연합군이 도산성을 공략하자 용맹하게 싸우다 순절하였다. 벼슬은 판관에 이르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춘룡(金春龍, 1558~?)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안강읍 노당리 출생. 자는 원서(元瑞). 호는 행과(杏破).

군자감부정 응허의 아들이다. 임란 때 동생 경룡과 함께 가동(家僮)과 마을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고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7월 영천성 탈환전과 9월 8일 경주성복성전에 참전하여 여러 고을 의사들과 함께 적을 몰아내고 읍성을 회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1593년 2월 17일 경주 의병장 황희안의 연락을 받고 의병장 최봉천과 함께 울산으로부터 대거 침공해 오는 적을 관문성에서 맞아 싸웠다. 때맞춰 당도한 울산의사 김흡, 고처겸 등과 합세하여 화공작전을 펼쳐 대승을 거두었다. 울산의 무룡산과 개운포전투에 참전하여 분전하였고, 1596년 9월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송라찰방(松羅察訪)에 제수되었다.

【참고자료】

『동경지』 『송호실기』

『경주임란의사장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김춘복(金春福,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충남 홍성(옛 홍주) 출생. 자는 영조(永祚). 호는 암서(巖棲).

조선 중종 때 충주목사 백준(百俊)의 맏아들이다. 경주 건천으로 입향하였고,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1592년 7월 14일 형산강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운문산으로 진을 옮겨 적을 무찔렀다. 두서면 활천리 전천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守門將)에 제수되었다. 뒤에 가선대부 병조참관에 추증되었다. 건천읍 옥수리에 묘소와 후손들이 지은 옥성재가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태근(金兌根, 1920~2010)

연극인, 문학인. 본관은 경주. 부산 금정구 오륜동 출생. 호는 범곡(梵谷).

일본으로 망명했던 아버지가 귀국하면서 9세 때(1928) 함께 울산으로 이사왔다. 울산 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를 졸업하고 범어사중학교를 다니며 스승인 범산(梵山) 김법린(金法麟)의 영향을 받아 애국과 문학에 뜻을 세웠다. 광복 후에 ‘울산건국청년단’을 창단하여 청년운동, 계몽운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울산군지부 청년부장, 다음해에는 조선민족청년단 울산군단장을 맡아 ‘울산3·1회관’을 지어 울

산문화와 울산청년운동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였다. 1988년 건국청년운동협의회 경남지부장을, 1999년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 울산광역시지회장을 역임하였다.

문맹률이 높은 당시 연극으로 애국과 현대 문화를 계몽함이 가장 효율적임을 알게 되어 1947년 '울산극우회'를 조직하였다. 「혁명가의 후예」를 창작하고, 직접 공연하였다. 그 후 「하늘에 별은 없어도」 「암벽」 등의 작품을 연출하면서 평생 동안 울산 연극계를 이끌고 지도하였다. 1946년 '울산문우회'를 조직하여 1947년 최초의 향토 종합동인지인 『태화강』을 2집까지 발간하여 울산에 문학의 씨앗을 뿌렸다. 6·25전쟁의 와중에서도 문화인들을 모아 '백양문화사'를 설립하고, 1956년에 동인지 『백양』을 창간하였다. 울산 최초의 시화전을 개최하고 시낭독회 및 명곡감상회를 열어 울산의 문화운동의 기틀을 잡았다.

1966년 한국문협 울산지부 창립의 주역으로 1969년 『울산문학』 창간에 참여하였다. 1980년부터는 한국예총 울산지부의 고문을, 1981년부터는 한국문협 울산지부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982년 울산수필동인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맡아 『개운수필』(현 울산수필)을 창간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교회기념문집 『태화강』(1989), 문화논설집 『함월산』(2006), 『암벽』(2007), 『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2009)가 있다.

이러한 공적으로 1994년 경남연극상, 1996년 경남도문화상, 1998년 건국공로장, 2002년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 옥관 문화훈장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연예예술인으로 추대되었다. 2011년 울주군 범서읍 중리 지지마을 공부암 입구에 '태화강 시비'가 세워졌다.

【참고자료】

『울산문학사』, 울산문인협회, 2004

『울산 문화예술 인물 재조명 -범곡 김태근 선생의 문학과 연극 그리고 인생-』, (사)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2012

『옛 얘기하듯 말할까』, 울산문화예술포럼, 2013

김태허(金太虛, 1555~1620)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광주(廣州). 경남 밀양 하남읍 귀명리 출생. 자는 여실(汝實). 호는 박연정(博淵亭).

1580년 무과에 급제하고, 1582년 옥포 만호(萬戶)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 울산가군수(1592년 5월)와 울산군수(1592년 9월)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성주목사(1599), 경상우병사(1601), 경상좌병사(1602),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겸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총관, 호위대장 등을 지냈다.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었고 1827년(순조 27) 양무(襄武)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599년 만년의 여생을 보낼 계획으로 세운 밀양시 상동면 모정리에 박연정을 세웠다. 후손들에 의해 계속 중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학(金學,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녕. 어릴적 이름은 학(鶴). 자는 구경(九卿).

선무원종공신1등 훈원원첨정 범(範)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와 숙부 연학을 따라 창의하였다. 1596년 1월 서생포 전투에서 아버지가 순절하자 더욱 비장한 각오로 역전 끝에 많은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사복(司僕)에 제수되었다. 뒤에 훈원원주부를 지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김호(金虎, 1534~159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탑동 출생. 자는 덕원(德元). 호는 월암(月菴).

내금위 어모장군 숙린의 아들이다. 1570년(선조 3) 무과에 급제하여 군자감봉사를 지냈다. 임란 때 두 아들 이충, 이관과 함께 창의하였다. 59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자칭 남면대장이라 칭하고 연이어 적진을 격파하니 많은 의병들이 따랐다. 그의 용맹을 들은 경주부윤 윤인함이 전략요충지인 부산성(富山城)의 수비책임을 맡기고 격려하였다. 만호 이흥정과 수성 대책을 세워 흐트러진 관군을 취합하고, 의병 1,000여 명을 모아 부산성을 중심으로 활약하니 초유사(招諭使) 김성일이 의병대장으로 명하였다.

1592년 7~8월에 전천(현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전투에 참여하였다. 7월 영천성 탈환전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당시 열박령과 노곡지구는 언양에서 두동, 두서를 거쳐 진입하는 적의 길목으로 격전지였다. 8월 2일의 노곡전투에서 적장 석천강승(石川康勝) 부대와 결전을 벌여 대첩을 거두었다. 열박산 남쪽 전읍전투에는 혼자서 왜병 39명의 목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이 전공으로 부산첨사에 제수되었으나 계속 침공해 오는 적을 두고 임지로 떠날 수 없어 연일 분전하다 계연전투에서 순절하였다. 부인 정씨는 자진(自盡)하여 남편의 뒤를 따르고, 두 아들은 더욱 분발하여 적을 무찔렀다.

임란 후 절충장군으로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으며, 1758년(영조 34) 감사의 포계(褒啓)로 형조참판에 추증되었다. 훗날 사림의 공의(公議)로 남강사를 창건하여 제향되었다. 『월암실기』가 전한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월암실기』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김흔(金昕, 1558~1629)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의성. 자는 숙승(叔昇). 호는 학산(鶴山).

의병장 오봉 제민의 넷째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엽·아우 안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웅치(熊峙 : 현재 진안)싸움에 참전하여 하루에 5전 5승하였다. 이 싸움에서 아우 안이 순절하였다. 그 후, 아버지의 명에 따라 근왕(勤王)하여 의곡을 신고 북진하여 왕에게 바치고, 다시 호위하고 평양까지 돌아왔다. 이때 왜병을 만나 배수진법을 써서 왜병을 격파하였다.

이후 언양현감에 제수되었을 때였다. 울산, 동래, 김해, 도산 등 각지에서 왜병이 출몰하자 오진장(五鎭將)과 양산, 기장의 수령들은 철군, 후퇴하였으나 그는 100여 명의 관군을 이끌고 고군분투하여 전승하였다. 우물물을 구하기 위해 침입한 왜병을 섬멸하고 포로가 된 백성들을 구출하였다. 명나라 장수 양호, 마귀와 함께 울산에 출몰한 가등청정의 잔적을 격파하고, 용사 김응서와 함께 도산싸움에서 대승하였다. 『선조실록』 '1597년(선조 30) 11월 28일(을묘조)'에 언양현감으로 울산 마등오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등재되어 있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뒤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전남 장성군 남면 창의오산사,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서원에 배향되었다.

정유재란 때 부인 언양김씨는 왜병이 침입하자 두 아들과 종을 데리고 산에 피신하여 숨어 있다가 왜병에 발각되어 희롱하자 이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정에서는 정려를 내렸으며,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학동원의 표열사(表烈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선무원종공신녹권』 『편갈송 행장』 『행장』

김흡(金洽, 156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자는 정보(聖輔). 호는 삼암(三巖).

탁영 일손(鬮孫)의 후손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경주 의병장 이안국, 견천지와 힘을 합쳐 태화, 도산, 경주의 모화싸움에 참전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으로 제수되었다. 뒤에 훈련원정을 지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남학중(南鶴宗, ?~?)

조선 후기 문신. 서울 거주.

1751년 12월 8일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폐단을 없애는 데 뜻이 있어 상부에 보

고하여 식년 무과의 과장(科場)을 파하고 무지청(賀紙廳)을 설립하여 승역(僧役)을 완화하였다. 1753년 1월 아들이 상을 당하여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수의(繡衣 : 암행어사)가 부(府)에 들어와 1750년 이후에 토지를 누락시킨 일로 조사하므로 돌아오지 않았다. 2월에 벼슬을 그만두었다.

【참고자료】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낭지(朗智, ?~?)

신라 후기 승려.

삼량주(歙良州) 아곡현(阿曲縣) 영축산(靈鷲山)에 머물렀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살면서 『법화경』을 강하였다. 661년경 『추동기』를 지은 지통(智通)이 보현보살의 계시를 받고 출가하자 제자로 삼았다.

울산 반고사(磻高寺)에 머물던 원효(元曉)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저술하였다. 신통력이 있어 잠깐 사이에 구름을 타고 중국 청량산(淸凉山)에 가서 강설을 듣고 돌아오곤 하였다. 머물던 암자를 혁목암(赫木庵)이라 하는데 옛날 가섭불(迦葉佛) 때의 절터였다.

이곳에 인도와 신라의 영축산에만 유일하게 자라는 혁목이 있었다. 혁목이 자라는 산에 머무르는 보살을 법운지보살(法雲地菩薩)이라고 한 『화엄경』의 설에 따라 십지보살(十地菩薩)로 존경받았다. 원성왕 때 연회(緣會)가 영축산에 와서 살면서 그의 전기를 지었다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삼국유사』

노준명(盧峻命, 1606~1652)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정이(正而).

아버지는 도형(道亨)이며, 어머니는 해주최씨이다. 1624년(인조 2) 사마시에 합격하여 음보(蔭補)로 직장(直長)에 기용되었다. 163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남한산성에 호종하여 다음해 정언이 되었다. 유백증이 김류·윤방의 실정을 탄핵하다가 파직당하자, 죄가 큰 자는 벌하지 않고 상소한 자를 벌한다 하여 유백증을 구하려다 파직당하였다. 1645년 홍원목사가 되었으나 다음해 윤방의 아들이자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하자 사직하였다. 그 뒤 삼사·세자시강원 등의 관직 물망에 올랐으나 모두 저지당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균직장이었다가 1648년 12월 4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방어진목장에 소속된 영천, 경주, 하양, 자인, 경산, 청도,

언양 등의 고을은 매 3년을 기한으로 목책(木柵)을 고쳐 세웠다. 영천 등의 관에서 목책의 역을 없애고 옛 석성을 수축할 것을 순찰사에게 청원하여 1651년 5월에 옛 석성을 수축한 뒤 목자(牧子)들이 허물어지는 대로 보수하게 하였다. 증성(甞城) 아래의 전선정박처가 빗물로 인하여 모래가 쌓여 뱃길이 점차 막히자 상급 관청에 보고하고 3명에 소속된 해부(海夫)를 모래 파내는 역에 나가게 하였다. 청덕비를 우암(牛岩)에 세웠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영남인물고』 『인조실록』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도신수(都愼修, 1598~1651)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성주. 자는 영숙(永叔). 호는 지암(止巖).

아버지는 무공랑(務功郎) 여유(汝兪)이며, 어머니는 여흥이씨이다. 서사원(徐思遠)으로부터 역학을 배웠으며 성장하여서는 정구(鄭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24년(인조 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7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성균관 학정(學正)·박사 등을 역임하였다. 참예도찰방(參禮道察訪)에 옮겼다가 임기가 만료되었다. 전적·형조좌랑·공청도도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호조정랑·함흥판관·울산도호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울산도호부사(1643~1648)로 재직하면서 ‘울산 향약 8조’를 만들었다. 대부분 주민들의 잘못이나 실책에 대한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어업을 진작시키고 진흙미 비축으로 주민들을 구제하고 교화와 풍속을 크게 진작시켰다. 여러 관직을 거쳐 함흥수령으로 재임할 때 공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만년에는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달성의 용호서원에 배향되었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호조정랑이었다가 1643년 12월 22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아사(衙舍)를 염려하여 향사당을 철거해 옮기고 아사를 평시의 옛 터에 세웠다. 남문 밖에 선정비가 있다.’

비는 현재 동헌에 있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영남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도의(道義, ?~?)

통일신라 승려. 북한군(北漢郡, 현재 서울 일원) 출생. 성은 왕씨(王氏). 법호는 명적(明寂). 시호는 원적(元寂). 법명은 도의.

중국의 남종선(南宗禪)을 신라에 최초로 전하였다. 어머니가 임신한 지 39개월 만에 낳았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전한다. 784년(선덕왕 5) 당나라 오대산으로 가서 공중으로부터 종소리를 듣는 등 문수보살의 감응을 얻었다. 강서의 개원사(開元寺)에서 지장(智藏)에게 법을 물어 의혹을 풀고 지장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3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무르다 821년(헌덕왕 13) 귀국하였다. 선법(禪法)을 펴고자 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이 교학(敎學)만을 숭상하고 무위법(無爲法)을 믿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설악산 진전사(陳田寺)로 들어가 제자를 가르치며 때를 기다리다 3년 만에 울산의 가지산에서 석남사를 창건하고 가지산과의 개조가 되었다. 제자 염거(廉居)에게 남종선을 전하고 죽었다. 염거의 제자 체징(體澄)은 전라남도 장흥의 가지산에 가지산파(迦智山派)를 세워 크게 선풍을 떨쳤다. 이때 도의를 제1세, 염거를 제2세, 자신을 제3세라고 하여 도의를 가지산과의 개산조로 삼았다.

고려 말에 천책(天頌)이 지은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는 도의가 지원승통(智遠僧統)에게 한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법문은 그가 법계설(法界說)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심인법(心印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억성사지(億聖寺址)에 그의 부도가 있다.

【참고자료】

『조당집(祖堂集)』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
『한국역대고승전(韓國歷代高僧傳)』, 김동화, 1973

류담후(柳譚厚, 1623~1686)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문화. 자는 정부(正夫). 호는 결청재(潔淸齋).

아버지는 창평현령 흰(萱)이며, 어머니는 기계유씨이다. 1651년(효종 2) 사마시를 거쳐 1665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하지 않았다. 1678년(숙종 4)에 정언(正言)에 처음으로 부임하였다. 사서(司書)·지평(持平) 등을 지내고 은퇴하였다가, 1680년 헌납(獻納)으로 등용, 부수찬을 역임하였다. 이어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여 탐학한 토호를 다스리고 어려운 송사를 잘 처리하였다. 순창군수를 지낸 뒤 사직하였으나 영의정 김수흥·좌의정 민정중 등의 천거로 오위장(五衛將)에 등용되어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신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1685년 좌승지에 이르렀다. 육예(六藝)가 뛰어나고 성행(性行)이 청백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678년에 부임하였다. 1680년 봄에 읍내의 연지(蓮池)를 다시 고쳐 쌓았는데 독 안에 대(臺)를 쌓고 독 가에는 버드나무를 심었다. 경내 범서면의 천상동제, 장검동제, 서창제, 온양면의 사안당무거래제 등을 신축하였다.’

저서로는 『성능유의(成能遺義)』가 있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문암집(文巖集)』 『사마방목』 『숙종실록』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류봉징(柳鳳徵, 1649~?)

조선 후기 문신. 자는 계숙(季叔).

숙종 1년(1675) 생원시에 합격하고, 숙종 8년(1682) 증광시 병과에 합격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용정이었다가 1706년 5월 1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대동의 동, 남, 서 등 세 곳의 창고 33칸을 고쳐 짓고, 관아를 중수하였다. 상부내면(上府內面)의 연지(蓮池)와 대대근제(大代斤堤 : 현 시청 구관 자리)의 흙을 파냈다. 범서 구영제를 신축하여 백성이 이익을 보게 하였으니 은혜가 막대하다. 군청(郡廳)에서 비를 세웠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사마방목』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류정(柳汀, 1537~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문화. 서울 출생. 자는 여원(汝元). 호는 송호(松壕).

형조참판 만풍정(晩楓亭) 광선(光先)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의 유배(1547년)를 따라 울산에 정착하였다. 1587년 경주 산내면으로 옮겨 정사(精舍)를 짓고 유생들과 함께 시국을 걱정하며 교유하였다. 임란 때 아들 영춘, 조카 백춘·득춘과 함께 창의하였다. 박인국·이여량·심희대 등과 함께 동천에 진을 치니 부윤 윤인함이 글을 보내 영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의병군을 이끌고 울산의 개운포, 연포, 백련암 등지에서 적을 물리치고 공암으로 진을 옮겼다. 6월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9월에는 광제원으로 진을 옮겼다가 울산 개운포전투에 참전하였다. 경주에서 벌어진 선도산, 주사산, 작령, 금척 등지의 전투에서 적을 무찔렀다. 11월과 12월에는 불국사, 원원사 등지를 오가며 승려 찬홍, 지홍 등의 지원을 받아 군비를 조달하였다. 1593년 2월 태화강에서 적을 격파하고, 다음해 10월에는 영천 창암에서 격전 중에 군량미를 운반하던 아들 영춘이 순절하는 참변을 당하였다. 1595년 2월 영지에서 적을 무찌르고 다음해 3월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1597년 9월 박인국, 김중원과 함께 팔공산으로 진군하여 격전을 치르다가 23일 적탄을 맞고 61세의 나이로 김중원과 함께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선공감부정으로 제수되었다. 1835년 양산 칠현사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송호유집』(1637), 『사의사실기』(1911), 『칠현사지』(1939)가 간행되었다. 『사의사실기』의 4의사란 류정, 류영춘, 류백춘, 류득춘을 지칭한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맹세형(孟世衡, 1588~1656)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신창. 충남 온양 출생. 자는 여평(汝平), 호는 하곡(霞谷).

아버지는 희(喜)이며, 어머니는 양주조씨이다. 1623년(인조 1)에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 학유(成均館 學諭), 박사(博士), 전적(典籍)을 거쳐 사헌부 감찰, 호조좌랑이 되었다. 1626년에 형조정랑을 거쳐 예조정랑 겸 춘추관 기주관(禮曹正郎兼春秋官 記注官), 종묘서영(宗廟署令)이 되었다. 1629년에 금산군수로서 치적이 뛰어나 내직으로 호조낭관이 되고, 외직으로 장흥부사에 부임하였다가 다시 내직으로 제용감정(濟用監正)이 되었다. 1636년에 선산부사가 되어 금오성(金烏城)을 수축하고 군정(軍政)을 정비하였으나, 병자호란에 패망하자 척화신(斥和臣) 등용 등 시무 10조를 건의하였다. 그 뒤 상의원정(尙衣院正)을 거쳐 울산부사가 되었다. 항상 말하기를 “백성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먼저 절용(節用)해야 한다.”하며 스스로 쓰임을 절약하고 이서(吏胥)를 엄하게 다스렸다. 부고(府庫)가 넉넉해지자 백성들에게 상부(常賦)를 감면해주었다. 다시 내직으로 성균관 직강(成均館 直講)·사예(司藝)가 되고, 여러 시정(寺正)에 여섯 차례나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 뒤 통례원 통례(通禮院 通禮), 정주목사, 개성부 경력(開城府 經歷), 안동부사를 거쳐 봉상시정(奉常寺正)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의원정이었다가 1638년 12월 11일에 부임하였다. 1639년 2월에 전선이 정박하는 강 어구인 증성(甌城) 남쪽을 준설하였다. 관청의 별고(別庫) 4칸, 군무청(軍武廳) 9칸을 조성하였다. 남문 밖에 선정비가 있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민여임(閔汝任, 1559~1627)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여흥. 자는 성지(聖之). 호는 취옹(醉翁), 진의(振衣).

아버지는 군수 사용(思容)이며, 어머니는 ○○김씨이다. 부사 여검(汝儉)의 형이다. 1591년(선조 24) 진사가 되고, 1594년 별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명종 때 승문원 권지(權知)를 지냈다. 임진왜란 중 정랑 이형욱, 우찬성 최훈 등과 함께 가족 및 재화를 피난시키려 하였다 하여 사헌부로부터 파면건의를 당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장수의 접반관(接伴官)을 지내고, 1599년 형조정랑, 다음해 예조정랑, 그 다음해 사헌부 지평 및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605년 사헌부 장령이 되어 한산군수 경차관(敬差官) 강대호(姜大虎)의 잘못을 지적하여 파면을 건의하였다. 1608년 사간, 1614년 남원부사, 1623년(인조 1) 우부승지, 1626년 공조참판을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 병조정랑으로 1603년 3월 18일에 울산도호부 판관으로 부임하였다. 정령(政令)이 맑고 간명하므로 이민(吏民)이 다 감복

하고 추모하여 비석을 세웠다.’

【참고자료】

『광해군일기』 『국조방목』 『국조인물고』 『선조실록』 『인조실록』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박광수(朴光秀, ?~1914)

천주교인.

평민으로 힘이 장사라 일명 ‘박장군’이라 불렸다. 병인박해(1866) 때 순교한 천주교인 승지(承旨) 남종삼(南鍾三)의 일가족이 언양지역으로 귀양오자 그의 장녀 남테레사와 혼인하였다. 이후 줄곧 간월공소(현 상북면 등억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양지역의 신앙공동체가 있던 탐곡(현 두서면 내와리), 상선필(현 두서면 인보리) 등지의 신자들을 보호하였다.

【참고자료】

『상북면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박기남(朴奇男, 157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부장 응락(應絡)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여러 전역에서 공을 세웠다. 특히 성황당전투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1597년 11월 2일 성황당에 둔치고 있던 적과 교전하여 승기를 잡은 후 달아나는 적을 쫓았다. 그러나 해는 이미 저물어 13급 밖에 베지 못하였고, 잡혀 있던 경주 여인 1인을 구출하였다. 이 전투에서 박기남은 박응탁·박이손·김봉수·박춘복·나응수 등과 선봉이 되어 돌격하여 적의 예봉(銳鋒)을 꺾었다. 이 외에도 많은 공을 세워 훈련원정으로 제수되고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두세(朴斗世, 1650~1733)

조선 후기 문신, 유학자. 본관은 울산. 충남 예산 대흥면 출생. 서울 만리현 거주. 자는 사양(士昂). 호는 동암(東巖).

아버지는 울(繡)이며, 어머니는 함양여씨이다.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홍문관직이 제수되었다. 1686년 의금부도사로 권대운을 압송할 때 편리를 봐주었다 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진주목사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나 남인에 속하여 벼슬길이 순탄하지 못하였다. 1704년~1706년까지 울산도호부사로 재직하였다.

문장에 능하였고 운학(韻學)에도 밝았다. 저서로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가 있다. 내용은 1678년 과거에 실패한 선비가 귀향하던 길에 요로원의 주막에서 양반인 체하면서 유식을 자랑하는 인물을 상대로 주고받는 이야기이다. 당시 사회의 실정을 폭로하고,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세태를 풍자하였다. 또 다른 저서로 『삼운보유(三韻補遺)』와 그것을 증보한 『증보삼운통고(增補三韻通考)』가 있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704년 8월 25일에 부임하였다. 다음 해 2월에 새로 삼탄보(三灘淤)를 막고 10리쯤 도랑을 팠다. 3월에 태화(太和)의 옛 둑 위쪽 2리 쯤에 새로 큰 둑을 쌓고 향청 둔답(屯畓)에 속하게 하였다. 1706년 1월에는 구영(仇永)에 지신제(旨新堤)를 쌓았으며 2월에는 굴화(掘火)의 장검동(長劍洞) 옛 방죽을 개축하여 백성이 혜택을 입게 하였다. 3월 22일에 진흙이 고르지 못했다고 수의(繡衣 : 암행어사)가 아뢰어 파직되어 같은 달 27일에 돌아갔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숙종실록』

『다같이 보는 울산읍지』, 울산역사교사모임, 2002

『울산박씨 대동보』, 2012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박만보(朴萬普, 1663~?)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고령. 충북 충주 출생. 자는 원만(遠萬).

1689년(숙종 15) 증광시에 생원 3등 40위로 합격하였다. 1699년 식년시에 갑과 2위로 문과 급제하였으며, 가주서(假注書)를 역임하였다. 1700년 7월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으로 임명되었고, 형조좌랑(刑曹佐郎)과 예조좌랑(禮曹佐郎) 등을 지냈다. 1702년 1월 함경도사(咸鏡都事)가 되어 외관직으로 나아갔으며, 1706년(숙종 32) 7월에 경상도사(慶尙都事)에 제수되었다.

1710년 11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이 되었고, 이후 봉산군수(鳳山郡守)·울산부사(蔚山府使)·홍주목사(洪州牧使)·중성부사(鍾城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1728년(영조 4) 9월에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임명되었으며, 1729년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역임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716년 10월 29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정치를 맑게 하고 백성을 보살피며 덕화가 흠족하니 향리와 백성이 편안하였다. 물선(物膳)을 줄여 해민(海民)이 안도하였고, 지역(紙役)을 간소하게 하여 산승(山僧)이 편안히 거(居)하였다. 작목을 없애니 소송하는 자가 칭송하였다. 기타 모든 정령(政令)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 아님이 없었으니 자리에 있는 4년 동안 온 고을이 의지하며 편안하여 사람들이 태평이라고 칭하고 감격하여 기리지 앓음이 없었다. 철비(鐵碑)

와 비각을 남문 밑에 세워 영구히 잊지 않고 덕을 기리는 곳으로 삼았다. 기리기를 “공의 옴은 어찌 늦으며, 공의 감은 어찌 빠르나. 남긴 사랑은 천년이고, 풍비(豊碑)는 3척이다”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박명부(朴明搏, 1571~1639)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밀양. 함양 거주. 자는 여승(汝昇). 호는 지족당(知足堂).

아버지는 증호조참판 영(榮)이며 어머니는 증정부인 문화유씨로 판관 희필의 딸이다. 정구(鄭述)의 문인으로 예설(禮說)에 밝았다. 1590년(선조 23)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여 교서관 부정자에 보직되었다가 다음해 저작에 제수되었다. 호조좌랑, 사헌부 지평, 합천군수 등을 지냈다. 임란 때는 김성일, 곽재우 군막에 왕래하면서 군무에 많이 협찬하였다. 1593년 의주로 호종하였다가 환두후박사를 제수받았다. 1614년(광해군 6) 이이첨·정인홍 등이 광해군을 종용해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그 어머니 인목대비를 유폐시키자 부당함을 직간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고 축출되었다. 1623년 인조가 즉위한 뒤 형조참의,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던 중 병자호란 때 강화(講和)가 맺어지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농월정을 짓고 은거하였다. 1638년(인조 16) 한성좌윤, 도승지 등에 연이어 제수되었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호조참의였다가 1630년 3월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아사(衙舍) 25칸과 관청 23칸, 하문청(下文廳) 19칸을 조성하였다. “어질고 자애로우며 순수하고 선하였다. 정령이 고르고 공평하였다”라고 표를 세웠다.’

저서로 『지족당문집』 3권이 있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영남인물고』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학진흥원 유교넷(<http://www.ugyo.net>)

박무공(朴武公,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밀양.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유사장보(有司章甫)로 만도(晩到) 15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민효(朴敏孝, 1672~1747)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고령. 경북 상주 출생. 어릴 때 이름은 망구(望久). 자는 사원(士源). 호는 상채헌(常棣軒).

선무원종공신 진남(震男)의 증손이며 아버지는 용서(龍瑞)이다. 1721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울산지역에서 배출된 몇 명의 생원 중 한 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을 당하자 각각 3년씩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다. 도적들도 그의 효성에 감복하여 효자의 여막을 범하지 말자고 하였고 사나운 짐승들도 여막을 피해 돌아서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효행으로 1739년 승덕전 재랑(崇德殿 齋郎)을 수직(守職)받았다. 남곡(南谷) 권해와 갈암(葛庵) 이현일의 문인으로 퇴계학파의 적통을 사사(事師)하였다. 62세부터 이현담·이원담 형제와 울산 최초의 읍지인 『학성지』의 실질적인 편찬 업무를 담당하여 초고본을 만들었다. 그러나 완성본이 만들어지기 2년 전에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010년 울산 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초고본을 국역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 『춘추인씨지(春秋人氏志)』 『사략변의(史略辨疑)』 『주사기언(朱史畸言)』 등이 있으며, 1924년에 그의 글을 모아 『상채헌집』이 간행되었다.

【참고자료】

『울산광역시사』 6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한국사연구』 117, 「1749년 울산읍지 『학성지』의 편찬과 그 의미」, 우인수, 2002
『울산남구문화』 2집, 「울산최초의 읍지 『학성지』 초고본의 주역들」, 박채은, 2004

박복경(朴復卿, ?~?)

조선 전기 문신. 자는 세휴(世休).

성종 때 문신으로 울산군수를 역임하였다. 울산군수 시절에 태화루를 중수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누정」에서, 서거정의 중수기에 이르기를 “지난해 양사천(楊泗川)이 말하기를 ‘울산은 내 고을로서 지금 원[宰] 박후(朴侯)가 고을을 잘 다스려서 정치가 이미 잘 닦아지고 폐단이 없어졌으며, 관부와 누관도 점차로 수선되었습니다. 지금은 태화루도 중수해서 크고 넓은데 새로이 칠을 해서 옛날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으니 선생께서 글을 지어주소서, ...박후의 이름은 복경(復卿)이오, 자는 세휴(世休)이니, 안팎에 여러 벼슬을 거쳐 당시에 여러 칭찬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박세도(朴世衡, 1651~1727)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밀양. 경북 영천 괴하리 출생. 자는 행언(行彦). 호는 하계(何溪), 봉산거사(鳳山居士).

아버지는 성균생원 괴천(槐泉) 창우(昌宇)이며, 어머니는 오천정씨이다. 14세(1664) 때 아버지를 따라 울산 농소로 이사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신동이라고 불리었다. 1681년(숙종 7) 사마시에 입격한 후 미수(眉叟) 허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균관에 들어가서 학문을 닦았으나 관직에 마음이 없어 봉황산 아래에 봉산정사를 짓고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향리에서 정몽주·이언적을 모시기 위한 구강서원을 짓자 숙종에게 사액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1727년(영조 3) 8월 7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06년 10월 후손들에 의해 세거지인 울산 송정동에 봉산정이 세워졌다.

문집으로 『하계문집(何溪文集)』 2권 1책이 전한다. 문집 가운데 주목할 작품으로 「봉산정사기(鳳山精舍記)」 「계칠자설(戒七子說)」 「동경회고(東京懷古)」 등이 있다.

【참고자료】

『송정유사』, 밀양박씨밀직부원군파 부산화수회, 1999

『울산남구문화』 창간호, 「괴천문집과 하계문집」, 최이락,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박언복(朴彦福, 1550~159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전남 장성 출생. 자는 이겸(而謙). 호는 학산(鶴山).

봉사(奉事) 사로(思魯)의 아들로 1564년 경남 밀양 신기로 이사하였다. 1571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 첨정 등을 역임하였다. 후에 밀양으로 귀향하였다가 수년 뒤에 다시 울산 연암동 상방마을로 입향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들 인립과 동지 김득례와 창의하고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영천의 의병장 권응수의 진으로 가던 중 울산으로 들어오는 적을 소등 일원에서 맞아 아들 인립, 동지 김득례와 함께 싸우다 7월 11일 흉탄에 맞아 순절하였다. 이에 분개한 아들 인립도 원수를 갚고자 적진에 돌진하였다가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로 제수되었다. 1840년에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1862년에 다시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가자되었다. 자손들에 의해 『충효록』(1932)이 간행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충효록』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연경(朴延慶,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주부 응량(3등공신)과는 육촌지간으로 임란 이전에 영천에서 울산으로 이주하였다.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첨정(僉正)에 제수되었다. 삼남면의 작괘천 마애비에 음각되었으며, 동향 공신들과 함께 삼남면 교동리 원모사(遠慕祠)와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응량(朴應良, 154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경북 경산 자인면 출생. 자는 빈무(賓武).

임란이 일어나자 일문(一門)의 응경, 응성, 근, 장, 현, 이손의 칠의사(七義士)가 창의하였다. 영천 의병장 권응수와 합세하여 공을 세우고 경주성복성전에도 참여하였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응탁(朴應琢,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경북 경주 출생.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필(弼)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경주성 복성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성황당전투에서도 승전을 이끌었다. 1597년 11월 2일 성황당에 둔치고 있던 적이 이정표 근처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의에 접전하여 화살을 비 오듯 퍼붓자 맞아 넘어지는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 달아나는 적을 쫓았으나 해는 이미 기울어 13급 밖에 베지 못하고 잡혀 있던 경주 여인 1인을 구출하였다. 이 전투에서 박이손, 박기남, 김봉수, 박춘복, 나응수 등과 선봉에 서서 적의 예봉(銳鋒)을 꺾었다.

전쟁이 끝난 1599년 12월 경주에서 베풀어진 위로연에서 지제조(知製敎) 박이장이 지은 「선유기사에」 '절충장군 행부호군 박응탁'이란 기록이 있다. 선무원종공신1등의 녹훈을 받았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유기사」 『동경지』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의장(朴毅長, 1555~1615)

조선 중기 무신. 본관은 무안. 자는 사강(士剛).

할아버지는 증공조참의 영기(榮基)이고, 아버지는 현감 세렴(世廉)이며, 어머니는 영양남씨이다. 김언기의 문인으로 경사(經史)에 밝았다. 1577년(선조 10)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主簿)가 되었고, 1588년 진해현감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경주판관이 되었다. 이때 소속군사를 이끌고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이각과 동래성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이각이 퇴각하자 비겁함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해 7월에 이각이 처형되고 박진이 병마절도사로 파견되자, 장기현감 이수일과 함께 박진을 도와 9월 초8일에 적에게 빼앗긴 경주성 탈환작전에 나서 화차와 비격진천뢰를 사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의 공을 기린 「동도복성비」가 경주황성공원 내 충의공원 앞에 서 있다.

1593년 4월 군사 300여 명을 거느리고 대구 과잠(巴岑)에서 왜병 2,000여 명과 맞서 수십 명의 목을 베고 수백 필의 말을 빼앗는 등 큰 전공을 세웠다. 5월에도 울산군수 김태허와 함께 울산의 적을 쳐서 50여 명을 베었다. 이러한 공으로 당상관으로 특진되면서 경주부윤이 되었다. 7월에는 초산군(楚山郡)의 적을 쳐서 남문에서 전멸시켰다. 8월에는 왜병이 안강(安康)에 주둔한 명나라의 군사를 급습해 200명을 죽이자 병사 고언백과 함께 적을 추격해 무찔렀다. 1594년 2월 양산의 적을 무찔렀고, 3월에는 임랑포(林浪浦)의 적이 언양현에 진입해 노략질하자 이를 급습해 무찔렀다. 적에게 잡혀 있던 백성 370명을 구하고, 우마 32필도 노획하였다. 5월에는 기장에서, 7월에는 경주에서 많은 왜병을 베었다. 1595년 그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가 올랐다. 1597년 영천과 안강의 적을 무찔렀다. 이 때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명군 5만 명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적군이 성을 비우고 밤에 도망치자 창고에 있던 곡식 400여 석을 거두었다.

1598년 박도산(薄島山)의 적을 쳐서 전승을 올려, 가의대부(嘉義大夫)로 품계가 오르고 말이 하사되었다. 1599년 성주목사 겸 방어사, 1600년 경상좌도병마절도사, 1601년 인동부사(仁同府使)를 두루 지냈다. 1612년 다시 경상좌병사 및 공홍도수사(公洪道水使)를 거쳐 경상수사가 되었다. 다섯 차례의 병사를 지내는 동안 한결 같이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영해의 정충사(貞忠祠)와 구봉정사(九峯精舍)에 제향되었다. 유고 『관감록』이 전한다.

【참고자료】

『관감록』 『번암집(樊巖集)』 『선조실록』 『학사집(鶴沙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박이손(朴利孫, 1550~?)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울산.

임란 때 창의하여 여러 전역에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북상하였던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군이 조명연합군의 반격을 받아 서생포와 울산으로 물러나 있었다. 왜병들이 울산, 양산 일원에서 분탕질을 일삼자 곳곳에서 교전을 벌여 적을 무력화 시켰다. 11월 2일 성황당에 둔치고 있던 적을 불의에 접전하여 화살을 비 오듯 퍼부었다. 화살을

맞아 넘어지는 자가 많았으며, 달아나는 자를 쫓았으나 해는 이미 기울어 13급 밖에 배지 못하고 잡혀 있던 경주 여인 1인을 구출하였다. 이 때 박응탁 · 박기남 · 김봉수 · 박춘복 · 나응수 등과 선두에서 적을 매섭게 몰아쳤다. 임란 후 그는 선무원종2등공신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선조실록』

박이장(朴而章, 1540~162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순천. 경남 합천 가야면 출생. 자는 숙빈(叔彬). 호는 용담(龍潭).

승지 양좌(良佐)의 차남이다. 노수신의 문인으로 1573년 생원이 되고 성균관의 추천으로 참봉이 되었다. 1586년 친시(親試)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예문관에 보직되었다. 임란 때 김성일의 계청(啓請)으로 도사(都事)가 되어 활동하였다. 그 후 지평(持平), 지제조(知製敎), 이조정랑, 대사헌, 이조참판, 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행호군(行護軍)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원(員) 중 일원으로, ‘직사호군 박이장(直史護軍 朴而章)’으로 기록되었다. 문장에 능하여 「선유기사」를 지었고(1599. 2) 특히 시에 뛰어났다. 성주 청천서원과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용담집』이 있다.

【참고자료】

「선유기사」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선조실록』 『용담집』

박인국(朴仁國, 1563~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경남 진주 단성면 남사리 출생. 자는 대보(大輔). 호는 정엄(靖廣).

훈련원정 삼원의 아들로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창의하여 황회안, 김석견 등 의장들과 함께 영장(營將)으로 임명되어 선도산, 계림 등지에 배치되어 초기 방어전에 참여하였다. 동해안 공암으로 달려가 진을 치고 적의 해상 침투를 방어하였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7월의 영천성 탈환전과 8, 9월 두 차례의 경주성북성전에 선봉장으로 참전하여 적을 물리치고 읍성을 회복하였다. 이어 선도산과 부산성(富山城) 전투에서도 적을 무찔렀다.

1593년 2월 울산 태화강전투에 이여량, 최봉천, 윤홍명 등과 합세하여 여러 차례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였다. 7월 문경 당교전투에도 참전하여 적의 복상을 저지하는데 역전하였다. 1596년(선조 29) 3월 제1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이때 함안, 창녕 등지의 전역에도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정유재란 때에는 제3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여 적을 무

찌르고, 12월 울산 도산의 적을 막기 위해 조명연합군에 합진(合陣)하여 용맹하게 싸우다 순절하였다.

금군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부호군에 추증되었다. 그 후 다시 좌승지에 가증(加贈)되었다. 『정엄실기』 (1967)가 전한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정엄실기』 『선무원종공신녹권』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박인립(朴仁立, 1564~159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경남 밀양 출생. 자는 사행(士行). 호는 청수헌(聽水軒). 좌참찬 정혜공 수량(守良)의 증손이며 원종3등공신 언복(彦福)의 아들이다. 밀양에서 지금의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마을로 옮겨 왔다. 1590년(선조 23)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따라 김득례와 함께 창의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1592년 7월 경상좌병영을 향해 이동하다가 지금의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대천제 밑에서 적을 만나 싸우다 아버지와 함께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훈련원정으로 제수되었다. 훗날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1863년(철종 14) 10월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가자(加資)되었다. 1840년(헌종 6) 부자가 언양 반곡사에 제향되었으나 뒤에 훼손되었다. 1976년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후리마을에 이를 복원하여 충효사로 개명하였다. 1932년 후손들에 의해 『충효록』 이 간행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제상(朴堤上, ?~?)

신라 전기 충신. 자는 중운(仲雲). 호는 도원(挑園, 挑源), 석당(石堂), 관설당(觀雪堂). 그는 신라 내물마립간 때부터 눌지마립간 때까지 활동하였다. 『삼국사기』에 박제상은 신라 시조 혁거세의 후손으로 제5대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의 5세손이며 할아버지는 아도 갈문왕(阿道 葛文王), 아버지는 파진찬(波珍滄) 물품(勿品)이다.

신라는 402년(실성왕 1) 내물왕의 셋째 아들인 미사흔(未斯欣)을 왜에, 412년에는 내물왕의 둘째 아들인 복호(卜好)를 고구려에 파견해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왜와 고구려는 이들 왕자를 인질로 잡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내물왕의 큰아들 눌지왕은 즉위 후 두 동생을 고구려와 왜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군신을 불러 협의하였다. 그 결과 박제상이 그러한 역할을 맡을 역량이 있는 적절한 인물이라고 천거되었다. 당시 박제상은 양산 지방인 삼량주간(叡良州干)이라는 직책에 있었다.

그는 418년(눌지왕 2) 왕명을 받들어 먼저 고구려에 가서 장수왕을 언변으로 회유해 복호를 구출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귀국한 즉시 왜에 인질로 가 있는 미사흔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도 들리지 않고 떠났다. 그는 왜에 이르러 마치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해 온 것처럼 속였다. 마침 백제 사신이 와서 고구려와 신라가 모의해 왜를 침입하려 한다고 거짓으로 꾸며 말하였다. 이에 왜가 군대를 파견해 미사흔과 박제상에게 길을 인도하게 하여 신라를 침략하고자 하였다. 왜의 침략 세력이 신라를 치러 오는 도중에 박제상은 강구려(康仇麗)와 협력해 왜병을 속여 미사흔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그 자신은 붙잡혀 왜 왕 앞에 끌려갔다. 왜 왕은 그를 신하로 삼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회유했으나, 그는 차라리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결코 왜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해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마침내 불에 태워지는 참형을 받아 죽었다. 이러한 사실이 신라에 알려지자 눌지왕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를 대아찬으로 추증하고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책봉했으며, 둘째 딸을 미사흔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치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삼국사기』에는 '박제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는 '김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김제상'으로 표현된 것은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 원의 강압으로 고려의 일본원정 직전이었는데, 이때 일연이 신라 김씨왕조의 일본과의 좋지 못한 관계를 부각하여 고려 군사의 일본원정 시 사기진작의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설정한 것일 가능성도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의 출생지에 대해서도 그를 시조로 하는 『영해박씨세보』에 '양주(良州,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에서 태어났다(363년 9월)'고 기록하고 있어 양산지역에서 그를 양산의 인물로 기념하고 있으나,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당시 경주지역)에 전하는 설화에 '월평제(月平堤) 위[上]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제상(堤上)'이라 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울산지역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경주문화』 제2호, 「박제상의 도왜시 발선처에 관한 연구」, 이상도, 1996

『한국고대인명사전』, 장세경, 2007

『한국역대인명사전』, 임종욱 편, 2009

『성씨와 본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박종민(朴宗民, 1763~?)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반남. 전남 나주 출생. 자는 천로(天老).

1798년(정조 22) 식년시 3등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14년 1월 7일 도정에서 대구관관으로 옮겨 울산도호부사에 임명하니 같은 달 20일에 부임하였다. 3년 동안 다스리니 경내가 힘입어 편안하였다. 1814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두루 계책을 내어 기일에 맞추어 곡식을 확보하였으며, 이 환곡으로 진휼하였다. 또 봉급 중에서 스스로 조 700석을 갖추어 조금도 부민(府民)에게 억지로 요

구하여 거두지 않고 한결같이 법을 지켜서 조금도 잘못됨이 없었다. 읍인(邑人)이 비석을 세워 사모하였다.’

【참고자료】

『송정3무오식사마방목(崇禎三戊午式司馬榜目)』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박진남(朴震男, 1552~1599)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고령. 서울 출생. 호는 회암(悔巖).

주부 수영(壽永)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따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으로 낙향하여 살았다. 무과에 급제하고 울산 북구 송정동 지당마을로 옮겼다. 임란 때 창의하여 4월 23일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심환 · 박응정 · 이한남 · 김응방 등과 진을 합쳤다. 1593년 2월 문경의 당교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9월 25일 경북 성주의 성현 전투에서 싸우다 적탄을 맞아 큰 상처를 입었다. 1599년 4월 4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을 제수 받았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10월 중 일원이다. 『회암실기』가 전한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창표당안」 『회암실기』

박진원(朴震元, 1563~?)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자는 백선(伯善). 호는 장주(長州).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는 광재우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화왕산성 전투에 참전했다.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9월 14일조에 공의 공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월 중에 포함되어 있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사간(司諫)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선조실록』

박창우(朴昌宇, 1636~1702)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밀양. 경북 영천 괴연동 출생. 호는 괴천(槐泉).

국담(菊潭) 현(峴)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서산유씨이다. 유년 시절에 큰아버지 돈(墩) 밑에서 공부하다가 뒤에 미수(眉叟) 허목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여 경학과 사서, 역학

에 밝혔다. 29세 때 울산으로 이사하였고, 31세 때 몽암(蒙庵) 이채 · 이휴정(二休亭) 이 동영 등과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여 내사(內舍)에 임명되었다. 성균관 유생 시절에 『주자대전(朱子大全)』의 간행에 많이 공헌하였다. 1684년(숙종 10) 유생의 수반(首班)으로서 호남유생들의 상소문사건으로 인하여 유배되었다가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곧 풀려났다. 그뒤 김방한 · 유극배 등과 함께 『주역집해(周易集解)』 3권을 찬술하여 경연(經筵)에 진상하자 왕이 극찬하여 내각(內閣)에서 감정(勘訂)하여 간행하도록 명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학자들은 『주역』에 대하여 발군의 실력을 갖춘 그를 고려 때 역동(易東)으로 불린 우탁(禹倬)에 비하여 ‘역남선생(易南先生)’이라고 일컬었다. 후에 동궁 폐위 사건이 일어나자 성균관 유생 92인과 혈서로 세자를 구하려는 상소를 하였다. 아울러 국정과 시폐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賢才)를 중용(重用)하고 농업과 학문을 장려하며 국방의 수비를 철저히 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사회를 정화하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19조항으로 된 향음주례의식(鄉飲酒禮儀式)을 제안하였다. 저서로는 『괴천문집』 2권 1책과 『주역집해』 3권이 있다.

후일 후손들에 의해 울산 화동봉 화산(華山)에 괴천정(槐泉亭)이 세워졌다.

【참고자료】

『울산남구문화』 창간호, 「괴천문집과 하계문집」, 최이락,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박춘무(朴春茂, 1568~164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경북 경주 양남면 나산리 출생. 자는 내문(乃文). 호는 나곡(蘿谷).

수문장 맹원(孟元)의 아들이다. 임란 때 형 춘영과 함께 마을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공암에 진을 친 다음 전열을 정비한 후, 동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을 무찔렀다. 9월 8일 경주성복성전에는 박춘석 · 황희안 · 박봉수 · 박이손 · 김운복 등과 함께 장좌로 임명되어 용맹하게 싸워 읍성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웠다. 10월 10일 석읍의 중산전투와 다음해 5월 10일 유포전투에서도 백형 춘영과 함께 적을 무찔렀다. 10월 구강회맹에 참여하였다. 1594년 1월 17일 모화전투와 8월 24일 방어진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다. 1596년 9월 팔공산전투에 참가하여 분전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방어사 권응수 진영으로 가 관포에서 적을 대파하는데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에 제수되었다. 1844년 사람의 공의(公議)로 북구 효문동 울동마을에 충효사를 창건하여 형 춘영과 함께 배향되었다. 『나곡실기』(1910)가 간행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나곡실기』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박춘복(朴春福,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임란 때 창의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을묘)조에 그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왜병을 치기 위하여 요로에 매복하는 등 작전을 펼쳤고, 당시 성황당에 둔 치고 있던 적에게 화살을 비 오듯 퍼부었다. 이 공격으로 물러서는 적군을 쫓았으나 해가 저물어 13급 밖에 베지 못하고 잡혀 있던 경주 여인 1인을 구출하는데 그쳤다. 이 전투에서 박응탁·박이손·박기남·김봉수·나옹수 등과 함께 선봉에 자리하여 적을 강하게 몰아 붙였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선조실록』

박춘석(朴春石, 1578~1643)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일명 춘석(春碩). 자는 경례(景禮).

행산군(杏山君) 세균(世均)의 후손으로 나주목사 일장(日章)의 셋째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15세의 어린 나이로 이웃한 김득복·황희안·이승춘·황희철 등의 의진(義陣)에 참여하였다. 9월 8일 2차 경주성복성전에서는 박의장의 막하에서 장좌로 임명되어 많은 무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무의공 박의장의 ‘동도복성비문’에 등재되었다. 정유재란 때는 ‘마등오전투(현 울주군 두동면 은편·만화·이진리 일대)에서 왜병 8급을 참수하고, 또 왜서 3통을 노획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는 내용이 『선조실록』 선조 30년 11월 28일 을묘조에 기록되어 있다. 1597년 창녕 화왕산동고록에 서명하였으며, 1598년 용양위부호군에 승직되었다. 1600년 절충장군 행부산진 수군첨절제사로 벼슬이 올랐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었으며 그 때 받은 『선무원종공신녹권』 을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2001년에 편수된 『박춘석유사』 가 전한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초당일기』 『관감록』 『나곡실기』 『동경통지』 『동업실기』 『선무원종공신녹권』 『선조실록』

박춘영(朴春英, 1566~1640)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밀양. 경북 경주 양남면 나산리 출생. 자는 내신(乃新). 호는 나산(蘿山).

수문장 겸 사복시정 맹원(孟元)의 맏아들이다. 임란 때 아우 춘무와 동지들과 함께 창의하였다. 공암에 진을 치고 아우 춘무와 해안과 내륙을 드나들면서 동해안으로 침투하

는 적을 막았다. 10월 10일 하서천 상류의 중산전투에서 아우 춘무와 적을 크게 물리쳤다. 다음해 5월 10일에는 유포전투에서 적을 물리치는 등 해안선 방어에 많은 공을 세웠다. 이어 태화강과 모화지구의 전투에도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임란 후 부장(部將)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북구 효문동 울동마을에 충효사를 창건하고 아우 춘무와 함께 배향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배대유(裵大維, 1563~1632)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김해. 자는 자장(子張). 호는 모정(慕亭).

아버지는 부정(副正) 영(瑛)이다. 1590년(선조 23)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광재우를 도와 창녕의 화왕산성을 수비하였다. 1608년 사과(司果)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611년(광해군 3) 울산도호부 판관에 부임하였다. 다음해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을 거쳐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겸필선(兼弼善), 보덕(輔德), 동부승지, 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계축옥사(1613) 때 죄인을 추국하는 일에 공을 세우고, 인목대비의 폐모론에 적극 참여하여 1623년 인조반정 때 삭직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으며, 특히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다. 글씨로는 「기자정석각」이 있고, 저서로는 『모정집』이 있다.

【참고자료】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국조방목』 『조선금석총람』 『망우선생문집』 『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배인남(裵仁男,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달성(대구).

임란 때 창의한 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배인지(裴紉芷, 1564~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성주. 경북 성주 출생. 자는 대수(大秀). 호는 월헌(月軒).

증예조참판 응경(應慶)의 맏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청도군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봉모장(奉謀將)으로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확보하였다. 여러 곳에서 전공을 세워 선무랑(宣務郎) 군자감 직장(直長)으로 특제(特除)되었다. 정유재란 때 도산성전투에서 용전하다가 순절하였다. 임란 후 직장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10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서거광(徐居廣, ?~?)

조선 전기 문신.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외손이며, 달천부원군 안주목사 미성(彌性)의 아들이고 사가(四佳) 거정(居正)의 형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세종 때 언양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이에 고을사람들이 청덕비(淸德碑)를 세웠다. 의금부도사를 지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조선의 문화공간』, 달성서씨 편, 이종목, 2006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달성. 자는 자원(子元), 강중(剛中). 호는 사가정(四佳亭).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외손이며, 달천부원군 안주목사 미성(彌性)의 아들이고 도사(都事) 거광(居廣)의 아우이다.

1438년(세종 20)에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44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집현전 박사 부수찬 부교리, 성균관 사예, 공조참의, 예조참의, 이조참의, 예문관 대제학 동지중추부사, 예조참판, 형조참판, 좌참찬, 도총관, 한성부윤, 이조, 병조판서 좌찬성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사가집(四佳集)』 『동인시화(東人詩話)』 『필원잡기(筆苑雜記)』 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누정」에 「태화루 중신기(重新記)」, 울산관련 시 「무제」 「울산태화루」 「울산객관에서(題客館)」 등이 있다. 대구의 구암(龜巖)서원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서석린(徐錫麟, 1710~1765)

조선 후기 유학자. 본관은 이천. 경북 청도 출생. 자는 몽응(夢膺). 호는 수오(睡鰲).

아버지는 증호조참의(贈戶曹參議) 홍점(弘漸)이고, 어머니는 밀양박씨이다. 장남으로 동생 서덕린(徐德麟)이 있다. 청도에서 출생하였으나 1731년(영조 7) 언양현 상남면 길천리로 이사하였다. 1747년 식년시 진사 3등 19위에 합격하여, 태학에서 3년 동안 공부하였다. 이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경전을 두루 탐독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시에도 뛰어났다. 1755년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며, 제자들이 많아 '관서부자(關西夫子)'라고 일컬어졌다. 1757년 언양현감 김천상의 위촉으로 언양읍지인 『헌양지』를 편수하였다. 1785년(정조 9) 상산사에 배향되었으나 오래 전에 사당이 훼손되었다. 저서로 『수오선생문집』(1929) 7권 3책이 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성대명(成大明,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창녕.

임란 때 창의하여 허사남, 김인원, 김계남 등과 함께 울산 남면 신야리(현 온산읍 덕신리)와 기장 아이포(현 부산 기장군 장안읍) 등에서 공을 세웠다. 또한, 망조당 서인충과 함께 경주 봉길리와 포항 장기 소봉대에서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국역 망조당유사』, 망조당유사편찬위원회, 2011

손기양(孫起陽, 1559~1617)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밀양.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鰲漢), 송간(松澗).

아버지는 생원 손겸제(孫兼濟)이며, 어머니는 영산신씨이다. 약관의 나이로 백가(百家)의 책을 탐독하여 학식이 매우 깊었다. 1585년(선조 18)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158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92년 성현찰방(省峴察訪)이 되어 왜란을 당하자 중대를 모아 역마(驛馬)를 적절히 배치하면서 전쟁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1597년 왜병의 재침으로 관찰사가 왕의 호종을 위해 떠나버리자 얼마 동안 텅 빈 산성을 지키면서, 이때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1602년에 울산도호부판관을 지냈으며, 이 해에 『얼안당기(蘗岸堂記)』를 찬하였다.

이 일에 대해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민정순찰사로 인하여 경주제독에서 1602년 2월 3일에 울산도호부판관으로 부임하였다. 문무를 겸비하였으며 선정을 베풀고 백성을 잘 다스려 당대 최고로 평가받았다. 영의정 이덕형이 별도로 아뢰어 영천군수 조방장에 임명하였다. 12월 29일에 영천으로 출발하였다.’

성리학자로 이황의 학통을 이은 정구와 도의의 계(契)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 만년에는 역학에 전심하여 침식을 잇을 정도였다.

저서로 『배민록(排閔錄)』 2권과 『철조록(輟釣錄)』 1권 등이 있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선조실록』 『성호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송극인(宋克訥, 1573~1635)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여산. 자는 신백(愼伯), 호는 정곡(靜谷).

아버지는 감찰 초(礎)이며, 어머니는 ○○윤씨이다. 1602년(선조 3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임되었다. 이후 예문관 검열, 봉교(奉敎), 대교(待敎), 형조정랑을 거쳐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으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사헌부 집의, 사간원 정언 등을 역임하면서 영창대군을 미워하는 광해군에게 김제남(金悌男: 대군의 외할아버지)을 비롯한 서인·남인계통의 사람들을 탄핵하는 데 관여하였다.

그 뒤 사간으로 폐모론에 가담하고, 남이공·이원익 등을 탄핵하는 데에도 참여하였다. 인조 때 중화부사(中和府使)가 되었다가 정묘호란(1627)이 일어나 후금의 군대가 침입하자 감사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쳐서 삭탈관직되었다. 예조참의, 선산부사, 판결사(判決事) 등을 역임하고, 1635년 부평부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623년 11월 12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1624년 10월 11일에 목장의 말을 많이 고실(故失)했다는 사유로 서울에서 체직(遞職)되자 서울 본택으로 출발하였다. “비명(碑銘)에 이르기를 조금도 범하지 않았으니 한 고을이 편안하였다. 끝내 잇을 수 없으니 백성의 부모이다”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국조문과방목』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신경조(申景祖, 1708~?)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평산. 서울 거주. 자는 무첨(無添).

1741년(영조 17) 식년시 3등 6위로 급제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건륭 34년(1769) 6월 19일의 정사에서 전라도 순창군수에서 옮겨 본직에 임명하니 7월 29일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갑오년(1774) 7월에 임기가 차서 5월 12일에 말미를 받아 상경하였다. 임무를 시작하자 종종 폐단을 막는데 번거로워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백성이 한 분기에 내는 역가(役價)가 거의 600여 석에 이르렀는데 1년 중 두 분기를 영구히 덜어주었으니 백성을 위해 보살피고 은폐를 끼침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6년간의 정령(政令)이 시종 순박하고 너그러우니 향리와 백성이 모두 평안하였다. 상하 인민과 각 청이 경주 경계에서 다투어 전례를 드렸다.’

【참고자료】

『승정재신유식년사마방목(崇禎再辛酉式年司馬榜目)』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신흥망(申弘望, 1600~1673)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아주.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아버지는 승지 지제(之悌)이며, 어머니는 ○○조씨이다.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 지평, 정언, 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樑)가 쾌만(悻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이 상주(上奏)하다가 탄핵을 당하자 자기의 밝음을 선현을 이끌어 증명하려 하였다. 이를 듣고서 직접 그 소(疏)를 보니 실로 모욕적이어서 이를 단독으로 왕에게 진달(進達)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호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평안북도 벽동으로 유배되었다가 두달 뒤 풀려났다. 1659년 풍기군수로 나갈 때 읍재(邑宰)가 연달아 관청에서 죽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하고 부임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657년 1월 19일에 부임하였다. 이 해에 위에서 백성의 고충을 물을 때에 좌수 이천기 등이 하미면을 기장에 베어 준 일의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글로 올렸다. 청덕선정비를 우암(牛岩 : 현 우정동)에 세웠다.’

저서로 『고송집(孤松集)』이 있다.

【참고자료】

『고송집』 『영남인물고』 『인조실록』 『효종실록』

『울산문화연구』 3집, 「울산도호부사 신흥망에 대한 고찰」, 박채은, 2010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심관(沈關,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풍산.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조실록』에 평양관관, 의성현령, 함흥관관 등을 역임한 기록이 있다. 1604년(선조 37)에는 사헌부감찰에 이르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선조실록』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심선택(沈選澤, ?~?)

조선 후기 문신.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05년(광무 9) 5월 12일에 부임하였다. 웅상면 도평(島坪, 현 양산시 삼호동 섬들)의 수천 년 황무지를 지난 1903년에 개간하여 궁답(宮畓)에 부속시키고 본 면의 7방에 나누어 농사짓게 했는데 토지가 본래 모래땅이고 물을 댈 곳이 없어 힘써도 거두지 못하니 폐단이 있었다. 그러므로 누차 궁부(宮府)에 보고하여 허락하는 제교를 받으니 백성이 그 혜택을 입어 도평에 비석을 세웠다.’

【참고자료】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심원열(沈遠悅, 1792~1866)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청송. 자는 조회(祖懷), 호는 학음(鶴陰).

아버지는 노암(魯巖)이며, 어머니는 풍양조씨이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이래로 노론 시파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1801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벽파가 정국을 장악하자 할아버지 낙수는 삭탈관직되었다. 참봉(參奉)으로 있던 큰아버지 노숭(魯崇)도 경남 기장으로 유배되었다.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1799년 8세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이후 이사질(李思質)의 딸인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다. 1808년 17세에 김헌순(金憲淳)의 딸 안동김씨와 결혼하였다. 19세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20세에 부친상을, 다음해에 할머니와 아내 김씨의 상을 연이어 당하였다. 이후로 큰아버지 노숭을 아버지처럼 의지하였다.

1835년(헌종 1) 선공감 감역(繕工監 監役)에 임명되었다. 1838년 경조부 주부(京兆府 主簿)를 거쳐 청양현감에 부임하였으나, 1839년 강원도 금성현(현 철원군 김화읍)으로 유배되었다. 한동안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850년에 광흥창수(廣興倉守)로 부임하였다.

1852년 고양군수, 다음해에 공주판관을 역임하고, 1855년(철종 6) 울산부사(蔚山府使)로 임명되었다. 1857년 정월 진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8월에 울산으로 유배되었다.

울산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울산좌곶성첩기(蔚山左楸城堞記)』에는 임진왜란 때 왜병과 싸우다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 · 부산첨사 정발 · 다대포첨사 윤흥신 등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처용무서(處容舞序)』는 저자가 울산부사로 있을 때 이 지역에 전해오는 처용무에 관한 고사를 기록한 것인데,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다. 이 밖에 『유보광사기(遊普光寺記)』는 양주의 남쪽으로 보광사를 유람하며 그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자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심청(沈淸, 1554~1598)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청송. 경북 문경 산북면 출생. 자는 천일(千一). 자호는 벽절정(碧節亭).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 학령(鶴齡)의 아들이다.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59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의병진에 부진하여 동해안의 효령, 나아, 유포, 석읍, 공암 등지에서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맞아 공을 세웠다. 1594년 8월 27일의 나아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워 체찰사의 장계로 훈련원봉사에 특제(特除)되었다. 그해 11월 경주 주사산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인 1598년 1월 도산성전투에서 싸우다 순절하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안노생(安魯生, ?~?)

여말선초 문신. 본관은 죽산. 자는 춘곡(春谷). 호는 죽계(竹溪), 이재(伊齋, 頤齋).

1376년(우왕 2)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1년 4월 군자소윤(軍資少尹)으로 서북면찰방별감(西北面察訪別監)이 되어 국경에서 성행하던 원나라와의 밀무역을 철저히 단속하여 법을 위반하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강직하고 결백한 성품을 왕에게 인정받아 이해 9월 세자가 명나라에 갈 때 수행원에 대한 검찰의 임무를 맡았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399년(정종 1)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로 등용되었다. 1400년 집현전 제학(集賢殿 提學) 겸 지제교(知製敎)로 중용되어 왕을 시종하였다. 1403년(태종 3) 7월 좌사간(左司諫)이 되었으나 사간원에서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건의한 것을 두고 사헌부와 갈등이 재현되어 탄핵을 받아 1404년 1월 진주목사로 좌천

되었다. 다음해 7월 예조 우참의(右參議)로 조정에 복귀하고, 1406년 예조 참의(參議), 1407년 형조 우참의 등 여러 직을 두루 거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누정」에 양촌(陽村) 권근의 「태화루기」 중에 그가 태화루를 중수한 내용이 전해진다.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신당산에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삼탄집(三灘集)』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종실록』 『태종실록』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안德基(安德基, 1915~?)

정치인. 경남 의령군 출생.

통도사 부설 보광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대전 2년에 중퇴하였다. 울산군 삼남면 과수 조합장, 경상남도 농민회장, 조선축산주식회사 사장을 지냈다. 1954년 11월 30일 동양제관주식회사를 설립·경영하였다. 1954년 울산 갑구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김수선과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다. 다음해인 1955년 산청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하였지만, 자유당 공천 과정에서 안준기에게 밀려났다.

1958년 다시 울산 갑구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자유당 중앙위원·자유당 울산 갑구당 위원장을 지냈다. 1959년 3월 자유당 경남도당 연차대회에서 경남도당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김종신의 사퇴로 위원장 서리를 맡기도 하였다. 4·19 이후 정치정화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1963년 2월 1일 공민권제한의 해금명단 공표로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해 민우당의 발기선언에 참여하고, 공화당으로 옮겨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1955.11.18, 1955.11.24, 1963.6.12)
『동아일보』 (1961.2.21, 1963.2.1, 1967.2.15)
『대한연감』, 대한연감사, 1955
『(사진으로 본)국회이십년-부록 역대국회의원약력』, 한국정경사, 1967
『역대국회의원총람』,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7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1950년대 울산지역의 선거정치와 4·19』, 강석현, 2013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안신갑(安信甲,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광주(廣州).

임란 때의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 생절(生節) 28원(員)에 포함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안신명(安信命, 1575~1636)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광주(廣州). 경북 포항 연일읍 출생. 자는 군실(君實). 호는 매죽헌(梅竹軒).

전생서봉사(典牲暑奉事) 경(璟)의 둘째 아들이다. 임란 때 가동(家僮)과 동네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문천전투에서 금오산 기슭으로 침투하는 적을 산세를 이용해 유인한 뒤 크게 격파하였다. 형산강 어구의 형제산 전투에서 적을 물리쳐 해로를 차단하였다. 언양으로 진을 옮겨 그곳에서 창의한 숙부 수, 당숙 근과 육촌 형 시명, 이명 등과 합진하였다. 동래 방면으로 행군하던 중, 밀양에서 적의 대병을 만나 크게 무찔렀다. 소산역(蘇山驛)에서 밤을 이용하여 적을 협공하여 궤멸시켰다.

1594년(선조 27) 무과에 급제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방어사 곽재우가 지휘하는 화왕산 회맹에 참가하였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로 15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전공으로 선전관, 훈련원판관에 제수되었다. 뒤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추증되었다. 세칭 망성안씨(望星安氏) 울산 입향조가 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양봉근(楊奉根, 1897~1982)

사회운동가. 본관은 중화. 부산 동래구 화명리 출생. 호는 춘곡(春谷).

1912년 16세가 되던 해에 민족학교인 구포 사립화명학교 교사로 취임하였다. 22세가 되던 1918년에 경성의전에 입학하였다. 경성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후 고향 구포로 내려가 화명학교에서 친분을 맺은 임봉래(당시 동래군 구포면사무소 서기)에게 서울과 평양의 3·1독립만세운동 소식을 알렸다.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구포면에서도 거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임봉래 등은 구포장날인 3월 29일 정오 장꾼들과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1921년 5월 이른바 ‘쿠보 망언사건’으로 경성의전의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감행할 때 본과 4학년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민족문제에 새롭게 눈을 떴

으며, 이후 민족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1925년경에 울산으로 이주하여 ‘울산의원’을 개원하고 1930년 초반까지 머물렀다. 울산지역 민족운동에 참가하면서 울산청년회가 맡아 운영하던 해영학원의 이사와 강사를 겸임하여 운영하였다. 해영학원은 울산고등강습회의 후신으로 당시 울산지역 최고의 학부였다. 또한 그는 ‘농촌문제대관’, ‘노동운동의 사적고찰’ 등의 주제로 대중강연 활동을 전개하고, 진보적인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7년 ‘민족단일당’이라는 표어 아래 신간회가 출범하자, 지역의 활동가들을 규합하여 1928년 3월 17일 울산지회를 설립하고, 울산지회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1930년 3월 19일 울산지회 임원개선과 함께 회장에서 물러났다. 1930년 11월 개최된 신간회 전체대회대행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본부의 검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31년부터 1932년 사이 보건운동사를 설립하고 『보건운동』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등 민중보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당시 열악한 민중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사상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시대일보』 (1924.10.7.)

『울산유사』, 김석보, 1978

『울산사학』 11집, 「일제하 울산지방의 중등교육」, 지호원, 2004

『의사학』 14권,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신영전·윤효정, 2005

양희지(楊熙止, 1439~1504)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중화. 자는 가행(可行). 호는 대봉(大峯).

군수 맹순(孟淳)의 아들이다. 일찍이 집안이 가난하여 떠돌아다니다가 울산에서 타향살이를 하였다. 양근군수 이종근의 아버지인 충숙공 이예가 그의 사람됨을 알아보자 문의 현령을 지낸 이종근이 사위로 삼았다. 가난한 어린시절의 원래 이름은 희지(熙止 또는 熙沍)였다. 1462년(세조 8)에 사마(司馬) 양시(생원·진사)에 합격하고, 1474년(성종 5) 갑오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종의 부름으로 편전에서 알현하였을 때 왕이 희지(熙止)라는 이름을 희지(稀枝)로 고치게 하고, 정보(楨父)라는 자(字)를 하사하였다. 이 해에 검열에 임용되었으며,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치고 7도(道)를 안렴(按廉)하였다. 대사헌(大司憲), 한성부우윤, 세자좌부빈객을 지내고 1504년(연산군 10) 말릉마을(태화동 명정)에서 사망하였다. 부(府)의 함월산에 장사지냈다. 대구의 오천서원에 제향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문집으로 『대봉집』 (1786)이 있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학성지』

『울산남구문화』 2집, 「양희지 비문의 서체에 관한 고찰」, 유용하, 2004

『향토사보』 22집, 「대봉집」 서문, 엄형섭, 2011

연회(緣會, ?~?)

통일신라 승려.

『삼국유사』에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영축산 영축사에 숨어 살면서 『법화경』을 읽고 보현보살의 관행법을 닦았다. 임금이 그를 국사로 삼으려 하자 암자를 버리고 자리를 피했다. 서쪽 고개의 바위 사이를 넘어가는데 한 노인이 밭을 갈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물었다. 이에 “나라가 벼슬로 나를 얹매려 하므로 피하는 중이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국사를 맡지 않고 피하는 것은 오히려 이름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노인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충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갔다. 얼마 후 시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나 같은 질문을 받았다. 똑같이 응답하니 노파가 앞의 노인이 문수보살임을 알려주면서 그의 잘못을 깨우쳐주었다. 급히 노인에게로 달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수보살의 권유에 따라 국사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수보살에게 시냇가의 노파가 누군지를 묻자, 문수보살은 ‘변재천녀(辯才天女)’라 말하고 숨어버렸다. 그 뒤 그는 대궐로 가서 국사가 되었다.

고승 낭지(朗智)의 전기를 지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삼국유사』

오경우(吳慶友, 1530~1597)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고창. 경북 경주 외동읍 개곡리 출생. 자는 익선(益善). 호는 충서재(忠恕齋).

대호군 사원(士元)의 둘째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4월 28일 김응하, 김득복, 이눌 등과 개곡전투에 참여하였다. 초기 경주 방어전에서 많은 공을 남겼다. 1596년(선조 29) 9월 28일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1597년 9월 19일~23일까지 팔공산전투에 의병장 이눌과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2월 울산 도산성전투에서도 전공을 세웠다. 관직은 군기시직장(軍器寺直長)에 이르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오수량(吳守良, 1550~?)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부안.

임란 때 창의하였다. 1597년 11월 2일 태화강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선조실록』 권94에 올라 있다. 당시 왜병들은 울산, 양산 일원에서 온갖 만행을 일삼아 백성들의 고충이 심하였다. 이에 경상좌병사 성윤문은 여러 장수들과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11월 2일의 성황당 일원의 전투에서 매복전을 통해 승전하였다. 이때 놀란 왜병들이 배를 타고 태화

강으로 들어고 개운포 방면에서도 육로를 통해 들어와 아군을 공격하였다. 김막실 · 박순동 · 지수 · 김금복 등과 함께 수적인 열세인 상황에서도 분전하였다. 총상을 입어 잠시 후퇴하였다. 교전 중 참획하였던 적의 머리가 단지 7급만 올렸다고 한다.

호적대장에 ‘(오수량) 후손들은 지금의 온양읍에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직은 수문장(守門將)이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오열(吳悅, 1567~1619)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고창. 경북 경주 외동읍 개곡리 출생. 자는 사흙(士欽), 은서(殷瑞). 호는 송재(松齋).

함창현감 경로의 넷째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숙부 경우, 셋째 형 심과 이응춘 · 이계수 · 견천지 · 이눌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경주의 동대산지구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다음해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1595년(선조 28) 10월 숙부 경우, 권사민 등과 경주 모량에서 적을 맞아 접전을 벌렸다. 1596년 9월 대구의 팔공산으로 나아가 최동보 · 권사악 · 김광복 등과 회맹을 맺고 다음해 9월 팔공산에서 적을 물리쳤다. 이러한 공으로 봉정대부 군자감정에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경주부의 임진항쟁사』, 경주시문화원, 1993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원석범(元錫範, 1781~?)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원주. 자는 사홍(士洪).

1810년 식년시 3등으로 급제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27년 윤5월 7일의 정사에서 전라도 태인현감에서 본직을 제수하니 6월 12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부임한 후에 읍의 폐해와 백성의 고충을 바로잡고자 힘쓰지 않음이 없었다. 온남(溫南)과 온북(溫北) 두 면은 세 곳의 봉산(封山)이 있고 또 남창참사(南倉站舍)가 있는데 별성(別星)의 지참(支站)이며, 영(營)과 읍(邑)의 선재(船材)를 운반하니 분정하여 거두는 것이 한정이 없어 폐해가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수요를 짐작하고 여론을 참작하여 지참의 역(役)과 목역(木役)의 대소를 구별하고 수를 정해서 절목(節目)을 작성함으로써 횡령(橫斂)하는 폐해를 제거하였다. 이외에 육호(陸戶)의 역을 덜어 주고, 해역(海役)의 폐단을 혁파한 것은 다 거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백성

들이 비석을 만들 돌을 실어 향회(鄉會)에 가져다 놓았는데, 조정으로 돌아간 뒤 마침 흉년이 들어 비석을 세울 겨를이 없었다.’

【참고자료】

『송정3경오식사마방목(崇禎三庚午式司馬榜目)』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원허당 인홍(圓虛堂 仁弘, 1908~1997)

근·현대 승려. 본관은 월성. 경북 영일군 대송면 동촌리 출생. 속가의 이름은 동이(同伊), 귀동(貴同). 호는 원허(圓虛).

1941년 오대산 월정사 지장암으로 출가하여 정자(淨慈)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하였다. 1945년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동산(東山)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였다. 1951년 경남 창원 성주사 선원장에 취임한 뒤 정법수호의 회상을 열어 40여 명의 대중과 대중결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성철·청담·자운스님 등이 주동하여 실시한 봉암사결사를 그대로 실현한 것이었다. 1955년 대구 동화사 초대 비구니 총림 설립 준비위원회 총무로 임명되었다. 1956년에서 1966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정화운동과 종단 일에 참여하였다. 1957년 석남사 주지로 취임하여 1976년 사임할 때까지 20여 년간 대웅전, 극락전, 사리탑, 정수원, 누각, 강선당, 언양포교당, 동인암, 요사채 9동을 신축하여 오늘날 석남사의 모습을 갖추었다. 1968년 석남사 최초로 3년 결사를 시작하여 1971년 성만하였고, 대한불교 비구니 우담바라회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86년 대한불교조계종 단일계단 비구니 별소계단 전계화상으로, 1987년 한국 비구니 승가의 상징적 존재인 전국비구니회 총재로 추대되었다. 근세 한국불교의 과도기에 비구니 대표로서, 한국불교의 정화를 이끈 주역으로서 비구니승가의 출가정신을 확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참고자료】

『인홍스님 일대기 - 길 찾아 길 떠나다』, 박원자, 2007

석남사(<http://www.seoknamsa.or.kr>)

원효(元曉, 617~686)

신라 후기 승려. 경북 경산(옛 압량(押梁)) 출생. 성은 설씨(薛氏). 아명은 서당(誓幢), 신당(新幢). 법명(法名)은 원효.

잉피공(仍皮公)의 손자이며, 내마(奈麻) 담날(談捺)의 아들이다. 불지촌은 발지촌(發智村) 또는 불등을촌(佛等乙村)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도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의 한 언덕에는 신문왕 당시 원효가 지었다는 금당(金堂)자리가 남아 있다. 그 밑 골짜기에는 그의 아들 설총(薛聰)의 출생지로 전하는 자리가 남아 있어 그 자리가 바로 원효

가 태어난 곳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15세경에 출가하여 수도에 정진하였다. 보덕(普德)이 스승이라는 설이 있으나, 자장(慈藏)으로부터 불도를 배웠을 가능성이 많다. 34세 때 스스로 경전을 연구하고 수도에 정진하다가 의상(義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도중에 해골에 핀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의상과 헤어져서 돌아왔다. 이 후 태종무열왕의 둘째딸인 요석공주(瑤石公主)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다. 이 실계(失戒)의 사실은 원효가 더욱 위대한 사상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계 뒤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 또는 복성거사(卜性居士)라 하고 속인행세를 하였다.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포함해 현존하는 그의 저술은 20부 22권이며, 현재 전해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여 부 240권에 이른다. 그 중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는 중국 고승들이 해동소(海東疏)라 하여 즐겨 인용하였고, 『금강삼매경론』은 인도의 마명(馬鳴)·용수(龍樹) 등과 같은 고승이 아니고는 쓰기 힘든 대저술로서 그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학승(學僧)으로서 민중교화승으로서 당시 왕실 중심의 귀족화된 불교를 민중불교로 바꾸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 종파주의적인 방향으로 달리던 불교 이론을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회통(會通)시키려 하였는데 오늘날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이라 부른다. 이것은 그의 일심사상(一心思想)·무애사상(無畏思想)과 함께 원효사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사상은 너무나 다양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나 항상 ‘하나’라는 구심점을 향하였고, 화쟁과 자유를 제창하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반고사에 머물면서 영축사의 낭지대사에게 예를 갖추며, ‘반고사의 사미(沙彌 : 원효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는 낭지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려 작은 먼지를 불어 영축산에 보태고, 작은 물방울을 던져 태화강 황룡연에 보탠다’고 하였다. 이것은 원효가 당시 울산의 중요 지역이었던 영축산과 태화강 즉, 영축사와 태화사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그는 울산의 중요 사찰이었던 영축사, 태화사, 반고사의 운용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자료】

『삼국유사』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 『송고승전(宋高僧傳)』
『한국의 인간상』 3, 「원효」, 이기영, 1965

월하당 계오(月荷堂 戒悟, 1773~1849)

조선 후기 승려. 경북 안동 출생. 자는 봉거(鵬舉). 호는 월하(月荷). 속성은 안동권씨. 11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출가하여 팔공산에서 월암(月庵)의 제자가 되었다. 그 뒤 침허(枕虛)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우기(祐祈)의 법을 이었다. 20세에 당(堂)을 열어 학인을 지도하였고,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필체와 시문으로 이름을 떨치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토굴 곁에 따로 방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노모의 눈이 어두워지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석남사에 머물 때는 밤에 참선하고 낮에는 옥류 계곡에서 물을 먹물로 삼아 글씨를 연

습하여 명필이 되었다. 비문과 편액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천자문』을 초서(草書)로 써서 판각한 것이 유명하다. 60세 이후로는 시문이 수행정진에 방해가 된다 하여 붓을 놓고 염불과 참선에만 전념하였다. 77세에 가지산 석남사 연등정사(燃燈精舍)에서 입적하였다. 생전에 대곡댐 편입부지에 있었던 백련정(백련서사)의 주인인 진사 최남복과도 교유하였다.

저서는 모두 12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문집인 『가산고(伽山藁)』 4권만이 전한다. 석남사에 초서체 『천자문』 판각인 「초천자판(草千字板)」이 보관되어 있다.

【참고자료】

『울주군지』,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위덕화(魏德和, 1551~1598)

선무·호성원종공신. 본관은 장흥. 자는 화지(和之).

진사 곤(鯤)의 아들이다. 부인은 증정부인 죽산안씨이다. 1585년(선조 18)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창의하여 선조 임금의 의주로 몽진할 때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당시 형 덕의(德毅)와 함께 반열(班列)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 “신이 비록 호가(扈駕)의 노(勞)를 맡고 있으나 뜻은 싸움터에 있으니 원컨대 일기(一騎)로 달려가 싸우게 해 주소서” 하였다. 선조가 가상히 여겨 언양현감을 제수하자 그날로 달려가 용감히 싸워 전공을 세웠다. 다음해 봄에 군자감부정으로 제수되고, 군자감정(軍資監正) 겸 지언양현사(知彦陽縣事)로 승진하였다. 1596년 훈련원정으로 내천(內遷)되었다.

1594년(선조 27) 언양현감으로 있을 때 10월 1일 경상좌병사 고언백에게 다음과 같이 치보(馳報)하였다. “기장의 두모포(豆毛浦)에 주둔하고 있는 왜병 500여 명이 현의 석남촌(石南村 : 현재 울주군 상북면 일대)을 갑자기 포위하여 모두 분탕(焚蕩)하고 남녀 5명을 붙잡아 갔다.”(『선조실록』 권56)

1598년 병을 얻어 고향집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던 중 11월 5일 세상을 떠났다. 전쟁이 끝난 뒤 호성원종공신 3등과 선무원종공신 3등에 각각 녹훈되었다. 훗날 아들 정철(廷喆)이 정사원종공신(1623)과 진무원종공신(1624)에 오르자 그 영귀(榮貴)로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장흥의 죽산사(竹山祠)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광주·전남충의사록』 『선무원종공신녹권』 『선조실록』 『임란호남절의록』

『호성원종공신록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유석주(兪碩柱, 1779~?)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기계. 서울 거주. 자는 이관(而寬).

1816년(순조 16) 식년시에 3등으로 급제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38년 2월 1일 정사에서 평안도 덕천군수에서 올려 본직에 임명하니 3월 27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2년간 재임하면서 모든 곳을 어루만지되 검사하고 독촉하는 명색이 전혀 없고, 또 관속(官屬)이 촌에 나가는 일도 없으니 백성은 생활이 안정되었다. 못사람들이 스스로 비석을 준비하여 돌을 세우고 덕을 기리며 영구히 잊지 않을 의리로 단청한 비각을 상부면 내부리(上府面 內部里)의 저자[市場] 가에 세웠다.’

【참고자료】

『승정3병자식사마방목(崇禎三丙子式司馬榜目)』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윤득림(尹得霖, 1717~?)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해평. 서울 거주. 자는 좌백(佐伯).

통덕랑(通德郎) 윤옥(尹沃)의 아들이다. 1774년에서 1776년까지 울산도호부사로 재직하였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774년 6월 19일의 정사에서 경기도 마전군수에서 옮겨 본직에 임명하니 7월 24일에 부임하였다. 1776년 12월 3일의 정사에서 충청도 충주목사로 옮겨 임명하여 1777년 1월 1일에 충주로 출발하였다. 객사가 화재로 소실되어 전패(殿牌)를 관청 건물에 임시로 봉안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자신의 월름(月廩)을 덜어내고 8,000금을 마련하여 넉달 안에 다시 지었다. 또 남문이 지은 지 오래되어 제 구실을 하지 못하자 사람을 임금에 주고 고용하여 백성의 힘을 소비하지 않고 이루었다. 대동좌기청(大同坐起廳)과 공수창(供須倉)과 부창(府倉), 두 창고 외에 별향(別餉)의 각 창고를 고쳐 세웠다. 또 한 분기의 역가(役價)를 감하여 혜택이 고르게 끼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승정재갑자식년사마방목(崇禎再甲子式年司馬榜目)』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윤안국(尹安國, 1569~1650)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양주. 자는 정경(定卿). 호는 설초(雪樵).

아버지는 우수운판관(右水運判官) 응상(應商)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이다.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91년 명경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 正字)에 추천되었으나 성혼·이이의 당(黨)이라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하였다. 그 후 공조정랑(工

曹正郎), 호조정랑(戶曹正郎)을 거쳐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역임하였다. 또한 천추사(千秋使)로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울산관관으로 임진왜란의 전화(戰禍)를 복구하자 그 고을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마음가짐이 개결(介潔)하여 권문(權門)에 출입하지 않았으며 화복(禍福)에 연연하지 않았다. 시에 뛰어났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 병조정랑으로 1603년 9월 6일에 울산관관으로 부임하였다. 1604년 10월 16일에 청주의 농소로 떠났는데, 일을 처리함이 적절하였으니 이민(吏民)이 기뻐하고 경내가 편안하였으므로 추모하여 비석을 세웠다.’

저서로 『설초유고(雪樵遺稿)』가 있다.

【참고자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설초유고』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윤종선(尹從善,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파평.

임란 때의 전공으로 임란 후 봉사(奉事)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윤지태(尹志泰, 1700~1751)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칠원. 자는 대첨(大瞻).

아버지 윤은적(尹殷績)과 어머니 함양박씨와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723년(경종 3)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다. 1735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38년 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다. 1746년 사간으로서 무과의 문란을 논하며 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무신으로 힘을 과시하던 구선행(具善行)과 의금부 당상관들을 탄핵하였다. 1742년부터 1744년까지 울산도호부사를 지내면서 여러 치적을 남겼다. 특히 태화강의 수리사업과 농경 관개시설 조성에 힘을 쏟았고 태화루를 중수하였다. 남양부사로 재직할 때 전염병이 발발하여 많은 사람이 죽자 파직당하였다. 뒤에 다시 시장원필선으로 복직하여 세자교육에 힘썼다.

중구 태화동 동강병원 앞 축대에 영세불망비가 남아 있다. ‘윤부사의 명판결’이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742년 9월 15일 정사에서 본직을 주어 10월 18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먼저 고을의 고질과 폐단을 살펴 사료영

봉군마전을 설치하고 또 짐 나르는 소 11마리를 두어 사성의 행차에 맞이하고 보내는 설비로 삼게 하였다. 또 겨울에 경내의 파괴된 저수지와 터진 보 백 수 십 곳의 역(役)을 시작하되 왕래하며 감독하기를 밤낮으로 마음 써서 백성이 원망하지 않게 하였다. 겨울과 봄의 수개월 사이에 역을 마치니 다음해(1743)에 물이 깊이 고임을 이루었다.

객사의 동서 헌랑(軒廊)과 내외의 초루(譙樓 : 망루)를 중수하여 일신하니 옛 제도에 비하여 더욱 기이하고 장려하였다. 기타 공해(公廡)를 수리하고, 담장을 고쳐 쌓으며, 온갖 기구를 새로 갖추고, 군기와 봉대(烽臺)를 고치고 정비하는 등 무릇 조치한 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대개 이전에 없던 큰 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물력이 무릇 몇 천 전곡(錢穀)이었다. 그러나 백성의 재물을 소비하지 않고 관에서 힘써서 모두 변통해 내었다. 진실로 백가지 부서진 것이 다 흥하니 향리와 백성이 모두 편하였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영조실록』 『정조실록』

『울산남구문화』 6집, 「울산도호부사 윤지태」, 박채은, 2008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윤취함(尹就咸, 1686~?)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파평. 인천 거주. 자는 덕일(德一).

아버지는 희수(希壽)이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1731년(영조 7) 6월 12일에 부임하였다. 1732년과 1733년 두 해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진흙거리를 변통하여 백성을 도왔다. 1732년 봄에 대동미 418석을 하납(下納)하는 것을 민부(民夫)를 내지 않고 관에서 변통하여 백성의 역을 도왔다. 그해 가을에 하납하는 어가미(魚價米) 64석 10두 역시 민부를 내지 않았으며 관청의 남은 급료를 곧바로 내어 실어 하납하도록 하였다. 1733년 여름 분기의 인사고과에서 ‘중(中)’으로 평가되어 그해 8월 19일에 체직(遞職)되었다. 상경할 때는 종마(從馬) 20마리를 민간에서 내지 않고 스스로 갖추었다.’

【참고자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윤치성(尹致誠, 1800~?)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해평. 서울 거주. 자는 이관(而寬).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39년 6월 29일의 정사에서 전라도

익산군수에서 올려 본직에 임명하니 8월 13일에 부임하였다. 바닷가의 어리석은 백성이 윤리를 문란하게 함이 많았는데 먼저 상과 벌을 시행하여 무너진 습속을 바로잡았다. 마을에는 도둑질하는 근심이 있었는데 술주정하고 잡기(雜技)를 즐기는 무리가 스스로 그치고 사라지니 고을이 편안하였다. 병영 환곡의 폐해는 전부터 큰 병폐였는데 환곡은 많고 백성은 적으니 대부분 부담을 졌다. 병영의 환곡 중 쌀 4,000석과 조(租) 70여 석을 다른 읍에 흠어 나누니 울산 백성의 큰 다행이 여기에서 더할 수 없어 영구히 잊지 않을 뜻으로 영당(影堂)을 상부면 강정리(현 중구 우정동 동남쪽) 큰 길 가에 세웠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이계수(李繼秀, 1567~163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입실리 출생. 자는 한서(漢瑞). 호는 영풍정(詠風亭).

증공조참의 응진(應軫)의 아들이다. 임란 때 숙부 응벽과 창의하여 의호(義號)를 능마장(凌魔將)이라 하였다. 경주관관 박의장이 의병장으로 삼았다. 6월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동해안 양남면의 우산, 공암과 울산의 개운포, 서생포 등지에서 적을 무찔렀다. 8월에는 경주성복성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1593년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여하고, 울산의 태화강, 연포 등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1596년 1월 외동읍 모화전투에서 격전 중에 부상을 입었다. 9월 몸을 회복하여 대구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울산으로 출전하여 도산성전투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러한 공적으로 다음해 용양위 부사직(副司直)에 제수되었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수문장에 이르렀다.

1634년(인조 12) 훈련원정에 승진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구촌 조카 주천(눌의 아들)과 다시 창의하였다. 여러 의사들과 서사보국(誓死報國)하기로 결의하고 금천(현 경기도 과천)에서 진을 쳤다. 다음해 1월 한강에 이르러 강화소식을 듣고 분함을 참지 못하고 낙마하여 순절하였다. 『영풍정실기』(1960)가 전한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동경지』 『선무원종공신녹권』 『영풍정실기』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규정(李圭正, 1899~1977)

정치인. 부산 동구 좌천동 출생. 호는 백운(白雲).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1914년 울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1926년에는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울산 성남동을 중심으로 미곡, 비료, 정미, 창고, 운송 등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였다. 1931년 매일 약 1,000석 규모를 정미하여 일본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주)울산본부전기(蔚山本府電氣)의 감사, (주)울산합동해륙운수의 사장, 울산수리조합의 평의원을 지냈다. 사회사업과 농촌계몽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27년 『울산농보(蔚山農報)』를 발간하였다. 1928년 신간회 울산지부 창립에 기여하고, 간사로 활동하였다. 1931년 울산번영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33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울산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울산농업학교(현 울산공고) 설립에도 힘썼다. 울산비행장 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원 안효식과 정무총감에게 진정을 하였다. 이외에 정자항 축항에도 힘을 쏟았다.

【참고자료】

『경상일보』 (2013.8.18)

『동아일보』 (1926.1.19, 1926.7.25, 1958.5.3, 1928.3.25, 1929.4.16, 1931.7.28, 1931.12.14, 1933.6.11, 1933.6.28, 1935.8.25, 1936.4.30)

『조선은행회사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25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33

이기동(李基東, 1922~2001)

교육자. 본관은 여주. 경북 경주 외동읍 쾌릉리 출생.

일본 교토시 리츠메이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학부를 중퇴한 뒤 귀국하였다. 해방 이후의 어려운 시대상황일 때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급선무임을 느끼고 교육계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54년 4월 1일 개교한 울산고등학교와 1962년에 개교한 태화중학교(현 울산중)의 교장을 역임하다 1970년에 중·고등학교가 분리되면서 2001년까지 울산고등학교 교장직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훈장 석류장(1977), 경남 교육상(1982), 연공상 봉황장(2000), 황조근정훈장(2001)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1990.12.11.

『사학』 82, 이기동, 1997

인사기록카드

이눌(李訥, 1569~1599)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개곡리 출생. 자는 약우(若愚). 호는 낙의재(樂義齋).

임란 때 당숙 응춘과 육촌인 승금, 삼한 등과 창의하였다. 스스로 천사장(天使將)이라고 전열을 정비하여 경주의 남천 등지에서 진을 치고 방어하였다. 양남면 나아, 석읍

등지에서 동해안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섬멸하였다. 1592년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고, 7월에는 영천성 탈환에 분전하였다. 다음해 2월 태화강 전투에 참전하고, 10월에는 울산의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1596년 9월 팔공산회맹에 참여하고, 1597년 7월에는 화왕산회맹에 참여하였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1등으로 녹훈되고 영장(領將)으로 제수되었다. 1858년(철종 9) 후손들에 의해 『낙의재유집』이 간행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낙의재유집』 『선무원종공신록권』

이담룡(李聃龍, ?~?)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담양. 경남 밀양 출생.

1500년(연산군 6)에 언양현감으로 부임하였다. 1451년(문종 1)부터 토성(土城)에서 석성으로 확장하여 고쳐짓기 시작한 언양읍성을 그가 부임한 첫 해에 완성하였다. 이로써 언양읍성은 현재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읍지』 권2, 1934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이덕매(李德梅, 1564~?)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입실리 출생. 자는 여애(汝愛).

진사 서정(瑞貞)의 손자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팔촌동생 계수, 삼한과 함께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에 참전하였다. 1593년(선조 26)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1596년 9월 28일 천사장(天使將) 이눌을 따라 대구 팔공산전투에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전공으로 훈련원첨정에 제수되었으나 끝까지 논공행상을 고사하였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만수(李萬壽, ?~159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시 시동 출생.

훈련원첨정 시명(時明)의 아들이다. 임란 때 형 봉수와 함께 창의하여 초기 경주의 여

러 방어전에서 적을 무찔렀다. 정유재란 때 울산의 서생포와 도산, 경주의 외동 모화 등지의 전투에 형 봉수를 따라 경주 의병장 견천지·이응벽·이귀갑 등과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1598년 1월 4일 도산성전투에 다시 출전하여 분전하다가 형 봉수와 함께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으로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문화(李文和, 1358~1414)

여말선초 문신. 본관은 인천. 자는 백중(伯仲). 호는 오천(烏川).

평장사(平章事) 지저(之氏)의 6대손이며, 아버지는 전공판서(典工判書) 심(深)이다. 1380년(우왕 6)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우정언, 우헌납, 예문응교를 거쳐 경상도안렴사를 지냈다. 공양왕 때 우사의(右司儀)를 역임하였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좌간의대부에 등용되고, 1395년(태조 4) 검교시중직(檢校侍中職)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1399년(정종1) 생원시를 관장하고, 다음해 첨서의흥삼군부사(簽書義興三軍府事)가 되어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8년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그 해 처녀진헌사(處女進獻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장흥의 금계사(金溪祠), 대구의 서계서원(西溪書院), 함안의 도천사(道川祠) 등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공도(恭度)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고적」의 이첨(李詹)의 기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여말 왜구의 난리가 없는 해가 없으므로 백성들 중에 재산이 없는 자는 다 떠나고 남은 자가 없었다. 지주(知州)된 자가 인신(印信)을 가지고 계림성에 와서 살았다. 이때 성균사예(成均司藝) 이문화가 경상도 염문에 나설 때에 이곳에 와서 소모진을 설치하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두고 군사들을 농사짓는데 붙이더니 가을이 되자 수확이 배나 되어 흠어졌던 백성들이 편안히 모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그의 아버지 이심(李深)도 지울주사(知蔚州事)를 지냈다.’

【참고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대구읍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종실록』

『증보문헌비고』 『태조실록』 『태종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이민형(李敏亨, ?~?)

조선 후기 문신.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790년(정조 14) 11월 10일의 정사에서 경기도 김포군수에서 본직을 제수하여 1791년 1월 6일에 부임하였다. 1793년 6월 13일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곡식을 무역한 일로 파직되었다. 내아사(內衙舍)가 오래되어 살 수 없자 서민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월봉을 덜고 재물을 모아 수리하였다. 읍의 시노비(寺奴婢)가 이름만 남아 있고 실체는 없었는데 신공(身貢)을 백성에게 요구하자, 조정의 명령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노비된 자를 타일러 응하게 하고 관에서도 700냥을 보태 도와주도록 하였다.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환곡을 이용해 가을에 받고 봄에 팔되 본액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취하여 영구히 방공(防貢)하여 상납하게 하였다. 1792년에는 큰 흉년이 들었으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진휼에 힘썼다.’

【참고자료】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이병철(李秉喆, 1910~1987)

기업인. 본관은 경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출생.

아버지는 찬우(李纘雨)이며, 어머니는 권재림(權在林)이다. 어려서 할아버지 문산 이홍석이 세운 서당인 문산정(文山亭)에서 친자문, 사서삼경, 논어(論語) 등을 배웠다. 1919년 3월 한학 수학을 인정받아 진주군 지수면의 지수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중동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하였다. 1930년 4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틈만 나면 곳곳의 공장을 방문해서 일본 공업의 실상을 자주 살펴보았다고 한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기업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34년 와세다대학교를 자퇴하고 귀국하였다.

1938년 3월 3만 원의 자본금으로 대구 수동(현 인교동)에 ‘삼성상회(三星商會)’라는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1941년 주식회사로 개편, 청과류와 어물 등을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소매업을 하면서 중국에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 조선양조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던 중 1947년 경성부로 상경하여 1948년 삼성물산공사(三星物産公司)를 창설,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6·25전쟁 직후 피난갔다가 1951년 부산에서 삼성물산(三星物産)을 세워 무역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1953년에는 제조업에도 투자하였고, 1953~1954년 제일제당(현 CJ)과 제일모직을 설립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1960년대 초 정주영 등과 함께 울산에 울산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투자, 기부하여 울산공단 설립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1964년 초 울산에 위치한 한국비료를 인수 운영하였다.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 적발되면서 물의를 빚었으며, 급기야 둘째 아들 이창희가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한동안 제계에서 물러났으나, 주변의 반대와 비난을 극복하고 다시 경영에 복귀하였다. 1974년 삼성석유화학, 삼성중공업을 설립하여 중화학 공업에 진출하였고,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당시 수출위주 경제 성장 정

책에 맞추어 전자제품, 화학제품과 중공업 등의 대량 해외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2년 보스턴 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하여 세계최고경영인상을 받았다. 저서로 『우리가 잘사는 길』, 『호암자전』 등이 있다. 세상을 떠난 뒤인 198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특별 추서되었다. 1995년 제2회 한국경영사학회 창업대상이 추서되고, 일본으로부터 일훈일등서보장이 추서되었다. 1999년 12월에는 매일경제와 전경련이 주관한 20세기 한국을 빛낸 30대 기업인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우리가 잘사는 길』, 이병철, 1963

『대한민국인물연감』, 1968

『호암자전』, 이병철, 1986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이봉수(李鳳壽, ?~159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자는 기옹(岐翁). 호는 죽헌(竹軒).

훈원원첨정 시명(時明)의 아들이다. 임란 때 동생 만수와 함께 창의하였다. 김태허 · 전응충 · 서인충과 함께 초기 울산 방어전투에서 적의 북진을 저지하고 예봉을 꺾는데 주력하였다. 1593년(선조 26) 1월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경상좌병사 성윤문의 휘하에 들어가 여러 전장에서 공적을 쌓았다. 이러한 전공으로 한성부판관에 제수되었다. 정유재란 때 도산성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적을 격살하고, 동생 만수와 함께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주부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읍지』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봉춘(李逢春, 154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입실리 출생. 자는 계영(季英).

홍원현감 광보(光輔)의 셋째 아들이다. 임란 때 형 응춘, 우춘을 따라 조카 승금과 함께 창의하였다. 4월 23일 동대산의 기박산성에서 울산의 여러 의사들과 함께 창의하여 우위장(右衛將)으로 좌병영 탈환에 공을 세웠다. 이어 형 응춘과 함께 공암에 진을 치고 동해안으로 침투해 오는 적을 여러 차례 방어하였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1593년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고, 1596년 3월과 9월의 제1·2차 팔공산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행호군(行護軍)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

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퇴사재실기』

『울산읍지』 , 1899

『울산의 충의정신』 ,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삼한(李三韓, 156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입실리 출생. 자는 정이(鼎耳). 호는 눌재(訥齋).

인백(仁伯)의 아들이다. 자질이 명민하며 학문과 지용이 뛰어나 일찍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당숙 응춘·우춘·봉춘과 육촌 승금·눌과 함께 창의하였다. 울산 좌병영 탈환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스스로 분의장(奮義將)이라 하고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9월 8일 경주성복성전에서 적을 물리치고 읍성을 회복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 후 적의 재침을 막기 위해 울산 개운포에 진을 치고 여러 차례 방어전에서 분전하였다. 1593년 2월 동해안의 이견대전투와 울산의 태화강전투에서 적을 크게 무찌르고, 그해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1596년(선조 29) 9월 제2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전란이 끝날 때까지 여러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임란 후 판관(判官)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청안이씨충의록』

『울산의 충의정신』 ,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승금(李承金, 1556~1601)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입실리 출생. 자는 사형(士亨).

증병조참판 응춘의 아들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아버지와 숙부 우춘·봉춘 등을 따라 동네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공암에 주둔하면서 아버지를 도와 5, 6월 두 차례에 걸친 공암 전투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7월 18일 형산강 전투에 참전하여 이의잠, 권사악, 류영춘 등 의병장과 함께 적을 물리쳤다. 1594년 10월 9일 개운포전투에서 아버지 응춘이 순절하였다.

정유재란(1597) 때 9월 제3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서생포로 내려와 12월 22일 울산 의병장 박봉수 등과 힘을 합쳐 적을 격파하였다. 이러한 전공으로 훈련원정에 올랐으며,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1832년(순조 32) 9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되었다. 아버지 응춘과 함께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청안이씨충의록』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안국(李安國,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양남면 석읍리 출생. 자는 능보(能輔). 호는 충효재(忠孝齋).

죽은(竹隱) 이지대(李之帶)의 후손이며, 진형(晉亨)의 아들이다. 임란 때 스스로 대수장군(大樹將軍)이라 칭하고 세 아들 승춘·언춘·희춘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니 인근의 장정과 승병들이 휘하에 모였다. 5월 14일부터 다음해까지 망정촌, 죽전포, 형산강, 석읍, 상서, 수렴, 나아 등지에서 이의잠, 류정, 황희안, 류백춘, 김득복, 박인국 등의 여러 의병들과 대를 나누어 동해안을 통해 침입해 오는 적을 수공(水攻)과 화공(火攻)으로 무찔러 기세를 꺾었다. 경주성 방어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정유재란 때 울산 도산성전투에 정병을 이끌고 참전하여 김흡, 견천지 등의 의병장과 함께 큰 전과를 올리고 적의 사기를 꺾었다.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원정에 제수되었다. 실기 『용사사적(龍蛇事蹟)』(1969)이 전한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용사사적』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안성(李安性, 1576~1597)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경주. 경북 포항 기계면 현내리 출생. 자는 사일.

진사 습의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17세의 어린 나이로 순성, 복성 형들을 따라 부윤 윤인함의 초모의병에 참여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에서 공을 세웠다. 1594년 3형제가 호방(虎榜)에 등과하였다. 승의부위(承義副尉)에 제수되어 군사들을 교련하였다. 이어 벼슬이 창신교위(彰信校尉)에 올랐다. 정유재란 때는 울산의 저미만천(底彌萬川)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격파하였다. 10월 서생포 만수원(萬壽院)전투에 복성과 함께 참전하여 분전하다 적탄에 맞아 장렬히 순절하였다.

【참고자료】

『동경통지』 『묘갈명』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이언춘(李彦春, 154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동천동 출생. 자는 언지. 호는 동계(東溪).

선무원종공신3등인 훈련원정 안국의 둘째 아들이다. 임란 때 마을 훈장으로 마을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이시량을 좌영장으로 삼아 예속케 하고, 아들 상립을 우영장으로 하여 의병조직을 지휘하였다. 4월 23일 울산 개운포에서 의병장 윤홍명 · 이용춘 · 장희춘 등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백운암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5월 19일 울산 달현전투에서 이시량은 좌대를 지휘하고, 아들 상립은 우대를 장악하여 밤중에 일제히 공격을 퍼 대첩을 거두었다. 12월 14일 박인국, 이여량, 류정 등과 원원사에 모여 화살을 만드는데 적이 침입하였으나 격전 끝에 왜병 70여 명을 격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1594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주부에 제수되었다. 그해 9월 24일에는 은진현감 이곡, 방어사 권응수 등이 주도하는 영천 창암전투에 나아가 류정과 합세하였다. 시현전투에서는 좌우영장 이시량과 아들 상립을 지휘하여 적을 격퇴시켰고, 12월 10일 재침한 적을 물리쳤다. 개운포전투(1592, 1594), 태화강구싸움(1593)에도 참여하였다. 1596년 3월 3일 대구의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시호로 양무가 내려졌다. 양무사를 세워 제향하며 『동계실기』가 전한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동경지』 『동계실기』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이옥주(李玉珠, 1917~2009)

사회활동가. 경남 고성 출생.

2004년 8월 울산양육원 원장에서 물러나기까지 41년간 부모를 잃거나 가정 해체 등 갖가지 사유로 고아가 된 아동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 1946년 울주군청이 귀환동포의 자녀들과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한 울산양육원에 1948년 남편 이봉석이 원장으로 취임하자 자신은 보모로 투신하였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복지 불모지였던 울산에 고아들의 안식처를 마련하였고, 굶주리고 버려진 아이들에게 자신의 7남매 자식들과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다. 1명의 아이도 양육하기 힘들던 시절에 평균 120여 명의 고아들을 돌봐왔으며, 별세 전까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줘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할 만큼 헌신적이었다. 아동복지사업 외에도 한국부인회 울산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울산지역 여성들의 위상을 높였다. 울산시민의 장(공익장), 국민포장, 울산여성문화봉사상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용신봉사상, 울산외술상(나라사랑 부문) 등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CBS 뉴스」 (2009.12.15)

『경향신문』 (1991.5.5)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이우춘(李遇春, 1543~?)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입실리 출생. 자는 진영(震英).

현감 광보(光輔)의 아들이다. 임란 때 형 응춘과 동생 봉춘, 조카 승금과 함께 창의하였다. 형을 따라 동해안 공암에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적을 무찌르는 데 공을 세웠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했다. 9월 경주성복성전에 참전하고 울산 개운포로 내려 가진을 치고 적을 방어하였다. 1593년 2월에는 태화강으로 침입하는 적을 오촌 조카 놀과 함께 화공전으로 크게 격파하였다. 10월 구강회맹에 동생 봉춘과 함께 참가하였다. 1596년 9월 제2차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도산성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무찌르는 등 여러 전역에서 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첨정(僉正)에 제수되었다. 1832년에 승정원좌승지로 추증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동경지』 『울산읍지』 『청안이씨충의록』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원희(李元熙, 1805~1872)

조선 후기 무신. 본관은 덕수. 자는 선장(善長).

여러 무관직을 두루 역임한 뒤 1858년(철종 9) 경상좌도병마절도사가 되어 병영성을 개축하였다. 다음해 우포도대장이 되었으나 돈의문(敦義門)에서 발생한 패서사건의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책임으로 파직 당하였다. 뒤에 재기용되어 1864년 황해병사를 거쳐 1866년 행호군이 되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총융청(總戎廳) 중군(中軍)으로 임명되어 강화에 파견되었다. 그 해 10월 강화도 양화진에 진을 친 뒤 프랑스군대에 대항하여 싸웠으며, 소모사(召募使)가 되어 경기일원의 장정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11월 다시 우포도대장이 되었다. 1869년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다음해 어영대장, 훈련대장,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그해 7월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871년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를 지냈다. 시호는 정희(靖僖)이다.

【참고자료】

『일성록』 『철종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이윤겸(李潤謙, 1748~1810)

조선 후기 무신. 본관은 전의. 자는 자익(子益).

북병사(北兵使), 포도대장(捕盜大將)을 지낸 이방엽(李邦曄)과 상산김씨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1775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783년 홍충도병마절도사, 1792년 충청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승승장구하여 1794년(정조 18) 6월 울산에 있는 경상좌병영의

좌병사로 부임하여 1796년 5월 27일까지 2년을 울산의 좌병영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1798년 함경북도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 1799년 함경도관찰사 구익(具翼)과 함께 서북진(西北鎭)을 장군과고보(將軍坡古堡)로 옮기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 새로운 진지 주위에 봉수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1802년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고, 좌포도대장·우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1810년(순조 10)에 평안도병마절도사에 재직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지낸 이완식(李完植)을 두었다. 중구 학성공원 북쪽 산록에 마애비(선정비)가 있다.

【참고자료】

『울산남구문화』 8집, 「삼도수군통제사 이윤겸에 대한 고찰」, 박채은, 201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이윤구(李潤求, 1929~2013)

관료. 평안남도 평양 출생.

강원도 원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는 1957년 중앙신학교 사회사업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들힐대학원을 거쳐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사회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3부터 1981년까지 유엔아동기금(UNICEF) 이집트·인도·방글라데시 대표를 수행하였고, 1981년 유엔 아동영양특별위원회 사무국장, 1991년 국제구호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의 제5대 회장,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1999년 서울평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인제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그리고 2004년 1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해 의욕적으로 대북 사업을 벌였는데, 6월에는 대형 폭발사고가 난 평안북도 룡천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2005년 모든 공직생활을 마치고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으로 내려와 살면서 8월15일부터 경상일보에 ‘이윤구 칼럼’을 썼다. 2007년 북한결핵어린이돕기범국민운동본부 총재를 맡아 대북 사업을 계속하였다.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특별위원장, 월남이상재선생기념사업회 대표회장,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이사장, 한동대 석좌교수로도 활동하였다.

국제봉사를 활발히 펼친 공로로 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 UNICEF 사무총장 표창, 198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백강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평소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1929~1968) 목사식의 대중운동을 강조하였다.

저서로는 『평화를 배팅하라』(2006), 『사랑의 빵을 들고 땅 끝까지』(2007) 등이 있다.

【참고자료】

『한겨레』,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별세」, 2013.9.1.
 『중앙일보』, 「이윤구 전 한적 총재 별세」, 2013.9.2
 『평화를 배팅하라』, 이윤구, 2006
 『사랑의 빵을 들고 땅 끝까지』, 이윤구, 2007

이은(李殷, ?~?)

조선 전기 문신. 울주지군사(蔚州知郡事). 본관은 영천.

왜구가 학성(현 울산)을 공격하여 그를 잡아갔는데, 그는 끝내 절의를 굽히지 않아 왜구들이 탄복하였다. 이에의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벼슬이 경상도관찰사에 이르렀다. 제방 쌓는 일의 이로움을 임금에게 진달(陳達)하여 두 번 감사(監司)의 직을 받았다. 제방을 쌓아 물을 끌어들이는 때 지세(地勢)를 살피지 않거나 백성들을 독촉하여 취역(就役)시켜 더러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하였다. 경상도 동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를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다. 인녕부윤(仁寧府尹)과 경기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경상도 도관찰출척사를 지냈다.

경상도 도관찰출척사로 재직(1415. 12~1416. 11)할 당시 경상도의 노비소송을 정지하라고 장계를 올렸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 한 필(匹)을 진상하였다. 1416년(태종 16) 6월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오자 이를 하례하는 전(箋)을 올렸다. 10월 주인기(朱仁奇), 공계손(孔繼孫) 등이 경상도에 가서 착호갑사(捉虎甲士)라고 속인 일이 있는데, 그가 이 일을 병조에 알리지 않았고, 임의로 군마를 징발하여 주고 성주에 가서 호랑이를 잡게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경력(經歷) 은여림(殷汝霖)과 함께 파직되었다. 74세의 나이에 상서(上書)를 많이 올려 전리(田里)로 돌아가기를 구하여 윤허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자료】

『태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군 명환」

『학성지』, 1749

『경상도선생안』, 한국국학진흥원, 2005

이응벽(李應璧, 1543~?)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차성(기장). 경북 경주 내남면 출생. 호는 송암(松巖).

습독(習讀) 만발의 아들이다. 1591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동지들과 창의하여 경주, 언양, 울산, 부산 등 곳곳의 초기 방어전에서 적을 무찔렀다. 1593년 2월에는 태화강 전투에서 분전하였다. 1596년 3월 제1차 팔공산 회맹에 참가하였다. 다음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울산의 서생포와 도산성에서 적을 맞아 싸웠다. 이어 11월 북상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관문성이 있는 당진 전투에 선봉장으로 참전하여 용맹하게 싸웠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부상을 입었다. 이때의 전공으로 병조참지(兵曹參知)에 제수되고 1629년(인조 7)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이응벽(李應璧, 1563~?)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입실리 출생. 자는 여원(汝元). 호는 칠송당(七松堂).

충순위 참봉 의감(宜堪)의 큰 아들이다. 임란 때 조카 계수와 함께 창의하여 동해안에 진을 쳤다. 먼저 와 있던 김응하·김득복·김응생·박춘석·황희안 등의 의사들과 합세하니 의기가 충천하였다. 5월, 6월 이견대와 우산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다. 1593년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1594년 5월 적의 대병이 태화강으로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 계수와 의논하여 기만전술로 적을 유인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7월 무과에 급제하여 장사랑 참봉에 제수되었다. 1596년 9월 팔공산회맹에 참가하였다. 다음해 정유재란 때 울산의 도산성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으로 형조참의에 추증되었다. 1967년에 후손들에 의해 『칠송당실기』가 간행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임진영남의병사』,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 2001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응춘(李應春, 1540~1594)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외동읍 입실리 출생. 자는 태영(泰英). 호는 퇴사재(退思齋).

홍원현감 광보(光輔)의 큰아들이다. 1566년(명종 21)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부장에 이르렀으나 곧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란 때 두 아우 우춘·봉춘과 아들 승금, 오춘 조카 삼한·눌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니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300여 명이나 되었다. 4월 23일 개운포로 상륙하는 적을 이언춘·윤홍명·장희춘 등과 합세하여 크게 격파하고, 이어 동해안 공암으로 가 적을 무찔렀다. 5월 14일 영천 창암 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무찌르고, 5월 29일 다시 의병을 이끌고 동해안 공암으로 진을 옮겨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였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9월 8일 경주성을 수복하였다. 적의 재침을 막기 위해 개운포를 지키다가 9월 21일 경주의 선도산 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격파하였다.

1593년 2월 울산 태화강으로 침투하는 적을 이여량·최봉천·윤홍명·박인국 등 의병장과 합세하여 대첩을 거두었다. 이어 불국사로 진을 옮겨 울산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적을 막았다. 10월 구강회맹에 참가하였다. 다음해 10월 9일 개운포에서 적의 대병력을 맞아 용맹하게 싸웠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순절하였다.

이러한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1832년(순조 32)에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창포당안」에 아들 승금과 함께 생절(生節) 28원(員)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퇴사재실기』(1995)가 전한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유서는 현재 울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영남인물고』 『청안이씨충의록』 『퇴사재실기』
『한국인명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편집실, 1967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일우(李一雨, 1939~2007)

연주가.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안강읍 출생.

한국연예협회 경남 울산분실 제1대(1967년)~3대(1972년) 분실장, 3대·7대 한국연예협회 울산지부장을 역임하였다. 울산지역의 악대 창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1969년 1월 중순경부터 예비군악대 창단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때 분실장으로서 홍승순 울산시장, 김정원 울산경찰서장, 울산특정경비사 박정인 장군 등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였다. 울산특정경비사는 군악대 의장용 헬멧, 예비군복, 군화를, 울산시는 트럼본 외 악기 16종을 구입해 주고, 군악대용 하복과 악세사리도 마련해 주었다. 1969년 3월 1일 예비군악대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울산 특정지구 향토예비군악대장을 맡았으며, 울산공업축제(제2회~9회) 연예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88년 6월에는 연예인 수석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후 한국연예협회 울산지부 고문을 맡아 후배 연예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2005년 지역 최초로 노인 악단인 ‘실버감보’를 결성하고 초창기 단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러한 업적으로 한국연예협회 이사장 공로 표창장(1975), 울산시장 표창장(197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가요반세기 작가동지회 감사패(1982), 울산시 문화상(1999) 등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이재덕(李載德, 1921~2012)

관료.

1978년 8월 2일부터 1980년 5월 8일까지 제9대 울산시장을 역임하였다. 정부사업으로 제3차 경제개발사업이 한창일 때 도시기반 건설의 걸림돌이 되었던 태화강 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장에서 울산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태화강은 하상이 높아 매년 1~2회 이상 홍수가 나고 시가지가 수시로 물난리를 겪었다. 이에 태화강의 하상을 낮추고 중구와 남구에 넓은 둔치를 조성함으로써 홍수를 해결하였다. 오늘날 시민의 생활환경과 생태환경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이제신(李濟臣, 1536~1583)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전의. 자는 몽응(夢應). 호는 청강(淸江).

병마사 문성(文誠)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영민하였다. 1558년(명종 13) 생원시에 합격하고, 1564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정자에 보임되었다. 뒤에 예문관 검열, 성균관 전적, 형조정랑, 공조정랑, 호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선조가 즉위하자 예조정랑으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오상상(吳祥常)이 신망하여 사은사(謝恩使)의 종사관으로 선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71년(선조 4) 울산군수로 백성을 교화롭게 다스려 형제가 쟁송을 해도 효성과 우애로써 공론을 세워 곧 그치게 하였으며, 문장(文章)과 기절(氣節)이 설곡 정포와 같았다고 한다. 「태화루」라는 시를 남겼다.

1578년 진주목사로 선정을 펴서 공이 많았으나 토호들의 모함으로 병부(兵符)를 잃고 벼슬을 파직당하여 향리에 은거하였다. 1581년 강계부사로 다시 등용되고, 이어서 함경북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그러나 1583년 여진족 이탕개(尼湯介)가 쳐들어와 경원부가 함락되자 패전의 책임을 물어 의주 인산진(麟山鎭)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시문에 능하고 글씨는 행서·초서·전서·예서에 모두 뛰어났다. 저서로 『청강집』 『청강소설』 『진성잡기(鎭城雜記)』 등이 있다. 1584년 경연관 이우직의 특청으로 신원되어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청백리에 책록되었다. 시호는 평간(平簡)이다. 양근의 미원서원과 청주의 송천서원, 그리고 울산의 양정동에 있다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된 학호서원에 제향되었다.

【참고자료】

『학성지』, 1749

이종주(李從周, ?~?)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청안.

충원공(忠元公) 양길(陽吉)의 아들이다. 하연(河濱)의 「혜리원기(惠利院記)」에 ‘지울주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울주철장관을 지냈다. 1399년(정종 1) 관직에 있을 때 행려자를 구호하기 위해 자신의 봉급에서 출연(出捐)하여 울산과 경주사이에 있던 혜리원을 조성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가문에서 소장하던 이종주 고신왕지와 이임 무과홍패(보물 제1006호)가 현재 울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중 ‘고신왕지(告身王旨)’는 왕이 관직을 제수하는 사령왕지(辭令王旨)로 총 4행의 초서체로 되어 있으며, ‘조선왕보(朝鮮王寶)’라고 직인되어 있다. 왕지는 ‘임금이 내리는 분부’를 말하며, 조선시대 세종 때 이르러 교지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고신(告身)은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으로 조선 전기의 관제 및 인사행정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이임 무과홍패’는 1435년(세종 17)에 이종주의 손자 칠원현감 이임에게 발급된 무과급제를 인정하는 홍패이다.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발급했던 급제증으로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 연구와 세보(璽寶) 사용의 변

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자료】

『청안이씨세보』

『2013 울산의 문화재』, 울산광역시, 2013

이종천(李鐘天, 1890~1928)

사회활동가. 경남 양산 출생. 호는 춘성(春城).

통도사에서 『취산보림』을 발간했고 서울에서 불교청년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한때 부산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진주에서는 포교사로 활동하였다. 옥천사 승려신분으로 청년운동에 뛰어들었다. 1923년 무산계급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선청년당 대회 개최 때 집회허가를 얻기 위한 신고인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혁신청년운동가들이 1923년 이전의 개량적인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을 사회주의운동노선으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청년당사(靑年黨社)’와 잡지 『청년당』을 발간하려고 할 때 동지규합에 힘썼다. 청년운동가로서의 활동상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당시 울산의 경찰이 연지(蓮池)를 개인에게 대부하여 면민의 원성을 샀는데, 그가 총독부에 적극적으로 진정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22.5.7, 1922.7.12)

『울산유사』, 김석보, 1978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김승, 2003

이지대(李之帶, ?~?)

조선 전기 무신. 호는 죽은(竹隱).

고려 말 문하시중이었던 익재 이제현의 4세손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경상 수군만호 역임시 왜구를 격퇴한 공이赫赫한 것으로 전한다.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에 천연기념물 제64호로 지정된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가 있는데, 한성부 관윤을 지낸 그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와 연못가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은행나무 옆에는 그의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연못은 논과 밭으로 변하였으나, 나무는 신목(神木)으로 알려져 아들을 낳으려는 부인들이 밭 부분의 썩은 구멍에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경주시 명활산의 하배동에 묘가 있다.

【참고자료】

『두서면지』,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이척(李拓, 1930~2009)

무용가. 본관은 경주. 서울 중구 만리동 출생. 본명은 이상일.

박용호 무용학원과 장추화 무용학원에서 춤을 배웠다. 춤추는 것이 좋아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 영창중학교 주간반에서 야간반으로 옮겼다. 6·25전쟁 때는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 김진걸, 이매방 등과 군중 공연을 다녔다. 전쟁이 끝나자 그 자신의 이름을 단 학원을 개원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입시생들을 지도하였다. 울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64년 이척무용연구소를 개원하고 문하생들에게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기계체조를 가르치면서이다.

울산의 무용은 1960년대 중반부터 우리 고유의 전통무용의 전승과 현대무용의 개발에 뜻을 둔 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중소도시로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울산 무용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말년까지 후진 육성과 무용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썼다. 초대~3대(1986~1992년) 한국무용협회 울산지부장을 지냈다.

1978년 11월 4일 경남지부 회원으로 한국무용협회 주최 무용대공연 참가, 1980년 3월 3일 전국무용인 합동공연회 참가, 1982년 10월 16일 경남무용인 합동공연회에 참가하였다. 1987년 11월 13일 연극협회·무용협회·연예협회가 공동주관한 뮤지컬 ‘동남단에선 제일이로고’ 공연을 안무구성하였다. 1991년 12월 29일 한국무용협회 주최 전국무용제전 ‘한량무’ 참가(국립중앙극장 대극장), 1992년 9월 23일~10월 1일 제1회 전국무용제 경남대표로 참가, 1992년 12월 7일 한국무용협회 주최 지방무용인 초청공연 ‘살풀이’ 등을 참가하면서 실력을 뚜렷이 드러내었다.

1992년 10월 1일 월간 『무용세계』(10월호)는 표지 인물로 울산무용계를 개척해 온 울산 무용의 대부 이척을 등장시키고 대서특필하여 실력을 인정하였다. 1991년 6월 1일에는 울산시민의 장(문화예술장)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경상일보』, 「무거통신-무용가 이척 선생이」, 2008.4.2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이충익(李忠翼, 1804~?)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연안. 자는 사신(士信).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58년 6월 22일의 정사에서 강원도 원주목판관에서 옮겨 본직에 임명하니 8월 1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3년 동안 백성을 구휼하고 폐단을 교정한 은혜에 이민(吏民)이 다 기리고 이웃 고을이 찬미하였다. 1860년 2월에 능주목으로 옮겨 임명하니 온 고을의 백성이 모두 유임하기를 원하였으나 형세가 어쩔 수 없었다. 각기 위하여 돈을 내어 거사비와 비각을 가학루 동쪽에 세웠다.’

【참고자료】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이팽수(李彭壽, 1559~1596)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청안. 경북 경주 안강읍 산대리 출생. 자는 미수(眉叟). 호는 두촌(杜村).

거(据)의 아들이다. 임란 때 이웃 장정들을 모아 창의하여 안강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적을 무찌르니 경상좌병사 박진이 공을 북병장으로 임명하였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이어 경주성복성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1594년 무과에 급제하고, 좌병사 박진을 도와 여러 곳의 전역에서 역전하였다. 1596년 연해의 적이 다시 준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생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1월 4일 38세의 나이로 순절하였다. 시신을 찾지 못하여 초혼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1783년(정조 7) 병조참판에 추증되고 경주 사람의 공의로 덕산서사를 창건하여 제향하였다. 1933년에 『두촌실기』가 간행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동경지』 『두촌실기』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이학(李鶴, ?~1598)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자는 행집(杏輯). 호는 겸헌(謙軒).

참봉 자온(自溫)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1598년 12월 22일 관문성 부근에서 적을 만나 분전하다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수문장(守門將)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이효정(李孝貞, 1913~2010)

사회주의운동가. 경북 봉화 출생.

박두복과 결혼하였다.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만세를 부르고 종로경찰서에 잡혀갔다. 3학년 때는 시험을 거부하는 백지(白紙)동맹을 주도해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1933년 9월 21일, 종연방직[鐘紡] 경성제사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이재유의 지도를 받아 여직공들을 선동하여 총파업을 시도하였다. 1935년 11월, 서울에서 이재유·권우성(權又成)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경성지방좌익노동조합 조직준비회’에 가담하여 동지 규합과 항일의식 고취에 주력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약 13개월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해방이 되자 남편을 따라 울산시내로 나와 부녀동맹회관에서 살면서 남편이 간부로 활동하는 건국준비위원회 울산지부에서 활동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남로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기도 하였던 남편이 월북하였다.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대 친척들이 울산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많이 죽었고, 시동생은 간첩으로 몰려 자살하였다.

2남 1녀의 아이들과 함께 남한에 남겨졌으나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 찍혔다. 수시로 찾아오는 형사들 때문에 학교 교사직에서도 쫓겨났다. 과일행상 등을 하며 세 아이를 키웠으나, 취직하는 곳마다 형사가 따라붙어 쫓겨나기 일쑤였다. 이사 가는 곳마다 감시가 붙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다. 1950년대 말 남편이 남파간첩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요시찰인물이 되었다. 영장없이 수시로 사찰기관에 연행되어 고문과 취조를 당하여 팔목이 부러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1980년대 '6·10 민주항쟁'으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뤄지자 그녀에 대한 사찰도 수그러들었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재조명되면서 93세 때인 2006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건국포장을 받았다. 시집으로 『회상』(1989), 『여든을 넘기며』(1995)를 발간하였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33.10.19, 1933.10.21, 1935.12.28)

『조선일보』 (1936.12.29), 『조선중앙일보』 (1935.11.8)

『결정서(1936. 5. 13, 7. 14, 11. 11)』, 경성지방법원

『사상에 관한 정보 6』, 「경동경고비(京東警高秘) 제3248호-노동쟁의 배후선동 기타에 관한 건」, 1933. 10. 26

『사상에 관한 정보 7』, 「경서고비(京西高秘) 제8613호의3-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발각에 관한 건」, 1934. 2. 7

『신분장지문원지』, 경찰청

『피의자 소행조서(1935. 12. 25)』, 동대문경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7권, 국사편찬위원회, 1988

이후석(李後奭, 1598~1666)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전주. 자는 군보(君保).

이영언·정문부의 문인으로 1624년(인조 2)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28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등을 지냈다. 1641년 예조정랑으로 있을 때 광해군이 유배중에 제주도에서 죽자 호상관(護喪官)이 되어 현지에 가서 장례를 관리하였다. 1647년 병조정랑 재직 때 가족에게 나례(儻禮)를 구경시키기 위해 수직군(守直軍)을 동원, 사사로이 가마꾼[轎軍]으로 사용(私用)한 사실이 드러나 파직되었다. 뒤에 상의원정(尙衣院正)·통례원 좌통례(通禮院 左通禮)·승문원 판교(承文院 判校) 등을 지냈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660년 4월 4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1661년에 흉년이 전국에 걸쳐 들었는데 1662년 봄에 진휼할 때 부사가 몸소 나서서 구휼의 어짐을 극도로 베풀었다. 성품이 맑고 곧아 있는 그대로 하고 밖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 어사 남구만(南九萬)이 죽을 끓이는 쌀이 희지 않음을 지적하고 아

되어 체직되니 고을 사람이 모두 아쉬워하고 추모하였다. 남문 밖에 과거장을 설치하였다.’

【참고자료】

『국조방목』 『국조인물고』 『대동야승(大東野乘)』 『인조실록』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임원중(林元重, 1930~2004)

중구 병영2동(서동) 거주.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이다. 중구 병영동은 조선시대의 중요 군사기지로 각종 군사용 무기와 생활도구 등 군수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바탕으로 당시 철 작업 기술이 전수되어 쇠를 다루던 대장간들은 생계수단으로 담뱃대와 은장도 등을 만들었다. 병영에서 은장도공방을 하였던 임인출에게 공예기술을 전수 받아 향토전통사업의 맥을 이었다. 전체 조형이 매우 단아하고 매·난·국·죽 그림을 음각으로 표현한 장도를 제작하였다. 우리나라 전통공예 문화계승의 능력을 인정받아 1993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았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받아 평생을 향토 전통공예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재 아들 임동훈이 대를 잇고 있다.

【참고자료】

『울산문화재총람』, 울산문화원, 1994

임훈(林薰, 1500~1584)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은진. 자는 중성(仲成). 호는 자이당(自怡堂), 고사옹(枯查翁), 갈천(葛川).

진사 득蕃(得蕃)의 아들이다. 1540년(중종 35)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독서(讀書)하였고, 1553년(명종 8) 관천(官薦)에 의하여 사직서참봉이 되었다가 다음해에 집경전참봉으로 옮겼다. 1555년 전생서(典牲署) 참봉이 되었다가 얼마 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80세가 넘는 노부를 봉양하였다. 1566년 관찰사의 추천으로 효행의 정려를 받았다. 그해 언양현감에 부임하여 유학풍(儒學風)을 진작 시키고 좋은 정책을 써서 현민을 편안하게 하여 그 소문이 조정까지 알려졌다. 뒤에 장악원정(掌樂院正)을 거쳐 광주(光州)목사를 지냈고, 1582년 장례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안의(현 함양군)의 용문서원(龍門書院)에 제향되었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효간(孝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저서로 『갈천집』이 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자장(慈藏, 590~658)

신라 후기 승려. 속명은 김선종랑(金善宗郎). 법명은 자장(慈藏).

아버지는 무림(茂林)이다. 계를 받고 불교에 귀의하는 법도를 확립했으며, 불도에 입문하는 자를 위해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하고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았다. 진골 출신으로 소관(蘇判)의 관직에 있었던 무림은 아들을 낳으면 출가시킬 것을 축원하여 천부관음(千部觀音)을 조성한 뒤 그를 낳았다. 어버이를 여윈 뒤에 처자를 버리고 깊은 산에서 고골관(枯骨觀)을 닦았다. 왕이 재상으로 기용하려 하였으나 “내 차라리 계(戒)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 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吾寧一日持戒死 不願百年破戒而生).”라며 목숨을 걸고 응하지 않았다. 이에 왕이 출가를 허락하였다.

636년(선덕여왕 5) 승실(僧實) 등 제자 10여 명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청량산(淸涼山)의 문수보살상에 기도하고, 가사(袈裟)와 부처의 발우, 불두골(佛頭骨) 한 조각과 함께, 사구계(四句偈)를 받았다.

당태종의 배려로 장안(長安)의 승광별원(勝光別院)에 머무르면서 명성을 얻어 대중이 따르자,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의 동쪽 산록으로 들어가 3년 동안 수도하였다. 다시 장안으로 가서 태종에게서 두터운 예우를 받았다. 643년 선덕여왕이 당태종에게 자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신라로 돌아왔다. 이때의 일에 대해 『삼국유사』에는 643년 자장이 하곡현(현 울산)의 남쪽 언덕에 자장이 태화사를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의 「대화루시서」에는 자장이 그해에 울산의 사포(絲浦)에 배를 대고 그 곳에 태화사를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645년 황룡사(皇龍寺)에 9층탑을 세우고 제2대 주지로 취임하였다. 649년(진덕여왕 3)에는 국가의 복식을 중국의 제도와 같게 하기를 권하여 실행을 보았으며, 다음 해에는 당나라 연호를 쓰도록 하였다. 또한, 궁중에서 대승론(大乘論)을 설(說)하고, 황룡사에서 보살계본(菩薩戒本)을 강(講)하여 불교의 흥통(弘通)을 통한 국민 교화에 힘썼다. 불교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시험과 계(戒)를 통해 승려들을 관장하고 순검사(巡檢使)로 하여금 지방의 사찰을 살피도록 하였다. 특히, 신라가 불교와 인연이 깊은 불국토의 터전이라고 믿었는데, 사상의 대표적 사례가 오대산의 신라적 설정이다. 『화엄경』에 따르면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중국에 있다. 그러한 오대산이 신라에도 있으며, 문수진신(文殊眞身)과 5만의 여러 불·보살이 머무르고 있다는 신앙을 신라에 전하였다.

저서로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 『아미타경의기(阿彌陀經義記)』 『사분율갈마사기(四分律羯磨私記)』 『십송율목차기(十誦律木叉記)』 『관행법(觀行法)』 등이 있으나 현재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일본 승려 양충(良忠)의 『법사찬사기(法事讚私記)』 중에 자장의 『아미타경의기』에서 옮긴 구절이 남아 있다.

【참고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당고승전(唐高僧傳)』

장석룡(張錫龍, 1823~1907)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인동. 자는 진백(震伯). 호는 유현(遊軒), 운전(雲田).

1846년(헌종 12)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을 지내고, 다음해 사헌부 지평과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다. 1848년 증광문과회시(增廣文科會試)의 시관(試官)을 거쳐 춘추관 기사관이 되었다. 해남현감으로 있다가 1849년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854년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등의 직을 역임하고, 1857년 홍문관 교리 등을 거쳐 현풍현감에 제수되었다. 1864년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당시의 시폐(時弊)를 지적하였다. 이 해에 대사간, 예조참의, 공조참의, 경주부윤이 되었으나 곧 귀향하였다. 1875년(고종 12) 울산도호부사가 되어 울산민란을 수습하였다. 1877년에는 좌승지가 되어 서울로 떠났다. 77세에 공조판서, 이조참의, 80세인 1892년에 궁내부특진관을 지냈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75년 5월 18일 임금이 특별히 임명하고 말을 주어 보내니 6월 14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였다. 3년 동안 재임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다하여 5~6년 체납한 세금을 거두어 상납하면서 조금도 형을 함부로 주지 않았고, 24개월간 유학을 흥하게 하고 교화를 번창하게 함에 이민(吏民)이 다 칭송하였다. 1877년 5월 15일의 정사에서 승지로 부름을 받으니 읍인이 거사비를 가학루 서쪽에 세웠다.’

저서로 『유현집(遊軒集)』 11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자료】

『유현집』 『철종실록』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장원국(張元國, 155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인동. 경북 경주 충효동 출생. 다른 이름은 막동(莫同).

경주 입향조 훈(勳)의 손자이고 원기(元紀)의 아우이다. 임란 때 형 원기와 함께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를 위한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후 부산, 울산 등지의 전역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때의 전공으로 우림위사(羽林衛士)에 제수되고, 우림으로 선무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장원기(張元紀, 1550~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인동. 경북 경주 충효동 출생.

경주 입향조 훈(勳)의 손자이다. 임란 때 동생 원국과 함께 창의하여 초기 경주 방어전의 여러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고 부산과 울산 등지의 전투에도 참전하여 적을 물리쳤다. 1597년 7월 21일의 화왕산회맹에 참가하고, 12월에는 울산 도산성전투에서 분전하다가 순절하였다. 임란 후 참봉(參奉)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장장춘(張長春,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인동.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웠다. 「창표당안」에 유사장보(有司章甫)로 만도(晩到) 15월(員)가운데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읍지』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전영방(田永芳,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담양. 충남 홍성군 결성면 출생. 호는 송계(松溪).

선전관 요산(要山)의 아들이다. 장성한 후 울산으로 입향하였다. 임란 때 울산읍성과 경상좌병영성이 함락되자 4월 23일 울산 의병들이 동대산의 기박산성에서 결진·편대할 때 두 손자(삼과 근)와 함께 마을 장정들을 모아 참여하였다. 훈도별장(訓導別將)의 직임을 맡아 종군하였다. 1592년 6월 문천회맹에 참가하였다. 경주 방어전투 및 울산지역 여러 전장에서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수문장(守門將)에 제수되었다. 뒤에 선전관을 지냈다. 전쟁이 끝난 뒤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향교의 부지를 제공하는 등 향풍의 교화와 발전에 힘썼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경주읍지』 『울산읍지』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전화앵(轉花鶯, ?~?)

나말여초 명기(名妓).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전화앵의 묘가 있는 열박령은 경주부의 남쪽 30리에 있다’는 기록과 노봉 김극기의 전화앵을 기리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육당 최남선이 쓴 『경주읍지』, 『동경통지』(1933)에 ‘전화앵은 고려 명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경주일대에서 전승되어오는 구비자료에도 ‘신라가 패망하자 고관대신들이 경순왕과 함께 고려에 귀부(歸附)하기 위해 개경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이 즐겨 찾아 아끼던 기생 전화앵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전화앵은 되레 “대감들이나 가서 잘 사시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신라를 지키겠소”라며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화앵은 1996년 방송인 이양훈이 발굴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학춤보존회에서 전화앵의 춤과 노래를 기리는 ‘전화앵제’를 거행하였다. 2011년부터는 울주문화원에서 그 뜻을 이어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창기와 명기의 애환』, 이현희, 1988

『울주 천년 인물을 만나다』, 울주문화원, 2013

전후장(全厚章, 1705~1772)

본관은 옥산(경산). 자는 군장(君章).

산행장(山行將)으로서 호랑이를 잡아 1746년 절충장군(折衝將軍)에, 1757년 가선대부(嘉善大夫)직을 받았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조선시대 목장 주변은 호랑이로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산행장을 2명씩 배치하여 호랑이를 사냥하였다. 그 중 호랑이를 잡아 특별승진한 산행장은 모두 7명으로, 전후장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1772년 10월 8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11월 6일 울산도호부 동면(東面) 남옥(南玉)에서 서쪽으로 3리쯤 되는 서쪽 능선에 묻혔다. 동구 남목 불당골[谷]에는 그의 행적을 기리는 착호비가 남아 있다.

【참고자료】

「착호비문」 『승정원일기』

『동구 100년의 발자취』, 울산광역시 동구, 2011

정공청(鄭公淸, 1563~?)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평동 출생. 자는 수백(守伯). 호는 시산(矢山).

증호조참판 광두(光斗)의 아들이다. 임란 때 아들 호신과 함께 창의하여 국왕이 몽진해 있는 평양에서 호종(扈從)하였다. 국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자 경주로 귀향해서, 1594년 7

월 경상좌병사 고언백이 지휘하는 안강전투에 참전하였다. 울산의 서생포, 동래의 용천, 부산의 다대포전투에도 참전하여 역전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의 막하에서 공을 세우고, 1599년 4월 어모장군 행가덕진관(行加德鎭管) 조라포수군만호(助羅浦水軍萬戶)에 제수되었다. 1601년 5월 무과에 급제하여 진도군수를 역임하고, 훈련원정으로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었다. 1614년(광해군 6) 임치도진(臨淄島鎭)수군첨절제사를 지냈다.

임란 당시 착용하고 사용하였던 갑옷, 투구, 도검 등이 1979년에 '정공칭 유품(중요민속문화재 제38호)'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울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정기룡(鄭起龍, 1562~1622)

조선 중기 무신. 곤양정씨의 시조. 어릴적 이름은 무수(茂壽). 자는 경운(景雲). 호는 매헌(梅軒).

1580년(선조 13) 고성에서 향시에 합격하였다. 1586년 무과에 급제한 뒤 왕명에 따라 기룡으로 이름을 고쳤다. 1590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신립(申瑬)의 휘하에 들어가 다음해에 훈련원 봉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별장으로 승진하여 경상우도방어사 조경(趙倣)의 휘하에서 종군하며 방어에 계책을 제시하였다. 거창싸움에서 왜병 500여 명을 격파하고, 금산(金山)싸움에서 포로가 된 조경을 구출하였다. 곤양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왜병의 호남 진출을 막았다. 이어 유병별장(游兵別將)을 지내고, 상주목사 김해(金澮)의 요청으로 상주판관이 되었다. 왜병과 대치, 격전 끝에 물리치고 상주성을 탈환하였다.

1593년 전공으로 회령부사에 승진하고, 다음해 상주목사가 되어 통정대부에 올랐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토왜대장(討倭大將)으로서 고령에서 왜병을 대파하고, 적장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이어 성주·합천·초계·의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고 절충장군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승진해 경주·울산을 수복하였다. 1598년 명나라 군대의 총병(摠兵)직을 대행해 경상도 방면에 있던 왜병의 잔적을 소탕하였다. 이로 인해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오르고, 다음해 다시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1601년 경상도방어사로 나가 다시 침입해올지 모르는 왜병에 대처하였다. 다음 해 김해부사, 밀양부사, 중도방어사(中道防禦使)를 역임하였다. 그 뒤 용양위부호군 겸 오위도총부총관을 지냈고 경상좌도병마절도사 겸 울산도호부사를 2차례 역임하였다.

1610년 상호군에 승진하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있다가 1622년 통영 진중에서 죽었다. 상주 충의사(忠毅祠)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참고자료】

『광해군일기』 『난중잡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송자대전(宋子大全)』
『학사집(鶴沙集)』 『해동명장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정인성(鄭寅星, 1911~1996)

사진작가. 경남 양산 출생.

1935년 울산사진연구회를 창립하여 사진 창작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순수사진활동을 하였다. 1935년 울산사진연구회 창립회원전, 1952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전, 1983년 한국현대사진대표작전, 1994년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 등 여러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1971년 정인성 회고사진전, 2001년 정인성 유작전, 2011년 정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개최되었다.

1980년 『정인성 사진집 1936~1975』을 발간하였다. 1981년 제19회 한국사진협회 문화상(출판저작상) 수상, 1982년 현대사진문화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경성전문대학 등 여러 학교에서 사진학을 강의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정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 정인성 부산사진의 여명」 팜플렛

정주영(鄭周永, 1915~2001)

기업인. 본관은 하동. 강원 통천 송전면 아산리 출생. 호는 아산(峨山).

할아버지의 서당에서 『천자문』 등 한학을 익혔고, 1924년 송전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934년 쌀가게인 복흥상회에 취업하였고, 1938년 쌀가게를 물려받아 경일상회로 개업하였다. 1939년 조선총독부의 전시체제의 영향으로 폐쇄 당하였다. 1940년 3월 합자회사로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공장을 신설했으나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이 추진되면서 서비스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1946년 적산 일부를 불하받아 그 자리에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세우고, 1947년에는 같은 자리에 현대토건사를 설립하였다.

1950년 서울 중구에 ‘현대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57년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에 참여하였다. 1964년 단양시멘트공장을 설립하고 1964년에는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해외건설분야에 진출하였다. 1967년 12월 29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포드와 기술 제휴 후 ‘코티나’라는 승용차를 생산하였다. 1969년 현대건설 회장에 취임하였고,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장으로 당선되어 일선 대학의 교수 및 교육관계자들과 지역사회학교운동에 나섰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1971년 2월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하였다. 1972년에는 울산의 ‘현대조선소’ 기공식과 동시에 유조선 건조를 시작하

고, 잇달아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76년 최초의 국산자동차인 포니를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아세아상선주식회사’(현 현대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77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장으로 피선되었고, 울산공과대학(울산대학교의 전신) 재단이사장에 취임하였다. 7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해 농어촌에 현대식 병원을 짓는 일과 장학사업, 연구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88서울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올림픽 개최지를 서울로 확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4년 서산 천수만 간척사업때 유조선을 가라앉혀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주영공법’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다. 1987년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 취임하고, 1989년 한·소 경제협회장으로 취임하여 북방개척에 나섰다. 1992년 정치에 뛰어 들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제14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되었다. 이후 14대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하였다.

1998년 소떼 1001마리를 몰고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금강산관광을 추진하는 등 대북사업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1년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을 마감하였다.

1975년 경희대학교 명예공학박사를 시작으로 1982년 조지워싱턴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등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국민훈장 동백장, 1982년 자이레 국가훈장, 1987년 제1회 한국경영대상, 198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1998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훈장, 1998년 커맨더 위드 스타 (노르웨이 왕실 최고 공로훈장), 2001년 제5회 만해상 평화상, 2008년 제4회 DMZ 평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 11월 미국의 타임지에 의해 아시아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동생 정세영은 1967년 현대자동차 초대사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장을 열었다. 현대 포니를 개발해 ‘포니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정주영과 함께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의 양대축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1991

『현대50년사』, 현대그룹, 1997

『이땅에 태어나서』, 정주영, 1998

조경(趙擎, 1696~?)

조선 후기 문신. 본관 풍양(豊壤). 충청도 서천 거주. 자는 주천(柱天)

1757년 10월 11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여 아병당(衙兵堂)을 건축하였다. 큰 기치(旗幟) 38면과 초대장(哨隊長)의 기창(旗槍)을 특별히 갖추었다. 또 속오군의 기치 및 군기로 납 탄알 2만개, 긴 화살 2부(浮)를 특별히 갖추었다. 1758년 11월 13일 정사에서 사간으로 옮겨 임명되어 같은 달 28일에 서울로 출발하였다.

1759년(영조 35) 영남어사(嶺南御史) 이담(李潭)이 ‘울산에 양씨(梁氏) 여자가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을 끌어들이는 것이 무망(誣罔)한 데서 나왔는데도 그 당시에 부사로서 혼미하고 잘못하여 옥사(獄事)를 이루었다'고 임금께 아뢰어 울산 전 부사(府使) 조경(趙擎)을 잡아다 조처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영조실록』에 전한다.

【참고자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조재선(趙載選, 1713~1774)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풍양. 서울 출생. 자는 택지(擇之).

아버지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전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全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철명(哲命)이다. 작은아버지 택명(宅命)에게 출계(出系)하였다. 1738년(영조 14) 식년시에 생원 3등 37위로 합격하였고, 신계현령, 밀양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752년(영조 28) 효순현빈(孝純賢嬪)을 세자의 묘소에 부장(祔葬)할 때 집사(執事)의 자격으로 예식에 참여하여 말과 활을 하사받았다.

『울산부선생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764년 6월 5일의 정사에서 황해도 배천군수에서 옮겨 울산도호부사에 임명하니 7월 28일에 부임하였다. 수레에서 내리자 먼저 민폐를 살폈으며, 변통(變通)하는데 뜻을 두었다. 절목을 작성하여 본전은 남기고 이자를 취하여 쓰임에 보태게 하니 온 경내의 상하 백성과 향리, 노비가 춤추고 기뻐하며 기리는 소리가 그득하였다. 막대한 돈으로 백성의 역을 도운 것은 읍을 설치한 이래 처음이었다. 6년의 임기를 마친 것도 또 읍을 설치한 이래 처음이었다. 어찌 청덕애민비를 세워 만고에 전하려 하지 않았겠는가만 조정의 금함이 엄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넓고 큰 은택은 영원히 잊기 어려워 출발할 때에 부중(府中)의 각 청과 온 고을의 상하 백성들이 날마다 다투어 전례를 올려 경주와 영천의 경계에서 그쳤다. 아아! 옛적의 소부(召父)와 두모(杜母)가 어찌 이보다 낫겠는가?'

울산도호부사 퇴임 후 고을사람들이 곳곳에 선정비를 세웠다. 북구 강동동 달골마을 입구 도로변, 중구 학성동 학성공원 북쪽 산록,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반계마을 뒷산(운흥사지 입구)에 남아 있는데, 3기 모두 마애비(磨崖碑)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울산남구문화』 7집, 「울산도호부사 조재선에 대한 고찰」, 박채은, 200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조종남(趙宗男,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함안.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고 관관에 제수되었다. 「창표당안」에 만도(晩到) 15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지수(池守,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충주.

임란 때 창의하여 여러 전역에서 용맹하게 싸운 기록이 보인다.

『선조실록』 권94, 1597년(선조 30) 11월의 기록에 의하면, 북상하였던 가토오 기요 마사[加藤清正]의 군은 조명연합군에 밀려 서생포와 울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 때 적들은 울산, 양산 등지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상좌병사 성윤문을 군관으로 훈련원관관인 이경연 등을 장수로 삼아 경주부윤 박의장, 울산군수 김태허·언양현감 김흔 등에게 전령하여 당부하였다. 그해 11월 2일 성황당에 모여 있는 적을 상대로 매복전을 펼쳐 선봉은 물론 그 휘하의 군사를 무찔렀는데, 목 벤 것이 24급이었다. 이 날 태화강 배 위의 적과 개운포영성 동문밖에 결진해 있던 적이 합세하여 진격해왔다. 수적인 열세로 일단 물러났다. 김막실·박순동·오수량·김금복 등과 분전하였으나 총상을 입었다.

임란 후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선무원종공신녹권』에는 정병으로 나타나고, 호적대장에는 ‘가선대부로 온북면(옛 온양읍의 북부지역)에 후손이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무원종공신녹권』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을묘)조

지통(智通, 655~?)

신라 후기 승려.

의상십철(義湘十哲), 즉 의상의 10대 제자 가운데 일인이다. 이량공(伊亮公)의 하인으로 지내다가 7세 때 까마귀가 날아와 영축산에 있는 낭지(朗智)의 제자가 되라고 하였다. 영축산 골짜기에서 보현보살을 만나 계품(戒品)을 받고 낭지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영축산 동쪽에 있을 때 영축산 서북쪽의 반고사에 있던 원효와 자주 접촉하였고, 원효는 그를 위하여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저술하였다. 그 뒤 의상의 제자가 되어 화엄종을 선양하였다. 의상이 소백산 추동에서 90일 동안 3,000명의 대중에게 『화엄

경』을 강의하자 그 요지를 뽑아 『추동기』 2권을 지어 세상에 유포하였다. 『열반경라습역출십사음변』 1권을 저술하였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울주군 청량면 울리에 ‘지통골’이라는 지명이 있다.

【참고자료】

『삼국유사』

차경규(車擎奎, 1916~1997)

기업인.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울산상사주식회사 사장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였다. 울산상공회의소 상임의장 활동을 통해 울산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울산로타리클럽 회장을 맡아 국제민간외교에 기여하였다. 울산시 자문위원장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민주공화당 울산지구 위원장과 국가재건운동 울산지부장, 울산문화운동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울산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참고자료】

『울산울주향토사』, 울산울주향토사편찬위원회, 1978

천만리(千萬里, 1543~?)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중국 영양(潁陽). 자는 원지(遠之). 호는 사암(思庵).

서촉(西蜀) 중북산 천고봉 만인암 아래 살았다 하여 성을 천씨라 하였다. 9세에 외삼촌 전륜(錢倫)에게 의탁하여 공부하였다. 1571년 무과에 급제하고, 1575년 총절사(總節使)가 되어 몽고군을 격퇴하여 내직인 내위진무사(內衛鎭撫使)가 되었다. 그러나 남의 참소를 입어 양릉에 귀양살이하였다.

귀양에서 풀려나 태청전수위사(太淸殿守衛使)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이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때 조병영량사(調兵領糧使)로서 아들 상(祥), 희(禧) 형제와 이여송을 따라 조선으로 왔다. 평양전투를 비롯하여 광산·동래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는 마귀(麻貴)와 울산에서 전공을 세웠다.

왜란이 끝나자 1600년(선조 33) 8월 만세덕·이승훈은 귀국하였으나 따라가지 않고 조선에 머물러 살았다. 선조는 그의 전공을 생각하여 화산군(花山君)에 봉하고 전 30결을 급복(給復)하였다. 그의 아들 상도 한성윤에 승진시켰다.

저서 『사암선생문집』에 시 44수와 문 2편이 전한다. 고성의 호암사(虎巖祠), 청도의 황강사(皇岡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참고자료】

『사암선생문집』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최봉천(崔奉天, 1564~1597)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황오동 출생. 자는 국보(國輔). 호는 운암(耘庵).

순릉참봉 증 한성우윤 삼택(三宅)의 아들이다. 1588년(선조 21)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란 때 조카 계중, 칠촌 조카 진립과 함께 창의하여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가하고, 7월 27일 영천성 탈환전에 참전하였다. 8월과 9월 경주성복성전에 나가 선봉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10월에는 이극복과 함께 언양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적을 열박산에서 크게 무찔렀다. 1593년 2월 울산으로 달려가 태화강에서 적을 물리쳤고, 모화, 아화, 자인 등지에서 적을 물리쳤다. 이러한 공으로 1594년 훈련원첩정에 제수되었다. 훈련원부정, 경상좌도수군우후 등을 지내고 절충장군에 올랐다. 정유재란 때 다시 출전하여 여러 전역에서 분전하다 9월 29일 영천 창암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1822년(순조 22)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운암실기』(1959)가 전한다.

【참고자료】

『동경지』 『운암실기』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최시명(崔時鳴, ?~?)

본관은 전주. 호는 효림(曉林).

1898년 언양군수로 와서 직전 군수 정금조가 작천정을 건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탄하고, 작패천 바위에 작천정 건립 의지의 글을 새겼다. 그 일을 계기로 1900년 작천정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1902년 음력 7월에 준공하였다. 작천정의 건립으로 언양지역의 시사(詩社: 시인들의 모임)는 더욱 활발해 졌다. 반고서원 유허비를 건립하는 등 지역의 유풍(儒風)을 진작하는 데에도 여러 일을 하였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최양업(崔良業, 1821~1861)

천주교 신부. 본관은 경주.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출생.

아버지는 경환(京煥)이고, 어머니는 이성례(李聖禮)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독실한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다. 1836년 초 조선 입국에 성공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모방(Maubant,R.) 신부에 의하여 김대건·최방제와 함께 조선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37년 6월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1842년까지 신부수업을 받다가 난징조약(1842)이 체결로 일이 어긋나 갑자기 귀국길에 올랐다.

당시 조선은 1839년의 기해박해가 있었던 직후라 수차례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849년 4월 상해의 강남교구장 마레스카(Maresca) 주교에 의하여 사제품을 받고, 김대건에 이어 두번째 조선인 신부가 되어 12월 조선입국에 성공하였다. 천주교가 다소 묵인되던 철종 연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전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신박해 때는 박해를 피해 언양의 죽림굴에서 3개월간 숨어 지냈다. 이때 언양지역 공소(公所)를 옮겨 다니며 성사를 집행하고 포교를 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그의 서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김대건 신부와 함께 ‘피의 증거자(순교)’와 ‘땀의 증거자(순직)’로 지칭되었으나 김대건의 순교에 가려 활동과 업적이 조명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는 한국천주교회사연구에 중요한 자료 가치가 있는 19통의 라틴어 편지를 남기었다. 또한 자기 부모의 순교사적을 비롯하여 순교에 관한 증언과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들은 다블뤼(Daveluy, M.N.A.) 보좌주교가 자신의 비망록에 수록하였고, 교회사가 달레(Dallet, C.C.)가 『한국천주교회사』에 수록하였다. 1864년 목판본으로 『성교요리문답』을 간행하였고 『천주성교공과』 기도서를 번역, 간행하였다. 이 밖에 「사향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등의 천주가사(天主歌辭)를 저술하였다. .

【참고자료】

『한국천주교회사』 중·하,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1980

『천주가사의 연구』, 김진소, 1981

『최양업신부와 교회촌』, 김옥희, 1983

『한국교회사연구총서』 3, 「최양업신부서한집」, 임충신·최석우 역주, 19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울산대곡박물관, 2013

최제우(崔濟愚, 1824~1864)

동학 창시자.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출생. 어릴적 이름은 복술(福述), 제선(濟宣). 자는 성묵(性默). 호는 수운(水雲), 수운재(水雲齋).

울산은 최제우의 부인 울산박씨의 고향으로 13세에 결혼하였다. 5세에 어머니를, 16세에 아버지를 잃고, 17세에는 스승인 최림까지 세상을 떠났다. 큰 불로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방황하였다. 21세 되던 해(1844년)에 처가가 있는 울산 유곡동으로 생활 터전을 옮겼다. 16년간 이곳을 생활의 거점으로 삼고 행상길에 나서 이곳저곳을 유랑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을 목격하였다. 1854년 유랑을 청산하고 다시 유곡동으로 돌아와 여시바윗골에 따로 초가집을 짓고 수행에 정진하였다. 이때 동래 부근에서 서학을 하는 경주최씨 성을 가진 사람과 담론도 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동래에 거점을 두고 경상도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던 최양업으로 여겨진다.

1855년 3월 금강산 유점사에서 온 선사로부터 신인(神人)에게서 얻었다는 『을묘천서(乙卯天書)』라는 기서(奇書)를 얻게 된다. 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하늘에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 을묘천서 사건 이후 한울님에게 기도하여 도를

얻고자 하는 수련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다. 을묘천서는 최제우의 득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양산군 내원암으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수도를 시작한다. 수도생활에 정진하기 위해 1857년 고향의 논 6두락을 팔아, 이 돈으로 울산에 철점(鐵店)을 낸 뒤 부인에게 맡겨 생계를 꾸리게 하였다. 그러나 철점의 경영이 어려워 빚만 지게 되었고,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욱이 앞서 논을 팔 때 2중으로 판 것이 드러나 사기죄로 경주 관아에 고발까지 되었다. 1859년 10월 그는 가족을 이끌고 울산을 떠나 경주 용담정으로 돌아갔다. 이곳에서 정진을 계속하던 그는 마침내 1860년 4월 5일에 득도(得道)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동경대전(東經大全)』 『용담유사(龍潭遺詞)』
 『천도교창건사』, 이돈화, 1933
 『동학사』, 오지영, 1940
 『동학의 사상과 운동』, 최동희, 1980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이현희, 1984
 『도원기서(道源記書)』, 윤석산 역주,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최중현(崔鍾賢, 1929~1998)

기업인. 본관은 수성(隨城). 경기도 수원 출생.

8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52년 서울대학교 화학과 3년을 수료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 유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1956년 경제학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하였다.

1962년 울산에 위치한 선경직물(주) 이사직을 맡으면서 전문 기업경영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뒤 선경직물 대표이사, 선경합섬(주) 대표이사, 선경건설(주) 대표이사, 선경그룹 대표이사회장을 거쳐, 1997년부터는 선경그룹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다음해 선경그룹이 SK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SK그룹 대표이사회장이 되었다. SK그룹을 이끄는 한편으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한·브라질경제협력위원회 한국측 대표위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 경제관련 단체의 주역으로도 활동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사, 현대사회연구소 이사,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문화와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썼다. 안중근의사사업추진위원회 고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고문,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체육 분야에도 족적을 남겼다. 사람을 우선하는 인간위주의 경영, 인간과 일과 경제 환경을 함께 조율하는 합리적인 경영,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내다 보는 경영철학에 근거 한 기업활동으로 우리나라 기업수준을 한 차원 높게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공로에 의해 1971년 국무총리 표창을, 1972년 은탑산업훈장을, 1973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금탑산업훈장을, 1980년 한국능률협회제정 한국의 경영자상을 받았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그의 탁월한 기업경영력은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 더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1995년 국제경제학회 제정 '95국제경영인상, 199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여받았다. 저서 『도전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1992)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그 동안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참고자료】

『도전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최종현,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최진립(崔震立, 1568~163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경주. 경북 경주 현곡면 구미리 출생. 자는 사건(士建). 호는 잠와(潛窩).

증병조참판 신보(臣輔)의 셋째 아들이다. 임란 때 칠촌인 봉천, 동생 계종과 함께 마을 장정과 집안 종들을 모아 창의하였다. 5월 27일 손엽, 권사악, 이눌 등의 의사들과 합세하여 계연에서 적을 무찔렀다. 7월 영천성 복성전(復城戰)에서는 권복시, 손엽, 권사민 등과 함께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159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정유재란 때 결사대 100여 명을 이끌고 서생포에서 야영하던 왜병을 공격하여 큰 공을 세웠다. 훈련원부정으로 선무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그후 오위도총부도사, 마량진첨사, 경원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623년 경흥부사를 시작으로 전라도수사, 공조참판에 특진되고, 경기도수군절도사로 삼도(경기·공청·황해)수군통제사를 겸임했다. 1634년 전라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병자호란 때(1636) 공주영장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향하다 경기 용인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용맹하게 싸우다 순절하였다. 1651년 정무(貞武)란 시호가 내려지고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1686년 경원에 충렬사를 창건 제향하였다. 1711년 경주 내남면 이조리에 송렬사우(崇烈祠宇)의 사액이 내려졌는데, 훗날 용산서원으로 고쳤다. 후손들이 그의 충노(忠奴) 기별과 옥동에 대한 제향도 그의 제일(祭日)에 함께 하고 있다.

용산서원 앞에 신도비가 세워졌다. 유품으로 장검, 벼루, 촛대, 각대(角帶), 옥로잠 등이 전한다. 유집 『잠와실기』가 간행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광해군일기』 『경주읍지』 『선무원종공신녹권』 『인조실록』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최희(崔熙, 1930~2009)

미술가. 일본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縣] 출생. 본명은 최충희.

서울대와 일본에서 미술을 정식으로 공부하였다. 1957년 울산제일중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하면서 울산으로 왔다. 울산제일중학교에서 1년간(1957.3.~1958.3.) 학생을 지도하면서 울산고와 울산농고에도 시간강사로 나갔다. 교사생활 외에 ‘최희화숙(崔熙晝塾)’을 열어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국민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최희화숙에서 그림을 배울 수가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미술학원이었지만 전혀 수강료를 받지 않았다. 아동화에도 관심이 많아 부산의 김종식, 조목하 등과 ‘한국아동화연구회’를 만들어 울산에 아동화를 보급하였다. 당시 그는 일본인 아사리아츠시가 발표한 ‘그림분석을 통한 아동심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아동화연구회’도 그 충격의 결과로 해서 탄생이 되었다.

‘최희화숙’의 학생들이 전시회를 연 것은 1959년 6월 30일이다. 마분지 그림에 액자도 하지않은 채 화실 안 벽에 걸어놓은 그림이었지만 학생전시회로는 울산 최초의 일이다. 1960년 중구 옥교동 회상다방에서 제1회 최희개인전(4월 25일~5월 7일)을 열었다. 천재동의 전시회 이후 울산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서 25점의 유화작품을 선보였는데 한 점도 남김없이 판매되었다. 이후 2003년 회고전까지 12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1960년 『새미술 서양미술사』를 저술하였고, 1964~1970년 서울 어린이 회관 예능부장을 역임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예총20년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 1993

『울산문화』 16집, 울산문화원, 2000

편갈송(片碣頌,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절강. 중국 절강성 출생. 자는 경수(景修), 호는 모헌(慕軒).

명나라에서 어양총절사(漁陽摠節使)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 이여송 휘하의 유격장으로 2,000여 명의 어양병(漁陽兵)을 거느리고 원군(援軍)으로 와서 평양성탈환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달아나는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추격하여 개성과 한성을 수복하고 연전(連戰)·진압하였다.

정유재란 때 마귀제독의 중군도독(中軍都督)으로 원군을 나와 모든 전략을 도맡아 세우면서 남하하는 왜병을 추격하였으나 남원에서 실패하였다. 다시 북상하여 직산(稷山), 소사평(素砂坪)다리 가에 ‘흠차병부상서총독제군문편공갈송승첩비(欽差兵部尙書摠督諸軍門片公碣頌勝捷碑)’와 마귀장군의 ‘위진만맥비(威振蠻貊碑)’가 세워졌다.

그 후 경주를 수복하고 울산에 이르러 언양현감인 창의사 김흔, 통제사 이순신을 도와 적장 가동청정(加藤清正)과 최후의 일전을 겨루어 크게 무찔렀다.

1598년에 전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생포왜성이 있는 서생리의 절벽 위에 「편장군승첩동(片將軍勝捷洞)」이라고 새기고 그 곳을 도독동(都督洞)이라 불렀으며, 철종 조에 전남 나주에 감명사(感明祠)를 세워 공을 배향하였다.

임란 후, 그는 귀국을 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 귀국을 단념하고 우리나라에 살게 되니 절강편씨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에 남았다는 소식을

들은 풍세(豊世) · 풍원(豊源) · 풍산(豊山) 등 세 아들은 아버지를 모셔가기 위해 1601년(선조 34) 조선에 왔다. 이때 경주 금오산에 은거 중인 그를 찾아가 귀국을 권유하였으나, 끝내 귀국하지 않겠다 하여 세 아들 역시 귀국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시봉(侍奉)하기로 하고 조선에 귀화하였다. 그 후 그가 세상을 떠나니 3년을 여묘(廬墓)에서 지극한 애휼(哀毀)로 시묘(侍墓)하여 세칭 '절효(節孝)선생'이라고도 하였다. 이들 형제들은 인조 때 병자호란에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참고자료】

『광주·전남오란(五亂)충의사록』 『나주군지』 『대동씨족고』 『전남도지』
『절강편씨삼세충효록』 『호남삼강록』 『호남지』

한언(韓瑄, ?~?)

조선 후기 문신. 서울 거주.

울산도호부사로 1634년부터 1636년까지 재직하였다. 1634년 9월 20일부터 1635년 4월 30일까지 양전을 하였고, 1635년 결역(結役)을 시작하였다. 울산과 언양, 양산, 동래, 기장 다섯 고을의 도차사원(都差使員)이 되어 각 고을을 다니며 토지 등급의 부정을 적발하였다. 부정이 현저하면 감관 이하는 스스로 판단하여 심문하고 처벌하였다.

【참고자료】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허사남(許士男, 156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김해. 일명은 사남(嗣男).

내금위 윤무(允武)의 아들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의병장 서인충의 휘하에 군관으로 활약하여 곳곳에서 적을 물리쳤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고 훈련원판관으로 제수되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망조당유사』 『선무원종공신녹권』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허황(許璜, 1874~?)

독립운동가.

허황은 1919년 4월 2일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시장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참고자료】

『언양읍지』,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홍란생(洪蘭生, ?~?)

임란 창의의사. 본관은 남양.

임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선조실록』에, ‘군관 부호군 홍란생 고목(軍官 副護軍 洪蘭生 告目)’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생포 근처에 매복하여 적을 치기 위해 경주군관 박춘석(朴春石) 등이 거느린 군과 합세하여 1597년 11월 3일을 기하여 마등오촌(馬等烏村: 현재 울주군 두동면 은편, 이진, 만화리 일대)에서 모여, 야반에 행군하려 할 때 왜병이 불의에 응습하여 왔다. 이때 제군(諸軍)이 크게 역전하였으나 단지 3급 밖에 배지 못하였다. 그날 오전에 허고개(울주군 범서읍 중리에서 두동면 은편리로 넘어가는 고개) 근처로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 올 때, 경주군관 박춘석의 군병(軍兵)과 합세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1597년 11월 2일 태화강전투에 참전한 기록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1597) 11월 28일(을묘)조

홍상빈(洪尙賓, 1672~1740)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남양. 자는 광국(光國).

1705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717년 다시 문과 증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21년(경종 1) 울산도호부사로 부임하여 객사의 비가 새는 곳을 고쳤고, 별공수(別公須)를 중창(重創)하였다.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영당을 철거하였다가, 영조 즉위 후 노론이 집권하자 탄핵되었다. 이후 중용되어 승지로 발탁되었으나 사간원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다시 등용되어 형조참판·동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정족산 운흥사지 입구 바위에 ‘운흥동천(雲興洞天)’이라는 글씨를 남겼다.

【참고자료】

『경종실록』 『국조방목』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숙종실록』 『영조실록』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홍세태(洪世泰, 1653~1725)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남양. 자는 도장(道長). 호는 창랑(滄浪), 유하(柳下).

아버지는 무관이었던 익하(翊夏)이며 어머니는 강릉유씨이다. 5세에 책을 읽고 7~8세에는 글을 지을 만큼 재주가 뛰어났으나 중인이라 벼슬살이에 제약이 많았다. 시로 이름이 나서 김창협, 김창흡, 이규명 등 사대부들과 절친하게 지냈다. 임준원, 최승태, 유찬홍, 김충렬, 김부현, 최대립 등의 중인들과도 시회를 하며 교류하였다.

1675년(숙종 1) 을묘식년시에 갑과인 역과에 응시하여 한학관(漢學官)으로 뽑혀 이문학관(吏文學官)에 제수되었다. 1682년 통신사 윤지완을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1698년 역과 합격 때에 제수된 이문학관에 실제로 부임하였다. 당시 중국 사신이 우리 나라의 시를 보고자 하였을 때 좌의정 최석정이 그의 시를 추천하였다. 숙종에게 호감을 얻어 그 해에 제술관에 임명되었다.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였다가 1702년에 복직하였다. 1705년 둔전장(屯田長), 1710년 통례원 인의(通禮院 引義), 1713년 서부주부 겸 찬수랑(西部主簿兼纂修郎)이 되었다. 1715년 제술관이 되었고, 1716년 의영고 주부(義盈庫 主簿)가 되었으나 이내 파직되었다.

1719년 재능에 비해 궁핍하게 사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이광좌(李光佐)의 도움으로 울산감목관이 되었다. 1722년 제술관, 다음해에는 남양감목관이 되었다. 문장의 재능을 인정받아 여러차례 제술관을 역임하였다.

8남 2녀의 자녀가 모두 앞서 죽어 불행하였다. 이러한 삶은 시풍에도 영향을 끼쳐 암울한 분위기의 시를 많이 남기었다. 중인 신분으로서의 좌절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갈등이 시 속에 담겨있다. 한시에 대한 재능도 널리 인정받았으며, 위항문학(委巷文學)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인층의 문학을 옹호하는 천기론(天機論)을 전개하였다. 위항인의 시를 모아 『해동유주(海東遺珠)』라는 위항시선집을 간행하였다. 죽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시문집을 엮어 자서(自序)를 써서 부인에게 맡겼다. 죽은 지 6년 만인 1731년(영조 7) 사위 조창회(趙昌會)와 그의 문인에 의하여 『유하집(柳下集)』 14권이 간행되었다.

【참고자료】

『농암집(農巖集)』 『명곡집(明谷集)』 『유하집』 『이향견문록(異鄉見聞錄)』

『일사유사(逸士遺事)』 『희조일사(熙朝軼事)』

『조선평민문학사』, 구자균, 19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홍수진(洪銖珍, 1949~1997)

시인. 경남 양산 원동면 원리 출생.

원동초등학교, 부산 대신중학교,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라벌예술대학 문창과를 중퇴하였다. 1970년에 진주 개천예술제 전국백일장 일반부 장원(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1977년에는 시인 이준웅과 2인 시집 『들풀』을 발간하였다. 1980년에 울산MBC에 입사하여 라디오편성부 차장(1990), 편성국라디오 편성부장(1993), 편성국 라디오 제작위원(1997)을 지냈다. 1991년 MBC 전국 프로그램 콘테스트 대상 및 기획상(볼륨을 낮

취라) 수상하였다. 1981년 울산재즈동호회 초대 회장, 1987년 울산연극협회 초대 사무국장, 1991년~1992년 울산 젊은 춤꾼 페스티벌 추진위원장, 1997년 울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시집 『오늘밤 내 노래는 잠들지 않는다』 (1994)와 1주기 유고 문화칼럼집 『변방문화와 문화의 변방』 (1998)이 있다.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2008년 그의 고향인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리 원동의 매화공원에 시비를 건립하였다. 순수하고 겸손하며 인정이 많은 예술가로서 시류나 명예에 휩쓸리지 않고 치열하게 예술적 삶을 살다간 탓에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우리 시대의 마지막 로맨시스트’이자 ‘영원한 자유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포항에서 활동한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냈던 가수 최백호의 노래 ‘영일만 친구’의 실제 모델이다.

【참고자료】

『오늘밤 내 노래는 잠들지 않는다』, 홍수진, 1994

『울산문학사』, 울산문인협회, 2004

홍승순(洪承洵, 1920~2008)

관료.

1962년 6월 1일부터 1964년 5월 10일까지 초대 울산시장을, 1968년 1월 1일부터 1970년 11월 25일까지 제4대 울산시장을 역임하였다. 1962년 2월 3일 울산특정공업센터 기공식에 이어 공업단지 건설과 도시기반 조성 및 대내외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울산시장의 최적임자로 임명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사업으로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당시 대현면 일대 고사동, 부곡동 마을과 대현초등학교 등의 철거작업이 이루어졌다. 철거지역에 속한 마을 사람들의 임시 천막은 한국동란 시 피난민 생활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그는 철거민들과 함께 하며 더불어 잘 살기위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정유공장 건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한국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제4대 울산시장으로 부임하여서는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시행하였고, 제2차 경제개발사업과 급변하는 도시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고자료】

『울산시사』, 울산시, 1987

『울산광역시사』 3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홍억제(洪億濟, ?~?)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남양.

임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우고 순절하였다. 훈련원판관으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

되었다. 「창표당안」에 사절(死節) 10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임란사』, 울산문화원, 1999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홍익대(洪益大, ?~?)

조선 후기 문신. 서울 거주.

1761년(영조 37) 대구관관(判官)에서 울산도호부사로 임명되어 3월 8일에 부임하였다. 1762년과 1763년 두 해에 걸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구휼하였다. 또 동헌(東軒)이 방 1칸, 마루 2칸으로 극히 좁은 것을 1763년 가을에 스스로 물력(物力)을 갖추어 동헌과 마굿간, 문간을 고쳐 지었다. 그때 일학헌(一鶴軒)으로 되어 있던 동헌의 이름을 반학헌(伴鶴軒)으로 바꾸었다. 1764년 3월 8일 말미를 받아 상경하였고 5월 25일 병을 이유로 3번 문서를 올려 체직되었다.

【참고자료】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황희안(黃希安, 1576~?)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평해. 경북 경주 양남면 석촌리 출생. 자는 안숙(安淑). 호는 경초당(勁草堂).

빈(飢)의 아들이다. 임란 때 10대의 어린 나이로 창의하여 동해로 침범하는 적을 방어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으며, 9월 제2차 경주성복성전에서는 판관 박의장의 막하에서 장좌(將佐)로 임명되어 많은 적을 주살시켰다. 1593년 10월 울산의 구강회맹에도 참여하였다.

1597년 9월 23일 방어사 권응수가 주도하는 팔공산성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란이 끝난 뒤인 1599년 12월 27일 국왕이 선유어사(宣諭御史) 윤휘를 경주객관으로 보내 베푼 선무위로연에 215명의 경주 의사들 중 수장(首將)으로 초대되었다.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절충장군 부호군으로 제수되었다. 『경초당창의록』(1960)이 전한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선유기사」 『경주읍지』 『경초당일기』

『경주임란의사창의록』, 경주임란의사추모사업회, 1998

황희정(黃希貞, 1562~?)

선무원종공신. 본관은 창원.

수군 개시(介屎)의 아들이다. 임란이 일어나자 의병에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주부(主簿)로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창표당안」에 생절(生節) 28원(員) 중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울산 충의사에 배향되었다.

【참고자료】

「창표당안」

『울산의 충의정신』, 울산의충의정신편찬위원회, 2005

울산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의 울산은 가장 먼저 전장(戰場)이 되었다. 이에 울산지역의 관원과 지역민들은 적극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전쟁에 참여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동해안으로 침입하는 적을 공암, 하서, 석읍, 우산 등지의 요로에 복병·기습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특히 울산 의사들은 동대산 기박산성에서 창의 거병하였고, 6월 9일 문천회맹에 참여하였다. 다음해(1593) 2월 태화강전투에 참전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며, 10월에는 구강회맹에도 참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좌병영 탈환계획에 동참하여 왜병을 몰아내고 병영을 회복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태화강전투, 성황당전투, 마등오전투, 소등전투, 대천제전투, 서생포전투 등 여러 번의 전투에서 대첩을 거두었다. 또한 그 권역을 넓혀 영천성과 경주성복성전 등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웠다.

한편, 1597년 정유재란 때 울산의 의병들은 그 활동범위를 보다 넓혀 팔공산회맹, 화왕산회맹에 참여하였으며, 12월에 울산 도산에 적이 대거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합심하여 용맹하게 싸웠다. 이러한 많은 전과는 많은 희생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것인데, 그 희생자의 수는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다.

본문에 소개하지 못한 선무원종공신과 임란 창의의사들은 다음과 같다.

강기경(姜起敬, ?~?), 건림(堅霖, 1546~?), 김건(金健, 1582~?), 김경두(金景斗, ?~?), 김경렬(金景烈, ?~?), 김대성(金大成, ?~?), 김덕룡(金德龍, 1554~?), 김석(金石, 1565~?), 김수운(金水雲, ?~?), 김실(金實, 1576~1638), 김언서(金彦瑞, ?~?), 김언옥(金彦玉, ?~?), 김영지(金榮智, ?~?), 김윤(金允, ?~?), 김윤룡(金潤龍, ?~?), 김응생(金應生, 1564~1647), 김응택(金應澤, 1551~1597), 김정서(金廷瑞, ?~?), 김준민(金俊民, ?~?), 김흥립(金興立, ?~?), 김희(金禧, ?~?), 노응성(盧應星, ?~?), 류태영(柳泰英, 1567~?), 문학(文學, ?~?), 박대수(朴大壽, 1571~1640), 박수(朴守, 1570~?), 박춘기(朴春起, ?~?), 박희일(朴希日, ?~?), 백용호(白龍虎, ?~?), 선극례(宣克禮, 1557~1598), 신명억(辛命億, ?~?), 양부(梁溥, ?~?), 오심(吳愷, 1563~1611), 윤현(尹倪, ?~?), 이경남(李慶男, ?~?), 이기복(李起福, 1568~1595), 이복중(李福重, ?~?), 이섬(李暹, 1571~1628), 이세훈(李世勳, ?~?), 이수익(李守義, ?~?), 이승춘(李承春, ?~?), 이언량(李彦良, ?~1601), 이열(李說, 1553~?), 이우춘(李遇春, 1530~1579), 이응원(李應元, ?~?), 이응진(李應珍, ?~?), 이충(李忠, ?~?), 이충립(李忠立, 1582~1662), 임련(林連, ?~?), 임막산(林莫山, ?~?), 전영(全璣, ?~1592), 정공작(鄭公綽, ?~?), 정광윤(鄭光胤, 1555~1611), 정언충(鄭彦忠, 1548~?), 정인서(鄭麟瑞, ?~?), 조운복(曹允福, 1567~?), 정호생(鄭好生, 1578~?), 지수환(池守還, ?~?), 차응수(車應守, ?~?), 천복(千福, ?~?), 최억명(崔億命, ?~?), 최정(崔汀, 1567~1643), 최홍(崔弘, ?~?), 최홍검(崔弘儉, ?~?), 최환(崔環, ?~?), 황민중(黃敏中, 1544~?)

6·25전쟁과 울산사람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이다. 전쟁발발과 더불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라고 선언하였고, 북한으로 하여금 즉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군시킬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엔의 요청은 북한에 의해 계속 묵살된 채 전쟁은 계속되었고, 이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조치를 추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은 6월 27일에는 이미 서울을 점령하기에 이르렀고, 7월 3일에는 한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진을 계속하였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보병사단이 즉시 한국으로 이동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전세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유엔군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하여 항쟁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렸으며, 북한군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한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을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9월 15일 새벽에 인천 월미도에 기습상륙하였으며 인천을 되찾고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수복하였다. 또한 38선 이북까지 올라가 한반도의 회복을 목전에 두었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후퇴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정전협정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이 철저한 전쟁준비를 통해 기습적으로 남침하였기 때문에 남한의 희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초기 국군들의 희생은 물론이고, 파죽지세로 밀어 붙이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한 국군의 지속적인 방어로 희생은 수없이 늘어만 갔다. 특히 낙동강 전선의 배후에 있었던 울산은 그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의 학생과 장정들이 학도병, 군인으로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장렬히 전사하였고, 또 일부는 울산지역의 빨치산 도발을 막아내는 데 참여하여 희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6·25전쟁은 비록 울산지역까지 확대되어 울산에서 실질적인 전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울산사람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충만한 가운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쟁에 적극 참가하여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장렬히 순국한 분들이 많았다.

감중수(육군 상병), 강무상(육군 상사), 강석문(육군 하사) 강성도(육군 상사) 강성용(육군 대위), 강수종(육군 하사), 강인식(육군 중사), 강중희(육군 병장), 강찬중(육군 하사), 고기동(육군 중사), 고길수(육군 하사), 고진원(육군 상병), 공윤암(육군 하사), 곽내신(육군 중위), 곽영오(육군 중위), 구정환(육군 중사), 권봉춘(육군 일병), 권삼원(육군 일병), 권영출(육군 하사), 권영택(육군 상사), 권영학(육군 중사), 권영호(육군 상병), 권오영(육군 하사), 권우량(육군 하사), 권운수(육군 중사), 권재수(육군 병장), 권택만(육군 일병), 권형석(육군 하사), 김경화(육군 중사), 김군선(육군 소령), 김귀용(육군 상병), 김규천(육군 중사), 김규철(공군 대령), 김기상(육군 하사), 김기수(육군 상사), 김기업(육군 상병), 김기찬(육군 중령), 김기찬(육군 병장), 김길모(육군 일병), 김

남제(해군 상사), 김남준(육군 일병), 김달수(육군 하사), 김도천(육군 하사), 김도호(육군 소령), 김도환(육군 상사), 김동만(육군 하사), 김동수(육군 일병), 김동식(육군 하사), 김동주(육군 하사), 김동한(육군 상사), 김동호(육군 중사), 김두식(육군 상병), 김두식(육군 병장), 김두조(육군 중령), 김락인(공군 상사), 김만봉(육군 병장), 김말조(육군 하사), 김명섭(육군 중사), 김명인(육군 병장), 김명출(육군 상병), 김방환(육군 대위), 김범식(육군 상사), 김병술(육군 상병), 김병오(육군 일병), 김병옥(해군 하사), 김복수(육군 대위), 김봉관(육군 상사), 김봉출(육군 하사), 김봉한(육군 상사), 김분석(육군 상사), 김상덕(육군 하사), 김상래(육군 중사), 김상민(육군 중사), 김상용(육군 병장), 김상필(육군 하사), 김서동(육군 중사), 김석곤(육군 **), 김석구(육군 하사), 김석봉(육군 상병), 김석수(육군 병장), 김석수(육군 상사), 김석원(육군 하사), 김석주(육군 병장), 김석필(육군 상사), 김성규(육군 중사), 김성운(육군 하사), 김소출(육군 하사), 김수진(육군 상사), 김수학(육군 병장), 김승태(육군 하사), 김신울(해군 대위), 김암(육군 일병), 김양호(육군 상병), 김영규(육군 상사), 김영도(육군 하사), 김영수(육군 대위), 김영수(육군 병장), 김영준(해군 상병), 김영준(육군 하사), 김영호(육군 하사), 김영호(육군 상병), 김용덕(육군 중사), 김용덕(육군 일병), 김용복(해군 상사), 김용석(육군 하사), 김용수(육군 상병), 김용수(육군 중령), 김용조(육군 상병), 김용준(공군 중사), 김용진(육군 상병), 김용태(육군 중사), 김용택(육군 중사), 김우석(육군 병장), 김옥생(육군 일병), 김원석(육군 하사), 김원수(공군 상사), 김원수(육군 상병), 김원수(육군 소위), 김원식(육군 병장), 김원조(육군 하사), 김원찬(육군 하사), 김유복(육군 하사), 김의도(육군 중사), 김이득(육군 하사), 김인규(육군 상사), 김일팔(육군 하사), 김일홍(육군 일병), 김임상(육군 병장), 김임주(육군 중사), 김장선(육군 상사), 김장하(육군 하사), 김재걸(육군 병장), 김재규(육군 상병), 김재명(육군 하사), 김재복(육군 하사), 김재상(육군 하사), 김재열(육군 대위), 김재현(육군 소령), 김재호(육군 소위), 김점돌(육군 병장), 김정관(육군 하사), 김정수(육군 중사), 김정식(육군 중사), 김정옥(육군 중사), 김정일(육군 병장), 김정태(육군 하사), 김종건(육군 하사), 김종선(육군 하사), 김종수(공군 준위), 김종식(육군 병장), 김종열(육군 하사), 김종철(육군 하사), 김준식(육군 중위), 김준환(육군 병장), 김진성(육군 병장), 김진식(육군 하사), 김진형(육군 하사), 김창조(육군 병장), 김창택(육군 하사), 김창한(육군 하사), 김창호(육군 하사), 김채경(육군 중사), 김채영(육군 하사), 김청용(육군 하사), 김초향(육군 상사), 김태구(육군 하사), 김태봉(육군 상사), 김태섭(육군 일병), 김판용(육군 병장), 김팔용(육군 하사), 김필목(육군 중사), 김하용(육군 일병), 김학용(육군 하사), 김향곤(육군 중사), 김형생(육군 하사), 김형열(육군 상병), 김호민(해군 상사), 김호수(육군 병장), 김희로(육군 하사), 남중호(육군 상사), 노관수(육군 일병), 노병의(해군 소령), 노상출(육군 하사), 노진술(육군 상병), 노홍수(육군 중사), 류만득(육군 일병), 류일영(육군 하사), 류제옥(육군 하사), 마준영(육군 소령), 문경용(육군 하사), 문성주(육군 상사), 문영균(육군 대위), 문우일(육군 하사), 문정길(육군 상병), 박경주(해군 하사), 박광재(육군 상병), 박구호(육군 병장), 박금진(육군 상사), 박기도(육군 병장), 박기배(육군 하사), 박길용(육군 병장), 박노도(육군 하사), 박동근(육군 병장), 박동주(육군 하사), 박두만(육군 병장), 박래화(육군 하사), 박만호(육군 병장), 박명규(육군 하사), 박문석(육군 상병), 박문수(육군 병장), 박병규(육군 하사), 박병채(육군 하사), 박삼준(육군 중

사), 박상권(육군 하사), 박상덕(육군 상사), 박상용(육군 병장), 박상하(육군 일병), 박
 서규(해병 상병), 박석기(육군 하사), 박석용(육군 병장), 박석호(육군 일병), 박성곤(육
 군 하사), 박성덕(육군 준위), 박성득(육군 일병), 박성만(육군 중사), 박세충(해군 중
 령), 박수천(육군 병장), 박순기(육군 하사), 박순석(육군 상사), 박승엽(육군 소령), 박
 시호(육군 병장), 박연목(육군 하사), 박영규(육군 병장), 박영도(육군 중사), 박영수(해
 군 하사), 박영춘(육군 병장), 박영출(육군 하사), 박영화(육군 일병), 박용상(육군 하
 사), 박용수(육군 하사), 박유천(해군 상사), 박인관(육군 상사), 박인덕(육군 하사), 박
 재근(육군 상병), 박재수(육군 하사), 박재호(육군 하사), 박재호(육군 상병), 박종우(육
 군 하사), 박종철(육군 하사), 박주천(육군 상병), 박창송(육군 하사), 박춘근(육군 하
 사), 박춘일(육군 하사), 박타현(육군 상사), 박태빈(육군 상사), 박혜선(육군 상사), 박
 혜오(육군 하사), 박후근(육군 하사), 방용송(육군 하사), 배남계(육군 상병), 배대탁(육
 군 하사), 배봉준(육군 일병), 배상욱(육군 상병), 배춘규(육군 병장), 백남덕(육군 상
 병), 백성욱(경찰,경사), 백완덕(육군 대위), 백윤일(육군 하사), 변경필(육군 중사), 변
 문섭(육군 하사), 변윤종(육군 병장), 변창석(육군 하사), 변치용(육군 하사), 서걸원(육
 군 상병), 서경석(해군 중사), 서달규(육군 하사), 서달규(육군 하사), 서덕술(육군 하
 사), 서동규(육군 중사), 서상구(육군 하사), 서상도(육군 중사), 서상철(육군 하사), 서
 석재(육군 상병), 서성수(육군 병장), 서수일(육군 하사), 서유근(육군 상병), 서재수(해
 병 병장), 서정운(육군 상사), 서진문(육군 하사), 서흥모(육군 상사), 성경필(육군 병
 장), 성금모(육군 병장), 성영학(육군 일병), 손동철(육군 상사), 손라구(육군 대위), 손
 영달(육군 하사), 손익득(육군 일병), 손제근(육군 하사), 손진권(육군 **), 손진태(육군
 하사), 손충배(육군 상병), 손대용(경찰 순경), 송대준(육군 상사), 송병헌(육군 병장),
 송수만(육군 하사), 송태원(육군 준위), 송택일(육군 상사), 송판권(육군 대위), 신동철
 (육군 병장), 신동춘(육군 하사), 신병주(육군 중사), 신상중(육군 준위), 신성교(육군 중
 사), 신승재(육군 중사), 신인하(육군 중사), 신진호(육군 병장), 신차현(육군 일병), 신
 특이(육군 하사), 신한균(육군 일병), 신해룡(육군 하사), 신현찬(육군 하사), 심석구(육
 군 하사), 심수봉(육군 일병), 안명식(육군 병장), 안병찬(육군 하사), 안성식(육군 하
 사), 안외술(육군 하사), 안재만(육군 중사), 안창덕(육군 하사), 안효선(해군 상사), 양
 부석(육군 하사), 양수학(육군 중사), 양이환(해군 소령), 양재택(육군 중사), 엄기표(육
 군 소장), 오반식(육군 소령), 오운택(육군 하사), 오종환(육군 일병), 우수윤(육군 하
 사), 우진숙(육군 일병), 우창현(육군 대위), 우춘호(육군 하사), 원종대(육군 대위), 유
 경선(육군 하사), 유두화(육군 병장), 유봉식(육군 상병), 유상철(육군 **), 유진각(육군
 중사), 유형식(육군 상사), 유홍조(육군 하사), 윤광덕(육군 상병), 윤병하(기타), 윤상국
 (육군 하사), 윤성건(육군 상사), 윤수해(육군 일병), 윤승걸(육군 병장), 윤원술(육군 중
 사), 윤재환(육군 중사), 윤종열(육군 병장), 윤주신(육군 중사), 윤진동(육군 하사), 윤
 특조(육군 일병), 윤해운(육군 하사), 윤희봉(육군 하사), 은두기(육군 상사), 이걸(육군
 일병), 이경연(해군 상사), 이관락(육군 대위), 이관우(육군 하사), 이규명(육군 상병),
 이기봉(육군 하사), 이기수(육군 병장), 이기행(육군 하사), 이남조(육군 하사), 이남태
 (육군 하사), 이동겸(육군 하사), 이동화(육군 준위), 이두조(육군 병장), 이만조(육군 하
 사), 이무길(육군 하사), 이문걸(육군 병장), 이문길(육군 중사), 이병익(육군 병장), 이
 병태(육군 하사), 이복우(육군 하사), 이복희(육군 하사), 이사덕(육군 준위), 이삼량(해

군 준위), 이상도(육군 하사), 이상수(육군 병장), 이상열(해군 대령), 이상욱(육군 하사), 이상천(육군 하사), 이상태(육군 하사), 이석근(공군 중사), 이석수(육군 하사), 이석우(육군 일병), 이석조(육군 하사), 이선태(육군 중사), 이수국(육군 하사), 이수학(육군 하사), 이승길(육군 하사), 이승두(육군 중위), 이승조(육군 하사), 이실근(육군 하사), 이영구(육군 상병), 이영수(육군 하사), 이영은(육군 병장), 이영주(육군 하사), 이영희(육군 병장), 이용희(육군 상사), 이우연(육군 중사), 이우조(육군 중사), 이원석(육군 병장), 이익섭(군무원,사무관), 이익식(육군 소령), 이인교(육군 하사), 이일용(육군 병장), 이일조(육군 병장), 이자우(육군 중사), 이장우(육군 중위), 이재원(육군 병장), 이재원(육군 하사), 이정덕(육군 하사), 이정수(육군 하사), 이종관(육군 하사), 이종구(육군 하사), 이종덕(육군 하사), 이종필(육군 하사), 이진수(육군 하사), 이진수(육군 하사), 이진우(육군 상병), 이창락(육군 병장), 이창울(육군 대령), 이채원(육군 병장), 이철우(경찰,순경), 이태수(육군 하사), 이태용(육군 하사), 이필환(육군 상병), 이학문(육군 하사), 이해용(육군 준위), 이형우(육군 상사), 이호덕(육군 병장), 이화남(육군 중사), 이효현(육군 중사), 인상선(육군 하사), 임경선(육군 하사), 임기호(육군 중사), 임병득(육군 하사), 임완식(육군 일병), 임일환(육군 일병), 임정원(육군 중사), 임종완(육군 중사), 임종철(육군 중사), 임채봉(육군 병장), 임홍열(육군 중사), 장갑식(육군 중사), 장길수(육군 중사), 장길용(육군 상사), 장대순(육군 상사), 장명열(육군 하사), 장문익(육군 일병), 장병률(육군 중사), 장복조(육군 하사), 장봉규(육군 중사), 장선규(육군 하사), 장성재(육군 하사), 장완상(육군 상병), 장원달(육군 하사), 장인환(육군 일병), 장재득(육군 중사), 장지철(육군 하사), 장차천(육군 상병), 장학순(육군 병장), 장한권(육군 중사), 장한식(육군 하사), 전근봉(육군 하사), 전덕출(해군 상병), 전상병(육군 병장), 전상진(육군 하사), 전석태(공군 소령), 전재만(육군 병장), 전종태(육군 소위), 정금선(육군 하사), 정기영(육군 하사), 정도학(육군 병장), 정두만(육군 상사), 정두찬(육군 하사), 정복용(육군 병장), 정봉헌(육군 병장), 정성갑(육군 병장), 정수관(육군 중사), 정수찬(육군 하사), 정영구(육군 하사), 정영우(육군 하사), 정용대(육군 하사), 정우식(육군 하사), 정원생(육군 이병), 정이길(육군 상사), 정인구(육군 하사), 정인돌(육군 하사), 정재동(육군 하사), 정재용(육군 하사), 정정환(육군 병장), 정주석(육군 중사), 정창식(육군 중사), 정천훈(육군 하사), 정철수(육군 하사), 정철화(육군 중사), 정태윤(육군 상사), 조귀성(육군 하사), 조용기(육군 하사), 조윤행(육군 중사), 조점조(육군 중사), 조학래(육군 병장), 조희제(육군 일병), 조희현(육군 중사), 주동출(육군 상병), 주성용(육군 하사), 주윤명(육군 상병), 주정구(애국단원), 주초희(육군 중위), 지명동(육군 소령), 지의원(육군 하사), 진도상(육군 중사), 진봉준(육군 하사), 진재천(육군 상병), 진종택(육군 병장), 차동출(육군 병장), 차영섭(육군 소령), 차이근(육군**), 차정근(육군 일병), 채삼중(육군 상사), 채일석(육군 중령), 채한경(육군 중사), 천금도(육군 중위), 최경준(육군 중사), 최경호(해군 하사), 최규철(육군 상사), 최기복(육군 상사), 최대수(육군 중사), 최두량(육군 하사), 최말암(육군 병장), 최문도(육군 하사), 최복동(육군 대위), 최봉건(육군 대위), 최봉용(육군 소령), 최상수(육군 하사), 최상호(육군 하사), 최석운(육군 하사), 최성해(육군 상사), 최영덕(육군 대위), 최원준(육군 중사), 최인걸(육군 하사), 최정수(육군 병장), 최종모(육군 일병), 최종진(해군 하사), 최주해(육군 상사), 최준규(육군 하사), 최진수(육군 하사), 최태근(육군 병장), 최

해도(육군 상병), 최해문(육군 하사), 최해선(육군 중사), 최해윤(육군 하사), 최해익(육군 하사), 최현구(육군 일병), 최현식(육군 상병), 최홍수(육군 하사), 최희락(육군 병장), 탁동섭(육군 **), 하봉용(육군 하사), 하용정(육군 상병), 한갑수(육군 병장), 한국병(육군 하사), 한동규(육군 병장), 한무옥(육군 하사), 한부근(육군 중사), 한상호(육군 일병), 한석락(육군 병장), 한영율(육군 병장), 허건(육군 상병), 허창희(해군 상사), 허태문(육군 상사), 허태준(육군 대위), 현상술(육군 상사), 현정용(육군 상사), 홍광섭(육군 중위), 홍복섭(육군 일병), 홍상이(육군 하사), 홍성기(육군 상병), 홍순도(육군 병장), 홍순민(육군 하사), 홍순철(육군 하사), 홍순해(육군 상사), 홍정표(해군 대위), 홍종권(해병 상사), 홍종수(육군 중사), 홍태근(육군 중사), 홍하식(육군 병장), 홍환표(육군 일병), 황경규(경찰 경사), 황금득(육군 상사), 황기익(육군 중사), 황대환(육군 하사), 황만찬(육군 하사), 황보민(육군 상병), 황복환(육군 하사), 황상철(육군 하사), 황석문(육군 중사), 황성출(육군 병장), 황용건(육군 중사), 황일수(육군 하사), 황재수(육군 상사), 황재수(육군 하사), 황종원(육군 소령), 황치상(육군 상사)